

新羅 景德王代(742~765)의 국내외정세와 對日外交

金 善 淑*

1. 머 리 말
2.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
3. 752년 金泰廉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
4. 日本의 新羅侵攻計劃과 新羅使의 渡日
5. 맺 음 말

1. 머 리 말

景德王代는 新羅政治史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景德王은 24년의 오랜 재위기간동안 성덕왕과 효성왕의 뒤를 이어 王權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政策을 펼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의 정치세력들은 왕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경덕왕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들 세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억제함으로써 왕권강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경덕왕대(742-765)는 특히 왕권이 매우 신장되던 시기로 그 영향이 신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덕왕의 정책이 왕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당시의 외교관계,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일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는 왕권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덕왕대에 단행된 신라사의 일본파견은 모두 5회, 일본사의 신라파견은 3회에 불과하다. 이는 양국 사이에 진행된 대개의 교섭에 있어서 경덕왕의 재위기간이 성덕왕보다 짧은 24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덕왕이 재위한 30여 년동안 양국 모두 11회를 파견한 점에 비한다면 소원한 관계였다. 그나마 진행된 양국의 외교도 752년과 764년을 제외하면 대개가 증여물과 같은 외교형식 등의 문제로 인해 충돌을 빚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입장 및 국내정세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그러한 측면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고대 동북아세계에 있어서의 渤海와 唐이라고 거대한 두 세력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은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변화에 따라 신라가 발해 및 일본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음은 물론이고 발해와 일본이 양국의 적대국인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친교관계를 맺은 것으로 설명해왔다.¹⁾ 이러한 통설적인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

1)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는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발해와 일본 공동의 적으로서 '신라'를 설정하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발해와 일본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759년에서 763년에 걸쳐 진행된 일본의 소위 '신라정토계획'은 당의 '安史의 亂'과 관련하여 발해와의 군사적 도모를 통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주로 일인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거의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조이욱, 『8세기 중엽 발해와 일본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171-172쪽).

들도 있다.

즉, 당시 신라와 발해는 732년의 말갈과 당, 발해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한때 對峙狀態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았으며 평화적인 교섭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그것이다.²⁾ 필자 역시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으로 경덕왕대에 이례적인 신라사절단이라 할 752년경 신라사 김태림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일본의 신라 침략계획을 둘러싼 동북아정세 등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외 정세변화가 경덕왕대의 對日外交에서 과연 어떤 작용을 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

경덕왕이 즉위하기전 효성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王子가 없었다.³⁾ 이로 말미암아 효성왕대에는 왕비와 후궁세력 간의 알력⁴⁾ 및 그의 형제들을 둘러

2) 송기호, 『발해 문왕대의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학회, 1992.

김은국, 『新羅道를 통해 본 발해와 신라관계』,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1999.

구난희,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10, 1999.

조이옥, 앞의 논문, 2002;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元年條에 의하면 경덕왕 현영은 효성왕의 同母弟라 한다.

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孝成王 4年條 8月에 의하면 “波珍浪永宗謀叛 伏誅 先是 永宗女入後宮 王絶愛之 恩渥日甚 王妃嫉妬 與族入謀殺之 永宗怨王妃宗黨 因此叛”이라 하여 파진찬 영종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이에 앞서 후궁으로 들어간 영종의 딸이 왕비의 질투

러싼 정치세력간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경덕왕은 김순원·김순정 세력의 도움으로 王位를 차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⁵⁾

이처럼 신라의 왕권은 불안정했다. 경덕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王座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경덕왕은 효성왕의 弟이며 太子로서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성덕왕 27년(728, 唐 開元 16)에 당으로 건너간 그의 형 無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가 머물고 있던 淨衆寺에까지 자객을 보낸 일이 있었다.⁶⁾

경덕왕은 왕위에 오르기전 이미 김순정의 딸인 三毛夫人과 혼인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경덕왕은 삼모부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즉위 즉시 그녀를 출궁시키고 대신 김순정의 손녀이며 金義忠의 딸인 滿月夫人과 재위 2년만인 743년에 혼인하였다. 결국 경덕왕은 재위한 지 17년만인 758년에 그토록 원하던 왕자 乾運을 낳는데 겨우 성공할 수 있었고 출생한 지 불과 2년(760)도 안 된 王子 乾運을 급히 太子로 책봉하였다.⁷⁾

경덕왕의 아들에 대한 강한 집념은 왕권은 물론이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

로 인해 살해당하자 영종이 왕비종당을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대체로 김순원이라는 외척세력의 지위를 둘러싼 압력 내지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세에 대한 저항, 각 파벌간의 대립, 불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の變遷過程』, 『新羅史基礎研究』, 1974, 455-456쪽; 이호영, 『신라 중대왕실과 봉덕사』, 『사학지』 8, 1974, 11쪽; 김수태, 『신라 성덕왕·효성왕대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 『동아연구』 3, 1983, 226쪽). 필자 역시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효성왕의 총애를 둘러싸고 벌어진 후궁과 왕비간의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왕좌를 둘러싼 각 세력간의 권력다툼으로 보고 있다.

5) 경덕왕, 즉 태자시절의 憲英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金順元·金順貞 등은 성덕왕대와 효성왕대의 왕비교체 및 현영의 태자책봉, 경덕왕과의 혼인관계 등을 통해 서로 상당한 친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연구원, 2003, 126쪽). 한편 김수태는 김순원과 김순정을 각각 전제주의 옹호세력과 반전제주의 세력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앞의 논문, 1983, 219-228쪽).

6) 『宋高僧傳』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智詵禪師).

7) 『三國遺事』卷1, 王曆 第三十五景德王 및 第三十六惠恭王條;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2年(743) 夏 4月條, 同王 17(758)年 秋 7月條, 同王 19(760)年 秋 7月條.

하기 위한 바램에서 비롯되었다.⁸⁾ 그 같은 경덕왕의 면모는 당시 신라 최고의 승려인 表訓大德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일화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⁹⁾ 그런데 경덕왕이 즉위한 해인 742년 10월(경덕왕 원년)에 日本國使가 來朝하였다.

그러나 경덕왕은 일본사를 접견하지 않았다.¹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시의 신라정세는 孝成王의 喪과 경덕왕의 등극 및 三毛夫人의 出宮 등으로 이어지던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조정에서는 일본사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일본사절이 先王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¹¹⁾ 왜냐하면 신라조정은 日本國使가 자국에 來朝한 바로 직후인 경덕왕 2년 3월에 唐國에서 보낸 弔祭使·冊封使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일본조정이 비슷한 시기인 天平 13년(741)과 14년(742)에 遣新羅使를 임명한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만일 사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신라로부터 『三國史記』의 글대로 非禮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본측의 怒한 문장이라도 『續日本紀』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경덕왕 원년의 日本國使의 新羅來朝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¹³⁾

8) 박해현은 반대세력이 無子를 구실로 정치적 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순정 가문에서 새 왕비를 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삼모부인과 경덕왕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앞의 책, 2003, 126-127쪽).

9) 『三國遺事』 卷2, 紀異 景德王 忠談寺 表訓大德條.

10)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元年(742)條 “冬十月 日本國使至不納”.

11) 이때 일본조정에서 신라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김은숙,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국사관논총』 29, 1991, 122쪽).

12)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2年 春 3月條.

13)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 1924, 53-54쪽.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점인 孝成王 末年(742)에 新羅使 金欽英 등 117명의 일행이 일본의 大宰府에 당도했을 때 일본조정에서는 새로운 수도의 宮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라사절단을 入京시키지 않고 그곳에서 향연만을 베풀고 그대로 放還¹⁴⁾해 버린 일이 있었다.¹⁵⁾ 이 같은 일본 조정의 조치는 新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藤原廣嗣의 亂과 같은 일본 내에서 벌어지던 어수선한 정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¹⁶⁾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경덕왕 즉위 초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국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일본사신이 신라에 왔던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경덕왕은 唐使와 다르게 일본사신을 직접 접견하지 않았다. 경덕왕은 재위 기간동안 父王이신 聖德王이 그랬듯이 왕권강화 및 국내안정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제반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唐과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덕왕이 재위 24년간 11차례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¹⁷⁾ 그러므로 경덕왕의 입장에서 唐使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각별할 수밖에 없었으며 日本使에 대한 태도와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덕왕은 日本國使가 신라에 來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743년에 金序貞 등 新羅使 일행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물론 일본조정은 筑前に

14) ‘放還’에 대해 종래에는 주로 신라와 일본간의 관계악화를 전제로 하여 追放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파악해왔지만 국내사정에 따라 ‘사절을 돌려보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박석순, 『일본 율령국가의 왕권과 대 신라외교』,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신라사절放還과 일본의 왕권』,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경인문화사, 2002).

15) 『續日本紀』 卷14, 聖武天皇 天平 14年(742)條.

16)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條.

박석순은 일본이 신라사를 入京시키지 않은 요인으로 740년(天平 12) 9월에 일어난 太宰府의 藤原廣嗣의 亂과 그후 계속되던 귀족정변 및 太宰府의 폐지 등 복잡한 일본의 국내사정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2002, 208쪽).

17) 조이욱, 앞의 책, 2001, 139-143쪽.

보낸 多治比眞人土作과 葛井連廣成을 통해 신라사가 자국에 증여할 물품을 ‘土毛’라고 칭하며 物數만을 적어 제출한 일에 대해 常禮를 크게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라사절을 放却시켜 버렸다.¹⁸⁾

여기에서 신라사절이 贈與物을 ‘土毛’라 칭한 사례는 일본사서에 의하는 한 743년 이외에 그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일이다.¹⁹⁾ 또한 신라측이 대일증여물을 ‘土毛’이라고 하고 物數만을 적은 것에 대해 지적한 일도 없었다. 원래 ‘土毛’란 용어는 땅에서 나는 풀, 곡식, 채소 따위를 말한다.²⁰⁾

일본의 養老令 賦役令에도 土毛條²¹⁾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일본 고대 율령에 있어서의 土毛는 단지 해당지역에서 공납해야 할 물품으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보내오는 생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土毛는 ‘調’와 수취품목과 수취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上下關係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²²⁾

18) 『續日本紀』卷14, 聖武天皇 天平 15年(743) 3月條.

19) 신라사가 ‘土毛’라 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신라사에게 항의한 점과 관련하여 田村圓澄은 土毛가 동등한 지위,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상호 교환하는 증여품을 말하고 상하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調’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본조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며 또한 일본조정에서 ‘土毛’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신라사의 ‘調’를 매개로 한 양자의 기본적인 관계, 즉 신라는 부용국, 일본은 종주국이라는 설정을 자국에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달기도 한다(『平城京と新羅使』, 『日本學』 8・9합집,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35쪽). 김창석은 신라사가 ‘土毛’라 개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항의한 사실이 그 전에는 신라가 일본측의 ‘貢調’인식을 외교적으로 양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절의 경우에는 일본조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를 ‘調’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8세기 신라·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 『역사학보』 184, 2004, 12쪽). 이에 반해 김은숙은 신라사가 土毛라 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에서 신라의 선물을 朝貢國의 ‘調’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신라측이 ‘調’가 아님을 주장한 것이며 일본측의 대신라외교형식을 확인한 신라측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앞의 논문, 1991, 122쪽).

20) 『左傳』昭公 7年條“封略之內 何非君土 食土之毛 誰非君臣”; 『後漢書』馬融傳“其土毛則摧牧 薦草 芳茹 甘茶<李賢注> 毛 草也”(『漢韓大辭典』 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21) “凡土毛臨時應用者 竝准當國時價 價用郡稻”.

22) 연민수, 『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 『강좌 한국고대사』 4, 2003, 249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04, 29-30쪽.

이는 ‘土毛’라는 용어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경덕왕대 이전에는 신라의 對日贈與物이 일본지배층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진귀한 物品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²³⁾ 당시 신라사 김서정이 일본에 가져온 물품은 신라에서 생산되는 토산물 위주로 간소하게 채워졌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신라사가 증여물을 제공하면서 상세한 품목이나 수량 등을 일본조정에 알리는 성의를 보여준 반면 경덕왕대에 들어와서는 신라사 김서정이 일방적으로 증여물을 土毛라 하여 物數만을 적어 보낸 사실에 대해 일본측은 常禮를 잃은 것이라고 하며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덕왕은 일본사신을 不納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전례와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성하여 증여하였다. 경덕왕은 왕권과 왕위계승에 대한 강한 집착의 소유자다. 경덕왕의 왕권과 왕위계승에 대한 강한 집념은 다양한 제도개혁과 그대로 연결된다. 경덕왕은 국내안정을 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왕 8년(749)에 과학분야의 天文博士 1員과 漏刻博士 6員을 증치하였다. 이는 각종 自然災害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긴요한 조치였다.²⁴⁾ 그는 孝를 권장하기 위해 孝를 실천한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 旌閭表彰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²⁵⁾

경덕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를 배치한다거나, 기존 관부의 명칭을 보다 선명하고 세련된 용어로 바꾸는 한편, 기존의 관부에 인원을 좀더 보강하는 조치와 같은 일련의 제도정비와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경덕왕대에 진행된

23) 金善淑, 『新羅 聖德王・孝成王代の 對日外交』, 『大東文化研究』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2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8年條“春二月 暴風拔木 三月 置天文博士一員 漏刻博士六員”.

2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4年 春條; 『三國遺事』卷5, 孝善 向得舍知割股供親條.

26)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8年(749) 3月 및 9年(750) 2月, 11年(752) 秋 8月 및

문화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가령, 경덕왕은 왕 13년(754)에 父王이신 성덕왕에 대한 崇仰을 후세에 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聖德王碑를 건립한 바가 있다.²⁷⁾ 또한 비록 혜공 왕대에 주조되긴 했지만 경덕왕은 살아생전에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奉德寺²⁸⁾에 聖德大王神鍾을 주조하여 안치하고자 하였다.²⁹⁾ 이 같은 일련의 문화사업 추진 및 계획 등을 통해 경덕왕은 성덕왕의 追福을 기원하는 功德行爲를 통해서 선왕의 업적을 찬양하고 동시에 경덕왕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성덕왕의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정당화를 꾀하고자 했다.³⁰⁾

집권초기부터 추진된 다양한 제도개혁과 近侍機構의 정비 및 문화사업을 통해 강력한 왕권의 수립과 국내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경덕왕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前王代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에 보내지던 여러가지 값비싼 증여물에 대해서 경덕왕은 그 내용이나 수량을 조절하려 하였고 이를 일본과의 교역품으로 대체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경덕왕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내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자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 대해 우월 의식과 함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일본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멸시적 내지 下位視하는 경향이 강했다.³¹⁾ 이에 따라 신라지배층내에서는 일본의 풍속이나 언어에 대해서조차 아는 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³²⁾ 경덕왕의 대일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이나 신라 내의 여러 情況 등으로 볼 때 신라측이 일본조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土毛를 보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신라측의 일방적인 대일외교정책변화에 대해 일본측이 반발하면서 신라사를 入京시키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맞대응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비록 신라사가 일방적으로 ‘土毛’라 칭하고 物數만을 적은 행위에 대해 失禮로 규정한 일본조정으로부터 신라사절단이 入京을 거부당하면서 곧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만,³³⁾ 집권초기에 경덕왕이 신라사를 일본에 파견한 목적은 일본조정에게 향후 전개될 대일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이로써 두 나라의 외교관계는 거의 10년동안 중단되기에 이른다.

10月條; 同書 卷39, 雜志 職官(中)條.

27)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13年(754) 5月條 “立聖德王碑(下略)”.

28) 『三國遺事』 卷2, 紀異 聖德王條에 의하면 봉덕사는 일찍이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을 위해 건립한 사찰이라 전한다(“王爲太宗大王創奉德寺 設仁王道場 七日(下略)”). 이에 대해 이호영은 봉덕사가 성덕왕 6년(707)에 태종무열왕을 위해 창건되었으나 효성왕 2년(738)에 완공되면서 성덕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바뀌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앞의 논문, 1974, 2-9쪽).

29)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

30) 이호영은 경덕왕이 유교적 질서를 표방하고 여기서 부왕인 성덕왕을 추존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그 기반 위에서 전제왕권을 강화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1974, 11쪽). 박해현도 이 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다(앞의 책, 2003, 137쪽). 광승훈은 경덕왕이 聖德王碑를 세운 것에 대해 성덕왕의 치적을 선양하고 또 계승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신료들로부터의 충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23쪽).

31) 新羅 中代인 670년 이후 일본의 국명이 기존 倭國에서 日本國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聖德王代에 別置된 對日 관련 업무기구가 하대에 이르기까지도 ‘日本典’이 아닌 ‘倭典’으로 유지된 점에서 일본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서울대 국사학과, 1997, 19쪽).

32) 『續日本紀』 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4年條 “九月 新羅國遣級浪金貞卷朝貢(中略) 本國王令齋御調貢進 又無知聖朝風俗言語者(下略)”.

33) 濱田耕策은 742년과 743년의 사건에 대해 양국간 외교형식을 둘러싼 분쟁으로 보고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의 장에서 조공형식을 고쳐 대등한 외교형식, 즉 充禮의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공형식을 고집하는 일본과의 사이에 누차 마찰을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 그 배경으로 그는 당·신라·발해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성덕왕대 후반부터 효성왕대에 걸쳐 집정한 金思恭 주도의 대일정책 등에서 찾고 있다(『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329쪽).

3. 752년 金泰廉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

743년을 끝으로 중단된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그 뒤 수년이 지난 752년 춘 정월경(景德王 11, 孝謙天皇 天平勝寶 4)에 일본의 山口忌寸人麻呂가 신라에 入朝하고, 같은 해 윤 3월에 신라사 김태림이 渡日하면서 양국의 외교는 재개될 수 있었다.³⁴⁾ 그렇다면 일본조정은 왜 수년동안 중단된 신라로의 사신과견을 다시 단행했을까. 또한 경덕왕은 왜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을까.

『續日本紀』에 의하면 752년에는 일본의 東大寺에서 盧舍那大佛像 개안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의 동대사에서 盧舍那大佛像 개안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新羅僧 審祥和 관련이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심상이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는 신라인으로서 대안사에 주지로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의 良辨僧正이 審祥大德에게 金鍾寺(東大寺 法華堂)에서 화엄경을 강의해 줄 것을 청하였고, 후에 심상은 일본 화엄종의 始祖로 추앙받을 만큼 학덕이 높았으며,³⁵⁾ 그의 강설을 들은 聖武天皇이 그에 감복하여 동대사와 盧舍那大佛像을 건립하였다.³⁶⁾

이 같은 일본의 상황들로 볼 때 일본조정은 신라와 밀접히 관련된 자국 내의 주요 불교행사와 관련하여 신라의 고위인사들을 초청하면서³⁷⁾ 자신들

34) 『續日本紀』卷18, 孝謙天皇 天平勝寶 4年(752) 春正月 및 閏 3月條.

35) 凝然 撰, 『華嚴法界義鏡』第10章 宗緒相承“(上略) 至大日本國者 昔人王第三十代欽明天皇御宇十三年壬申 從百濟國始傳佛法 至四十五代聖武天皇御宇天平八年丙子經百八十五年(中略) 于時良辨僧正 有感靈夢 遂請大安寺審祥大德於金鍾寺(今東大寺法華堂也) 講華嚴經 此時則天平十二年庚辰十月八日也 集京城名僧以爲聽衆 其初講之日紫雲上現亘覆東山(中略) 最初開講審祥爲尊 發源興宗良辨爲本 審祥是新羅人 渡唐謁賢首 受學華嚴宗而來此國住大安寺 今且約就開講教授 審祥爲日本華嚴始祖(下略)”.

36) 이행구, 『東大寺의 創建과 新羅의 審祥』, 『일본학』 8·9합집,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이 필요로 하는 다량의 물품교역을 요청키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음에 틀림 없다.³⁸⁾ 이는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절단의 규모가 700여 명으로 7척의 배를 동원해야만 했다는 점, 그리고 金泰廉³⁹⁾과 같은 신라 고위층 인사가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가는 배에 동승하여 難波館에 머문 뒤 일본천황과 면담하고 나서 그들의 불교행사에 참석했던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일본을 왕래하는 사신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조정에서 허가한 공적인 루트를 통해야만 가능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역은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이따금씩 왕래하는 신라사신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실은 752년의 교역상황을 짐작케 하는 일본 정창원 소장 貼布記 ‘買新羅物解’⁴⁰⁾ 내의 ‘念物’이란 문구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⁴¹⁾

37) 이성시는 신라의 사절을 요청한 것이 대불개안회를 풍부한 국제색을 연출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았다(김창석 편역, 『752년 교역의 성격』,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139-140쪽). 최재석은 752년 정월 무렵 신라에 온 일본사가 동대사 개안식 때 신라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된 사신이었지만 일본사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최재석, 『8세기 동대사 조영과 통일신라』, 『한국학연구』 9, 1997, 288쪽).

38) 永正美嘉는 752년 신라가 취급한 교역품 중 香藥에 주목하여 신라의 대일무역양상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752년 신라와 일본 간에 교역된 공무역에서는 128개의 물품이 교역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香藥은 불교의식의 필수품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각 불교경전에 기록된 정도로 가장 중시된 주요 물품이었다고 한다(『新羅의 對日香藥貿易』,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39) 일본사서에서는 金泰廉을 왕자로 소개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김태림은 신라왕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는 성덕왕의 조카인 金志廉을 들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돌림자의 이름이 꽤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태림과 김지림이 그 이름이나 생존시기상 형제관계이면서 경덕왕과는 사촌지간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가 왕족이라는 점(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3쪽)에서 신라사신이 일부러 일본 관리에게 그를 왕자로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40) ‘買新羅物解’는 752년 6월에 김태림 등이 來日했을 때 일본의 귀족층이 구입할 예정이던 신라물의 종류와 가치를 기입하여 大藏省이나 內藏寮(외국사신이 보내 온 물품 및 일본 천황이 쓰는 물품의 관리·출납을 관장하는 官司)에 보고한 문서이다(東野治之, 『鳥毛立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진 전쟁이 종식된 이후 신라와의 和親을 도모하며 신라문화 내지 대륙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그 주된 수단의 하나가 사신의 왕래와 신라로부터의 증여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8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은 왕권강화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일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소위 天皇을 중심으로 한 제반제도를 마련해 나갔고 天皇과 臣下 및 百姓과의 상하관계를 보다 形式化·專制化시킬 수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사신의 入京과 더불어 자국에 증여되는 물품에 대해 천황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중시하였다.⁴²⁾

그러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그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행사에 외국사신의 참석은 필요하였다. 일본이 752년에 신라로 사신을 파견했던 목적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⁴³⁾ 그리하여 일본사 山口忌寸人麻呂가 신라에 파

견된 뒤 경덕왕은 김태렴 이하 수백명의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보냈고 일본 조정에서는 이들을 맞이하여 朝堂에서 饗宴을 베풀었다.

그런데 만일 신라에 파견된 일본의 山口忌寸人麻呂가 경덕왕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무례하게 처신했다고 한다면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상 그들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덕왕은 바로 다음해인 753년 신라에 파견된 日本大使 小野朝臣田守가 신라의 외교의례에 벗어난 행동을 하자 가차없이 접견을 불허할 정도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752년경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신라에 入朝한 일본국사가 당시 신라 국내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파견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사료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일본사는 경덕왕을 謁見하였을 때 신라의 외교의례에 따른 태도 내지 저자세를 취하며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노력했을 것이다.

경덕왕이 신라사절을 일본에 파견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먼저, 신라는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국경을 맞댄 발해와의 대립상황에서 일본을 고려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국 보전책의 일환으로써 일본이 원하는 번국의 예를 갖추어 입조했고 아울러 대량의 문물을 가져갔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을 강조한 견해가 있다.⁴⁵⁾ 이밖에도 東大寺의 대불개안을 축하하는 사절이라고 보는 견해,⁴⁶⁾

즉, 경덕왕은 대당외교를 중시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경덕왕이 753년에 신라에 온 일본사신을 무례하다는 이유로 不納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44) 『續日本紀』卷19, 孝謙天皇 天平勝寶 5年(753)條 “二月 以從五位下小野朝臣田守爲遣新羅大使”.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條 “秋八月 日本國使至慢而無禮 王不見之及廻(下略)”.

45) 今西龍, 『新羅中代下代の外國關係』,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東京, 2001.

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高書房, 1978).

41) 李蘭暎은 ‘念物’을 교역문서에 흔히 보이는 주문품으로 해석한다(『나라 정창원에 보이는 신라문물』, 『중재장충식박사회갑기념논총』, 1992, 644쪽). 이성시는 원하는 물건(희망품)이라 하여 신라문물로 보았는데 이 ‘신라문물’은 일본 귀족이 소유하고픈 물건이었다고 한다(앞의 책, 1999, 56쪽). 윤선태는 ‘念物’을 간절히 바라는 물품으로 해석한다(『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즈게(貫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64쪽).

42) 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37-138쪽.

박석순, 『外來의 物과 古代日本の 王權』, 앞의 책, 2002.

43) 기존에는 752년 山口忌寸人麻呂의 新羅入朝와 김태렴 등의 신라사 파견을 직접 연결시켜 왔으나 이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石井正敏에 의하면 김태렴 등의 신라사는 일본측의 요청이 아닌 자주적으로 파견되었다는 반론이다(『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42-56쪽). 한편 濱田耕策은 외교관계의 악화와 교역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신라의 대일의교책이 752년의 ‘假王子’ 김태렴의 파견이라 하면서 신라는 이 ‘假王子’의 파견에 의해 외교형식을 고집하는 일본측을 만족시키고 20여 년간 정체된 대일교역을 성대하게 진행시키려 했다고 보았다(앞의 책, 2002, 350쪽). 하지만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시 경덕왕의 정치 외교적 성향이나 신라의 관련사료들을 도외시 한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만일 경덕왕이 대일외교의 악화와 교역의 정체를 타개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의 양국관계도 신라의 양보와 타협으로 일관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무역의 목적이 강하였음을 지적하는 견해,⁴⁷⁾ 일본에 영합하는 ‘貢調使’과견이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교역활동의 목적도 수반되었다고 보는 견해,⁴⁸⁾ 大安寺・東大寺 參拜와 交易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편법이라는 견해⁴⁹⁾들이 있다.

그런데 경덕왕은 당시 신라와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라의 고위층 인물과 함께 대규모의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는 김태렴의 신라사 일행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 문화적인 목적하에 파견된 사절임을 말해준다.

즉, 당시 신라에 入朝한 일본사신이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한 경덕왕에게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라승 심상의 역할과 그의 위상 및 일본의 불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초청의사를 밝히고 이에 필요한 물품의 교역⁵⁰⁾

등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덕왕 역시 매우 흥미를 갖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조정의 불교행사에 직접 고위층을 비롯한 다수의 신라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신라에게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획득과 함께 경덕왕 자신의 권위는 물론이고⁵¹⁾ 높은 수준의 신라문화를 일본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한 경덕왕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⁵²⁾ 따라서 佛教를 기반으로 하는 동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신라와 일본이 비록 외교적으로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개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752년에 신라사 김태렴 등이 渡日하여 일본천황을 만나게 된다. 이때 이들을 면담한 일본천황은 전례없이 신라국왕의 親來는 물론이고 만일 여의치 않아 다른 인물을 入朝시킬 경우 ‘表文’을 지참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 ‘表文’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황상 신라국왕이 일본천황에게 직접 보내는 글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

는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永正美嘉, 앞의 논문, 2003, 35쪽). 또한 동대사의 천장장식에 사용된 안료 17종 가운데에 金靑・朱砂・銅黃 등 8종은 752년 일본의 동대사 비로자나불 개안식에 초대되어 참가한 신라사절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최재석, 앞의 논문, 1995, 303쪽).

51) 이성시는 신라왕권측에서 사절파견과 교역으로 얻어진 재물을 귀족들에게 재분배하였고 외부의 재물을 관리 독점하여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1999, 138쪽).

52) 신라의 뛰어난 기술은 조선술과 행해술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839년경 일본조정에서 태재부에게 新羅船을 만들어 능히 풍파를 견딜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續日本後紀』 卷8, 仁明天皇 承和 6年 秋 7月條)과 840년경 대마도의 관리가 신라선의 우수성을 말하고 신라선 6척 중에서 1척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일(『續日本後紀』 卷9, 仁明天皇 承和 7年 9月條), 그리고 경덕왕이 762년 전후에 당의 代宗에게 ‘萬佛山香’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당의 代宗은 신라의 ‘萬佛山香’을 보자 그 기술을 찬탄하며 ‘天造’라고 칭찬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경덕왕의 신라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三國遺事』 卷3, 塔像 四佛山 掘佛山萬佛山條; 『香乘』 卷12, 香事別錄下 萬佛山香條 “新羅國獻萬佛山香 雕沈檀木珠玉以爲之”).

김창석 편역, 『752년 교역의 성격』, 앞의 책, 1999.

46) 濱田耕策, 앞의 책, 2002, 336쪽.

47)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47, 1980.

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4쪽.

윤선태, 앞의 논문, 1997.

구난희, 앞의 논문, 1999, 23쪽.

石井正敏, 앞의 책, 吉川弘文館, 2001.

48) 鈴木靖民,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85, 1977.

濱田耕策, 『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앞의 책, 2001.

이들과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 즉, 최재석은 일본의 정치를 지도하는 관인집단과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는 무역인단으로 신라의 사절단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통일신라 일본의 관계와 일본이 신라로부터 구입한 물품』, 『민족문화』 18, 1995, 138쪽).

49) 田村圓澄, 앞의 논문,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이병로,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 『일본역사연구』 4, 1996.

池田溫,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연민수, 앞의 책, 2003, 251-252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04.

50) 신라와 일본간에 행해진 무역의 주된 대상은 5위 이상의 귀족과 사원이었다. 특히 일본의 東大寺司主典에서는 신라사절단으로부터 주로 香藥을 구입하였는데 동대사에서 행하

된다. 그렇다면 752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신라는 국왕의 親書없이 주로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신의 口奏를 통해서 일본과 意思를 전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덕왕의 일본을 무시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측의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52년 김태림의 渡日 이후 일본은 이때 비로소 국가간에 행해지는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요구한 것이다.⁵³⁾ 이는 김태림 이하 신라사절단이 渡日하기에 앞서 신라에 파견된 일본사가 신라조정에게 일본의 蕃禮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덕왕은 이 같은 일본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경덕왕이 753년에 來朝한 日本國使 小野朝臣田守를 무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이나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외교교섭이 또다시 중단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4. 日本의 新羅侵攻計劃과 新羅使의 渡日

경덕왕대 후반의 신라는 경덕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권에 도전하는 불안정한 정세마저 계속되었다.⁵⁴⁾ 게다가 경덕왕 4년(745) 이후 신라에서는 가뭄과 기근 및 역병이 횡행하였다.⁵⁵⁾ 또한 경덕왕대에는 왕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사찰과 불상, 기타 여러 건축물들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였고 국가 세입의 규모 역시

53) 이병로는 일본측이 요구하는 表文이란 ‘新羅國王이 天皇의 朝貢國’이라는 표현의 國書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세기의 羅日關係史-中華思想과 交易을 중심으로-』, 『일본학 연보』 4, 1992, 14쪽).

54) 『三國遺事』 卷5, 感通 月明師兜率歌條.

55)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4年 5月・6年 3月 및 冬條; 同王 景德王 13年 春・14年 8月條.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해 관리들의 月俸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불만은 당시의 집권세력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졌다.⁵⁶⁾ 더구나 잦은 재해는 농민층의 몰락과 도산 및 국가재정의 궁핍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⁵⁷⁾

경덕왕 19년에 侍中인 廉相이 물러나고 金邕이 侍中에 임명되었다.⁵⁸⁾ 이때 廉相이 물러난 것은 歷代 侍中들과 마찬가지로 그해 일어난 천재지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다가 혜공왕 11년(775)에 그는 金正門과 함께 謀叛을 일으키고 죽음을 당하고 만다.⁵⁹⁾

이런 사실로 볼 때 그는 혜공왕의 즉위를 반대하던 세력 가운데 한명으로서 일찍이 경덕왕과 그의 측근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三國遺事』에 경덕왕 19년 4월경 두 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는 경덕왕대 말년에 어린 태자를 둘러싼 갈등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廉相과 같은 反惠恭王 勢力들의 王權에 대한 도전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이러한 신라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경덕왕은 760년에 752년 이후 수년

56) 전덕재, 앞의 논문, 1992, 45쪽.

57) 『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8) 8月條에 의하면 新羅僧 32인과 尼 2인, 그리고 남녀 40인이란 많은 수의 신라인이 일본에 귀화하자 일본조정에서는 이들을 武藏國 閑地로 이주시켰는데 이곳에 처음으로 新羅郡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당시 신라정세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여러 공사 등으로 인한 노력 및 많은 佛事의 남발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승려들조차 신라를 떠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승려들 가운데에는 포교와 같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라를 떠났을 수도 있다. 일본의 武藏에 있는 신라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中山清隆, 『古代武藏の新羅郡について』, 『考古學ジャーナル』 349, 1992.

58)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19年條 “夏四月 侍中廉相退 伊滄金邕爲侍中”.

59)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惠恭王 11年條 “秋八月 伊滄廉相與侍中正門謀叛 伏誅”.

60) 경덕왕대의 왕권에 위협적인 세력은 김웅 등의 외척세력인데 당시의 불안정한 정세는 이들이 정국의 전면에 나서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해현, 앞의 책, 2003, 144쪽).

동안 중단된 외교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 신라사절단을 맞이한 陸奥按察使 從四位下 藤原惠美朝臣朝獬이 級瀨 金貞卷에게 일본에 온 이유를 묻자 金貞卷이 本國王께서 보낸 증여물을 가져왔으며 신라에는 일본의 풍속과 언어를 아는 자가 없으므로 學語 2인과 동행하였다고 대답한다.⁶¹⁾

신라사의 응답내용에 의하는 한 경덕왕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할 목적으로 김정권 등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라사의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경덕왕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수립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을 바꿔 그들이 원하는 국왕의 表文과 物品의 증여는 물론이고 신라사는 적어도 고위직의 인물이었거나 일본측에 영합하는 言行 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덕왕은 대일외교정책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신라사 김정권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고위직의 인물도 아니었으며 일본측에 영합하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경덕왕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신라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신라사가 순수하게 외교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기 보다는 일본의 동태를 엿보기 위한 목적에서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⁶²⁾ 그것은 경덕왕이 7세기대 이래 일본의 九州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왕래하던 신라계도래인들⁶³⁾로부터 75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일본측의 침공계획을 사전에 알게 되었고, 일본의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⁶⁴⁾

61)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4年(760) 秋 9月條.

62) 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6쪽.

63) 최재석, 『7-9세기 일본열도내의 신라방에 대하여』, 『한국학보』 91·92합집, 1998.

64) 일본에서 신라에 대한 主戰論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이 신라에 대해 전통적으로 조공국시하려는데 반해 신라에서는 일본과 대등관계를 세우려함으로써 양국의 평화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발해와 교통을 하면서 신라를 통한 당과의 교류가 해소된 점, 그리고 일본에 귀화한 옛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신라에 대한 원한이 일어나면서 주전론이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한다(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1, 1924, 20-28쪽).

일본측 역시 신라침공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신라측의 동태에 의심스러워하고 경계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조정에서는 이러한 신라사의 방문에 대해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즉, 藤原惠美朝臣朝獬이 고압적인 태도로 753년 당시의 일을 환기시키면서 이는 신라의 闕禮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金貞卷이 당시 자신은 지방관으로 나가 있었으며 또한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은 일본측에서 몇 가지 요구조건과 함께 그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되돌려보낸(却廻)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일본측이 외교명분상 753년에 일어난 경덕왕의 日本使 不納事件을 내세움으로써 또다시 갈등을 노정하게 된다.⁶⁵⁾ 이러한 두 나라의 외교적 갈등은 763년(경덕왕 22)에도 지속되었다. 경덕왕은 新羅使 金體信 등 211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 신라사를 맞이한 大原真人今城과 池原公禾守 등이 김정권에게 약속한 일을 물었다. 그러자 김체신이 국왕의 敎를 받들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今城이 乾政官의 처분에 의거하여 이는 사신된 자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라고 하며 김체신에게 이후부터 파견되는 신라사에 대해 왕자나 執政大夫가 아니면 來朝하지 말 것을 전하였다.⁶⁶⁾

신라사 김체신은 경덕왕대로부터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던 인물로 그는 혜공왕 7년(771) 제작의 『성덕대왕신종명』에 김웅 및 김양상과 함께 副使로서 이름을 남기는 등 경덕왕의 외교노선을 추종한 자였다. 그런 그가 일본에 파견된 것이다. 또한 『續日本紀』에는 신라사 김체신 일행의 귀국여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다. 다만 이들 일행의 숫자가 200여 명으로 외교교섭만을 위해 동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수라는 점, 그리고 760년대에 들어와서 交易의 場이 대재부로 바뀐 점⁶⁷⁾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6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 秋 8月條.

66)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763) 2月條.

비록 일본측이 요구하는 외교의례를 따라 入京하지 않더라도 교역이라는 명분하에 대재부에 머물며 일본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발해와 일본은 일본이 신라에 대한 침공계획을 추진하던 7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긴밀해지기 시작한다. 물론 736년에 발해의 己珣蒙이 일본의 遣唐使인 平朝臣廣成을 帶同하고 일본에 온 사실이 있다.⁶⁸⁾ 이 시기는 일본이 738년에 渡日한 신라사 김상순 일행을 入京시키지 않고 대재부에서 향연만을 베풀고 되돌려 보내는 등 신라와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때 일본에서는 당나라와의 교류에 필요한 신라경유의 기존 遣唐路線으로부터 새로운 遣唐路線으로서의 발해경유노선에 주목하였을 것이고, 발해로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발해조정에서도 일본측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발해조정으로서도 일본과의 사신왕래를 통한 인적·물적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발해에서는 무왕의 뒤를 이어 문왕이 등극한 사실을 일본에 알리는 사절단과 함께 자국에 체재하고 있던 일본의 견당사를 동행시킬 수 있었다. 이후 발해와 일본 두 나라는 상대국에 빈번히 사신을 보내게 된다. 이로써 일본은 발해를 통해 唐國의 소식은 물론이고 당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758년에 일본의 小野朝臣田守가 遣渤海使로서 임명된 바 있다. 그의 임무에 대해서는 757년에 발생한 橘奈良麻呂의 난으로 인해 사료가 逸失되어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⁶⁹⁾ 그는 聖武天皇의 喪을 알리고 당의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 파견되었음이 분명하다.⁷⁰⁾

67) 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89-190쪽.

68) 『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 天平 11年 7月 및 11月條.

69) 上田雄, 『渤海使の研究』, 明石書店, 2002, 270-271쪽.

이는 小野朝臣田守 등의 渤海入國을 계기로 그의 귀국편에 발해조정에서 揚承慶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양승경이 日本使節의 無事歸還과 함께 弔問使로서 성무천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일본조정에 보내는 발해왕의 信物 및 傳言 등을 전달한 점이나 小野朝臣田守는 조정에 唐國의 소식을 보고한 사실 등⁷¹⁾에서 알 수 있다.⁷²⁾ 이러한 喪告使의 파견은 일찍이 일본이 신라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⁷³⁾

또한 759년에 渡日한 발해사 高南申 등의 일행은 일본의 遣唐使 藤原河清을 맞이하러 발해에 온 일본사신 일행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면서 발해왕이 보내는 信物과 傳言 등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다.⁷⁴⁾ 762년에 來日한 王新福 등의 일행 역시 발해에 파견된 일본사절 伊吉連益麻呂 등의 일행을 이끌고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대일사절이었다.⁷⁵⁾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일본조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일본의 當代 文士들과 送別·和答의 詩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다.⁷⁶⁾

70) 上田雄은 小野朝臣田守의 파견이 표면적으로 성무천황의 喪을 알리는 일이었지만 그 외에도 신라침략계획에 발해를 끌어들이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2002, 271쪽).

71) 『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8) 9月・12月條; 同書 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春 正月 및 2月條.

72) 발해사 양승경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발해와 일본 사이에 신라정토의 '군사동맹'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견해가 있다(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49쪽; 酒寄雅志,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앞의 책, 2001, 66-67쪽). 그러나 신라와 발해의 관계로 보거나 발해의 외교행보로 볼 때 과연 이때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73) 酒寄雅志, 앞의 논문, 2001, 213쪽.

金善淑, 『羅唐戰爭 前後 新羅・日本間 外交關係의 推移와 그 背景』, 『日本學』 23, 동국대일본학연구소, 2004.

74)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冬 10月 및 4年 春 正月條.

75)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6年(762) 冬 10月 및 7年 2月條.

76)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春 正月 및 2月, 冬 10月, 4年 春 正月條; 同書 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 春 正月條.

이러한 발해와 일본 사이에 조성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757년부터 신라침략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였고,⁷⁷⁾ 759년 이후에는 신라에 대한 침공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⁷⁸⁾ 가령 759년(경덕왕 18)에는 신라정벌이란 명분하에 北陸道와 山陰道에 造船을 지시하는가 하면,⁷⁹⁾ 新羅의 공격을 예상하고 일본의 大宰府가 신라의 동해변과 마주한 일본의 博多 大津이나 壹岐 및 對馬 등의 요충지에 兵船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⁸⁰⁾ 761년에는 천황이 신라정벌을 위해 美濃國과 武藏國의 소년 각각 20여명을 선발하여 신라어를 가르치도록 명하였으며,⁸¹⁾ 763년에는 이를 위한 실제적인 군사훈련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⁸²⁾

77) 『經國集』卷20, 策下 對策 “問 三韓朝宗 爲日久矣 占風輸貢 歲時靡絕 頃藜爾新羅 漸闕蕃禮 蔑先祖之要誓 從後主之迷圖思欲 多發樓船 遠揚威武 斬奔鯨於鯢壑 戮封豕於鷄林 但良將伐謀 神兵不戰 欲到斯道 何施而獲 (中略) 天平寶字元年十一月十日”.

78) 일본내에서 신라정벌을 주도한 인물은 右大臣으로서 후에 太政大臣이 되는 藤原惠美朝臣 押勝, 즉 藤原仲麻呂다. 그는 757년에 황태자 道祖王을 폐하고 大炊王을 천황으로 등극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신라침략을 내세운 것은 755년부터 계속 일어난 安祿山の 亂과 史思明의 亂 등으로 인해 신라의 후원세력인 당이 한반도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판단,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和田軍一, 앞의 논문, 1924, 35-37쪽). 한편 당시 신라와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했던 일본으로서는 신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중화사상의 실현이라는 명분적 입장에서 신라정토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신라정토계획은 실제의 상황을 염두해 둔 계획이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하여 대신라경제 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의 권력집중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연민수, 앞의 책, 2003, 257-258쪽).

79)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8月條 “遣太宰率三品船親王於香稚廟 奏應伐新羅之狀 九月 (中略) 造船五百艘 北陸道諸國八十九艘 山陰道諸國之內成 功爲征新羅也”.

80)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3月條.

81)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5年(761)條 “春正月 (上略)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人 習新羅語爲征新羅也”.

82)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763) 11月條 “遣參議從三位武部卿藤原朝臣勢麻呂 散位外從五位下土師宿禰犬養 奉幣于香稚廟 以爲征新羅調習軍旅也”.

764년(경덕왕 23)에 大奈麻 金才伯 등 91인의 신라사절단이 일본의 大宰 博多津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唐國 使臣 韓朝彩의 요청에 따라 執事部の 牒을 휴대하고 日本僧 戒融이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임시사절단이었다.⁸³⁾ 한조채는 발해에 파견된 唐의 特使로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전 신라에 잠시 들렀던 인물이다.

그가 발해를 거쳐 신라로 들어간 경로에 대해서는 발해왕성으로부터 鴨綠江口로 내려가서 신라 서북지역의 長口鎭을 거쳐 唐恩浦에 안착하여 상륙한 뒤 신라왕성까지 700리에 이르는 陸路로 使行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⁸⁴⁾ 그러나 이 경로는 신라 경주까지 들어가기에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지 않았다.⁸⁵⁾ 또 하나는 발해의 국내성으로부터 평안도지역을 경유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인데,⁸⁶⁾ 이 길 역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교통로로서 자주 이용되지 않았다.⁸⁷⁾

당사 한조채의 뻘뻘한 일정을 고려할 때 그는 발해의 王城에서 출발하여 발해 五道の 하나로서 新羅道の 기점인 柵城府로부터 南海府(북청)⁸⁸⁾를 거쳐 발해의 南界⁸⁹⁾이면서 신라의 북경지역인 井泉郡(덕원)⁹⁰⁾ 사이에 설치된 39개의 역⁹¹⁾을 통해 최단거리로 신라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⁹²⁾

83)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秋 7月條.

84) 『新唐書』卷43, 地理志 河北道條.

85) 방학봉,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2005, 339-340쪽.

86) 『三國史記』卷37, 雜志 地理條 “(上略) 國內城從平壤至此十七驛 則此城亦在北朝 (下略)”.

87) 방학봉, 앞의 책, 2002, 336-337쪽.

88) 河上洋, 『渤海の交通路と五京』, 『史林』 72-6, 1989.

발해의 南京南海府에 대해서는 濱田耕策이 함경남도 함흥에 비정하고 있고(『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p. 154). 이외에 신창설·덕원설·종성설 등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북청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최근에 이곳에서는 발해 남해부의 유지로 추정되는 청해토성 혹은 토성리 토성이 발견된 바 있으며 발해의 성 중 가장 크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발해의 중요 건축물로 인정되고 있다(방학봉, 앞의 책, 2005).

89) 新妻利久, 『渤海國の南界について』, 『國史學』 67, 1956.

9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德源都護府條.

91) 『三國史記』卷37, 雜志 地理條 “渤海國南海鴨渚夫餘柵城四府 并高句麗舊地自新羅泉井郡

신라에서는 경덕왕대에 발해와 국경을 접한 井泉郡에 炭項關門을 쌓은 적이 있었다.⁹³⁾ 이는 국경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경이란 국가의 명령체계가 미치는 지역이다. 국경의 확정은 곧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관문은 양국간의 교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천군 탄항관문은 발해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탄항관문은 바로 양국상설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⁹⁴⁾ 이와 관련하여 신라사가 발해에 파견된 사실은 『三國史記』에 남아 있는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시대가 조금 내려가는 元聖王 6년(790)과 헌덕왕 4년(812)에 각각 一吉漁 伯魚와 級漁 崇正을 北國에 보낸 일이 있었다.⁹⁵⁾ 여기에서 ‘北國’이란 물론 신라의 북쪽나라에 해당하는 발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처음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발해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 없다.

신라는 735년(성덕왕 34)에 唐國으로부터 溟江 이남의 땅을 인정받은 이후로 747년(경덕왕 6)에 신라사신이 발해사신과 함께 당의 하정례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⁹⁶⁾ 748년(경덕왕 7)에는 발해와 국경을 맞댄 新羅北邊에

14개의 郡縣을 설치한 일도 있었다.⁹⁷⁾ 따라서 이무렵 신라와 발해 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나마 직접적인 交涉이 있었을 것이다.⁹⁸⁾

게다가 737년에는 발해의 武王인 大武藝가 사망한 이후 발해와 당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발해에서 武王의 사후 大欽茂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당에서 책봉사를 발해에 보낸 것은 물론, 762년(경덕왕 21)에는 당이 발해를 渤海國으로, 文王인 大欽茂를 渤海國王으로 승격시켰다.⁹⁹⁾ 이러한 신라와 발해, 당의 관계 속에서 唐使 韓朝彩는 渤海를 거쳐 신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764년 7월에 金才伯이 渡日했을 때 일본조정에서는 당시 신라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엄히 경비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일본조정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金才伯은 ‘唐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¹⁰⁰⁾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신라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을 감안한다면 자국에서 진행된 신라침략준비가 760년과 763년 두 차례에 걸쳐 渡日한 신라사신들이나 또는 일본내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연

至柵城府 凡三十九驛”.

92) 濱田耕策은 唐使 韓朝彩가 동해안의 신라도를 이용하여 신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 서해안의 노선을 통해 신라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의 한조채는 발해와 신라가 당에 사신을 빈번히 보내던 기존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데, 驛·館·津 등 육로와 해로의 교통시설이 동해안의 신라도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과 한조채가 당의 勅使였던 사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당사 한조채는 서해노선을 따라 신라에 입국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唐の勅使韓朝彩の渤海國行』,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418쪽). 반면 赤羽日 匡有는 일본승 계웅의 출항지를 발해의 남해부로 보고 당사 한조채도 이 길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신라의 경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8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と渤海との通交關係』, 『古代文化』 56-5, 2004, 36쪽). 방학봉 역시 발해의 신라도와 신라의 동해안 노선을 통해 경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2005, 338쪽).

93) 『三國史記』 卷35, 雜志 地理 井泉郡條.

94) 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147-148쪽.

9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元聖王 6年 3月 및 憲德王 4年 秋 9月條.

96) 『冊府元龜』 卷991, 外臣部 朝貢 4 “天寶六載正月 新羅渤海龜茲于闐焉耆牂牁牂牁平蠻黃頤

室韋黑水靺鞨並遣使賀正各獻方物”.

97)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4年 2月條; 同書 卷9, 景德王 7年 秋 8月條.

98) 조이옥은 경덕왕 16년(757)을 전후한 시점에 泉井郡이 회복됨에 따라 신라가 발해와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앞의 책, 2001, 148쪽).

99) 『新唐書』 卷219, 渤海傳; 『舊唐書』 卷199, 渤海傳.

100) 『續日本紀』 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條 “秋七月(上略) 勅曰 比來彼國投化百姓言 本國發兵警備 是疑日本國之來問罪也 其事虛實如何 對曰 唐國擾亂 海賊寔繁 是以徵發甲兵 防守緣邊 乃是國家之設 事既不虛(下略)”. 한편 당나라에서는 755년(唐 玄宗 天寶 14)부터 安祿山(安史)의 亂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수도가 토번의 침략을 당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舊唐書』 卷9, 玄宗本紀 下; 同書 卷10, 肅宗本紀; 同書 卷11, 代宗本紀). 758년 당시 일본에서도 난을 일으킨 안록산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12月條 “遣渤海使小野朝臣田守等 奏唐國消息曰 天寶十四載 歲次乙未十一月九日 御史大夫兼范陽節度使安祿山反 舉兵作亂(中略) 於是 勅太宰府曰 安祿山者 是狂胡狡堅也 違天起逆 事必不利 疑是不能計西 還更掠於海東(中略) 委以重任 宜知此狀 預設奇謀 縱使不來 儲備無悔 其所謀上策(下略)”).

락하던 사람들¹⁰¹⁾에 의해 신라조정에게 알려져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⁰²⁾

이처럼 신라에서는 唐의 內亂과 해적들의 頻發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와 주변 경계가 심화되고 있었다. 당에서는 755년에 平盧·范陽·河東의 절도사를 겸임한 安祿山이 宰相으로서 長安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楊國忠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거병한 뒤 763년에 史朝義가 李懷仙에게 살해됨으로써 9년간에 걸친 당의 내란이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唐使 한조체가 발해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및 그의 부탁에 따른 신라사 김재백의 渡日 등이 신라를 침략하려는 일본측의 계획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일본내에서 신라침략계획을 주도한 인물은 太政大臣(太師) 藤原惠美朝臣押勝, 즉 藤原仲麻呂 또는 惠美仲麻呂였다. 그는 764년(天平寶字 8)에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였다.¹⁰³⁾ 따라서 그가 주도한 신라침략계획은 그의 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都督으로서 자신의 휘하에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⁴⁾ 그러나 일본의 신라침략계획은 난이 진압된 후 그의 몰락과 함께 실행되지 못했다.¹⁰⁵⁾

101) 최재석, 『7-9세기 일본열도내의 신라방에 대하여』, 『한국학보』 91·92, 1998, 117쪽.

102) 이러한 신라사신의 대답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일본측과의 외교마찰을 피하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 일본의 정토계획을 알고 있었던 신라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전덕재, 앞의 논문, 1997, 29-30쪽).

103) 『續日本紀』卷25,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9月條.

104) 『續日本紀』卷25,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9月條 “以太師正一位藤原惠美朝臣押勝爲都督 使四畿內 三關近江丹波播磨等國習兵事”.

105) 和田軍一, 앞의 논문, 1924, 41-42쪽.
酒寄雅志는 일본왕권의 분열과 이로 인한 仲麻呂正權 기본구조의 붕괴 및 발해와 당 간의 관계회복에 따른 발해측의 방침변경 등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2001, 224-225쪽). 김은숙은 762년·763년의 기근·역병·물가등귀 등의 사회불안과 仲麻呂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악화와 같은 일본국내 사정, 762년 발해측의 대당사정변화에 의한 방침변경과 같은 국외의 사정 등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1991, 126쪽).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藤原仲麻呂가 신라에 대한 침략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일본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 반신라감정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唐朝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신라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보다 높았기 때문에¹⁰⁶⁾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열망에서 비롯된다.¹⁰⁷⁾

5. 맺 음 말

이상으로 신라 경덕왕대의 대일외교를 국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고찰해보았다. 경덕왕대에는 모두 다섯 차례 정도 신라사절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신라사절의 일본체류기간은 752년의 약 4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2개월 미만이거나 入京조차 하지 못하고 放還 내지 放却조치를 당하였다. 일본사신이 신라에 파견된 횟수도 모두 세 차례 정도였고 신라사절단을 초청하기 위해 파견된 752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사신은 경덕왕을 접견조차

106) 이는 당의 외교문서형식에서도 신라가 발해와 일본 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조된다.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107)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續日本紀』에 의하면, 754년(景德王 13)에 일본의 遣唐副使 大伴宿禰古麻呂가 귀환한 뒤 자국 조정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753년 정월에 唐의 관리들과 외국사신들이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蓬萊宮 含元殿에 모였는데 일본은 西畔 제2인 吐蕃 아래에, 신라사는 東畔 제1위인 大食國 위에 있어서 大伴宿禰古麻呂가 옛부터 지금까지 신라는 일본국에 조공한 지 오래되었으나 지금 오히려 일본이 신라 아래에 있으니 이치에 합당치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장군 오히실이 곧 신라사를 서반 제2위인 토번 아래에, 일본사를 동반 제1위인 대식국 위에 배열시켰다는 것이다(『續日本紀』卷18, 孝謙天皇 天平勝寶 6年(754)條). 大伴宿禰古麻呂의 보고내용이 꾸며낸 것이든 아니든 그가 그러한 보고를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지배층내에서 강하게 일어난 신라에 대한 반발심과 열등감, 경쟁심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일본측의 獨斷的思考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思考는 일본지배층에게 신라침략이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이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그다지 긴밀하다거나 활발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며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의 외교관계상에서 언제든 지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743년에 신라사 김초정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신라사가 대일증여물을 일방적으로 ‘土毛’라 칭하면서 物數만을 적어 보내자 일본측이 상례를 크게 잃은 것이라 하여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였다. 일본에 대한 신라측의 외교행위는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는 경덕왕이 김초정을 통해 이전 王代와 다른 대일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인데 경덕왕대에 진행된 강력한 왕권의 수립 및 안정을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으며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과 연결된다.

그런데 752년(경덕왕 11)에는 예외적으로 신라사 김태렴 등 수백여 명의 대인원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는 그보다 앞서 신라에 入朝한 일본사 山口忌寸人麻呂가 경덕왕에게 신라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한 경덕왕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경덕왕대에 신라와 일본이 비록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불교에 기반을 둔 두 나라 간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덕왕은 신라승 審祥과 밀접히 관련된 일본내의 불교행사에 신라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라문화의 선진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여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례는 물론이고 일본의 왕족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교역을 통해 왕권강화 및 안정에 도움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8세기에 들어와 천황 중심의 이념이 더욱 심화되면서 신라에 대한 반발심, 열등감, 국가적 경쟁심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75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이 발해를 통해 알게 된 당내의 혼란을 틈타 신라에 대한 침략계획이 구체화되는 등 일본조정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경덕왕은 일본과의 교섭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760년과 76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공식사절을 파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라측의 대응은 경덕왕대 대일외교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7세기대 이

래 일본의 九州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왕래하던 신라계 도래인들부터 신라침략계획을 전해들은 경덕왕이 일본조정의 사정을 직접 탐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764년에도 경덕왕은 唐使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임시신라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 무렵 당에서는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고 일본에서는 신라 침략을 계획하던 민감한 시기였다. 그런데 唐國의 使臣이 발해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唐使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신라사가 파견되는 등 唐使의 행보에 대해 일본측으로서는 신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일본의 신라침략계획을 주도한 藤原仲麻呂가 난을 일으킨 뒤 그가 몰락함으로써 현실화되지 못했다.

(원고투고일 : 2007. 1. 17,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경덕왕, 대일외교, 정치제도개혁, 증여물, 신라침공계획

<ABSTRACT>

The Situation of East Asia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景德王) in *Silla* Dynasty

Kim, Sun-sook

The King *Gyeongdeok* had come to the throne as a king of the thirtieth ages in *Silla*. He had put execution into the various policy in order to reinforce with unstable sovereign powers. He had showed a powerful readership in the process. And in order to produce a successor to the throne, he had changed a queen. Therefore he had made a narrow birth to a son, he had installed his little son as the Crown Prince in a hurry.

He had contrived the establishment of a vigorously sovereign power and domestic stability, go through the innovation of established political institutions, a culture enterprise, and so on. In the middle of such domestic circumstances, he had refused the Japan ambassador of arriving in *Silla*.

Also he had one-sidedly send to a gift, and only put on the number of a gift record without a previous notice, go through the *Silla* ambassador of accrediting to Japan. As a result of this Japan had provoked to dissatisfaction. Such his attitude looks the thing which he try to change the gift of a political purpose in lin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By the way this is connected with his diplomatic disposition holding on to a powerful standpoint against a rudeness of the Japan ambassador.

Therefore i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illa* and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looks over generally, excepting for in the seven hundred and fifty-two years, his rejection against the Japan ambassador

had been frequent. In result, the Japan ambassador had not could take part in the events of the Imperial Court, and there had been little instance well achieved even attendance at the Royal Court. Without exception, the *Silla* ambassador, they had stayed only inside of two months or been justly gone back to except for about four months in the seven hundred and fifty-two years.

Moreover it had not could see any more the educated Japanese monk's sojourn in *Silla* at those times of King *Gyeongdeok*, which had carried out occasionally from the 7th century to in the early part of the 8th century. Although *Silla*'s Buddhist culture had been introduced into Japan, and *Simsang*(審祥) of *Silla*'s monk had gone still over to Japan in a private level, it seems as though such background had greatly acted on the situation that had accumulated to the capacity of Japanese Buddhist culture to the extent of not directly receiving Buddhist culture from *Silla*, and enough to a national level had could been directly dispatched Japanese monk through *Balhae*(渤海) to *Tang*(唐), China. In my judgement here ar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that it had become worse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illa* and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Key Words : King *Gyeongdeok*,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Innov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Gift, Scheme to attack against *Silla*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金 瑛 洙*

1. 머 리 말
2. 첩자에 대한 인식과 병법 탐구
3. 첩보전 사례와 첩보술
4.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 고대사에서 삼국시대 후반은 삼국간에 존망을 건 치열한 전투와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특히 7세기에는 수·당이 삼국의 대립과 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삼국의 투쟁은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되었다.¹⁾ 삼국의

*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 1)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삼국사회의 변동에 따라 파생한 대내적 모순과 대외적 모순의 결과로 나타난 동아시아 국제전을 시대구분의 의미를 담보한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한 연구가 주목된다. 김영하a, 『신라의 백제통합전쟁과 체제변화-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전과 사회변동의 일환』,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101~150쪽.

쟁패에서 시종 열세에 처해 있던 신라는 7세기 들어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백제가 의자왕 집권 이후 내부 신구 세력간의 갈등²⁾으로 흥역을 치르는 등 대외적 여건의 호기를 틈타서 군사적 행동과 대당 외교 등 대외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신라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역할이 컸다. 김춘추는 몇 차례에 걸친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이를 기반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김유신은 내부적으로 김춘추를 도우면서 비담의 난 진압 등 신라 내에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했다.³⁾

특히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김춘추 가문과의 결합 등을 통해 신라 내에서 자신과 가문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의 군사력과 뛰어난 지략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이 때문에 그는 삼국 통합⁴⁾의 주역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⁵⁾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김유신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표면적

2)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19, 1988, 263~276쪽.

3) 김춘추의 집권과정과 그에 따른 김유신과의 유대관계 등을 자세히 검토한 연구로는 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경북대학교박사학위, 1999)가 있다.

4) 종전의 ‘삼국통일’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삼국통합’이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며(이호영, 『신라 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연구』, 경인문화사, 1997), 신라에 의한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국성립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연구(김영하a, 앞의 논문; 김영하b, 『신라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 20, 1993) 등이 나왔다. 본고에서는 ‘삼국통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5)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총 10권의 열전 중 그의 열전을 첫머리에다 세 권이나 마련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으며, 조선 영조 때 대제학을 지낸 홍량호는 1734년 『해동명장전』을 편찬해 내면서 역시 김유신을 맨 첫머리에 안배했다.

6)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홍사준, 『탄현고-계백의 삼영과 김유신의 삼도』, 『역사학보』 35·36, 1967.

정영호, 『김유신의 백제공략 연구』, 『사학지』 6, 1972.

김열규, 『무속적 영웅고-김유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진단학보』 43, 1977.

문경현, 『삼국통일과 신김씨 가문』, 『군사』 2, 1981.

으로 나타난 그의 무공에 대한 칭송과 충효 등 국가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강조에 편중되어⁷⁾ 정작 군사가(軍事家)로서 그의 구체적인 면모를 밝히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다행히 최근 군사학 내지 군사사의 각도에서 김유신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다룬 연구⁸⁾가 나와 김유신에 대한 편향적 연구를 보완해주고 있다.

한편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특별한 능력, 구체적으로는 그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주목한 선구적인 연구⁹⁾가 있었고, 고대 첩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김유신의 첩보술이나 첩자활용을 강조한 연구¹⁰⁾도 나왔다. 그

신형식, 『김유신 가문의 성립과 활동』, 『이화사학연구』 13·14, 1983.

정중환, 『김유신론』, 『고병익선생회갑기념논총』, 1984.

김태준, 『김유신전 연구』, 『신라 문학의 신연구』(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7), 1986.

김상현,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1987.

성주탁, 『백제 탄현 소고-김유신 장군의 백제공격을 중심으로』, 『백제논총』 2, 1990.

허중권a,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허중권b, 『삼국시대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II)-김유신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3사교 논문집』, 1997.

이기동, 『김유신-지성으로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 『한국사 시민강좌』 30, 일조각, 2002.

정구복, 『김유신의 정신세계』, 『청계사학』 16·17집, 2002.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1), 돌베개, 2003.

안영훈,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2004.

7)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백제 멸망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그 정도가 더욱 증폭되었다. 즉, 백제 멸망의 원인을 사료상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 대척점에 있는 김유신의 무공과 활약이 상대적으로 과장되는 착시현상이 생겼다. 또 역대로 끊임없이 개작되어 온 ‘김유신 전기’는 역사의식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등장하여 당대 역사 현실과 일정한 대응 관계를 맺으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안영훈, 위의 책, 218쪽). 이러한 경향은 김유신이란 인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도 연계되기도 한다.

8) 허중권a·b, 앞의 논문; 허중권c, 『삼국시대 소부대 리더의 가치관과 전투에서의 역할-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2, 1999.

9)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檀原考古研究所論集』 5, 吉川弘文館, 1979 (이 논문은 한국사연구회 웹진에 이강기에 의한 번역문이 등재되어 있다. www.koreanhistory.org).

10) 줄고a, 『고대 첩자고』, 『군사』 27, 1993.

러나 이 연구들은 사료상에 보이는 김유신의 첩보술과 첩자활용에 주목하는 정도에 머무른 채 군사학 내지 병법의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¹¹⁾

신라의 삼국통합 과정에 김유신이 미친 범위의 크기와 심도 및 후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¹²⁾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연구 시각을 달리하여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첩보술과 첩자활용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사 전략가로서 김유신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 첩자에 대한 인식과 병법 탐구

(1) 무예 수련과 첩자 경험

사료에 따르면 김유신은 일찍이 삼국병합의 의지를 품고 산중에서 심신

승려들의 첩자 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김복순,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한국불교문화사상사』(권상 : 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논총), 1992.

김복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11)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이거나 김유신의 첩보 활동(정보전술)과 첩자활용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었다.

이호영, 앞의 책, 176~177쪽.

허중권b, 앞의 논문, 146쪽.

서의식, 앞의 글, 79쪽.

이도학, 『눈부신 신라의 첩보공작』,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2001, 246~251쪽.

12)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에 대한 연구는 그 폭과 깊이 면에서 활발하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의식, 앞의 글, 96쪽.

을 수련한 것으로 나온다.

사료 1-1. 진평왕 건복 28년 신미년(611)에 공은 나이 17세로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 침략한 적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중앙 석굴에 들어가 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신비한 노인 난승을 만나 방술(方術)의 전수를 애원했고 결국 비법(秘法)을 전수받는다.¹⁴⁾ 이듬해인 612년에는 닥쳐오는 적국의 공격¹⁵⁾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홀로 보검을 가지고 열박산 골짜기에서 하늘과 중앙에 기도한 결과 보검에 신령을 받는 체험을 한다.

13) 『삼국사기』 열전 제1 김유신(상). 『삼국사기』의 역문은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정신문화연구원, 1997)에 따랐다. 원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김유신이 일찍부터 삼국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은 이 기록에 이어지는 신비한 노인 난승의 말에 “그대는 어린 나이에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장한 일이 아닌가?”라는 대목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에는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는 일을 밤낮으로 깊이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김유신의 삼국통합 의지를 전하고 있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료의 인용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이다. 따라서 김유신(상)(중)(하)로 표시한다. 『삼국유사』 역문은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울유문화사, 2002)에 의거했다.

14) 이 부분은 흡사 西漢 ‘開國三杰’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張良의 젊은 날 경험을 연상시킨다. 즉, 『史記』 권55(留侯世家)-2034~2035에 따르면 장량은 젊은 날 滄海 역사를 고용하여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하비 지방으로 숨어 지내다 신비의 한 노인(黃石公)을 만나 『太公兵法』를 전수받는다.

15) 554년 신라가 백제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612년 이전까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은 횡수는 기록상 7회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공격 횡수는 2회이다(이호영, 앞의 책, 67~73쪽).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의 신라 국경 간여에 최초로 반발하여 발생했던 실직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450년 이후 660년 백제를 통합하기까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치른 전쟁은 총 62회(고구려 26회, 백제 36회)이며 이 중 공격은 18회, 방어는 44회로 방어가 두 배 이상(허중권a, 앞의 논문, 27~30쪽)으로 전반적으로 수세에 처해 있었음 알 수 있다. 따라서 612년 무렵 김유신이 닥쳐오는 적국의 공격에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신라의 이러한 수세적 상황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종래 연구자들은 대체로 그가 삼국통합의 의지를 더욱 굳힌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미륵불을 신앙한 흔적’¹⁶⁾ ‘무속적인 신선사상의 영향’¹⁷⁾ ‘무속적 체험으로서 제1차적 신비체험, 제2차적 신비체험’¹⁸⁾ ‘화랑도에 딸린 정신적 지도자인 승려로부터의 불교 교리 습득과 신앙적 체험의 윤색’¹⁹⁾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늘에 의지하고 천명에 따르는 김유신의 인생철학이 기틀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²⁰⁾

그러나 무장이나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이 과정은 그가 무장(군사)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신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그가 배우기를 갈망한 ‘방술’이나 난승이란 신비한 노인에게서 받은 ‘비법’은 치국방략이나 병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보검에 신령을 기원한 대목은 무(武)와 무예 수련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집착을 엿보게 한다.²²⁾ 요컨대 젊은 날 그의 수련과정은 그가 훗날 문무를 겸비하는 탁월한 군사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젊은 날 김유신은 무예를 수련하던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데, 이 경험은 첩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1-2. (유신의)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년(612)에 이르러 검술을 익

16) 이러한 이해는 三品彰英 이래 김상기, 이기동 등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동,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1984, 306~308쪽과 정구복, 앞의 논문, 597쪽 참고.

17) 이기동, 위의 책, 316~318쪽.

18) 김열규, 앞의 논문, 92쪽.

19) 정구복, 앞의 논문, 597~598쪽.

20) 김태준, 앞의 논문, 149쪽; 정중환, 앞의 논문, 174쪽.

21) 이 체험을 ‘무인의 비법을 배웠음을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한 연구자도 있다(김태준, 앞의 논문, 149쪽).

22)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에는 18세 무렵 검술을 익혀 國仙이 되었다고 했다.

혀 국선(國仙)이 되었다. 그 당시 백석(白石)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몇 해 동안 낭도에 속해 있었다.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는 일을 밤낮으로 깊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의 계획을 알고는 유신에게 말하였다. “제가 공과 몰래 그곳을 먼저 정탐한 뒤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은 기뻐하며 몸소 백석을 데리고 밤에 출발하였다.²³⁾

위 기록은 열여덟에 화랑이 된 김유신이 백석이란 정체불명의 낭도의 권유를 받고 고구려와 백제를 염탐하러 길을 떠나게 된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그의 열전에는 그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17세에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에 울분을 터뜨리며 이들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다(사료 1-1). 이에 삼국통합의 대업을 꿈꾸던 김유신은 그 준비의 일환으로 적국의 상황을 엿보기 위해 백석이란 자와 길을 떠난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이 무렵 김유신이 중악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방술(비법)을 익힌 것으로 되어 있다.

젊은 김유신은 백석의 권유에 별다른 생각 없이 호기만을 앞세워 승낙하고 직접 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력을 알 수 없는 백석이 몇 해 전부터 화랑에 들어와 낭도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분히 신비한 설화적 색채가 강하여 사실로 믿기는 힘들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길을 가다 잠시 쉬던 김유신 앞에 세 처녀가 나타나 김유신과 속마음 터놓고 대화를 하던 중 처녀들은 잠시 백석을 따돌리고 숲으로 김유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서 처녀들은 신선으로 모습으로 변하더니 자신들을 나라를 지키는 내림, 혈레, 골화의 세 군데 신령이라고 소개한 다음, 적국이 유신을 유인하여 데려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 가길래 이렇게 만류하러 왔다고 했다.

23)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

유신은 놀라 잠시 쓰러졌다 일어나 신령들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와 백석에게 중요한 문서를 빼놓고 왔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백석을 결박한 다음 사실을 털어놓게 했다. 그러자 백석은 자신은 고구려 사람으로, 점쟁이 추남이 나라 일에 대해 점을 쳤다가 왕에게 벌을 받아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면 장군으로 태어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노라 저주하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구려 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김유신의 아버지) 부인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추남의 저주를 막기 위해 자신을 신라에 보내 유신을 해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유신은 백석을 처형하고 음식을 갖추어 세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니 신령들이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사를 받았다.

삼국통합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될 영웅으로서의 김유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화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이 기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치밀한 첩보망을 통해 장차 신라를 이끌 재목으로 김유신에 주목했다. 그리고는 김유신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임무를 첩자 백석에게 맡긴 것이다. 백석은 신라에 잠입하여 화랑이 되어 여러 해 동안 낭도들과 어울리며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첩자 활동이 단순히 상대의 동정을 살피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적국의 요주의 인물, 즉 요인을 제거하거나 포섭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²⁴⁾

이 사건은 우선 고구려의 첩자 활동의 영역과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김유신이 장차 첩자활동과 첩보전에서 대한 인식하도록 자극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24) 서의식, 앞의 책, 78~79쪽.

(2) 문무겸비와 병법서 탐구

김유신의 병법과 병법서에 대한 조예는 그의 열전 곳곳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유가경전을 비롯한 문화적 소양도 상당했다. 이러한 문무겸비는 김유신뿐만 아니라 삼국 모두가 지도층에 대해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기본 소양이었다.²⁵⁾ 문무겸비와 병법 및 병법서에 대한 김유신의 소양 내지 식견을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보자.

사료 2-1.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효스럽게 살겠다고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하여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하니 제가 그 버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²⁶⁾

위 대목은 629년(진평왕 51) 김유신의 나이 35세 때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 때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기 위해 앞장서 나서며 한 말이다. 그가 인용한 ‘옷깃을 들면 …’ 부분은 현전하는 자료로서는 『남제서(南齊書)』의 대목을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²⁷⁾ 이 전투에서 김유신은

25) 이병도, 『백제 학술 및 기술의 일본 전파』, 『한국 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581쪽. 줄고b,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민족문화』 제29집, 2006, 291~299쪽.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삼국시대 문무관의 문화적 소양’이란 측면에서 문무겸비를 검토했다.

26) 김유신(상).

27) 이 부분에 대해 『역주 삼국사기』(주석판, 하, 653쪽)에서는 『宋史』 『職官志』를 인용한 것으로 역주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송사』는 14세기에 이루어진 사서이기 때문에 7세기의 김유신이 이를 볼 수 없음은 당연하며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삽입했을 가능성도 없다. 혹 『宋書』의 오류가 아닌가 했으나 『송서』에는 『직관지』 자체가 없다. 김유신이 인용한 이 부분은 『남제서』 권54(顧歡傳)-237: “臣聞舉網提綱, 振裘持領, 綱領既理, 毛目自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삼국사기』의 원문은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제서』의 이 부분도 고환이 듣거나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출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혹, 고환이 이 표를 올리면서 함께 바친 『治綱』이란 책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참고로 『남제서』는 526년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二十五史說略』, 北京燕山出版社, 2002, 158쪽).

적진을 세 번씩이라 넘나들며 적장의 목을 베었고, 여기에 고무된 신라 병사들이 맹공을 가해 5천 명이 넘는 고구려군의 목을 베고 성을 항복시켰다.²⁸⁾

사료 2-2. “내가 들으니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잊는 것은 열사의 뜻이라 한다. 무릇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백 사람을 당해내고, 백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천 사람을 당해내며, 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만 사람을 당해낼 수 있으니 그러면 천하를 마음대로 주름잡을 수 있다.”²⁹⁾

위 사료 2-2는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소 및 손자들을 잃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하러 가서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이 용감한 군사 3천³⁰⁾을 선발한 다음 그들을 격려한 말이다. 여기서는 김유신이 『한비자(韓非子)』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무릇 …’ 이하가 바로 그 부분으로, 『한비자』의 『초견진(初見秦)』편 한 대목이 그 출전이다.³¹⁾ 그 앞부분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 고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³²⁾

28) 이 전투는 기록상 김유신의 첫 전투다. 김유신(상) 및 신라본기 제5 진평왕 51년조.

29) 김유신(상).

30) 이 3천 명은 신라본기 5 선덕왕 11년조(642)에는 ‘결사대 1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훗날 김유신의 사병조직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유신의 첩보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견해다. 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1976, 15쪽; 박순교, 앞의 논문, 130~131쪽 및 주142~144.

31) 『삼국사기』의 원문은 “夫一人致死當百人, 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 則可以橫行天下”이고, 『한비자』의 원문은 “一人奮死可以對百, 百可以對天, 天可以對萬, 萬可以克天下”다. 자구에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의미는 일치한다.

32) 『사기』 권79 『范雎蔡澤列傳』에 보이는 범수의 “국왕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당하게 되고, 국왕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라는 말이나 권41 『越王勾踐世家』의 范蠡의 “신이 듣건대 국왕이 심려하면 신하는 고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국왕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말과 뜻은 통한다.

사료 2-3. “길함과 불길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나라 주(紂) 왕은 붉은 새가 나타났어도 망하였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어도 쇠하였으며, 은나라 고종은 장끼가 울었어도 중흥을 이루었고, 정공(鄭公)은 두 마리 용이 싸웠으나 창성하였습니다.”³³⁾

위는 647년 비담의 난 때 큰 별이 월성으로 떨어지자 비담의 반란군은 고무된 반면 선덕왕이 두려워하자 김유신이 왕을 안심시키며 한 말이다. 여기에는 『시경(詩經)』, 『춘추(春秋)』, 『서경(書經)』, 『춘추좌전(春秋左傳)』 등 여러 유가 경전의 대목들이 인용되어 있다.³⁴⁾ 김유신이 유가경전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지만, 경전 모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중국의 역사와 고사에 밝았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다.³⁵⁾

다음은 김유신이 유가경전은 물론 병법과 병법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들이다.

사료 3-1. (유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① 전쟁의 승부는 대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인심이 어떤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② 그러므로 주(紂)에게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으나 마음과 덕이 떠나서 주나라의 10명의 신하가 마음과 덕을 합친 것만 같지 못하였습니다. ③ 이제 우리 백성은 뜻을 같이하여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데 저 백제는 두려워할 바가 못됩니다.”³⁶⁾

사료 3-2. (유신이) 대답하였다. “대저 장수된 자는 나라의 간성(干城)과 임금의 조아(爪牙)가 되어서 승부를 싸움터에서 결판내야 하는 것이니 반

드시 위로는 하늘의 도(천도天道)를 얻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지리地理)를 얻으며, 중간으로는 인심을 얻은 후에야 성공할 수 있다.”³⁷⁾

사료 3-1은 648년 무렵 백제 공격에 앞서 김유신이 왕에게 올린 말인데, ①은 『손자병법(孫子兵法)』 제9 『행군(行軍)』의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³⁸⁾는 대목과 『오자병법(吳子兵法)』 『치병(治兵)』 제3에서 무후가 군대의 승리가 “병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오기가 그렇지 않다면서 엄격한 명령, 분명한 상벌, 평소 훈련 등을 예시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②는 『서경(書經)』 『태서(泰誓)』편에서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의 주(紂)는 억조(億兆)의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이심이 덕(離心離德)이요, 나는 난신(亂臣,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신하) 10인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 한다”고 한 대목에서 나온 말이다. ③은 『손자병법』 제1 『계(計)』의 “도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위사(軍)를 따를 것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군주와 생사를 같이하며 위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사료 3-2는 668년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동생 흠순과 조카 인문에게 김유신이 한 말로 앞부분의 ‘간성’과 ‘조아’는 『시경』 『주남(周南)』과 『한서(漢書)』 권54 『이광열전(李廣列傳)』 등에 나오는 표현이다. 뒷부분은 『손자병법』 제1 『계』편과 제10 『지형(地形)』편 등의 요지와 일맥상통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육도(六韜)』 제4 『호도(虎韜)』편의 “장수는 반드시 위로는 천도(天道)를 알고, 아래로는 지리(地理)를 알며, 중간으로는 인사(人事)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대목과 연결된다.³⁹⁾

33) 김유신(상).

34) 『역주삼국사기』(주석편, 하), 661쪽.

35) 김태준은 앞의 논문, 150쪽에서 김유신이 피력하고 있는 安民의 도는 “오랜 동안의 역사 공부와 체험의 결과”라고 했다. 673년 김유신은 죽음을 예감하고 문무왕에게 치국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서경』과 『시경』을 인용하고 있다.

36) 김유신(상).

37) 김유신(하).

38) 『손자병법』의 역문은 김광수 해석하고 씀, 『손자병법』(책세상, 1999)에 따랐다.

39) 삼국시대 각국은 『손자병법』을 비롯한 중국의 병법서와 병법을 수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점들을 단편적으로 지적인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0~21쪽.

김유신이 무예, 병법은 물론 고대 유가 경전 및 사서 그리고 제자백가서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한비자』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는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유신은 젊은 시절부터 문무겸비로 자신의 자질을 함양했다. 문으로는 유가경전을 비롯하여 역사와 제자백가서 등 다양한 전략서를 섭렵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法)·술(術)·세(勢)를 종합한 제왕학의 경전이자 법가의 통치방략을 대변하는 『한비자』까지 탐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 방면으로는 무예 수련 외에 병법에도 정통했는데 『손자병법』과 『육도』를 탐독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젊은 날 고구려 첩자의 유인에 넘어가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 때문에 첩자와 첩보술에 대해 깊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2. 첩보전 사례와 첩보술⁴¹⁾

젊은 날 김유신은 무예와 치국 방략에 대한 갈망과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하겠다는 강렬한 염원을 품고 입산수도하여 자신을 수련했다. 이 과정에

허중권b, 앞의 논문, 140~141; 허중권c, 앞의 논문, 323~324쪽에는 중국 병법서의 유입은 물론 신라 무관(소부대 리더)들의 사상적 기반의 하나로 ‘무가(武家)적 요소’를 언급하면서 무관의 병법서에 대한 숙지와 신라 자체 병법서의 존재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필자는 줄고b, 앞의 글, 279~310쪽에서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문제를 비교적 심도있게 검토했다.

40) 김유신의 문무겸비와 군사가로서의 기본 자질에 관해서는 줄고b, 앞의 글, 295~298쪽 참고.

41) ‘첩보술’이란 군사학에서 말하는 ‘정보전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허중권b, 앞의 논문, 146쪽). 또 보다 넓은 의미로는 ‘欺瞞(Deception)’에 포함될 수도 있다(김광석 편저, 『용

서 고구려 첩자 백석의 꾀에 빠져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 그는 문무겸비의 탄탄한 자질을 갖추었고, 특히 고구려의 첩보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후 김유신은 629년(35세)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에 부장군으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신라의 핵심 지휘관으로 중요한 전쟁과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군을 이끌었다. 연구에 따르면 김유신이 직·간접으로 참가한 전투나 전쟁은 총 18차에 이르는데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⁴²⁾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전술과 작전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첩보전에 해당하는 기만술, 정보전, 마비전술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고 심리전 내지 심리술도 능숙하게 구사했다.

이와 함께 첩보전과 관련하여 김유신은 특히 첩자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군사 전략가로서 김유신의 면모와 그가 구사한 첩보술을 구체적인 첩보전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심리전⁴³⁾

김유신열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심리전에 대단히 능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적을 자극하는 심리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병술어연구』, 병학사, 1993, 148~150쪽). 『손자병법』 등 전통적 병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첩자를 활용하는 ‘用間術’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이와 관련하여 ‘첩자’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본고도 첩자활용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 ‘첩보술’로 표현하고자 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면 적절한 용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삼국시대 첩자 용어와 관련한 간략한 정보를 표로 만들어 본고의 말미에 부표로 제시해둔다.

42) 허중권b, 앞의 글, 152~153의 부표 2·3·4.

43) 허중권b, 앞의 글, 149쪽. 군사학에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국, 중립국, 아군 집단의 감정,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되는 계획된 선전과 기타 활동”으로 정의된다(김광석, 앞의 책, 298쪽).

먼저 자국민이나 아군 장병들 상대로 한 심리술을 보여주는 사료다.

사료 4-1. 그 때 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에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며 몇 달을 보내니, 주위 사람들이 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여 험뜯어 말하기를 “못사람이 편안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어 남는 힘이 있어 한번 전투를 해볼직한 데 장군이 용렬하고 게으르니 어찌 할 것인가” 하였다.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백성을 한 번 쓸 수 있음을 알고는 대왕에게 고하였다.⁴⁴⁾

사료 4-2. (647년)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무산성, 감물성, 동잠성 등 세 성을 공격하여 (중략) 고전하여 기세가 꺾이자 유신이 비령자에게 “오늘의 사세가 급박하다! 자네가 아니면 누가 못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비령자가 절을 한 다음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적진에 나아갔다.⁴⁵⁾

사료 4-3. 유신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대의 식량 부족이 심할 터이니 마땅히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는 보기감 열기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젊어서 그대와 놀 때 너의 뜻과 절의를 알았다. 지금 소 장군(소정방, 蘇定方)에게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네가 가지 않겠는가?” 열기가 말하였다. “내 비록 어리석으나 외람되이 중군직을 맡았고, 하물며 장군님이 시키신다면 비록 죽는 날도 살아있는 때와 같다고 여기겠습니다.”⁴⁶⁾

사료 4-1은 648년 백제와의 대량성 전투를 앞두고 김유신이 군민들의 전의를 파악하기 위해 고의로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임으로써 군민들의 전의를 자극한 내용을 전한다. 군민의 전의와 사기를 확인한 김유신은 객관적

44) 김유신(상).

45) 김유신(상).

46) 김유신(중).

으로 열세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백제 공격을 건의했고 결국은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사료 4-2는 대량성 전투가 있기 한 해 전인 647년 백제가 무산성 등 세 성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을 전한다. 김유신은 보기 1만을 이끌고 세 성의 구원에 나섰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유신은 비령자⁴⁷⁾를 불러 격려했고, 비령자는 적진으로 뛰어들어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그 아들 거진과 종 합절까지 따라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 전사했다. 이에 감동하고 격분한 병사들이 진격하여 백제군을 대파했다.

사료 4-3은 문무왕 원년인 661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나선 당군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과정을 전하고 있다. 이 때 김유신은 왕으로부터 국경을 벗어나면 상벌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전권을 위임받았다.⁴⁸⁾ 그런데 칠중하에 이르러 병사들이 겁을 먹고 배에 오르지 못하자 67세의 노구임에도 직접 나서 먼저 배에 오르고 수레를 미는 등 병사들을 자극하고 격려하여 평양 근처까지 당도했다. 이에 유신은 식량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당군의 사령관 소정방(蘇定方)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열기를 불러 그를 격려했고 열기는 이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냈다.⁴⁹⁾

위 사료들은 김유신이 자국민이나 장병들의 전의 내지 사기를 고의로 자극하는 심리술을 잘 보여준다. 이를 전통적인 병가에서는 ‘격장술(激將術)’이라 하는데 ‘격장술’은 적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편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쪽에 사용하는 목적은 장수·부하·사졸의 격정을 분발케

47) 비령자는 열전 제7에 그의 전기가 전하는 데, 대체로 김유신이 화랑을 이끌었을 때 그 밑의 낭도로 보고 있다(『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하, 792쪽). 한편, 비령자·거진·합절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들을 김유신이 642년 김춘추의 고구려 방문을 계기로 거느리게 된 1만(또는 3천) 병사들을 축으로 한 김유신의 사적 지휘와 훈령체계 하에 있는 사병적 성격이 강한 군단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박순교, 앞의 논문, 130쪽 주142).

48)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은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말하는 승리의 요소 다섯 가지 중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실천한 것이다.

49) 이상 김유신(중).

해서 적을 물리치는 힘을 증강하자는데 있다. 나약함을 나무라며 용기를 자극하고, 어리석음을 꾸짖어 지혜를 자극한다. 모든 군인은 모두 강렬한 명예심과 영웅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명예심과 영웅주의 정신은 일단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변할 수 있다. ‘격장술’은 바로 이런 정서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유신은 이러한 ‘격장술’을 유효적절하게 잘 구사한 군사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병법에서 볼 때 김유신은 『손자병법』 제7 『군쟁(軍爭)』편의 핵심인 ‘사기(士氣)’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8 『구변(九變)』편에서 경고한 장수가 경거망동이나 분을 참지 못해 서두르다 전군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오위(五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의 심리술 내지 심리전은 자국의 군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적군을 상대로도 구사되었다. 먼저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5-1. 돌아오다가 길에서 항복해오는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만나자 모두 석방하여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맡겼다.⁵⁰⁾

위 사료는 649년 가을 백제와의 도살성 전투에서 기막힌 반간계(反間計)로 대승을 거둔 직후의 일을 전한다.⁵¹⁾ 승리를 거둔 다음 돌아오는 길에 백제 최고위층 인사인 좌평 정복 등 1천 명이 항복해오자 이들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 놓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정복 등이 무슨 까닭으로 항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무렵 백제 내부의 신구 세력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⁵²⁾는 점으로 볼 때 정복 역시 그 갈등의 와중에서 신라로

50) 김유신(중).

51) 이 전투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52) 김주성, 앞의 논문, 267쪽. 이에 대해 양종국은 백제의 멸망은 지배층 내분보다는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신라와 손을 잡은 중국의 당이라는 거대한 외부세력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2004,

의 투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김유신의 조치인데, 백제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고등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서 648년 대량성 전투에서 사로잡은 8명의 백제 장군들을 대야성 전투에서 죽은 김품석 부부의 유골과 교환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김유신은 “한 잎이 떨어진다고 하여 무성한 수풀이 줄어들지 않으며, 한 티끌이 쌓인다고 하여 큰 산이 보태지는 법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8명의 백제 장군을 돌려보냈다. 이 역시 백제 고위층의 심리적 동요를 겨냥한 심리전술로 볼 수 있게 한다. 즉, 신구 세력간의 갈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던 백제 고위층은 김유신이 보여준 포로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로 심리면에서 적지 않게 동요했던 것 같다. 정복의 투항이 그렇고 뒤에서 검토하게 될 백제 좌평 임자의 경우에서도 이런 조짐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적국에 대한 김유신의 심리전술은 백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5-2. 유신이 일찍이 한가윗날 밤에 자제를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신은 그가 고구려 첩자임을 알고 불러 앞에 세우고 말하기를 (중략) 유신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백성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고 있음을 지금 내가 보았으니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⁵³⁾

위 사료는 백제를 합병한 660년 이후의 일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유신은 고구려 첩자의 존재를 첩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고 고구려 첩자

82쪽 외).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648년 무렵 백제 지배층 내부에는 심각한 분열과 동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백제에 대한 김유신의 첩보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검토될 것이다.

53) 김유신(중).

를 반간(反間)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첩자를 살려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는 대적국 홍보 전략이다. 이는 크게 보아 선전(宣傳, Propaganda)에 해당하며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⁵⁴⁾ 고구려 첩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 일을 보고했고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신이 재상을 하고 있는 한 가벼이 할 수 없다”⁵⁵⁾ 했다고 하니 김유신의 선전술이 나름대로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⁵⁶⁾

(2) 첩보전과 내간(內間) 활용

다음으로 첩보술과 관련하여 김유신의 첩자활용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김유신의 행적⁵⁷⁾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642년 대야성 전투 참패를 바로 뒤 이은 김춘추의 고구려행이다. 기록상으로 사실 김유신의 전투 참여는 35세 때의 629년 낭비성 전투를 제외하면 모두 642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김춘추의 고구려행을 계기로 김유신이 1만(또는 3천)의 사병적 성격이 짙은 군사를 거느리게 된 점도 관심을 끈다. 그의 첩자활용과 첩보술도 모두 642년 이후 그 진가를 발휘한다. 먼저 642년 대야성 전투와 김춘추 고구려행과 관련된 사료들을 보자.

사료 6-1. (선덕왕) 11년(642) 가을 7월에 백제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나라 서쪽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나라와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당)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

54) 김광석, 앞의 책, 298쪽.

55) 김유신(중).

56) 이 기록들이 김유신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료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유신의 방첩망과 그의 선전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57) 김유신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본기와 김유신(상·중·하) 및 허중권b, 앞의 논문, 151쪽 ‘부표1. 김유신의 연보’ 참조.

를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용석 등이 죽었다.⁵⁸⁾

사료 6-2. (642년)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하여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⁵⁹⁾

사료 6-3. 어느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신라 사신(김춘추)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것은 아마 우리의 형세를 살피려는 것 같으니 왕은 도모하시어 후환이 없게 하소서.”⁶⁰⁾

사료 6-4. 고장(보장왕)이 그(김춘추) 말의 불손함에 화가 나서 그를 별관에 가두었다.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 본국의 왕에게 알리니 왕이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⁶¹⁾

사료 6-5. (고구려 왕이) 노하여 그를 가두고 죽이려 하였으니 미처 처형하지 않았는데, 춘추가 청포 300보를 은밀히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에게 주었다.⁶²⁾

사료 6-6. 그 때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 왕에게 아뢰었다. (고구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서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간첩의 말을 들었으므로 더 잡아 둘 수가 없어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⁶³⁾

이상은 642년 가을 대야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신라가 그 해 겨울 바로 고구려에 청병을 위해 김유신을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우여곡절

58)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조. 한편 백제본기 제6 의자왕 원년조에는 품석이 처자(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서울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다.

59)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조.

60) 김유신(상).

61) 주59).

62) 주60).

63) 위와 같음.

끝에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 상황을 대체적으로 전하는 사료들이다.

그런데 신라가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데에는 대야성 성주 품석이 그의 모사였던 검일의 아내를 탐하는 바람에 검일이 백제 첩자 모척과 모의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⁶⁴⁾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그 해 겨울 바로 춘추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춘추는 김유신과 더불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는 등 비장한 각오를 다졌는데, 이는 대야성 전투의 치욕적인 패배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⁶⁵⁾

한편 642년 그 해에는 고구려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⁶⁶⁾ 의자왕으로 즉위로 출발한 642년 한 해는 이처럼 삼국 모두에서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공교롭게 이 과정 모두에 첩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우선 대야성 전투에서는 백제의 첩자 모척이 상관에 불만을 품은 신라 김품석의 막객 검일을 포섭하여 내통함으로써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결사대를 이끌고 출정하려 했고 이를 고구려 첩자 승려 덕창이 본국에 첩보함으로써 김춘추가 풀려났던 것이다.

그런데 김춘추의 고구려행을 살펴보면 신라 역시 고구려에 대한 첩보를 행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먼저 위기에 처한 김춘추가 청포 300보로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선도해란 자를 포섭한 대목이다. 청포 300보는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면서 들른 대매현의 사간 두사지란 인물이 건넨 것으

64) 이 경과에 대해서는 열전 제7 죽죽에 상세하다. 이와 함께 신라본기 제5 무열왕 7년조도 함께 참조.

65) 김춘추의 고구려행의 전체 과정과 그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박순교, 앞의 논문, 127~134쪽에 잘 분석되어 있다.

66) 이에 대해서는 열전 제9 개소문전과 고구려본기 제8 영류왕 25년조 및 보장왕 원년조 참고.

로, 공식 예물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려 한 비자금의 성격이 짙다.⁶⁷⁾ 김춘추는 이 청포로 선도해를 포섭하여 그로부터 ‘토끼의 간’ 우화를 듣고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이 때 의심이 가는 인물이 바로 선도해인데, 이자는 신라가 진작에 고구려에 심어 놓은 내간(內間)⁶⁸⁾의 성격이 농후하다. 또 이와 함께 자신이 처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춘추가 몰래 보낸(사료 2-8) 인물도 첩자로 의심할 수 있는 혐의가 짙다.

이상과 같은 추정에 무리가 없다면 김유신은 김춘추의 고구려행에 앞서 그와 함께 사전에 첩자 파견이나 고구려 내부 주요 인사와의 사전 접촉 등과 같은 첩보 활동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왕의 측근인 선도해⁶⁹⁾를 포섭해둠으로써 결정적인 고비 때 활용하여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642년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삼국 내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야성 전투의 참패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김춘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 내에서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었다. 김유신은 결사대 1만(또는 3천)을 거느리게 됨으로써 군사적 입지가 굳어졌다.⁷⁰⁾ 한편 고구려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신라는 당과의 연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함으로써⁷¹⁾ 궁극적으로 백제와

67) 김유신(상). 청포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순교, 앞의 논문, 124쪽.

68) ‘내간’이란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서 말하는 다섯 종류의 첩자, 즉 ‘오간(五間)’의 하나로 ‘적국의 관민을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나 그런 성격의 첩자를 말한다. 『손자병법』 『용간』편에 대한 분석은 졸고a, 앞의 논문, 9~11쪽.

69) 선도해가 왕이 총애하는 신하로 표현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 쿠데타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탐지한 김춘추와 김유신이 연개소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왕’의 측근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춘추를 고구려를 염탐하러 온 ‘첩자’로 단정하여 제거하자고 건의한 ‘어느 사람’, 즉 ‘어떤 자’는 연개소문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

70) 이 무렵 그가 압량주 군주가 된 사실도 김춘추의 고구려행이 당시 신라로서는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나를 잘 말해준다.

71) 김영하a, 앞의 논문, 116쪽에서는 백제의 멸망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의 멸망으로 귀착되어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반이 재편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3) 반간계(反間計)

첩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642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김유신은 새삼 첩보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첩자 활용과 첩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에 대한 첩보와 첩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 같다.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7-1. 진덕왕 3년(649년) 8월, 백제의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 등 일곱 성을 공격하여 함락했다. (신라) 왕은 대장군 유신, 장군 진춘, 죽지, 천존 등에게 나가 막도록 명령했다. 십여 일 동안 전투를 벌였지만 해결되지 않자 도살성 아래에 주둔했다. 김유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틀림없이 백제가 정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모른 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돌아다니며 “(적이) 튼튼한 벽처럼 꿈쩍도 않으니 내일 원군이 오길 기다렸다가 결전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첩자가 이를 듣고는 돌아가 은상에게 보고했다. 은상 등이 적병이 늘 것이라며 수군대며 의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틈타 김유신 등이 진격하여 대패시켰다.⁷²⁾

위 기사에서는 신라와 백제 양국이 모두 첩자를 상대국에 잠입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이 돋보이는 데, 김유신은 백제의 첩자가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를 반간으로 역이용했다. 또 본기에는

협공이라는 외압을 들고 있다. 양종국, 앞의 책도 비슷한 논지다.

72) 신라본기 5 진덕왕 3년(649)조. 여기에서 진덕왕 3년은 2년의 잘못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김유신열전에는 2년으로 나와 있다. 본기와 열전의 기록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김유신이 비둘기와 같은 새를 통신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열전에는 보인다.

없는 열전의 ‘물새가 동쪽으로 날아와 유신의 군막을 지나갔다’는 대목은 김유신이 첩보술의 하나인 ‘통신’ 수단의 하나로 동물, 구체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새 종류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⁷³⁾ 또한 김유신의 이러한 첩자활용을 병사는 물론 직속 장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서 말하는 “첩자의 운용만큼 비밀을 요하는 일도 없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다. 이처럼 김유신은 첩자운용 원리를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첩자를 활용하여 이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김유신이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 타개책으로 첩자를 활용한 것은 그가 군사에 있어서 첩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4) 고정 침투 첩자의 활용

사료 8-1. 이에 앞서 급찬 조미압이란 자가 부산현 현령으로 있었는데, 백제에 포로로 잡혀가 좌평 임자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임자가 그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했다. 이에 도망쳐서 돌아와 유신에게 백제에서의 일을 알렸다. 유신은 조미압이 충성스럽고 정직한 것이 쓸만하다고 판단하여 “듣자 하니 (좌평) 임자가 백제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는 데 함께 의논하고 싶어도 계제가 없었다. 내가 나를 위해 다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했다. (조미압은) “공께서 나를 불초하게 여기시지 않고 일을 시키시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제가 이미 이 나라 국민이 되었으니 나라의 습속을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나가서 수십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개와 말이 주인을

73) 고대의 다양한 첩보술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가 된다.

褚良才, 『中國古代間諜史話』, 中州古籍出版社, 1998.

孫厚洋, 『中國古代用間術』, 河北人民出版社, 1990.

于彥周, 『間諜與戰爭』, 時事出版社, 2005.

생각하는 마음을 건드릴 수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자는 이 말을 믿고 나무라지 않았다. 틈을 보던 조미압은, “지난번에는 벌을 받을까봐 감히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사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사온데, 유신이 저에게 다시 가서 공께 ‘나라의 흥망이란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니,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가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가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전하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자는 듣기만 하고 말이 없었다. 조미압은 황궁해 물러나와 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두어 달이 지난 다음 임자가 불러, “지난번 네가 전한 유신의 말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지?”라고 물었다. 조미압은 놀라움 반 두려움 반으로 그전대로 대답해 주었다. 임자는, “네가 전한 말을 잘 알았으니 가서 (유신에게) 알리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마침내 (조미압)은 돌아와서는 (백제의) 이런 저런 일들을 소상하게 알리니 (백제를) 합병할 계획을 더욱 서둘러 추진했다.⁷⁴⁾

긴 사료를 전문 인용한 까닭은 이 기사가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백제에 포로로 잡혀가 백제 고위직에 있는 좌평 임자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신임을 얻은 조미압이 탈출해오자 그를 다시 백제로 돌려보내 첩자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김유신은 조미압에게 기회를 봐서 주인 임자를 포섭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주는 데, 그 내용이 대단히 놀랍다. 누가 되었건 나라가 망하면 서로를 돌봐 주기로 약속한 것이 그것인데, 이는 자칫 반역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유신은 이런 대담한 첩자활용술을 통해 백제의 정세와 관련된 고급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참고로 백제 합병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백제 고위층 임자를 포섭하는 과정도 치밀하다. 위 사료를 잘 음미해보

74) 김유신(중). 이 기록은 영희 6년, 즉 655년 유신이 백제를 공격한 기사 다음에 나오는데, 유신이 백제를 공격하기에 앞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655년 이전의 일이다. 김유신은 조미압과 포섭된 백제 좌평 임자의 첩보를 바탕으로 655년 백제 도비천성을 공격하여 승리한 다음, 왕에게 백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벌을 제의하고 있다.

면, 김유신은 오랫동안 그것도 백제 최고위층 관리의 집에 있으면서 백제 상황에 밝은 조미압을 선발하여, 사상 교육을 비롯한 철저한 첩자 훈련을 시킨 다음 다시 백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⁷⁵⁾ 김유신은 조미압이 임자에게 전할 밀지를 주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조미압은 백제 고위층 깊숙이 침투한 고정 첩자였던 것이며, 좌평 임자는 내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은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의 핵심 사상과 이론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특히 첩자의 다섯 종류인 향간(鄉間), 반간(反間), 내간(內間), 사간(死間), 생간(生間) 중에서도 반간을 가장 중시하라고 한 지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간을 활용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⁷⁶⁾ 이와 함께 “간첩의 운용만큼 비밀을 요하는 일도 없다”는 첩자활용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수칙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은 『손자병법』의 다음과 같은 용간술의 핵심을 거의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⁷⁾

“공격하고자 하는 군대와 공격하고자 하는 성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장수, 좌우 측근, 조연자, 성문 감시자, 집사 등의 이름을 알아두고 우리 간첩에게 이들을 살피도록 한다. 한편 적의 간첩으로 우리 쪽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솔깃한 것을

75) 위 기사 중 조미압이 김유신에게 “공께서 저를 불초하게 여기시지 않고 일을 시키시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나, 조미압이 임자에게 돌아가 한 말 등은 사전 모의나 교육을 통해 준비된 언행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미압은 급찬에 부산현 현령이라는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라 김유신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76) 김유신이 향간을 활용한 사례도 보인다. 즉, 고구려 공격에 나선 당군의 식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신이 양오 지방에 이르자 한 노인이 적국의 소식을 상세히 말해 주었다는 내용이 그의 열전(중)에 보이는 데, 이 정체불명의 노인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사람을 활용하는” 향간으로 보인다.

77)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 대한 분석은 김광수, 앞의 책; 줄고, 앞의 논문, 7~12쪽 참고.

주어 끌어들이고 편안한 집으로 이끈다. 이렇게 반간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간과 내간까지 얻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적의 사정을 더 깊게 알게 된다”(제13 『용간』).

4. 맺 음 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김유신을 두고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 유신은 전략과 전술이 다 남보다 뛰어나 백전백승의 명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패전은 가려 숨기고 조그만 승리를 과장한 것이 기록이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 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요, 그 평생의 큰 공이 싸움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⁷⁸⁾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민족의 자궁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단재의 일생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평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김유신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단재의 이러한 평가는 『삼국유사』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함께 신통한 피와 힘을 합하여 삼한을 통일하였다”라고 한 대목의 ‘신통한 피’와 표현만 달랐지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또 이는 그의 문무겸비를 비롯하여 병법과 병법서에 능통했던 자질의 또 다른 표현이자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었던 군사가로서

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⁷⁹⁾

문무겸비라는 이상적 군사가로서의 면모는 김유신에게서 발견되는 커다란 장점이자 미덕이다. 이러한 요소는 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국론을 일치시키고 솔선수범하여 병사들을 이끄는 김유신의 모습은 가장 약체였던 신라가 끝내 삼국을 통합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치밀하게 조직되고 계산된 첩보전의 전문가라는 모습이 겹쳐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그것은 단순한 힘겨루기의 차원이 아니다. 총체적 국력 겨루기이자 지혜의 겨루기다. 지혜 겨루기란 달리 말해 ‘정보전’이다. 정보전의 중요성은 오늘날 그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고대라 해서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김유신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결합하여 수준 높은 정보전을 전개했다. 그가 보여준 고도의 첩자활용술과 첩보술은 그가 구사한 정보전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김유신을 바라보던 충과 무공이라는 두 개의 단선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사가로서 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주로 첩자활용과 첩보술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그의 문무겸비와 병법에 대한 조예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 첩보조직이란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원고투고일 : 2007. 1. 2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김유신, 문무겸비, 병법, 첩자, 첩보전

78)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312·314쪽.

79) 단재는 음모가로서의 김유신을 혹평하면서 바로 첩자 조미압의 사례를 들고 있다.

<부표> 삼국시대 첩자 관련 용어 정보표

이 름	출 전	비 고
래첩(來諜), 첩자(諜者)	『사기』 권5 ‘신라’ 5; 권42 ‘김유신열전’(중)	진덕왕 3년(649) 백제 → 신라 → 백제
규첩(窺謁)	권6 ‘신라’ 6	문무왕 10년(670) 백제 → 신라
세작(細作)	권7 ‘신라’ 7	문무왕 11년(671) 신라 → 당, 고구려
향도(鄉導)	권7 ‘신라’ 7 (신라 숙위학생 풍훈이 당을 위하여 향도를 자처함.)	문무왕 15년(675)
반간(反間)	권13 ‘고구려’ 1	유리왕 11년(기원전 9) 고구려 → 선비
행인(行人)	권18 ‘고구려’ 6	장수왕 54년(466) 위 → 북연
척(斥), 봉후(烽候)	권20 ‘고구려’ 8	영양왕 23년(612) 고구려 → 수
첩(謁)	동상	동상 수(백제) → 고구려
첩(謁)	동상	영류왕 24년(641) 당(진대덕) → 고구려
규사(窺伺)	권21 ‘고구려’ 9	보장왕 사론 고구려 → 당
사(伺), 첩(諜)	권22 ‘고구려’ 10; 권49 ‘개소문열전’	보장왕 25년(666) 남생 → 남건, 남산
향도(鄉導)	동상	보장왕 27년(669) 당(남생) → 고구려
간첩(間諜)	권25 ‘백제’ 3	개로왕 21년(475) 고구려 → 백제

이 름	출 전	비 고
군도(軍道=軍導)	권27 ‘백제’ 5	위덕왕 45년(598) 백제(수) → 고구려
첩(謁)	동상	무왕 8년(607) (수)백제 → 고구려
첩자(諜者)	권41 ‘김유신열전’(상) (고구려 승려 첩자 덕창)	선덕왕 11년(642) 고구려 → 신라 → 고구려
사간(伺間)	권41 ‘김유신열전’(중) (조미암을 첩자로 활용)	태종무열왕 1년(654) 신라 → 백제
첩지(諜知)	동상	태종무열왕 7년(660) 당 → 신라
첩자(諜者)	동상 (고구려 첩자를 파악한 김유신)	고구려 → 신라
첩(謁)	권44 ‘거칠부열전’	6세기 중반 신라(거칠부) → 고구려
첩자(諜者)	권47 ‘해륜열전’	문무왕 15년(675) 말갈 → 신라
첩자(諜者)	『유사』 권 제4 ‘의상전교’ (원효와 의상이 고구려에게 첩자 혐의를 받고 구금됨)	진덕왕 4년(650)
첩자(諜者), 첩인(謁人)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98; 『신당서(新唐書)』 권220 (고구려 첩자 고죽리)	정관 19년(645)

※ 표에서 『유사』는 『삼국유사』를, 『사기』는 『삼국사기』의 줄임말이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는 ‘신라’, ‘고구려본기’는 ‘고구려’, ‘백제본기’는 ‘백제’로 줄였고 나머지 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비교란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줄기를 파악하기 쉽게 각국의 왕과 연도 및 첩자활동국과 상대국을 함께 →로 표시해두었다. 첩자와 관련된 용어들을 소개한 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히 첩자 활동을 기록은 사료들이 빠졌다. 이 기록들을 합치면 관련 항목들은 훨씬 늘어난다.

<ABSTRACT>

A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Spies and
Intelligence War of General *Kim Yu-sin*(金庾信)

Kim, Young-soo

General *Kim Yu-sin* was greatly interested in military arts since his youth and had read a number of Chinese books on Confucianism and military strategy, which was translated into his high capability of both civilian and military arts. In particular he had an another thought on spies after he was almost kidnapped by a *Geoguryeo* spy. After *Kim Chun-chu*(金春秋) visited Koguryo in AD 642 General *Kim Yu-sin* concentrated more on intelligence war and succeeded in winning elite leaders of *Baekje* to his Silla side through an elaborate plan. In addition he won wars by utilizing 'trick of counter-spy(反間計)', a tactic outmaneuvering spies of enemy country. *Baekje* and its leaders were disrupted and split by intelligence war of General *Kim Yu-sin* and eventually led to its demise.

Literature on General *Kim Yu-sin* mainly emphasized his loyalty and filial piety based on an ideology of *Silla* Dynasty. In this sense I think my research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and would help in shedding a new light on General *Kim Yu-sin* as a prominent military leader.

Key Words : General *Kim Yu-sin*(金庾信), Combination of Civil and Military Arts,
Military Tactics and Strategy, Spies, Intelligence War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

愼 成 宰*

1. 머 리 말
2. 해전의 시기와 장소
3. 함대의 이동
4. 배치와 접근, 해전
5. 맺 음 말－해전의 의의

1. 머 리 말

후삼국시대에는 泰封¹⁾과 後百濟, 高麗와 후백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수없이 많이 치러졌다. 그리고 전쟁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격화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고려가 후백제에게 대패한 公山(대구 팔공산) 전투와 공산 전투의 설욕을 씻고 전세를 만회한 高昌(안동 병산) 전투, 후백제군과 마지막 決戰을 치러 후삼국을 통일한 一利川(선산) 전투는 널

* 해군사관학교

1) 궁예정권을 말한다. 德津浦海戰이 발발하기 1년 전인 911년에 국호를 기존의 摩震에서 泰封으로 변경하였기에(『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5년) 이를 사용하였다.

리 알려진 지상전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시대에는 지상전 못지않게 해상전이 치열하였고, 후삼국이 대치하던 정국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912년 8월에 발발한 德津浦海戰은 서해안의 해상권 장악을 둘러싸고 태봉과 후백제가 벌인 이 시기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당시 전쟁의 양상은 태봉과 후백제, 신라간 竹嶺 일대에서의 지상전이 일단락되고 점차 서남해안 지방으로 전장이 확대되면서 해상전으로 발전해 가던 상황이었다. 전쟁 양상이 해상전으로 확대된 이유는 보기병력을 동원하여 신라를 선점하고자 태봉이 주도한 지상전이 후백제의 개입과 신라의 대응에 가로막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수군력을 이용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견제한 다음 신라를 공략해 들어가는 ‘후백제배후공략책’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후백제에 대한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행위였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양국간의 대규모 해상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²⁾

이처럼 덕진포해전은 태봉이 서해안 지방으로 해상권을 확대하면서 후백제의 배후에 위치한 나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그 의의가 큰 해전이었다. 더구나 이 해전은 태봉과 후백제의 향후 전쟁 수행 전략과 후삼국 정세의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에서 전쟁사적 가치 역시 높은 해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전을 전론으로 다루면서 전쟁사적 의의를 논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전사, 해양사를 서술한 기왕의 논고에서 간단히 소개되거나, 나주를 중심으로 활약한 왕건의 수군 활동과 연계하여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물론 최근 들어 전쟁 및 해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2) 해전 발발 이전 전쟁의 추이, 태봉의 나주 진출과 수군활동, 서남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 확대 과정, 덕진포해전으로까지 발전해 가던 양상에 대해서는 전쟁사적 차원에서 살핀 필자의 『궁예정권의 나주진출과 수군활동』, 『軍史』 57, 2005, 161~194쪽; 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88쪽이 참고된다.

면서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 주목한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³⁾ 하지만 해전의 명칭과 시점, 장소를 비롯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해전의 수행과 경과, 중세 시대의 해전 수행 방식과 그 특징, 해전의 전쟁사적 의의 등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덕진포해전을 특별히 전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논자들간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던 해전의 시기와 장소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이어서 전술적인 관점에서 해전의 진행과 경과를 가능한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해전 이전 양국 함대의 이동 문제, 함대 전력의 배치와 접근상에 나타나는 양국 수군의 전술적 차이, 해전 수행 방식과 그 특징, 해전의 실상 등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하여 덕진포해전이 후삼국 전쟁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해전사적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해전의 시기와 장소

덕진포해전은 나주 지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백제의 배후를 압박해 가던 태봉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후백제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놓고 벌인 후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이 해전은 태봉이 905년에 신라 선점을 목표로 竹嶺 일대를 공략한 지상전에서 우위를 확보하였지만, 상주 沙火鎭 부근에서 개입한 후백제가 一善郡(선산) 일대를 장악, 태봉의 남진을 차단하면서 지상루트를 통한 신라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던 현실에서 후백제배후공략책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하던 상황에서 비롯하고 있었다.⁴⁾ 해전의 승패에 따른 파급 효과가 향후의 후삼국 정세는 물

3) 金州植・鄭鎮述, 『張保臯와 李舜臣 兩時代의 海洋史의 連繫人物 研究 - 王建 海上勢力의 成長과 羅州海戰을 中心으로』, 『海洋研究論叢』 25, 2001; 愼成宰, 2005, 앞의 논문.

론 해전 당사국인 태봉과 후백제의 전쟁 수행 전략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만큼 전략 및 전술적 차원에서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전이 발발한 시기와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논자들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한 검토를 비판적으로 선행하고자 한다.

A. (909년) 여름 6월에 弓裔가 장군에게 명하여 兵船을 거느리고 珍島郡을 항복시켰다. 또 阜夷島城을 깨뜨렸다.⁵⁾

B1. 開平 3년(909) 己巳에 … 또 太祖에게 명하여 貞州에서 전함을 수리한 후 關粲 宗希, 金言 등을 副將으로 하여 兵 2천 5백을 거느리고 光州 珍島郡을 쳐서 함락시켰다. 다시 나아가 고이도에 머무르니 城 안 사람들이 바라보니 진용이 엄정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B2. 다시 羅州浦口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兵을 거느리고 戰艦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고,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賊船이 퇴각하였다. 바람을 타 불을 놓으니, 타죽거나 익사자가 태반이었다. 오백여급을 참획하였으나, 견훤은 小舸를 타고 달아났다. 처음에 나주 관내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견훤의 정예부대를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三韓 전체 지역에서 궁예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⁶⁾

C. (910년) 甄萱이 몸소 步騎 3천을 거느리고 羅州城을 에워싸고 열흘 동안이나 포위를 풀지 않았다. 弓裔가 水軍을 발하여 습격하니 甄萱이 군사를 끌고 물러났다.⁷⁾

4) 이러한 방향으로의 태봉 군사정책의 변화는 愼成宰, 2006, 앞의 논문, 68~78쪽에 자세히 다룬다.

5)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3年 夏六月.

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7)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14年.

D. 乾化 2년(912)에 甄萱과 弓裔가 德津浦에서 싸웠다.⁸⁾

위에서 열거한 사료는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나주 해역에서 태봉이 전개한 수군 활동을 전하는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덕진포해전의 전황은 B2의 기록을 통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전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앞 문단에 놓인 B1의 기록이 開平 3년, 즉 909년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909년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여기에 사료 A와 B1의 내용이 대략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면 909년의 사건으로 비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 문단과 뒤 문단이 연결되어 기록된 형태만으로 B1과 B2의 기록을 동일한 해에 발생한 사건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고려사』의 초기 기록을 보면 시기가 다른 기록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덕진포해전을 B1의 기록만 놓고 9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덕진포해전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서는 909년이 아닌 오히려 910년으로 비정한 견해¹⁰⁾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912년에 덕진포에서 견훤과 궁예가 싸웠다고 전하는 사료 D는 부정된다. 그 주된 근거로 사료 C의 사건을 주목하였는데, 견훤이 羅州城을 공격한 시점이 910년이었음에도 2년이나 지난 뒤인 912년에 이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실시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이 나주성을 공격해 오자 곧바로 수군을 발한 C의 사건 자체를 덕진포해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912년에 덕진

포해전이 벌어진 것으로 기록된 사료 D의 사건을 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슷한 시기에 사료 D의 기록을 주목한 견해¹¹⁾가 있지만, 기사가 워낙 간략하다는 이유만으로 해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B2를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해전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위 기록을 모두 신뢰하여 909년과 912년에 걸쳐 별도로 벌어진 사건으로도 보아 왔다.¹²⁾ 이에 의하면 909년부터 혹은 그 보다 한해 전인 908년의 어느 시기부터 견훤이 나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예가 이를 근심하여 909년에 군사를 보내어 정벌토록 하였고, 912년에도 덕진포에서 견훤과 궁예가 전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에서도 별개의 사건으로 보았다.¹³⁾ 『고려사』 기록인 사료 B1과 B2의 내용을 덕진포해전에 이르는 909년의 사건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료 D의 내용은 912년의 별도 해전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 견해는 일단 사건을 별도로 파악한 점에서 덕진포를 포함한 인근 해역내에서 태봉 수군과 후백제 수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싸웠을 가능성을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하는 사료를 그대로 신뢰하였거나, 비록 태봉과 후백제 간 여러 번의 해상 대결이 있었지만 덕진포해전 만큼은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사건으로 정리한 점에서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과는 달리 사료 B2와 D의 상이함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경우의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¹⁴⁾가 있다. 즉 사료 B2의 기록을 취신할 경우

8)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9)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73쪽. 태봉 함대가 “羅州浦口에 이르렀다”는 B2의 기록에 주목하여 해전의 명칭을 ‘羅州海戰’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나주포구는 해전을 치르기 위해 진입한 장소로 실제 해전을 치른 장소와는 다를 수 있다.

10) 崔碩男, 『韓國水軍史研究』, 鳴洋社, 1964, 76쪽. 이 글에서 처음으로 해전의 명칭을 德津浦海戰으로 명명하였다. 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명칭에는 동의한다.

11)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四)』, 『朝鮮學報』 20, 1961, 79쪽.

12) 鄭清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152~156쪽.

13) 文安식・이대석,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해안, 2004, 352~361쪽. 이 중 B1과 B2의 『高麗史』 기록의 전투만을 몽탄해전으로 명명하였다. 나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강줄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몽탄을 해전의 발발 장소로 주목한 것이다.

14) 姜鳳龍,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2001, 113~114쪽.

에는 909년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D를 취할 경우에는 태봉 수군이 909년에 珍島와 梟夷島 등의 도서지방을 섭렵한 다음 912년에 가서야 덕진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며, 양 사료를 모두 취할 경우에는 태봉 수군이 909년에 대승을 거둔 덕진전투와 별도로 912년에 또 한 차례의 덕진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해전의 발발 시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제시해 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후속하는 논고¹⁵⁾에서는 사료 D의 기록을 중시한 때문인지 그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대체로 912년의 시점으로 정리한 듯하다.¹⁶⁾

이처럼 해전이 발발한 시점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909년, 910년, 909년과 912년의 두 차례 등과 같이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어떤 사료를 기준에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전 발발의 연대 비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른 시기 비정 문제의 경우에는 당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남 강진의 無爲寺에서 주석하였던 迦微 대사의 행적을 적은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가 해전의 시점을 판단해 주는 열쇠가 아닐까 싶다.

형미는 장흥 보림사에 迦智山門을 개창한 體澄의 제자로 일찍이 왕건과 관계를 맺었고, 결국에는 궁예에게 죽임을 당한 고승이었다.¹⁷⁾ 그의 비문에 따르면 三韓이 한창 시끄럽던, “9년(天祐 9 : 912) 8월에 前主(궁예)가 北□를 영원히 평정하기 위해 … 뱃머리를 일으켜 친히 車駕를 몰아가니 羅州가 귀순하였고, 이에 군사를 포구와 섬 옆에 주둔시켰다”¹⁸⁾고 전한다.

15) 姜鳳龍,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歷史教育論集』 83, 2002, 127쪽.

16) 姜鳳龍, 2002, 위의 논문, 126-127쪽; 『羅末麗初 王建의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2003, 354~355쪽에서는 海戰을 ‘목포대전’으로 칭하였다.

17)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韓國史學會, 1975, 23쪽.

18)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171쪽). “至九年八月中 前主永平北□ □□□ □□□發舳艫親驅車駕 此時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旁 武府逆麟 動衆於郊畿之場”.

형미의 비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武州(광주)와 인접한 해변가에서 살았던 사실과 중국 유학을 마치고 난 905년(天祐 2년) 6월 이후로 무주의 無爲岬寺에 주석하면서 경험하였을 사건과 무관치 않을 듯싶다.¹⁹⁾ 덕진포와 가까운 곳에서 주석하였던 형미가 목도하였거나 전해 들었을 전황들이 전승되어 그를 기념하는 탑비에 새겨 놓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당대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사건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는 간략히 912년으로 표기된데 비해 비문에는 ‘9년(天祐 9) 8월’인 912년 8월로 보다 분명하게 명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금석문 자료에 토대해 볼 경우 덕진포해전은 912년, 그것도 여름 8월에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912년에 발발한 것으로 전하는 『삼국사기』 D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거가 부정확한 910년설은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과연 909년 혹은 909년과 912년에 걸쳐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기록상의 연결된 특징만을 제외하고는 909년의 사건임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현장감이 높은 금석문의 기록은 1회의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마찬가지로 909년과 912년에 걸쳐 두 번 치러졌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지 않았을까 싶다. 910년을 전후로 태봉의 해상 위협에 직면한 후백제의 대응이 보기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료 C의 기록을 보더라도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후백제의 수군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전황의 추이는 태봉이 수군을 이용하여 해상 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서남해안 지방을 대상으로 해상권을 확대시켜 가던 상황 하에서 후백제의 수군을 이용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인 해상 대결은 발생하기 어려웠음을 반영한다. 금석문에 남겨진 기록과 『삼국사기』에 기록된 912년의 해전 발발 내용, 해전이 발발하기까지의 전황 추이에 의거하여 종합해 보건대 덕진포해전은 912년 8월에 단 한 차례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²⁰⁾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앞의 책, 165~176쪽.

다음으로 해전의 발발 장소로 논점을 옮겨 보자. 이 점에 대해서는 후백제가 함대를 배치한 시발점으로 기록된 사료 B2의 ‘木浦’의 위치를 어떻게 비정하느냐에 따라 덕진포,²¹⁾ 榮山江 안쪽, 현재의 영산강 하구둑이 위치한 木浦 안쪽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먼저 덕진포로 본 견해는 木浦를 지금의 목포로 파악하고 여기에 후백제의 수군기지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견훤이 목포에서 함대를 이끌고 영암 방면에 위치한 덕진포로 향하는 동안 나주에 이미 도착해 있던 태봉 함대가 영산강을 따라 내려와 덕진포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전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한다.²²⁾ 해전의 발발 장소로 덕진포를 중시한 입장이지만, 후백제 수군기지의 위치가 목포에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가설인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영산강 안쪽으로 파악한 견해는 목포의 위치를 나주 하단에 위치한 榮山浦²³⁾ 또는 영산포 인근²⁴⁾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후백제군이 목포에서부터 덕진포까지 함선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기록(사료 B2)을 영산포로부터 덕진포 간에 전함을 배치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견훤함대는 영산강 안쪽에서 쫓잡도 않고 처음부터 수비전술로 나왔다는 것이다.²⁵⁾ 그런데 이렇듯이 보기에는 덕진포에서 싸웠다고 전하는 기록(사료 D)이 부정되거나 달리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이해 방식이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상과는 다른 견해가 있다. 세 번째의 시각이 그것이다. 해전의 장소를 지금의 목포 안쪽으로 보는 견해²⁶⁾에서는 木浦의 위치를 현재의 목

20) 金南奎, 『高麗의 水軍制度』,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225쪽 주 17에서는 해전의 명칭을 덕진포해전으로 명명하고 사건 발생 년대를 912년으로 보았다.

2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5, 靈巖郡 山川에 “德津浦在郡北五里 出月出山入海”라 기록된 것처럼 영암 방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2) 崔碩男, 1964, 앞의 책, 77쪽.

23) 文秀鎮,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成大史學會, 1987, 19~20쪽.

24) 李海濤, 『목포의 역사 - 개항 이전사』, 『木浦市の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博物館, 1995, 14~21쪽.

25) 임용환, 『전쟁과 역사』, 혜안, 2001, 317쪽.

포인 영산강 하구로 본다. 따라서 해전의 장소도 자연히 덕진포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던 후백제 함대와 태봉 함대가 영산강 하구둑 근처에서 접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목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번째의 견해에서 살펴 보았듯이 영산포와 그 인근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후백제가 나주를 봉쇄하기 위해 “전함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는, 덕진포와 대응되는 곳으로 목포는 해상 봉쇄를 하기에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²⁷⁾

이처럼 해전의 장소에 대해서도 木浦의 위치 여하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데 이상에 제기된 논의 내용에서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해전 수행시의 전함간 지휘 통신 도달 범위와 그것을 고려하였을 경우 함대의 배치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당대와 차이가 있겠지만, 1926년(大正 15) 일제에 의해 간행된 해도의 목포, 영암, 영산포 면의 일부 구간을 참고하더라도²⁸⁾ 나주 하단의 영산포~덕진포, 목포 입구~덕진포간의 거리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수로의 굴곡마저 심하여 일률적인 전함의 배치가 어려운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²⁹⁾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중세 초의 상황에서 이처럼 장거리에 걸쳐 전력을 분산시켜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1374년(恭愍王 23) 崔瑩의 耽羅(제주도) 정벌 사례를 보면 수군 작전은 기본적으로 일반 항해를 포함하여 적과 조우시의 행동 방침에 대해 사전에 승을 내리고 상호간 약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한 선박을 구분하기 위해 돛대에 깃발로 표식을 삼는가 하면, 육상에 도착시에는 烽火로써 통신

26)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6쪽;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22쪽.

27) 李海濤, 1995, 앞의 논문, 17쪽.

28)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地圖集成』, 1926(1981 學生社 영인), 木浦·靈巖·榮山浦 面 참조.

29) 영산포 상류~목포, 몽탄~영산강 하구둑의 거리가 73km와 24km인 점을(金京洙, 『영산강 삼백오십리』, 향지사, 1995, 161쪽 및 246~310쪽) 고려하더라도 전함 배치와 작전은 불가능하다.

하도록 조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⁰⁾ 덕진포해전이 발발하였던 시기에도 해상에서의 통신 문제의 해결은 돛대에 매달아 의사를 전달하던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³¹⁾ 따라서 전함의 배치는 마땅히 통신이 가능한 가시거리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한편 후백제가 함대를 배치한 시발점으로 삼은 ‘木浦’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후백제군이 나주 관민과 태봉 함대와 연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배치를 취했던 점에서 영산포 또는 그 인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전을 치르기 위한 후백제 수군의 함대 배치는 영산포와 덕진포 간을 잇는, 그러면서도 연결된 형태라기보다는 덕진포 방면 쪽에 주력을, 그 반대 방면에는 군세 과시용의 일부 전함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그 장소는 태봉 수군이 신속한 돌격을 감행한 점으로 보아서는 조류의 흐름을 타기 용이하고 강한 돌파력을 발휘하기 적합한, 그러면서도 출구 쪽으로는 전투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이 아니었을까 싶다. 협수로에 해당하는 비로포와 주룡진을 거쳐 나주와 영암 방면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기준점에서 덕진포 쪽으로 얼마의 거리를 들어간 곳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³²⁾

이러한 추정은 조류를 이용한 방어적 측면이 갖는 이점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해전이 벌어졌다고 전하는 덕진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룡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수로의 폭이 370미터로 협소하고 유속도 10노트(20km/h)나 되는 이곳은 역항이 불가능하여 순조 때에만 통항이 가능하다.³³⁾ 공격자로서는 조류의 작용과 협소한 해역이 갖는 단점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 위험 부담이 크다. 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오는 쪽에 수비군을 배치하여 통과해 오는 전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견훤은 이러한 지형적 배치의 잇점을 이용코자 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방어망은 주룡진의 안쪽에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편 형미의 행적을 담은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를 보면 마치 해전을 바로 인근에서 목도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해전이 끝난 뒤 “군사를 포구와 섬 옆에 주둔시켰다”는 대목이 그것으로,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태봉 수군의 주둔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록이 남겨진 듯싶다. 그렇다면 실제 해전이 벌어진 장소는 함대가 잠시 주둔한 해변가에서 멀지 않았던 곳이면서 동시에 영암에 있던 형미가 익히 알고 있던 해역이었을 것이다. 그곳은 덕진포로 표현되었지만 단순히 포구가 위치하던 곳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포구와 포함한 인접 해역이었다고 짐작되는데, 영암 방면 수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덕진포간의 어느 해점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³⁴⁾

3. 함대의 이동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912년 8월 이전의 어느 시기, 양국은 해전을 치르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함대를 덕진포 해역에 집결시켰다. 본 절에서는

30) 『高麗史』 卷113, 列傳26 崔瑩.

31) 송나라 사람 徐兢(1091~1153)이 고려를 使行한 뒤인 1123년(仁宗 원년)에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권33, 舟楫 巡船)을 보면 고려의 순시선에서 해상 신호용으로 깃발(旌旗)과 호각(角), 징(鐘)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군 몽탄면 일대를 주목하지만(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54쪽), 이 역시 덕진포에서 해전을 치렀다는 기록을 무리없이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33) 金京洙, 1995, 앞의 책, 314쪽.

34) 최규성, 『新羅下代 西南海 豪族과 王建과의 關係』, 『대의 문물교류 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108~109쪽에서는 견훤이 몽탄진 부근에서부터 영산강 지류가 있는 덕진포까지 횡으로 전선을 배치하고 배후의 육군과 연계하여 태봉 수군의 영산포 진입을 원천 봉쇄하였으며, 해전은 몽탄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수로상에서 발발한 것으로, 해전의 명칭은 덕진포해전으로 명명하였다. 필자 또한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나, 해전의 발발장소만큼은 영암 방면의 덕진포와 인근 수역으로 한정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후백제 수군의 이동 경로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에 제기된 견해에 따르면 후백제 함대의 이동은 909년에 궁예가 진도군과 고이도를 점령하자(사료 A), 이듬해인 910년에 견훤이 직접 보기병 3천을 동원하여 나주에 대한 포위공격전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궁예가 수군을 발하여 구원함에 따라(사료 C) 견훤이 나주성에 대한 포위 공세를 풀고 그 즉시 육로로 이동, 수군기지로 삼고 있던 목포에 도착하여 수군을 정비한 다음 태봉 함대를 찾아 덕진포 방면으로 항해하였다고 한다.³⁵⁾

그러나 이 견해는 지금의 목포에 이미 후백제가 건설하여 활용하고 있던 수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909년 이래 태봉 우위의 해상전 추이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에 후백제의 수군 기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가령 그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백제 수군기지는 결코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903년 나주에 진출한 태봉 수군이³⁶⁾ 909년 이래 해상통제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해상권을 확대해 가던 상황이었으므로³⁷⁾ 나주로 통하는 길목에 존재하던 후백제의 수군기지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나주로 들어서는 수로의 첫 관문인 목포에 후백제군의 수군기지를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로는 실상 어떠한 수군 작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근거를 수반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또 다른 견해³⁸⁾에서는 903년 태봉의 나주 공취를 시점으로 그곳에 대한 주도권은 태봉 정권으로 넘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후백제는 나주를 돌파하여 서남해 지방으로 진출하는 직공책 대신에 우회하여 침투해 들어가는 새

로운 전략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나주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코스를 따라 남진하여 서남해 지방을 우회 침투하는 방향으로 공략의 방식을 선회하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후백제가 全州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광주 관할의 서남해안 지방인 高敞으로 진출하였다는 견해³⁹⁾에 착안한 것으로 지상군의 이동 루트 역시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후백제 수군의 이동 경로를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후백제의 수군과 육군이 서남해안을 따라 竝進한 것인지, 각각 별도의 이동 경로를 거친 다음 약속한 지점에서 합류하여 해전을 치르기에 앞서 함대를 재편성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함께 해전에 동원된 후백제 수군의 전함 확보과정 역시 의문시된다. 잘 알다시피 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목재가 필요하고 선박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특수한 공간이 요구된다. 물론 전함 확보는 경우에 따라 일부 어업 및 상업용 선박을 징발하거나 이를 개조하여 충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전함은 해전이 발발하기까지 새로이 건조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邊山과 扶安 지방이 주목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변산은 고려 왕조의 재목창이라고 불려질 만큼 각광을 받던 곳이었다. 1200년 경 변산의 벌목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李奎報가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해마다 벌목을 하지만 나무가 떨어지지 않는다”⁴⁰⁾며 국가의 材府로까지 극찬하였던 것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처럼 나라의 목재 공급지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변산은 1274년(元宗 15) 麗蒙聯合軍의 일본 정벌시에도 조선용 목재를 공급하는 장소로 선정되었다.⁴¹⁾

35) 崔碩男, 1964, 앞의 책, 76쪽.

3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天復 3年.

37) 愼成宰, 2005, 앞의 논문, 178~183쪽.

38) 姜鳳龍, 2001, 앞의 논문, 112쪽.

39)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3, 1999, 270쪽.

40) 『東國李相國集』卷23, 南行月日記. “十二月 奉朝勅 課伐木邊山 邊山者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相不竭矣”.

41) 『高麗史』卷27, 世家27 元宗3 15年 6月 辛酉.

그런 점에서 변산과 인접한 부안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써 더할나위없이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풍부한 양질의 목재를 인접한 변산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선소로 운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한 전함건조지로 부안과 변산을 지목한 것도⁴²⁾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소로써 갖는 이러한 이점은 특별히 몽고가 지배하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912년 즈음에도 부안이 차지하던 조선소로서의 입지적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910년대 후백제군은 영산강 이북의 영광, 무안 등지에 포진하고 있었다.⁴³⁾ 따라서 그 북쪽에 위치하여 후백제의 지배를 받던 부안과 변산 지방은 당연히 후백제의 수군 양성과 전함 건조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조선소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발견된 점은 이러한 추정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 동편에 위치한 舊鎭 마을이 그곳으로, 1938년 마을 옆의 곰소항을 개설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못탕목(갈이목)이 수없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출토물이 나온 구진 마을의 黔毛浦鎭 일대를 놓고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위해 사용한 조선소의 흔적으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⁴⁴⁾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견해를 수용하면서 부안군 진서면 구진 마을의 검모포진 일대를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에 후백제가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조련하던 장소로 추정하고자 한다.⁴⁵⁾

이처럼 후백제는 부안 지방에서 전함을 확보한 다음 해전에 앞서 덕진포해역으로 함대를 이동시켰을 것이다. 함대 이동은 기본적으로 부안을 출발

하여 서해안 연안 항로를 따라 남진한 다음 함대의 일부는 나주 치소가 있던 영산포 방면으로 보내고, 주력은 영암의 덕진포 방면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병세가 성대했던 것으로 묘사된 ‘水陸縱橫’에 나타나는 육군과 羅州管内와 여러 군을 차단한 군사로 나타나는 ‘賊兵’의 존재는 필경 보기병이었을 것으로 수군과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이동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 경로는 분명치 않지만, 910년(開平 4) “錦城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분노하여 보기병 3천을 이끌고 錦城을 포위공격하여 열흘 동안이나 풀지 않았다”⁴⁶⁾고 전하는 기록에 나오는 보기병력 3천을 이동시켰던 통로였을 것이다.

후백제 함대와 대비하여 태봉 함대의 이동은 909년 珍島郡과 皐夷島城 점령 사건(사료 A, B1)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왔다. 즉 후백제군이 수군과 육군으로 나주를 포위한 상황에서 왕건이 후백제군의 해상봉쇄군을 역으로 포위하고⁴⁷⁾ 진도와 고이도를 격파한 다음 나주 구원을 위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것으로,⁴⁸⁾ 진도군과 고이도성을 점령한 뒤 곧바로 해전을 위해 목포 수로 입구로 진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현재에도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909년에 서남해 중심 도서인 진도를 장악한 태봉 함대가 중심 도서인 압해도의 북쪽에 연접해 있는 고이도의 해상세력을 제압하면서 영산강 진군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였고,⁴⁹⁾ 이를 토대로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세력과 합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고이도를 점령하던 909년에 이어 곧바로 덕진포해전을 치른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덕진포해전은 앞서 논증하였다시피 분명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하던 909년보다 3년이나 경과한 뒤인 912년 8월에 발발한 해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09년에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한 사건을 해전에

42) 朴亨杓, 『麗·蒙聯合軍의 東征과 그 顛末』, 『史學研究』 21, 1969, 69쪽.

43) 文秀鎭, 1987, 앞의 논문, 17쪽.

44) 김형주, 『김형주의 부안이야기 1』, 밝, 2003, 205~217쪽.

45) 문안식·이대석, 2004, 앞의 책, 361쪽에서는 제해권을 상실한 후백제가 전주와 군산 일대에서 수군을 동원하여 서남해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46)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開平四年 萱怒錦城投于弓裔 以步騎三千圍攻之 經旬不解”.

47) 日野開三郎, 1961, 앞의 논문, 79쪽.

48) 陸軍本部, 『韓國古戰史 2(中世篇)』, 1976, 18쪽.

49) 姜鳳龍, 『押海島의 번영과 쇠퇴 - 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島嶼文化』 18, 2000, 43쪽.

50) 姜鳳龍, 2001, 앞의 논문, 114쪽.

연결시키기보다는 태봉이 점령한 서해안 지방의 주요 군사적 거점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주둔시켜 수군활동의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전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도와 고이도⁵¹⁾가 나주 내항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거점이었으므로 태봉 정권은 이곳을 공취하던 909년 이래 일정 병력의 수군을 주둔시켜 놓고 군사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까지 태봉은 어느 도서를 수군의 전략 거점으로 확보하여 활용하였던 것일까. 도서의 크기와 인구의 거주 능력, 경제적 기반, 후백제 수군의 남하시 대응 속도 등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는 고이도에 비해 그 후방에 있던 진도가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고이도 역시 전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시되었을 것이다. 王山城이라고 불리는 산성 시설이 있어 일찍부터 유력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점과⁵²⁾ 909년 태봉 수군이 고이도를 공취하던 시점에서 보이던 ‘城 안 사람들’⁵³⁾의 존재는 주거와 군사적 용도로서 고이도가 차지하던 위상을 잘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태봉은 909년 진도와 고이도 공취를 계기로 이곳 도서 지방을 수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태봉 함대는 덕진포해전이 발발하기 3년 전에 확보하여 전략기지로 삼았던 진도 혹은 고이도에 대기하면서 후백제 함대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병사들을 휴식시키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다.⁵⁴⁾ 해상 작전이 고정된 전투 임무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함 이동과 고르지 못한 해상기상과도 싸워야하므로 장거리를 항해해야 하는 수군에게 있어 그 피

51) 압해도 방향에 위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古耳島일 듯싶다(文秀鎮, 1987, 앞의 논문, 16쪽).

52) 姜鳳龍, 2000, 앞의 논문, 34~42쪽.

53) 주 6의 사료 B1 참조.

54)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2쪽에서는 해전에 앞서 고이도에 주둔한 것으로 보았다.

로도는 매우 컸을 것이다. 수군이 조직적으로 정비된 고려 중·후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船軍(수군)의 役은 苦役으로 인식되어 기피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⁵⁵⁾ 태봉 정권은 함대 이동시의 피로도가 해전에 영향력을 미치던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기에 곧바로 덕진포 해역으로 진입시키기보다는 전략적 거점으로 확보한 진도나 고이도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조수 시간에 맞추어 함대를 이동시킨 것이었다.

4. 배치와 접근, 해전

이제 해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양국 함대의 배치 상황과 접근 방식, 실제적인 해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자. 이에 대한 검토는 편의상 앞서 해전의 시기와 장소를 검토시에 활용하였던 사료를 다시 한번 본문 사료로 사용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시 羅州浦口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兵을 거느리고 戰艦을 늘어놓아 木浦에서 德津浦에까지 이르렀다.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고,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太祖가 말하기를,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賊船이 퇴각하였다. 바람을 타 불을 놓으니, 타죽거나 익사자가 태반이었다. 오백여급을 참획하였으나, 견훤은 小舸를 타고 달아났다. 처음에 羅州管内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甄萱의 정예부대를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 이리하여 三韓 전체 지역에서 궁예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⁵⁶⁾

55) 尹薰杓,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2000, 73~77쪽.

56) 주 6의 사료 B2와 같음.

위 기록에서와 같이 해전에 임하는 함대의 규모는 후백제 함대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후백제 함대의 군세를 “水陸縱橫으로 兵勢가 심히 성하였다”고 표현된 점에서, 제장들이 근심하기에 왕건이 “근심하지 마라. 군사가 승리하는 것은 和에 있지 衆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점은 일단 수적으로 후백제군이 압도하던 상황을 말해 준다. 해전에 참가하였을 전함을 척수로 환산한 견해⁵⁷⁾에 따르면 태봉과 후백제의 함대 규모가 대략 80척 대 150척이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산은 909년 고이도 점령시에 참전한 태봉 수군의 병력이 2,500명인 점을 근거⁵⁸⁾로 척당 대략 30명이 승선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참가한 함선 숫자가 분명치 않고, 고이도 정벌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 태봉 함대의 병력이 3천명 수준을 넘지 않고, 2년 뒤의 출정시에도 70여 척을 거느린 점과⁵⁹⁾ 비교한다면 설득력있는 계산이다.

해전에 임하던 함대 배치에서는 양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羅州管內의 여러 郡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賊兵이 길을 막아서 서로 응원할 수 없었다”는 구절로 보아서는 진입하던 태봉 함대에 대해 후백제 함대가 보기병력을 이용하여 나주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통로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기다리면서 해전에 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후에서 발생할 수 있는 逆攻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상호 협공의 가능성을 없앤 상태에서 해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해상 전투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었던지 멀리서 보면 마치 뱀머리와 꼬리가 서로 물리는 모습처럼 전함들을 木浦에서 덕진포에 이르기까지 長蛇陣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수비력에 치중하여 해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대방을 포위하거나, 선제공

격을 역공하여 궤멸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후백제군이 이처럼 장사진을 취하면서 육지와 근접한 쪽에 전함을 배치한 이유는 지상전에 강한 보기병력의 일부를 선발하여 수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 吳越國에 선박을 파견할 정도로⁶⁰⁾ 해상 활동 및 교섭 능력이 우수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해상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군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잘 정비한 상태는 아니었다.⁶¹⁾ 그렇기 때문에 주력을 수군으로 편성하였지만 水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사들만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전황이 해상전으로 변화하던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물에 익숙하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수군으로 편성한 것이었다. 수전에 약한 군사들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함대의 배치는 배후에 육지를 두고, 종횡으로 전면에 겹겹이 두꺼운 방어망을 형성하여 수비력을 강화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陣形이 전함 상호간의 협공과 지원이 용이하도록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배치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바람과 조류의 작용이 전함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강요하므로 대열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태봉 함대는 후백제의 수군 전력이 덕진포 방면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軍을 급히 몰아 공격하니 적선이 퇴각하였다”는 기록은 그러한 배치 구도를 간파한 자신감에서 나온 적극적인 공격 행위였을 것이다. 전력이 열세였던 상황에서 과감한 돌파력으로 기선을 먼저 제압한 것이지만, 후백제의 주력이 한쪽에만 집중된 상황과 그러한 구

6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梁 開平 3年. “太祖推誠撫士威惠並行 士卒畏愛 咸思奮勇敵境 讐服 以舟師次于光州塩海縣 獲萱遣入吳越船而還 裔喜甚優加褒獎”.

61) 태봉 수군에 비해 제도적으로 후백제 수군이 열세적이었던 이유는 당대 태봉과 후백제 공히 신라를 우선적인 점령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군사정책과 군사력 양성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신라를 둘러싸고 양국간 대립하던 형국에서 태봉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할 수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에 비해 후백제는 육군 중심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이점이 많았다. 따라서 육군 중심의 보기병체제를 운영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수군의 열세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57)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9쪽.

58) 주 6의 사료 B1 참조.

59)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乾化 4年 甲戌.

도의 배치가 갖는 약점을 잘 간파한 다음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태봉 수군은 함대의 배치를 적의 중심에 대한 강한 공격력과 돌파력에 주안점을 두고 빠르고 강하게 타격하기 유리한 密集隊形⁶²⁾과 유사한 형태의 진형을 형성하였다. 돌파력과 파괴력이 장점인 밀집대형을 고수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유리한 풍상측에 위치하여⁶³⁾ 조류와 바람의 속도를 활용한 빠른 공격을 계획한 것이었다.

해전은 공격력에 무게를 둔 태봉 함대가 빠른 기동력으로 전함함대로 돌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대 서양의 사례를 보면 전함이 한 줄로 늘어서 돌진하면서 전함 중 최소한 몇 척이 적 함대 전열의 빈틈을 뚫고 들어가 측면과 후면을 보호하기 위해 선회하는 적함을 들이받아 격침시키는 공격법을 종종 사용하였다고 한다.⁶⁴⁾ 그렇지만 전력면에서 열세적인 처지에 있던 태봉 함대는 우선적으로 적 함대의 초기 대응 속도를 둔화시키고 지휘부의 통제력에 혼란을 유도시키기 위해 중심부의 방어망을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가는 공격 전술을 감행하였다. 태봉 함대의 중심부를 강타한 공격 전술은 곧바로 효과를 보였다. 선두 중앙에 위치한 전열이 깨져버렸고, 몰려있던 전함들간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방함과 중위함, 후방함이 뒤섞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축에만 국한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횡축으로도 연쇄적인 충돌현상이 이어지면서 인접한 전함에까지 파상적으로 퍼져 나갔다.

일반적으로 풍하에 위치한 함대는 적을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지만, 함대의 진형 유지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⁶⁵⁾ 그런데 이 해역에서는 바람과 조류를 이용한 파

괴력이 강했던 모양이다. 후백제 함대의 대형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전후 좌우로 충돌이 거듭되면서 급기야는 전함간의 간격도 극도로 밀착하게 되었다. 후백제군이 밀착한 상황을 포착한 태봉 함대는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적 함대와의 간격을 벌려 놓았다. 이어서 후백제 함대 쪽으로 붙어가는 바람을⁶⁶⁾ 이용하여 火攻戰을 전개하였다. 후백제군의 전함간 간격이 밀착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공전의 피해는 인접한 전함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고, 그 파급 효과는 통제하기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태봉 함대가 화공전을 주요 전술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무기체계상 수상작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⁶⁷⁾ 화공 전술이 해상전에서 일반적인 전술로 크게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⁶⁸⁾ 고대 이래로 화공전은 풍향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바람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전술로 인식되었다. 불이 잘 타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바람이 적의 방향쪽으로 향할 때와 풍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주간 중에만 사용한다는 병법상의 원칙과⁶⁹⁾ 上風과 상류에 위치하여 공격해야만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舟戰 수행시의 원칙을 담은 중국 병서⁷⁰⁾의 내용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태봉 수군은 화공전을 전개하기에 긴요한 이러한 병법상의 이론을 토대로 덕진포 해역에 작용하는 바람의 계절별 및 지형적 변화, 전함이 이동할 경우에 외력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흐름 등과 같은 전술 지식을 소상히 파악하는 가운데 해전에 적용하였을 것이다.

65) 金洲植 옮김, 1999, 앞의 책, 42쪽.

66) 金洲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89쪽에서는 바람 방향을 서풍 또는 서북풍으로 보았다.

67) 胡戟, 『中國 水軍과 白江口 戰鬪』, 『百濟史上의 戰爭』, 書景文化社, 2000, 346쪽.

68) 이를 북방 전술로 평가하기도 하지만(崔碩男, 1964, 앞의 책, 78쪽), 당대까지 해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일반적인 해전 전술로 평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69) 『孫子兵法』, 火攻篇第十二.

70) 魏汝霖, 『劉伯溫兵書註釋』, 黎明文化公司, 1985, 31쪽 舟戰.

62) 밀집대형이라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보병이 사용한 밀집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함을 일정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밀집시킨 형태로 속도와 간격, 거리를 유지하며 돌파력과 파괴력을 높인 진형을 형성한 것이다. 바람과 조류의 작용으로 정형화된 대형을 형성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돌파력이 큰 대형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63)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책세상, 1999, 41쪽.

64) 이춘근 옮김,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1990, 113~114쪽.

태봉 함대가 화공용으로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사실이 없어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 仁宗 13년(1135)에 발발한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를 보면 반란군과 진압군이 火船과 火毬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⁷¹⁾ 그런데 화구는 당시의 전투에서 해상용이기보다는 육상 攻城用 무기로 활용되었다.⁷²⁾ 때문에 육상용으로 운용하던 무기를 곧바로 해상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발사장치 설치에 따른 전투원과 전투 무기의 탑재 제한은 물론 火毬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 공간이 보장되었는지, 발사시 전함에 미치는 충격 등 전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전함에 장착하여 공격하기 용이한 소규모로 개조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비해 火船은 적군과 조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용이한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상으로부터 공격을 감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화선을 장시간 동안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때문에 장시간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술적으로도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西京의 반란군이 공격한 방식처럼 소형 선박을 화선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선용 선박을 이동시키는 데 따르는 불편함은 전함의 선미에 매달아 끌고 다닌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비잔틴 제국의 화공전의 사례에서 보이는, 함선들마다 船尾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단지를 매달아 근접해 오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화공전을 전개하였던 전술과도⁷³⁾ 흡사한 면이 있어 흥미롭다.

한편 1019년(寬仁 3, 현종 10) 여진족에게 납치되었다가 고려의 수군에

71) 『高麗史』 卷98, 列傳11 金富軾.

72) 화구에 대해서는 화약병기가 아닌 재래의 화공용 무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견도 있다. 제 견해는 許善道,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一潮閣, 1994, 5~12쪽 참조.

73) 김훈 옮김, 『고대의 배와 항해 이야기』, 가람기획, 2001, 167~172쪽.

구출된 일본 여인 石女가 경험한 기록에 따르면, “高麗國의 선체는 높고 크며 병장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 선면은 鐵로 만든 뿔과 같았으며, 적선을 衝破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 또 大石으로 적선을 때려 파괴하였다”⁷⁴⁾고 전한다. 이 중에서 특히 철로 만든 뿔과 유사한 모양의 ‘鐵角’과 선박 안에 비치해둔 ‘대석’의 존재가 주목된다. 아마도 이들 무기 중 철각은 적선과 충돌하여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한 파괴용 무기일 것이고, 대석은 선박을 수직으로 내리쳐 깨뜨리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된 무기였을 것이다.⁷⁵⁾ 중국 隋代 楊素가 만든 五牙艦의 공격 무장을 보면 적함을 높은 곳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拍竿을 전후 좌우에 여섯 개를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⁷⁶⁾ 아마도 이 무기 역시 고려 현종대의 사례와 같이 그 외형적 형태로 보아 무거운 물체를 박간의 끝에 매달아 내리치는 방식으로 선박에 타격을 가하여 충과시키거나 선상의 전투원을 살상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당대의 주요 軍船으로 활약한 海鵲船에 장착하여 화공전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⁷⁷⁾ 화공전은 물론 타격 용도로의 사용마저 부정하기도 한다.⁷⁸⁾

그러나 고대 중국의 경우나 고려 현종대의 전함에 장치된 장비의 형태나 무기체계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발사용이기보다는 타격용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화구의 사용보다는⁷⁹⁾ 재래의 기름을 이용하여 발화력을 높인 火矢(불화살)와 같은 화공무기와

74) 『寬仁 三年 七月 十三日 內藏石女等解申進申文事』(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88쪽). “高麗國船之體高大 兵仗多儲…船面似鐵造角 令衝破賊船之料也…又入大石打破賊船”.

75) 大石의 용도는 林容漢,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軍史』 54, 2005, 275쪽의 견해처럼 투석기를 이용하여 발사하였거나, 大形の 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6) 『隋書』 卷48, 楊素. “造大艦 名曰五牙 上起樓五層 高百餘尺 左右前後置六拍竿”.

77) 卞麟錫,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관계』, 한울, 1994, 21쪽.

78) 胡戟, 2000, 앞의 논문, 355쪽.

79) 金州植·鄭鎮述, 2001, 앞의 논문, 190쪽.

화선을 병행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가 갖은 이런 특징면에서 후삼국시대의 해전 수행방식의 발전 단계를 논해보자면 활과 화살과 같은 중단거리 무기를 이용한 공격, 철각과 대석을 이용한 근접 충파전술, 지상 전투와 흡사한 방식의 선상 전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던 단계였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점은 중세시대의 해전 수행방식이 기본적으로 화약무기와 같은 원거리 공격 무기체계로 발달하기까지는 고대적인 성격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백제 함대는 태봉 함대의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으로 말미암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후백제 수군도 해전에서 화공전이 단연 중요한 전술이었음을 알았을 것이기에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여 공격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해전이 발발하던 주변 해역의 시간대별 조류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과 같은 아군에게 유리한 해양기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공 전술을 미처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궤멸된 것이었다.⁸⁰⁾ 이처럼 해전의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장 환경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전술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는 해상에서 전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허락지 않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초전에 기선을 제압당한 후백제군은 지휘통제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구상했던 보기병과의 협공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후백제 수군을 지휘하던 견훤은 가까스로 얼마간의 병력만을 추스린채 작은 전선을 타고 간신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후백제군은 덕진포해전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수군 활동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배후인 나주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당하면서 수륙군의 군사활동이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태봉 정권

은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후백제의 배후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수군을 이용한 군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5. 맺 음 말—해전의 의의

덕진포해전의 결과는 후삼국이 대치하던 정국에 새로운 정세 변화를 수반하였다. 무엇보다도 태봉은 해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태봉과 나주와의 관계는 903년 나주 진출 이후로 지속적인 지배력 강화 노력에 의해 910년에 이르러서는 태봉에 귀부할 정도로 밀착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무쌍한 전쟁기의 상황에서 나주 지방과 지역민의 동향은 불확실한 상태의 지속이었다. 태봉과 후백제 간 군사력의 우열관계가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후삼국의 군사적 지형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장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에 羅州管内諸郡이 우리와 떨어져 있고 적병이 길을 막아 서로 응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못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견훤의 銳卒들을 격파하니 衆의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나주의 현지 분위기가 오랫동안 유동적인 상황이었고, 해전의 결과 여부를 놓고 정치적 향배를 저울질하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덕진포해전이 발발하던 시점에도 나주 현지인들의 정서는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힘의 우열 관계가 깨지더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태봉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후백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태봉 수군의 승리는 이러한 郡民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한편으로 지배권의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태봉

80) 근대 이전의 해전에서 해상기상(바람, 조류)은 매우 중요한 전술 정보에 해당한다. 663년에 발생한 白村江(白江)戰에서 日本軍이 패배한(『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 8月) 원인 중의 하나도 氣象을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 나주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나주민 또한 그러한 지배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태봉이 지배하는 지방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왕건이 집권하는 고려 왕조로 이어졌고, 918년(태조 원년) 정권을 장악한 왕건은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민사·군사·행정을 담당하는 羅州道大行臺를 설치하면서 지방지배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단행하였다.⁸¹⁾ 중국에는 이곳을 경유하여 후백제 왕 견훤마저 入朝를 청해오면서⁸²⁾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전쟁 역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덕진포해전은 태봉과 후백제 양국간 군사정책의 방향과 후삼국 전쟁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차적으로 후백제는 수군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수군활동에 의존한 군사활동은 얼마간은 보류해야만 했다. 때문에 929년(太祖 12) 수군으로 나주로 통하는 海路를 장악하여 고려의 수군활동을 통제하거나,⁸³⁾ 932년(長興 3) 禮成江에 침투하여 고려의 선박 100여 척을 불태우는 등 해상 공략을 재개하기까지는⁸⁴⁾ 보기병력에 의존한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군사정책상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에 반해 수군의 활약상에 따라 군사전략적 가치를 경험한 태봉은 후백제의 배후를 공략해 들어가는 군사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전 이후로도 수군을 중시한 군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전함 100여 척을 증치하여 수군 전력을 강화한 조치는⁸⁵⁾ 태봉이 후삼국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후로도 수군에 기반한 군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태봉은 덕진포해전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후삼국이 대치한 국면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三韓의 땅에서 弓裔가 大半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비록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태봉이 지배

하는 영역적 범위가 훨씬 확대된 사정을 반영한다. 요컨대 태봉은 912년 덕진포해전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서해상에 대한 해상권을 확보하면서 후백제의 해외 교섭 및 군사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후삼국 정세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1. 3,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태봉, 후백제, 후백제 함대, 해전, 덕진포해전

81) 朴漢高, 『羅州道大行臺考』, 『江原史學』 1, 1985, 25쪽.

82)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8年 夏六月.

8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84) 『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8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乾化 4年 甲戌.

<ABSTRACT>

Taebong vs Later *Baekje* in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

Shin, Seong-jae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 broke out as *Taebong* Kingdom altered its military policy to attack Later *Baekje* in the rear and actively enlarging the marine dominance in the west sea, as the land wars at the *Jukryeong* front which objective was to annex *Silla* became increasingly deteriorating due to *Silla*'s unexpected defence power and *Baekje*'s intervention. This Naval Battle in fact was a single warfare near the coast of *Deogjinpo* in *Yeongam* area in the August of 912, not happened twice like in 909-910 or 909-912 like the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The contemporary epigraph source that tells the life of *Hyangmi* proves the records of the Historical Annals of the Three Kingdoms that states the battle occurred in 912.

Taebong and *Baekje* competed in mobilizing the navy for the ultimate battle of *Deogjinpo*, moving and stationing the respective fleets beforehand. *Buan* and *Byeonsan* were the centre for *Baekje*'s shipbuilding and navy training, whereas *Taebong* chose *Jeongju* as its Naval Headquarters. *Taebong* especially fully utilized the *Jindo* and *Goido* areas along with other southwest islands of Korean peninsula, which was conquered and dominated since 909, as its strategic base. This battle unfolded as large-scale *Baekje* Naval Forces attempted a pincer attack with the infantry and the cavalry and *Taebong* Navy responded with taking a bold offensive by forming a close order. The battle was characterized by such tactics as collision-

destruction with iron horn and big stones, as well as fire attack tactics applying the tide and fire arrows. Such facts reflect that although this era was a transitional period to medieval society, naval battles still encompassed the ancient nature due to the immaturity of epoch-making weapon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battle of *Deogjinpo* mad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dynamics of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The triumphant *Taebong* took the initiative of the wars by totally dominating the *Naju* area. Later *Baekje*, on the other hand, witnessed the decisive strategic failure as it became the object of *Taebong* naval threat from the rear, not to mention ultimately losing the west sea dominance to *Taebong* including the *Deogjinpo* area. Such results also made a deep impact in the subsequent military policies of both kingdoms. After forfeiting the marine dominance over the west coast, *Baekje* was forced to concentrate on infantry and cavalry for military operations. *Taebong* was all too willing to actively pursuing the navy-based military policy, so much that it reinforced the fleet to the end of its regime since the value of navy in the rear attack of *Baekje* has been proven outstandingly successful. The Naval Operations until *Goryeo* unified the Three Kingdoms in 936 and its successive military policies were greatly indebted to the Victory of *Taebong* Navy at *Deogjinpo*.

Key Words : *Taebong*, Later *Baekje*, Later *Baekje*'s Fleets, Navy, The Naval Battle of *Deogjinpo*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의 연구*

— 지명설화로 본 궁예정권의 최후 —

李 在 範**

1. 서 론
2.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와 특징
3. 정사류와 구비전승의 비교를 통한 궁예정권의 최후
4. 결 론

1. 서 론

궁예정권에 관한 연구가 심도를 더해 가고 있다. 2006년에는 궁예정권의 군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성고가 나왔다.¹⁾ 뿐만 아니라 궁예정권과 태봉에 관한 현재의 연구수준을 반영한 문헌사적 연구결과와 그동안의 고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제 수혜로 연구되었음.

** 경기대학교 교수

1) 신성재,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강문석, 『철원환도 이전의 궁예정권의 성격』,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8.

고학 및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한 보고서도 간행되었다.²⁾

궁예와 궁예정권의 역사가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궁예정권의 여전한 난제는 사료의 빈곤이다. 궁예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사류 문헌사료가 부정적 일변도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성고가 전부였다. 그 결과 궁예와 궁예정권의 연구는 포악한 군주에 의한 과도적 정치권력이라는 인상만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보고서나 기존 비역사학계에서 거론되었던 궁예 관련 구비전승에 관한 내용들은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 인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구비전승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정사류의 인식과의 괴리는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로 남는다.³⁾

정사류의 편찬은 국왕의 입장에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술된 것이다. 왕권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세계가 개방되고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고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어서 왕조의 정통성을 옹위하던 정사류의 신빙성과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구비전승이나 현지인의 기억에 의한 자료들이 역사의 재구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중세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조에서 간행한 정사류의 문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려사는 개성사, 조선사는 한양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본고는 한 지역에서 구비전승된 기억들을 어떻게 왕조사 또는 통사와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고민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상당한 기간 궁예와 철원, 그리고 포천을 비롯한 지역에 남아 있는 궁예관련 구비전

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 조현설,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13집, 1995.

승에 관심을 가져왔다.⁴⁾ 이러한 작업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⁵⁾ 그러나 학문분야의 특성상 이를 역사의 재구성으로까지 연결하지는 못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궁예와 관련된 구비전승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 정사류와 비교 분석하여 궁예와 궁예정권의 최후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밝혀 보고자 한다.⁶⁾ 미리 언급하자면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교체기 상황을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비전승을 사료로서 인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가는 작업이지만,⁷⁾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중앙의 정사류 자료와 향토의 구술 자료가 상호 소통을 통하여 객관성을 갖는 역사상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리한 시도임을 알지만, 이러한 작업이 구비전승에 대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이재범, 『역사와 설화사이』, 『강원민속학』 20집, 2006.

5)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 역사문화유적』, 2006.

6)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설화의 역사적 복원이 유인순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는 관련설화들을 모아 ‘왕위 찬탈과 탈출, 복권을 위한 항쟁’(『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 역사문화유적』, 2006, 177-179쪽)이라는 장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7)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방의 구술자료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용된 사례는 보인다. 윤용혁(『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은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삼별초의 宋徽(183-185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망바위’를 삼별초군이 망을 보던 장소(214쪽의 주30), 배중손의 최후 항전지를 남도성(216-217쪽)으로 간주하고 있다. 배중손의 죽음에 대해서도 ‘구전적인 현지인들의 믿음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229쪽)라는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와 특징

먼저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궁예관련 구비전승의 분포지역은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정사류에 수록된 설화적 내용들과 다른 것들이 전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궁예와 관련된 설화가 가장 많은 곳은 철원이다. 이곳은 궁예가 대궐을 지어 거주하였던 곳을 고궐리라고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관련된 지명, 설화가 많다. 그 이외의 지역으로는 포천, 안성이 궁예관련 설화가 많다. 이러한 궁예관련 자료를 집성한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궁예관련 구비전승과 관련된 유물유적은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남북도를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따르면 궁예관련 유물 유적은 6개도 23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다.⁸⁾

그러나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는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정사류에 나타나는 설화나 사실과 관련된 지역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구술이나 읍지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는 유적 일람표와 함께 유적 개황을 소개해 두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현지 구술 및 읍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궁예관련 설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궁예의 활동 지역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요약된 표에 따르면 설화의 양적 분포는 철원, 포천, 평강, 안성 순이

8)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09-210쪽. 본고에서 철원의 지명에 있어서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를 저본으로 한 것은 필자가 이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하였고,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에 앞서 기초 작업으로 『태봉·궁예관련 사료조사연구』(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이다.

다. 다른 지역은 1~2건 정도이다.

그런데 궁예의 출생과 관련된 설화는 어느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다.⁹⁾ 『삼국사기』에 외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¹⁰⁾ 이와 관련된 설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궁예관련 설화는 그의 성장기부터 나타난다. 그의 성장기와 관련된 설화는 안성 지역에서만 찾아진다. 정사류에서는 모호한 부분이며, 단지 ‘흥교 사는 지금의 세달사’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¹¹⁾ 그렇지만 안성에 비정한 예는 없다. 그런데 설화상으로는 안성에서만 발견된다. 현행 학계의 통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안성의 설화 가운데는 처음 궁예가 피해서 왔다고 하는 곳이 있다. 진골인 궁예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진촌리가 있고, 마주 보이는 곳에 있는 강촌리는 궁예의 처 강씨부인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곳에서 쌍미륵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왕자골이 나온다. 그리고 칠장사는 궁예와 그의 유모가 50여일 걸어 와서 살았다고 하는 곳이다. 칠장사의 명부전 뒤에 있는 궁지는 궁예가 활을 쏘는 연습을 하였던 곳이라고도 한다. 굴암사도 궁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안성의 국사암에는 궁예 미륵이라고 불리우는 삼존불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이 미륵이 궁예와 그의 두 아들인 신평보살과 청평보살이라고 한다. 이처럼 안성에서만 궁예의 성장기와 관련된 설화가 나타난다.

한편 궁예의 전성기와 관련된 설화는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다른 지역

9) 궁예와 관련된 설화의 전반적인 시기 구분은 이미 시도한 바가 있다(이재범, 『역사와 설화사이』, 『강원민속학』 20집, 2006).

10) 5월 5일에 외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그 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중오일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습니다. 또 광염이 이상하였으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 하였다(『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11) 현재 세달사 부근으로 영월 일대로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준식, 『세달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11·12·13호, 1999).

보다도 철원에 전성기때의 지명이나 유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궁예도성이 있다. 그리고 어수정이 있다. 궁예가 물을 먹었다고 하여 붙여졌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궁예도성과 어수정은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아직 발굴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대가 궁예도성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밖의 지명으로 뱃가리소(沼)는 궁예의 군사들이 물을 길어 먹었다고 하는 곳이다. 군사들의 양식을 쌓아 두었다고 하는 군량동이 있다. 이 밖에도 철원에는 그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지명들이 남아 있다. 궁예바위는 명성산 정상 부근에 있는데, 이곳에서 궁예도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고 한다. 마명동은 궁예때 군사에 사용할 말을 먹이던 곳으로 말울음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무금동은 궁예가 군사용으로 무기를 제작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성모루는 궁예때 군마 사육과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성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장수나들은 궁예 당시 장수들이 말을 타고 가며 훈련을 하였던 곳이라 한다. 장수들이 나들던 곳이라 하여 이러한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활터개가 있다. 궁예때 활을 쏘던 곳이라고 한다. 철원은 전성기를 알려주는 명승지도 있다. 양천은 궁예가 遊觀했던 휴식처로 알려졌다. 북관정이 있다. 이곳은 궁예가 즐기던 정자이다. 동막동은 궁예의 군영이 있었던 곳이다.

평강군에는 사청산이 있다. 궁예가 무예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곳이다. 문과장이 있다. 궁예가 과거를 실시했다고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최초시행은 고려 광종때라고 하는데, 궁예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어떻든 궁예때 문과를 실시했다는 설화가 있는 것은 흥미롭다. 전쟁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내치가 활발했었다는 표현이다. 완이정은 궁예가 기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전중평이 있다. 전중평은 궁예의 적전이라고 한다.¹²⁾ 적전은 왕이 몸소 농경을 했다는 장소이다.

포천군에도 궁예의 전성기와 관련된 지명이 있다. 남창동은 궁예가 군대

12)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08-310쪽. 『平康郡誌』, 1943년.

를 거느리고 공격할 때 사용할 군량미를 비축하였던 곳이다. 강원도 양구에는 군량동이 있는 데, 궁예가 맥국을 정벌할 때 군량을 운송하는 길이었다고 한다.¹³⁾ 파주의 금파리에는 성지가 있는데, 궁예가 철원에서 피신하여 거주하면서 쌓은 성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궁예 혹은 왕건의 이궁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 부근의 치마대는 궁예가 군사를 독려했다는 곳이다. 연천에는 미래가 있다.¹⁴⁾ 궁예는 조수의 영향을 이용하여 수운을 고려했는데, 이때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배를 밀며 언덕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이때 밀어라고 하여 밀어고개라고 했던 것이 미래고개로 바뀌었다고 한다. 경기도 풍덕에는 임해관이 있다.¹⁵⁾ 이곳은 궁예의 수군기지가 있었다고 한다. 왕건이 전라도에 수군을 거느리고 갈 때 이곳에서 수리를 했다고 한다. 충청북도 청주 정북동토성은 궁예가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궁예의 전성기때와 관련있는 지명으로 여겨지는 지역들은 대개 철원을 중심으로 포천, 평강, 파주, 연천, 풍덕 등지로 그의 전성기때의 활동무대인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한 공통점을 갖는 것은 철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이다.

한편 각 지역들도 특징이 있다. 철원은 궁예의 도읍지답게 궁예도성을 비롯하여 정자가 있기도 하지만, 군사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면 평강은 문과장, 적전 등 궁예가 통치자로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던 흔적을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

이와 함께 포천, 철원과 평강에는 궁예와 왕건이 전투를 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지명이 많아서 이채롭다.¹⁶⁾ 그리고 이 세 지역의 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은 특징을 갖는다. 포천일대에 남아있는 지명은 전투의 과정을

13)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303쪽. 『輿地圖書』, 강원도 양구 고적.

1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1쪽.

15)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30쪽.

16) 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알려주는 반면, 철원에 남아있는 것들은 궁예의 피신과정을, 그리고 평강의 지명들은 궁예의 최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안변에는 궁예의 묘가 있다.¹⁷⁾

이처럼 포천, 철원 및 평강 일대에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설화가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궁예는 궁예도성의 남쪽에 있는 월하리 왕건의 사저에서 바로 공격을 개시한 왕건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때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궁 앞에서 궁예를 몰아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궁예가 최후를 맞게된 지역이 철원 일대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궁예는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명칭도 ‘철원경’이라고 하였다.¹⁸⁾ 자연스럽게 이 일대가 주요한 전투장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이 궁예와 왕건이 전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일대에 있는 궁예와 관련된 지명을 근거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로 간주되어 왔다. 중앙에서 편찬한 사서나 지리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관찬사서에 없다고 해서 1,000년 이상 구비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전부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 점은 단군설화를 비롯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를 역사 사료로서 취급하는 것에 비하면 궁예설화는 상당히 편파적인 취급을 받아왔다.¹⁹⁾ 그런데 궁예설화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보기에 몇 가지 점에서

17)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궁예의 묘이다. 궁예의 묘로 전하는 것이 바로 평강 북쪽의 안변 일대에 있다. ‘궁예묘는 부 서남쪽 120에 있다. 위익사 삼방로 왼쪽이며 석축이 여러 길이가 되고 높다란 형대가 있는데 지금은 반이 무너졌다(『輿地圖書』 함경도 안변 능묘). 대동지지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大東地志』 권19 함경도 15읍 안변 능침).

18) 이재범, 『궁예정권의 철원정도시기와 전체적 국가경영』, 『사학연구』 80, 2005.

19) 김두진이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는 생생한 역사적 진실을 전한다. 설화로 된 사료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이한 신앙이 더 차가되기도 했지만, 원래의 모습 중 탈락되는 면도 있었다. 그것은 고대의 역사적 개별사실이 고려 중기사회에서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또는 처음 작성될 당시에 윤색된 면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가 구체적 역사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데에는 부족할지라도 작성자에 의해 윤색된 부분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탈락되면

일정한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고 할 특징이 있다. 궁예관련 설화의 특징은 집중성과 구체성, 그리고 통일성이다. 집중성이란 지역적으로 같은 시기의 설화가 집중되어 있다. 성장기=안성, 전성기=철원, 전투=포천, 최후=평양이라는 마치 도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다음 구체성은 전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칭 또는 전투 방식, 이동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성은 지역과 시기가 통일되어 있다는 뜻이다. 단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생생한 전투기사가 마치 의도대로 작성한 것처럼 현재까지 구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정사류의 내용들은 문자의 형태로 처음 편찬자의 의도가 보관이 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왔다. 그 보존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보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비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나마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의식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 내용은 마치 계획적으로 저술이라도 한 것처럼 통일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점에서 구비전승이라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정사류와 구비전승의 비교를 통한 궁예정권의 최후

구비전승으로 궁예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이미 있었다.²⁰⁾ 구비문학 분야에서 이미 있었는데 필자와 다소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본장에서는 정사류에 소개된 내용과 구비전승과를 비교하여 궁예의 최후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1) 정사류에 기록된 궁예의 최후

정사류에 나타난 궁예의 최후는 갑작스러운 것으로 표현된다. 『삼국사기』 견훤전과 연표에는 궁예의 최후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다.

A-1. 정명4년 무인(918)에 철원경 사람들의 마음이 홀연히 변해 우리 태조를 추대해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견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을 8월에 일길찬 閔部을 보내 축하를 표하고, 이어 공작선과 지리산의 대나무 화살을 바쳤다.²¹⁾

A-2. 6월에 궁예의 휘하 인심이 홀연히 변하여 태조를 추대하니 궁예는 도망하다가 아랫사람에게 피살되고, 태조는 즉위하여 연호를 칭하였다.²²⁾

위의 두 기사는 모두 궁예가 철원경의 인심이 변하여 갑자기(忽變) 몰려나고, 왕건이 추대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다. A-1과 A-2의

서 역사적 진실을 거침없이 들어내준다. 실성왕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살해되었다거나 또는 진지왕이 국인에 의해 폐위되었다라고 함은 물론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다”(『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사료적 가치』, 『구비문학연구』 제13집)라고 한 것이 참고된다.

20)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 『삼국사기』 권50 견훤열전.

2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12 경명왕 2년, 『삼국사기』 권31 연표(하).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A-2의 내용에는 궁예를 죽인 자가 부하라는 내용이 더 있다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 설명은 『삼국사기』의 견훤전과 연표를 답습한 『삼국유사』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B-1. 정명4년 무인(918) 철원경의 衆心이 갑자기 변하여 우리 태조를 추대하였다. 흰이 이를 들고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다. 그리고 공작선과 지리산 죽전 등을 보냈다.²³⁾

B-2. 후고구려 태조 무인(918) 6월에 궁예가 죽고, 태조가 철원경에서 즉위했다.²⁴⁾

그리고 『삼국사기』 궁예전에는 궁예가 몰려나게 된 동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궁예의 몰락이 궁예가 강씨 부인을 죽인 이후로는 의심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분노하는 일이 많아져, 여러 벼슬아치와 장수들이나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도륙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부양과 철원 사람들이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918년에 발견된 이른바 ‘王昌瑾의 古鏡文’을 근거로 하여 왕건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왕건 일파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부양과 철원의 민심(衆心)을 반영하였다는 표현이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고경문을 번역한 宋含弘 등과 홍술(홍유)·백옥삼(백현경)·능산(신승겸)·복사귀(복지겸) 등이었다. 송함홍 등은 고경문의 반역을 거짓으로 꾸며 궁예에게 보고하였고, 홍술 등은 6월에 궁예에게 왕건에게 찾아가 혁명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왕건은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 『삼국유사』 권2 기이(하) 후백제 견훤.

24) 『삼국유사』 권1 왕력.

C. 나는 충성과 순직으로 자처하거니와 지금 왕이 비록 사납고 나라가 어지러우나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 대저 신하로서 임금자리에 갈 마드는 것은 이아말로 혁명일 것인 바, 나에게 실로 그런 덕이 없는 터에 감히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일을 본받겠는가?²⁵⁾

왕건의 이 사양은 본인의 뜻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왕건이 거사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은 부인 유씨의 발언이었다.

D. 어진 이가 어질지 못한 이를 치는 것은 예로부터 그리하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논을 들어보니 저 조차도 오히려 분이 치밀어 오르거늘, 하물며 대장부로서야 이를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홀연히 변한 것은 천명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²⁶⁾

부인 유씨는 혁명은 민심을 얻은 천명이라고 하여 갑옷을 왕건에게 건네며 거사를 강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사는 918년 6월에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도 전광석화와 같다. 부인 유씨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붙들 어 옹위하고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전 모의도 없이 6월의 어느날 밤에 바로 거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E. 앞서 인도하는 이에게 “왕공께서 이윽고 정의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앞뒤에서 분주히 달려나와 따르는 이들이 그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으며, 게다가 먼저 궁성 문밖에 도착해 북을 두드리고 떠들어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만명이었다. 그리하여 왕(궁예)이 이 말

25)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26)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급기야 변장을 하고 산림 속으로 도망해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부양의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²⁷⁾

위의 내용에서처럼 『삼국사기』 궁예전에서는 궁예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이미 저버렸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궁예가 자신의 근거지인 부양에서 ‘부양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하여 왕건이 민심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필법을 구사하고 있다.²⁸⁾

그렇다면 『삼국사기』에서 이토록 민심의 획득과 천명을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삼국사기』에서 강조했던 궁예의 실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면목은 과연 무엇일까? 『삼국사기』 궁예전에 수록된 궁예의 실정에 관한 기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실제 『삼국사기』에는 왕건의 거사를 중심의 흥변이라고 하였지만, 궁예의 실정에 관하여 상당히 일찍부터 거론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궁예의 실정이라기보다는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이거나 궁예와 견해를 달리 하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F-1. 천복원년 신유(901)에 선종이 스스로 왕을 일컫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깨뜨렸던 까닭에 평양의 옛 도읍이 피폐해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하였다. 대개 그가 태어났을 때 버림받았던 것을 원망했던 까닭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한번은 남쪽을 돌아다니다 홍주의 부석사에 이르렀을 때 벽에 신라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쳤는데, 그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²⁹⁾

27)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28) 『고려사』에는 ‘궁예는 암곡으로 도망하여 이틀 밤을 머물렀는데 허기가 심하여 보리 이삭을 몰래 끊어 먹다가 뒤이어 부양민에게 살해당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여 거사 이틀만에 백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고려사』 권1 태조세가).

29)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F-2. 천우 2년 을축(905)에 새 수도로 들어가 관궐과 누대를 수축하는데 한껏 사치를 다하였다. … 선종은 세력이 강성함을 스스로 자만했으며, 아울러 집어삼키려는 뜻으로 나라 사람들에게 신라를 ‘滅都’라 부르게 하고, 무릇 신라에서 오는 이들은 모조리 죽여 버렸다.³⁰⁾

F-3. 주씨의 후량 건화 원년 신미(911)에 연호 정책을 고쳐 수덕만세 원년이라 하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다. … 궁예는 직접 불경 20권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요망하여 하나같이 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었다. 때로는 단정하게 앉아서 이를 강설하니 승려 釋聽이 이르기를 “모두 요사스러운 말이요 괴이한 이야기로 가르침 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선종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쇠뿔등이로 쳐죽였다.³¹⁾

F-4. 건화 4년 갑술(914)에 연호 수덕만세를 고쳐 정개 원년이라고 하였다. 태조를 백선장군으로 삼았다. 정명원년(915)에 부인 강씨가 왕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하는지라 정색을 하고 간하자, 왕이 미워해 말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니 웬일이냐”라고 하였다. 강씨가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왕은 “내가 신통력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뜨거운 불로 쇠방망이를 달구어 음부에 처넣어 죽였으며, 그녀의 두 아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이후로는 의심이 많아지고 급작스럽게 분노하니, 여러 벼슬아치와 장수들이나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도륙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부양과 철원의 사람들이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하였다.³²⁾

궁예의 실정에 대한 내용은 위의 네 기사이다. 공교롭게도 궁예가 연호나 국호를 바꾸거나, 도읍을 옮긴다는 등 국가의 어떤 개혁의지가 보이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궁예에 대한 실정의 내용이 나온다.

30)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31)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32)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F-1의 내용은 궁예가 신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2도 신라에 대한 궁예의 생각이다. F-3은 궁예의 불교에 대한 비판이다. F-4는 부인 강씨를 죽인 일이다.

그런데 위의 네 기사는 모두 특정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히 민심의 반영은 보이지 않는다. F-1의 내용은 궁예가 신라왕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했는데, 앞문장과 명분상 맞지 않은 『삼국사기』 찬자의 말이다. F-2는 궁예가 신라를 병탄할 목적으로 신라에서 귀부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삼국사기』 찬자의 평이다. 궁예가 F-3의 내용 가운데 ‘요망하여 바르지 못하다’는 평도 『삼국사기』 찬자의 것이다. 그리고 궁예의 불교에 대해서도 석충을 인용하여 ‘요사스럽고 괴이하다’고 평하고 있다. F-4의 내용은 부인 강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부인 강씨가 말한 궁예의 그릇된 일이란 무엇이였을까?

위의 F1~F-4의 궁예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만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궁예의 어떤 처사가 실정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F-1에서는 이미 관련없는 서술을 찬자가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F-2에서도 불경의 어떤 내용이 용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강설의 어떤 내용을 석충이 요사스럽다고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F-4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씨 부인이 말한 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궁예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논평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부정적인 논평만 있을 뿐이다. 궁예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평은 선입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선입견은 바로 신라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50의 말미에 있는 찬자의 궁예와 견훤에 대한 논평이다.

신라의 운세가 다하고 올바른 도리를 잃어 하늘이 돕지 않고 백성들도 불지 않았다. 그러자 못 도적들이 그 틈을 타서 마치 고슴도치 털처럼 일

어났는 데,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자는 궁예와 견훤 두 사람뿐이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는데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까지도 베어버리기에 이르렀으니 그 어질지 못함이 아주 심했다. 견훤도 역시 신라의 백성에서 일어나 신라의 국록을 먹으면서 불칙한 마음을 품고 나라의 위태함을 다행히 여겨 도움을 침략하고 임금과 신하들을 마치 새나 짐승 죽이듯 했으니, 참으로 천하에서도 가장 악한 자였다. 그러므로 궁예는 자기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자기 자식에게서 재앙을 입었다.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랴. 비록 項羽나 李密 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도 한나라와 당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하물며 궁예나 견훤같이 흉악한 자가 어찌 우리 태조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³³⁾

위의 내용으로 보면 『삼국사기』 찬자의 궁예와 견훤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취해 온 신라에 대한 반역에 관한 것뿐이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왕건은 신라의 정통을 이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삼국사기』 찬자들의 의도가 있다. 왜 왕건이 신라의 장수가 되지 않고 궁예의 장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신라의 정통을 지키려면 왜 신라에 투항하지 않고 신라를 고려에 병합했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논평은 단지 고려의 통합을 당위화 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논평에 따르면 왕건의 혁명 명분은 궁예의 반신라정책을 명분으로 한 것일 뿐 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³⁴⁾

지금까지 정사류에 소개된 왕건의 궁예 축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국사기』 찬자들은 궁예의 실각이 그 지역민들에 의한 중심을 잃어서 발

33) 『삼국사기』 권50 견훤전, 『삼국유사』 권 제2 기이하 후백제 견훤.

34) 그 밖에 민생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논평으로만 보면 반신라정책이 주된 것으로 이해된다.

생한 것으로 의식화 하려고 했다. 궁예의 실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사치스럽다거나, 불경의 내용이 요망스러웠다는 것은 당시인들의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집단에 의한 조작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삼국사기』 찬자들은 백성을 학대한 궁예를 천명에 의하여 백성들이 심판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궁예가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에서는 구태어 ‘부양과 철원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내용과 궁예가 ‘부양의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2)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구비전승

철원에 있는 궁예관련 설화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것이 있다. 궁예의 최후에 대하여 정사류에는 백성에게 맞아 죽은 왕으로 비참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관의 평가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도덕적 논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록은 왕건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만 있을 뿐, 궁예측의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사류의 기록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경우는 없다.³⁵⁾ 그것은 어떻게 한국사학계에서의 통설은 정사류의 인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궁예의 역사를 복원하는 측면보다는 정사류의 평가를 따라 왕건이라는 위대한 군주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궁예측의 자료가 없는 한 왕건 중심의 자료만으로 당시의 실상을 그린다 것은 다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궁예관련 설화는 궁예측의 입장을 다소 대변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³⁶⁾

35) 유인순이 ‘궁예왕에 대한 신화성의 부정과 훼손이야말로 승자의 횡포가 절정을 보이는 것’(『궁예왕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80쪽)이라고 한 내용 참고.

36) 궁예관련 문헌과 구비전승들을 정리하다보면, 역사는 냉혹함 그 이상의 횡포함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하게 된다. 문자 사용 유무로 계층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절,

설화에 나타난 궁예에 대한 정서는 궁예를 악의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설화에서는 궁예의 실정에 대해서 궁예 본인 보다는 그의 부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구비전승은 정사류에서는 궁예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을, 그의 부인에게 돌리고 궁예를 감싸자는 의도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사류에서는 궁예가 자신의 부인이 간음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워 그녀의 소생인 두 아들과 함께 죽었다³⁷⁾고 하였지만, 설화에서는 그의 부인이 폭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G. 그 여우(강씨부인)가 썩은 사람의 고기를 좋아하는 데, 임금님은 여우에게 반하여 여우가 하라는 대로 하여 억울하게 죽이기를 많이 하였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한다. 결국에 송파에서 가져온 삼족구에 의해 여우가 죽게 되었다.³⁸⁾

이 설화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철원지역에서는 궁예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 부인의 잔인함이 죽임의 원인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부인은 사람이 아닌 구미호라고 하였지만, 이 지역사람들은 궁예의 포악함을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상에서 찾고자 하는 궁예에 대한 일종의 연민을 보이고 있다.

왕건일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정사류가 편찬되었다면, 철원의 정서에서는 궁예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궁예가 도움을 주는 영험한 존재로 인정되기도 한다.³⁹⁾

지배층인 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는 그들의 기록권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던 피지배 계층의 증언을 무시하거나 변조시키기는 여반장이었던 것이다(유인순, 『궁예왕 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79-80쪽).

37) 궁예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죽인 이유를 정치적인 데서 찾고 있다(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8) 『강원전통문화총서』-설화-(최웅·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487-489쪽). 내용이 다소 길어 요약하였음.

종래에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관찬사서가 아니면 일종의 미신이나, 황탄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여 사료로서의 취급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관찬사서는 왕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구비전승에 의한 자료는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서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진실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는 않을까?⁴⁰⁾

구비전승에 따르면 정사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궁예는 왕건일파에 의하여 하룻만에 궁궐을 비우고, 쫓겨난지 이틀 만에 부양민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정사류에 궁예정권이 하룻만에 전복이 되고, 이틀 후에 백성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기사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맞아 죽은 사람이 궁예라는 것을 알았을까? 정사류의 기사는 궁예를 잔혹하게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그려 민심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보도의 통제는 이 시기에는 현대보다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구비전승에 따르면 궁예는 울음산(명성산)에 성터를 쌓고 상당한 기간을 왕건과 전투를 했다고 한다. 과연 울음산에서 있었던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을까? 울음산에서의 궁예와 왕건의 대치상황을 통하여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H. 궁예는 보개산성에서 패하자 자신을 따르던 군졸들과 함께 밤중에 궁성을 빠져나와 지금의 한탄강과 군탄리를 경유하여 명성산에 은거했다고

39)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63-183쪽.

40) 철원과 포천 일대에 남아 있는 많은 구비전승들 가운데 궁예의 최후와 관련된 이 전승들을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이들을 정사류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누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기록 아닌 구비전승으로 1000년 이상을 전해 온 지명설화에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역사적 진실을 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한다.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재기의 기회를 노린 것이다. 왕건은 이곳에서 궁예와의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이 험해서 왕건은 창과 활만으로는 도저히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때 백발노인이 밤에 발을 갈면서 자신의 소를 왕건에게 비유하여 “왕건 태조같이 미련한 놈의 소야.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걸 허부적거리고 네가 넘어갈 거야. 바위돌이 이렇게 있으니까”라고 암시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성산의 형상이 소이니 정면 공격은 뿔로 막아서 성공하지 못함으로 후면 공격을 하라고 하여, 왕건은 비교적 평탄한 후면 공격을 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⁴¹⁾

위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을 울음산에서 궁예는 왕건군의 포위를 견딘 것으로 여겨진다.⁴²⁾ 궁예가 명성산성에서 상당한 기간을 왕건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⁴³⁾

구비전승은 비교적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의 정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궁예가 어떻게 하여 도성에서 나와서 남쪽인 포천 일대에서 왕건과 대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명성산과 같이 오랫동안 거점으로 이용하였던 지역에는 여러 설화가 중복, 착종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지명들을 지역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41) 『강원전통문화총서』-설화-(최웅·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489-490쪽).

42) 울음산 전설은 철원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전설인데, 몇몇 작가들은 몰랐거나 외면해 버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인순, 『궁예왕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제21집, 2002, 108쪽). 철원의 대표적 설화라는 한 표현으로 생각하여도 좋을 것 같다.

43) 조현설은 ‘명성산은 궁예와 왕건의 최대 접전지였을 텐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 허구화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앞의 논문, 163쪽). 유인순은 ‘보개산성과 명성산성에 있는 대궐터는 왕건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치욕을 되씹으며 왕건군과 일시 대결하던 장소이고, 운악산성(일명 궁예성터)의 대궐터는 왕건군과 반년 이상에 걸친 혈전을 벌이던 곳이었다(유인순, 177쪽)’라고 했는데, 그 기간 설정의 근거를 잘 알 수가 없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포천, 철원 및 평강의 궁예 최후와 관련된 설화는 일정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지역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이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천시 영북면 일대의 지명을 살펴보자.

I-1. 여우고개, 호현동(狐峴洞) : 산정호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는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이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여우처럼 엿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⁴⁴⁾

I-2. 망봉 : 산정호수 좌우에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이다. 궁예가 이 봉우리에 망원대를 높이 쌓고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왕건의 부하 신승겸에게 궁예는 대패하였다고 하며 궁예의 군사가 망을 보던 곳이라고 하여 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⁴⁵⁾

I-3. 야단골, 야전골 : 다대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왕건의 군사가 궁예의 군사를 쫓아 이곳에 이르렀을 때 망봉에서 망을 보는 궁예의 군사를 내려오라고 야단을 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벼락을 야단스럽게 많이 치는 곳이라 하여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다른 유래로는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철원북방으로 패주하여 갈 때 이곳에서 왕건 군사의 급습을 받아 싸우게 된 곳이라 하여 야전골이라고도 불리되었다고 한다.⁴⁶⁾

44)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0쪽.

45)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219쪽.

46)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1쪽. 또 성동리산성(城東里山城)도 포천에서 철원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성은 많이 붕괴되었으나 일부 석벽이 남아있고 성의 높이도 7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전국유적목록』에서는 이 산성이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때 하루 저녁 숙영하기 위하여 강북에서 일렬로 서서 돌을 전달해 쌓았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5쪽).

I-4. 항서받골 : 산정호수 아래 있는 골짜기이다. 궁예와 왕건의 결전에서 왕건이 궁예로부터 항복을 받은 곳이라 해서 항서받은 골이라 부르다가 항서받골이 되었다고 한다.⁴⁷⁾

I-5. 가는골[敗走골] :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대가 왕건의 군대에게 패하여 지나간 길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패주골이라고 하는데, 이후 음운변화를 일으켜 ‘파주골’로도 불리게 되었다.⁴⁸⁾

I-6. 정승바위 : 삼형제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태봉국 궁예왕이 피신할 때 정승이 이 바위에서 망을 봤다하여 정승바위가 되었다고 한다.⁴⁹⁾

I-7. 사실골고개 : 호현동에서 이동면 도평리와 장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왕건에게 쫓긴 궁예가 명성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궁예의 군사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왕건에게 투항하였다고 하여 사실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⁵⁰⁾

I-8. 사실골 : 사실골고개 정상 남쪽에 있는 왕건에게 쫓긴 궁예가 명성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궁예의 군사가 모든 사실을 밝히고 왕건에게 투항하였다고 하여 사실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⁵¹⁾

I-9. 궁예왕굴, 궁예침전 : 울음산 위에 있는 굴이다. 궁예왕이 왕건의 군사에게 쫓기어 은신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 40여 명 들어 갈 수 있는 자연 동굴이다.⁵²⁾

47)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1쪽.

48) 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역사문화유적보고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7쪽.

49)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47쪽.

50)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4쪽.

51)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0쪽.

다음은 포천시 화현면 일대의 설화들이다.⁵³⁾ 이 설화들도 궁예와 왕건의 군사들의 전투 상황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J-1. 강사골(화현면 우시동)은 왕건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궁예가 격전을 벌였던 곳인데, 이 일대에 강한 군사들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강사골이라는 지명은 ‘강한 군사(強師)’에서 유래된 것이다.⁵⁴⁾

J-2. 별앞골 : 운악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궁예가 왕건의 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라골의 변음으로 생각되며 큰 별앞골과 작은 별앞골이 있다.⁵⁵⁾

J-3. 화평장터, 태평장터 : 영선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궁예와 왕건이 투석전을 벌일 때 운악산 높은 산에서 신선이 불을 비쳐준 이곳에 장이 서게 되었다. 신선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동경하는 평화의 이상향이기때 그 불빛이 닿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⁵⁶⁾

J-4. 피나무골 : 달인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대 육박전을 벌인 곳이라고 한다. 그때 군사들의 피가 흐르고 튀어서 나무마다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피나무골이 되었다.⁵⁷⁾

J-5. 아랫지재(坪村) : 윗말 북쪽 별판에 있는 마을이다. 지치재라는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지재(芝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태봉국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가 투석전을 벌인 느릅내라는 곳에 쌓인 돌이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고개 위쪽을 윗지재, 아래쪽을 아랫지재라 불러 오다가 왜때때 윗지재를 상촌으로도 부르고 아랫지재는 별판에 있다고 하여 평촌으로 부르게 되었다.⁵⁸⁾

J-6. 윗지재(上村) : 두문동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치지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지재(芝岨)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가 투석전을 벌인 느릅내라는 곳에 쌓인 돌이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고개 위쪽을 윗지재 또는 상촌(上村)으로도 부르고 있다.

J-7. 설원골 : 운악산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궁예의 군사가 나라가 망했다고 서럽게 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⁵⁹⁾

위의 지역의 지명 가운데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각각 같은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명들이 전투시 대치 상황을 알려 주는 여우고개(I-1)나 별앞골(J-2)과 같은 관측 및 탐색과 연관이 있는 지명이 있다. 그리고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하는 야전골(I-3)이나 화평장터(J-3) 같은 지명이 나온다. 한편 전투가 치열했음을 알게 하는 피나무골(J-4)이 있다.⁶⁰⁾ 그리고 전투 과정 중에 투석전을 벌였음을 확인(J-5와 J-6)할 수 있는 지명도 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를 알게 하는 항서받골(I-4)이 있다.

그런데 영북면과 화현면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영북면과 화현면 사이에는 영중면과 일동면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중면과 일동면 등지에는 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달리 영북면과 화현면은

52)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14쪽.

53) 기본적으로 『포천의 지명유래집』(포천문화원, 2006)에서 추출하였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려고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가감을 하였다.

5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0쪽.

55)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6쪽.

56)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4쪽.

57)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8쪽.

58)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601쪽.

59)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86-587쪽.

60) 화평장터 전투에서 군사들이 흘린 피가 마을의 나무에 스며들었다고 해서 전해지는 유래이다. ‘아이구 아피’하고 피나무골에서는 비오는 날이면 고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한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9쪽).

두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관련 지명이 많다. 따라서 두 지역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수 있다. 그러므로 영북면과 화현면에 전투관련 지명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전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북면 명성산성이 있고, 화현면은 운악산성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개산성에서 일시 머물렀던 궁예는 왕건군에게 쫓겨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을 장악한 뒤 이곳을 근거로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왕건군은 계속하여 이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 접전 장소가 운악산성 일대에서는 화평장터였고, 명성산성 일대에서는 야전골이었다. 이 충공세에서 마침내 궁예군은 패퇴하고 만다. 설화의 순서상 먼저 전선이 붕괴된 곳은 운악산성이었던 것 같다. 피나무골의 설화는 거의 전멸에 이른 궁예의 군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운악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잔류병사들과 명성산성에서 합세하여 궁예는 최후의 일전을 불사하였던 것 같다. 항서받골이라는 지명이 명성산성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결국 궁예는 항서받골에서 항복을 하고 왕정랑을 건너 북향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¹⁾ 이 과정을 운악산성전투 또는 명성산성전투로 불려도 좋을 것 같다. 이 양 전투에서 패퇴한 궁예는 이제는 평강 방향으로 밀려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궁예의 퇴각로는 철원의 동부지역이었던 것 같다. 명성산성에서 패퇴하여 평강 방향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철원군에 남아있는 관련 설화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K-1. 개적봉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지포리. 궁예왕이 왕건에게 패주

61) 궁예 일행은 가는골을 지나 왕정랑(경기도 포천)을 건너 북행을 시도 하였다. 문혜리 앞쪽에 있는 한탄강의 지류를 건너는 데 왕이 바지를 걷고 물을 건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하여 피신하였다는 유래가 있다.⁶²⁾

K-2. 군탄리(軍歎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에게 쫓겨 명성산(鳴聲山-울음산)으로 갈 때 이곳을 지나며 한탄(恨歎)했다고 하여 유래가 되었다. 군탄리는 명성산에서 오성산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⁶³⁾

K-3. 느치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시루메 고개를 흐느껴 울며 넘었던 고개라고 한다. 눌치고개라고도 한다.⁶⁴⁾

K-4. 왕재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왕정고개와 같이 옛날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명성산에서 먹실쪽으로 넘어 평강 방면으로 도주하기 위해 궁예가 넘어 갔다는 고개이다.⁶⁵⁾

K-5. 시루메고개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 개적봉에서 쉬면서 한숨을 돌린 후 시루메 고개를 넘어가며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⁶⁶⁾

K-6. 한잔모텡이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군탄리에 있는 골짜기. 왕건에게 쫓겨 달아나던 궁예왕이 개적봉에서 쉬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골짜기이다. 일설에는 한숨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⁶⁷⁾

위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궁예의 군사가 슬퍼하면서 패주하는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철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명설화는 느치와

6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1쪽.

63)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4쪽.

64)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8쪽.

65)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8쪽.

66)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6쪽.

67)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34쪽.

같이 흐느낀다거나, 시름에 잠겼다거나(시루메고개), 한숨을 쉰다거나 하는 등 패잔병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이들 지명이 명성산성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북으로 패퇴하면서 남긴 흔적들로 보인다.⁶⁸⁾ 왕건군의 추격전으로 궁예군이 패퇴하여 가는 상황을 알려준다.

포천 일대에서의 전투에 패하여 북으로 향한 궁예는 평강군에 이르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평강군에 남아 있는 지명설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L-1. 웅주포(翁主浦) 평강. 패한 궁예왕의 웅주가 자살한 곳이다.⁶⁹⁾

L-2. 갑기천(甲棄川) : 강원도 평강군에 있다. 궁예는 왕건으로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왕건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힘에 부치자 달아났는데 이곳에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궁예는 이 일대에서 배가 고파 보리이삭을 먹다가 부양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삼방과 안변의 경계에 궁예의 무덤이 있다.⁷⁰⁾

L-3. 검불랑(劍拂浪) : 강원도 평강군에 있다. 궁예왕이 왕건의 군대와 직접 격전을 하다가 칼을 내던진 곳이라고 한다.⁷¹⁾

L-4. 돌터미 : 궁예를 축출한 왕건은 삼방 일대의 백성들에게 궁예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궁예를 찾아 돌팔매를 하였던 데,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지 않고 돌을 던져 궁예를 맞추었다고 한다. 돌팔매는 궁예가 죽은 뒤에도 그의 시신위로 계속 행해졌다. 그렇

68) 춘천시의 삼악산 성지에도 궁예의 최후와 관련 있는 설화가 있다. 궁예의 패잔병들 일부가 임시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설화에 따르면 궁예는 왕건에게 쫓겨 샘밭-삼한골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피신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4-225쪽).

69)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28쪽.

70)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0쪽. 『輿地圖書』, 강원도 평강고적, 『平康邑誌』, 규장각10975, 1908년경.

71)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1쪽.

게 하여 돌이 더미로 쌓이게 되었고, 여기에서 돌터미라는 동네이름이 생겨났다.⁷²⁾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평강에 있는 지명과 그 유래는 궁예의 마지막을 보여 주고 있다. 궁예는 이곳에서 갑옷을 벗어 던져 버리거나(L-2), 칼을 버린다(L-3). 그리고 왕건의 군사가 추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⁷³⁾ 궁예의 웅주도 자살을 한다(L-1).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궁예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설화(L-4)도 있다.⁷⁴⁾ 궁예가 부양(평강)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고려사』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고려사』와 이유가 다르다. 『고려사』의 내용을 참고해 보자.

M. 궁예는 암곡으로 도망하여 이틀밤을 머물렀는데, 허기가 심하여 보리 이삭을 몰래 끊어 먹다가 뒤이어 부양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⁷⁵⁾

위에서와 같이 『고려사』에는 궁예가 백성들의 보리 이삭을 끊어먹다가 죽었다고 하여 왕건의 선동으로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처럼 평강에서의 지명설화는 궁예가 죽음을 맞았거나 재기가 불능해진 지역이 이곳이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2)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18쪽.

73) 유인순은 평강 지역에서의 궁예설화가 왕위찬탈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지만, 항쟁과 후퇴와 항복을 거친 뒤 찾아간 태봉국의 '마지막 보루·영원한 휴식처'라고 하였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9쪽). 그러나 설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왕건군의 추격으로 궁예군이 평강으로 싸우지 않고 퇴각하는 상황이다.

74) 이 내용은 『고려사』의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남선의 『풍악기유』에 소개된 바 있는 것처럼 삼방에서 자살하였다는 설화도 있으므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다.

75)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8月 癸亥條.

이와 같이 궁예와 관련된 전투설화는 궁예의 최후가 왕건에게 단숨에 전복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왕건이 궁예를 축출한 뒤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궁예 왕건 정권교체기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음을 알려준다.

N-1. 熊州와 運州 등 十餘州가 反亂을 일으켜 百濟로 귀부하였다.⁷⁶⁾

N-2. 伊昕巖은 활 쏘고 말 타는 것이 없고 다른 재주도 없고 식견도 없었다. 이익을 탐하고 벼슬에 욕심이 많은 자로서 궁예를 섬겨 교활한 방법으로 등용되었다. 그리고 궁예 말년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웅주를 습격 점령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야심을 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하여 왔는데, 그 휘하의 병사들은 대부분이 도망쳤으며 웅주는 다시 백제의 영토로 되었다.⁷⁷⁾

위의 내용을 보면 왕건의 정권 획득 이후에 일련의 반왕건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순식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았다.⁷⁸⁾ 이러한 상황은 정사류에 기록된 민심이 일순간에 바뀌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내용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⁷⁹⁾

그보다는 오히려 설화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건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가 상당한 기간 전개된 뒤에 궁예의 패배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위의 설화들을 근거로 궁예의 최후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전투는 궁예도성을 선공한 왕건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왕건과 그의 추종세력이 궁성 앞으로 몰려갔던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런데 이 공성전에서 선공인 왕건의 군대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 않다. 만약 왕건의 군대가 압도적이었다면, 궁예의 군사는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공성전에서 힘이 딸린 궁예는 재기를 위해 보개산성⁸⁰⁾을 거쳐 남쪽의 산성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⁸¹⁾ 그 일대가 포천군 영북면과 화현면으로 이 지역에는 각각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이 있다. 궁예는 이 두 성을 거점으로 왕건군과 상당기간 대치하였을 것이다.

이 산성 공략에서 왕건이 고전하였음은 앞의 설화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왕건은 후사면으로 기습을 하여 활로를 열고 궁예의 군대와 대접전을 펼쳤던 것 같다. 처음 운악산성이 함락되고 다시 명성산성에서 집결하여 사력을 다한 전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승기를 잡은 왕건은 철원 일대를 경유하여 평강으로 패주하는 궁예를 추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궁예는 마침내 평강에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처하게 되어 무기를 버리고 갑옷도 버린채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 같다.

80) 보개산성은 궁예와 관련된 많은 설화가 있다. 성 이름도 궁예왕대각대성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성 안의 태궐터, 우물 등이 다 궁예가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헌상 궁예가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 단지 이곳에서 궁예와 왕건의 군대가 접전하였다는 전설은 있다. 보개산성을 명성산성과 비교해 보면 궁예는 명성산성으로 가지 말고 보개산성에서에서 결전을 벌였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성규모도 보개산성이 크고 석축의 규모 등 전략, 전술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궁예가 왕건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치욕을 되씹으며 일시 대결하던 장소로 보고 있다(이재, 『철원일대의 궁예관련 성곽 재검토』,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15-116쪽). 궁예는 보개산성에 잠시 머물렀다가 명성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유인순, 『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77쪽).

81) 처음 이동경로를 그렇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국수봉과 북바위와 같은 설화가 이 일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와 유인순 등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국수봉(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궁예가 도읍이 있는 철원에서 왕건에게 쫓겨나 고남산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데 왕건이 그곳까지 추격해 오자 배가 고파서 그 산에서 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북바위, 북암동(관인면)은 하랑골 북동쪽에 있는 큰 바위로 궁예가 왕건과 싸울 때 이 바위에서 북을 쳐 군사를 움직였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포천의 지명 유래집』, 포천문화원, 2006, 554쪽). 이 일대에서 정규군이 전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6)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 8月 癸亥條.

77) 『高麗史』 卷127 熱傳40 叛逆1 伊昕巖傳.

78)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79) 이재범, 『태조즉위시의 사회동향에 관한 일고찰』, 부춘 신연철 교수 정년기념논총, 일월서각, 1995.

이와 같이 궁예관련 설화는 궁예의 최후에 대하여 정사류 사서를 달리 해석해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궁예관련 설화대로라면 궁예·왕건 정권교체는 내전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예의 최후는 궁예도성에서 시작하여 보개산성을 거쳐 명성산성과 운악산성을 거점으로 전개되었던 전쟁의 결과였다. 그 전쟁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규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사류 사서에서 소외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내용을 추상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진다. 비록 구비전승으로 비문서 자료라는 한계는 있으나, 그 상징성이 내포하는 역사적 의미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 론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지명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궁예의 최후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먼저 궁예와 관련된 설화들의 분포상황과 그 특징을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먼저 설화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의 활동시기와 관련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안성은 그의 성장기, 철원과 평강은 그의 전성기와 패퇴기, 포천의 영북면과 화현면은 궁예와 왕건의 전투시기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조작의 형태로 보기에 어렵다.

다음으로 궁예관련 설화의 구체성이다. 특히 궁예와 왕건과의 전투상황은 매우 상세하다. 비록 구비전승이라고는 하지만, 후사면의 평탄한 지형을 찾아 기습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고대 전투의 대표적인 양상인 투석전에 대한 상황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성이다. 궁예와 성장기에서부터 멸망까지 지역적으로 중

복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재단사에 의하여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전승되어 온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는다. 성장기의 안성, 전성기의 철원과 같이 설화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궁예와 관련된 설화에서 일정한 역사적 진실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궁예설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궁예의 최후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궁예는 처음 궁예도성을 급습한 왕건 군의 선공으로 도성을 탈출하여 포천군 관인면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보개산성에서 일시적으로 왕건군과 대치하였다가, 이곳에서 다시 패퇴하여 운악산성이 있는 포천시 화현면과 명성산성이 있는 영북면 일대로 밀려 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마지막의 혈전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전개한 결과, 많은 군사를 잃고 명성산성만을 거점으로 상당한 기간을 저항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곳에서 배후의 기습을 당하여 항서받골에서 항복을 하고, 패주골로 하여 평강으로 이동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왕건군은 궁예를 계속 추격하여 평강 일대에서 섬멸전을 전개하였다고 보여진다. 궁예는 전투 중에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자결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일대의 주민들은 궁예 묘를 세워 돌보아 왔다.

구비전승을 통해 본 궁예의 최후는 왕건과의 치열한 전투로 끝이 났다. 그리고 여기서의 궁예는 실덕하여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한 군주만은 아니었다. 궁예를 추종했던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애정과 연민이 있는 인물로 인정되고 있다. 그의 무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었던 흔적이 있다.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 이행기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궁예의 최후는 실덕한 왕으로서 마치 민중 봉기와 같은 형태로 일시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건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거쳐 멸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비전승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교체는 한국사에서 내전이라고 할 만한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구

비전승을 사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학계의 정서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⁸²⁾ 보다 엄정한 현지답사와 고증을 통하여 궁예에서 왕건으로의 정권 교체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⁸³⁾ 구비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재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질정을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07. 2. 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궁예, 왕건, 보개산성전투, 명성산성전투, 운악산성전투

82) 유인순은 '역사의 기록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궁예왕에 관해서만은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전설에 나타난 궁예왕』, 『태봉국역사문화유적』,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183쪽)'라고 하여 궁예에 관한 여기서의 역사 기록은 정사류를 말하는 것 같다.

83) 궁예와 관련된 연구물들과 자료들의 수집이 많이 진척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집 및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Gungye* in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 The Fall of King *Gungye* seen through his Geographical Legends —

Lee, Jae-bum

Gungye is the representative famous person in ancient history. He was described as most atrocious and abnormal person in Korean authentic history. He carries a different image in lege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authentic history and a legend about *Gungye*. The former is a vehicle to emphasize the authenticity of the king through government controlled history, the latter is a tradition carried down over generations among ordinary people in a limited local area.

Many geographic names related *Gungye* found wide spread in *Cheorwon*, *Pocheon*, *Pyeong-gang* areas. Those names show the fall of King *Gungye*. The reason of *Gungye*'s fall is because of his defeat in a battle with *Wang-geon* who had betrayed him. And geographic legends let us recognize such a situation. There was a big battle between *Gungye* and *Wang-geon*. We can find the battles of *Bogae*, *Myeongseong* and *Wunak* Castles. The *Gungye* related facts found in the legends are those which you could not find in the authentic history.

And we can recognize the value of *Gungye* related legends as historical materials which could be used to restore the historical image of that period. Historical reassessment or recognizing on *Gungye*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with a proper evaluation process on legends or traditions.

Key Words : *Gungye*, *Wang-geon*, The Battle of *Bogae* Castle, The Battle of *Myeongseong* Castle, The Battle of *Wunak* Castle

朝鮮朝 寅劔의 象徵性 研究

趙 赫 相*

1. 寅劔의 梗概와 研究意圖
2. 寅劔의 實體와 그 象徵意味
3. 結 論
- <附錄> 寅劔文獻資料

1. 寅劔의 梗概와 研究意圖

조선의 寅劔은 寅年·寅月·寅日, 寅月·寅日·寅時 또는 寅年·寅月·寅日·寅時에 제작된 劔으로, 辟邪를 위해 선조들이 소장하였던 器物이다. 인검은 제작시기에 따라서 三寅劔과 四寅劔으로 나뉘며, 현재 기존의 도검 연구논문¹⁾에 의해서 그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명

작업이 주로 현존유물과 『조선왕조실록』의 인검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인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기물이었으며, 당시 선조들의 관념 속에 존재했던 인검 이미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바로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한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검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주로 조선조의 한문학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 나타난 인검 형상의 의미와 그 이미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본고에서 인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논할 한문학 텍스트는 고려조 釋息影菴의 <劔說>을 비롯하여, 조선조 宋文欽의 劔銘인 <三寅七星劔>, 趙持謙의 <感懷>, 申欽의 <四寅刀歌>, 俞彦鎬의 <三寅劔贊>, 張維의 <三寅劔賦>, 鄭斗卿의 <三寅劔歌>, 俞漢雋의 <三寅刀銘>, 趙龜命의 <四寅刀賦> 등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한문학 속에 나타난 인검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실례를 종합해보면, 辟邪의 器物로서의 辟邪劔과 士大夫의 義氣를 상징하는 義物로서의 義劔, 그리고 사대부인 君子에게 그러한 의기를 배양하게 해주는 修身物로서의 修養劔이라는 인검의 세 가지 특징적인 象徵性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1) 寅劔에 관한 기념비적인 대표 논문으로는 이석재의 『寅劔考』(경인미술관, 2001)·『寅劔과 純陽劔에 관한 연구』(『韓國의 刀劔 합동세미나』, 육군박물관 주최, 2002)가 있으며, 그 외에도 『刀劔의 機能性 研究』(김성혜·김영섭, 『學藝誌』 6, 육군박물관, 1999)와 『學藝誌』 11, 『朝鮮의 刀劔 特輯』호(육군박물관, 2004)에 수록된 『朝鮮時代 刀劔 研究의 現

況과 課題』(박재광), 『朝鮮時代 刀劔의 類型分析』(이석재), 『畦皆紋研究』(이석재), 『七星劔研究』(김미경), 『朝鮮時代 刀劔에 나타는 紋樣과 매듭장식에 관한 研究』(이승혜)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검의 실체가 규명되었다.

2. 寅劔의 實體와 그 象徵意味

(1) 辟邪의 神物, 辟邪劔

조선의 寅劔은 寅이 3번 겹치는 때인 寅年・寅月・寅日이나 寅月・寅日・寅時에 만들어진 경우 三寅劔, 寅이 4번 겹치는 때인 寅年・寅月・寅日・寅時에 만들어진 경우 四寅劔이라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寅劔은 辟邪의 神物인 辟邪劔으로서 존재해왔다. 요사스러운 鬼物을 물리치는 벽사의 신물인 인검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인검에 대한 한문학 텍스트를 검토하여 인검의 벽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宋文欽(1710~1752)의 <三寅七星劔>²⁾은 바로 三寅에 제조된 인검의 한 종류인 七星劔의 劔銘이다. 이 검명에서 앞의 두 구절은 바로 삼인칠성검의 외양을, 뒤의 두 구절은 그 검의 기능을 보여준다. 복두칠성의 정기를 칼 속에 모으기 위해 七星文을 금상감으로 칼날에 새긴 칠성검은, 三寅에 제조됨으로 인해 辟邪器物로서의 주술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월이 陽剛을 도우니, 복두칠성 무늬 밝게 비치네[日月贊剛 星文昭光]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 삼인칠성검은, ‘잡으면 반드시 베며, 柔道로 이에 끊어버리네[操以必割 柔道是絶]’에서 사용자가 잡으면 柔道로 대상물을 끊어버리는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 여기서의 유도는 劔理의 正道에 따라 부드럽게 검을 운용한다는 개념으로서, 인검의 소지자는 유도로 검을 휘둘러 사된 도[邪道]를 끊어버린다. 사된 도를 상징하는 존재들은 바로 異界의 존재, 즉 怪力亂神의 영역에 있는 귀신이나 도깨비 등이다.

삼인칠성검은 해와 달, 복두칠성의 기운을 받은 칼이다. 日月星宿의 精氣

2) 자료1-『閒靜堂集』卷7 <三寅七星劔>.

가 인검에 모이면, 인검은 단순한 칼이 아닌 鬼物을 제압하는 辟邪의 神物이 되는 것이다.

趙持謙(1639~1685)의 시 <感懷>³⁾에서는 귀신마저도 두려워하는 인검의 辟邪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반딧불주머니가 해어질 정도로 밤새 大西山과 小西山[二西山]⁴⁾의 기이한 서적[奇書]들을 탐독하여 학식을 갖춘 조지검은, 삼인검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까지도 보유하게 된다. ‘삼인검에 의지하니 귀신의 마음 떨게 하네[劔倚三寅 鬼膽寒]’라는 구절의 인검은 바로 異界의 존재인 귀신마저도 공포에 떨게 하는 위력을 지닌 검인 것이다. 三寅이 가지는 벽사기능의 주술적 효과로 인해 인검은 일종의 강력한 호신부적으로서 귀신에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劔은 시 속에서 책[書]과 아울러 조지검의 노년에 있어서 생활 속의 文武兼全을 상징하는 기물이 된다.

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인 申欽(1566~1628)의 <四寅刀歌>⁵⁾를 보면, 사된 이계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인검의 벽사적 성격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에서 신흘은 그의 아들인 東陽尉 申翊聖(1588~1644)에게서 선물받은 四寅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흘은 당대의 名臣으로, 아들에게 인검을 선물로 받을 당시에는 1613년(광해군 5)의 癸丑獄事로 인해 삭탈관직을 당하여 조정에서 放逐되어 김포로 내려가 있던 상태였다. 선조의 駙馬였던 신익성은 임진왜란 때는 宣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으며 1606년(선조 39)에는 五衛都摠府 副摠管을 지냈다. 후일 병자호란 때 그는 主和派 대신들이 세자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하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斥和五臣의 한 사람으로서 청나라 심양에 압송될 정도로 상무정신과 반청의식이 강했던 인물이다. 이들 부자는 박제가가 말한 것처럼

3) 자료2-『迂齋集』卷2 <感懷>.

4) 二西山 : 중국 湖南省 沅陵縣 서북쪽에 있는 大西山과 小西山. 秦나라 때 어떤 隱者가 이곳에 은거하면서 1천 권의 서적이 감추어진 두 산의 石窟에서 공부했다고 전해진다(『湖廣通志』卷12 『山川志』 ‘沅陵縣’).

5) 자료3-『象村集』卷7 <四寅刀歌>.

‘왕실을 함께 도와 평온하거나 험난하거나 충절을 다한[共獎王室 夷險盡節]’⁶⁾ 사대부들이었다.

<사인도가>를 읽어보면, 숲도깨비인 魍와 산도깨비인 魎, 범[虎]과 이무기[蛟] 같은 妖物과 惡獸들을 제압하는 神物로서의 인검 이미지가 한층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숲과 산, 물과 물 등 도처에서 밤에 출몰하여 시인을 위협한다. 길 한복판에서 이러한 鬼物들이 마음대로 횡행하니 그 세력을 억제하기 힘들고, 무고한 백성들마저 이 때문에 해를 입는 등 그 형세가 점차 광폭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흙이 땅귀신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천신과도 통하는 칼, 광채가 빛나는 四寅刀로 스스로를 방어하자, 사악한 귀물들은 저절로 쫓겨가게 된다. 신흙이 가진 사인도의 精髓는 용이 되고 劔氣는 무지개가 되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북두성을 가로질러 紫微宮 별자리까지 뻗쳐오른다. 신흙은 이 사인도와 出仕를 함께 하다가, 후일 黃帝 때의 신선 廣成子가 道를 공부했던 空同山(筭頭山)⁷⁾에서 사인도를 지니고 은거하겠다고 한다. 이는 鬼物들을 물리치는 귀중한 神物인 사인도의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칼과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신흙의 사인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신흙의 <사인도가>에 나타난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곧 당시 계축옥사를 주도한 大北派를 지칭한다. 신흙은 은연중에 <사인도가> 속에서 인검을 사용하여 괴물 같은 간신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검이 단순한 벽사검적인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뒤에 언급할 義劔적인 상징성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辟邪劔으로서의 인검 사용의 실례를 보여주는 작품인, 1758년(영조 34)에 지어진 俞彦鎬(1730~1796)의 <三寅劔贊>⁸⁾은 벽사용 신물로서의 인검에 관한 믿기 어려운 일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지한 삼인검을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유언호는, 비몽사몽간에 귀신을 만나자 인검을 사용해서 이를 격퇴하고, 새삼스럽게 인검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어 이를 수리하고 인검에 대한 贊을 짓는다.

유언호의 집에는 길이 1척 남짓인 삼인검이 있었는데, 자루는 호랑이 뼈로, 칼집은 어피로 만들어져 있었다. 寅年·寅月·寅日에 만들어진 삼인검은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능히 상서롭지 못한 것을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辟邪劔이다. 이러한 인검은 유언호의 무관심 때문에 오랫동안 솥돌질하지 않아서 칼날이 무디어진 채로 벽 사이 먼지구덩이 속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겨울밤, 잠을 자고 있던 유언호의 이불 속으로 협상국은 귀신이 갑자기 기어들어온다. 놀란 유언호는 방구석에 있던 인검을 찾아서 귀신에게 집어던지는데, 이마에 검이 꽂힌 귀신은 땅에 엎어져서 울부짖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악몽에서 깨어난 유언호는 인검의 벽사검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대장장이에게 명하여 인검을 수리한다. 인검의 날에서 녹이 벗겨지자, 마치 연못에서 개구리밥이 헤쳐지면서 물에 햇빛이 반사되듯 검광이 번쩍 빛났다. 검을 수리하고 난 유언호는 贊에서 인검 속에 三陽의 精氣가 엉기고 四氣의 근원이 모여서 그 무늬가 아름다운 유성처럼 이어지고, 그 날카로움이 나는 새를 베고 견고한 옥돌을 자르며, 그 사용함이 능히 소인배로 하여금 간담을 섬찟하게 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그 몸을 도망가게 한다고 서술한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神物인 인검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데, 사람은 진실로 時運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으며 사물도 또한 그러하다. 인검이 진실로 불우한 세상을 당하게 되면 빛이 잠겨 섬광을 감추고, 먼지구덩이 사이에 떨어져서 무늬도 거칠어지고 녹도 생겨나서 스스로 그 위엄과 신비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한 줄기의 純剛한 기가 인검에 맺혀서 흩어지지도 않고, 가운데에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다가 혹 붉은 광휘가 올라가서 두성의 靑도를 쏘기도 하고, 혹은 침실에 의지해서 요귀들을 물리치기도 하니, 이러한 인검은 백정의 칼이나 사냥꾼의 칼처럼 무디고 신령스럽지도 않아서 끝내 묻혀버려 소문도

6) 『職齋集』 卷5 <處士演泉申公墓誌銘>.

7) 『元和郡縣志』 卷3 『管縣』 4 ‘平高縣’.

8) 자료4-『燕石』 冊4 <三寅劔贊>.

들리지 않게 되는 칼들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자취는 감춰진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으며 道는 곱힘과 찌집이 있으니, 인검을 잘 보관할 것인지 때에 맞게 쓸 것인지는 오직 하늘의 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유언호는 그의 <삼인검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검으로 귀신을 퇴치하고 나서 지은 <삼인검찬>은 소인배와 요물을 베는 인검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인검과 인검의 소유자를 동일시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늘의 명에 따라 쓰이는 칼인 인검은, 역시 하늘의 명을 받아 인검을 잡고서 악을 베는 선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검에 대한 이러한 記述은 신희의 <사인도가>와 마찬가지로 곧 인검이 벽사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뒤에 설명할 義劔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 士大夫의 義物, 義劔

『東文選』에 실린 고려시대 釋息影菴(?~?)의 <劔說>에서 주인공인 道人是 선비의 외모와 武人의 服飾을 한 사나이, 즉 文武를 겸전한 道家의 대표적 인물인 莊周(莊子)의 방문을 받는다. 도인은 天子劔·諸侯劔·庶人劔⁹⁾을 사랑하는 장주에게, 장주의 검이 전부 ‘검의 말단[劔之末]’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도인 자신의 네 자루 검인 如來劔·菩薩劔·祖師劔·道者劔에 대해 설명한다.

道人の 네 자루 검 중 道者劔은 ‘근본 중의 근본[本之本]’인 검으로, 검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격이 차이난다. 여기서의 ‘道者’

9) 天子劔·諸侯劔·庶人劔: 『莊子』『說劔』에서 언급되었다. 천자검은 중국 전체를 칼 자체로 삼아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제후를 바로잡고 천하를 굴복하게 하는 검, 제후검은 다양한 士들을 칼 자체로 삼아 하늘에 순응하고 계절을 따르며 백성의 뜻대로 사방을 편안하게 하여 君命을 따르지 않을 자가 없게 하는 검이며, 서인검은 대결을 위주로 하는 협객의 검이다.

는 절에서 아직 중이 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行者를 지칭하는 단어로, 불교의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범맥을 이은 禪僧을 이르는 ‘祖師’와 成佛의 誓願을 일으켜 구도의 길로 나아가는 ‘菩薩’, 그리고 진리의 體現者이며 涅槃에 다다른 자인 ‘如來’와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도자검을 운용하는 도인은 이 글의 저자인 석식영암이 승려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래검·보살검·조사검 등 불교적 용어를 사용한 검을 소지함으로 인해 얼핏 보기에 불교의 도를 수행하는 구도자로 단정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도인의 道는 ‘도를 떠나지 않은 자가 한 번 쓰면 천하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고, 천하의 사람을 다 살리는 것도 또한 자기에게 달렸소’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적 道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광의적인 治道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도자검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삼인에 만들었고[三寅所鑄]’라는 대목이다. 도인의 검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도자검이 곧 삼인검이라는 점은, 인검의 기본적 성격이 곧 도자검임을 드러내준다. 이것은 이제까지 단순히 벽사적 의미로만 인식되어오던 인검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軟劔이나 剛劔이나, 短劔이나 長劔이나에 상관없이, 어느 누가 사용하든지간에 사용자가 道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칼은 도자검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추구하는 올바른 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기물인 도자검의 개념은, 바로 寅劔에 그대로 적용된다.

道者劔적인 인검개념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문학작품 속에서 忠臣으로서의 시적자아를 표현한 士大夫의 義物인 ‘義劔’으로 구체화된다. 寅劔의 寅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五行상 義를 의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검은 곧 ‘義劔’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검’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사대부의 의물로서의 인검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南冥 曹植(1501~1572)이 소지하고 다녔던 敬義劔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다.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¹⁰⁾라는 경의검의

劍銘은 ‘義劍’과 뒤에 언급할 선비의 修身物인 ‘修養劍’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준다. 敬으로서 내면의 정신세계를 밝히고, 義로서 외부의 萬事를 決斷한다는 의지를 劍銘에 표명한 남명의 검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비의 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비록 남명의 경의검이 인검은 아니었지만, 경의검이라는 명칭 속에 녹아있는 ‘의검’과 ‘수양검’의 개념은 바로 인검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는 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俞莘煥(1801~1859)의 <金渭師(尙鉉)家藏古劍銘>¹¹⁾ 중에서도 앞서 논한 남명의 검명과 마찬가지로 ‘義劍’의 개념이 나타난다. ‘劍이여! 안으로 밝히는 것은 智이며, 밖으로 강직하게 하는 것은 義이다[劍乎 內明者智也 外剛者義也]’라는 유신환의 검명도 역시 검이라는 기물이 곧 義를 표출하는 義劍이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의검의 ‘義’는 곧 사대부가 지향하는 정당함 그 자체이다. 밖으로 결단하고 강직하게 하는 義는, 朱子の “義는 마음에 있을 때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으니, 사물이 와서 그것에 닿으면 곧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다”¹²⁾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劍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 사대부의 義는 곧 劍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 義는 인검에 관한 문학작품 속에서 인검 그 자체를 의미하는 義劍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義劍으로서의 인검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신흠과 더불어 漢文四大家의 하나로 추앙받는 張維(1587~1638)의 <三寅劍賦>¹³⁾를 주목해보도록 하자. 장유의 <三寅劍賦>에 나타난 寅劍은 채 한 자[尺] 정도 안되는 단검이지만, 장유의 설명에 의해 인검으로서의 실상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 개의 양이 모여 사계절 중 첫 번째인 寅은 바로 봄의 기운이며, 陽이 굳세고 밝아서 으뜸으로 대우받고 만물이 비롯되게 하는

仁을 그 德으로 한다. 十二支 중에서는 호랑이에 해당되는 寅은 위엄과 용맹이 넘치는 백수의 왕으로서 여우나 들개 따위의 惡獸를 한 입에 박살낸다. 寅月・寅日・寅時의 기운이 모두 이 寅이라는 辰에 모여들게 되면, 인검이 그 정기를 듬뿍 받아 신통력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 이 칼을 한 번 쓰게 되면 사악한 마귀가 쫓겨가고 요망한 기운이 삼시간에 없어지며, 온갖 도깨비들이 감히 접근도 못한다. 인검의 칼빛은 상하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사용하는 선비의 몸을 지켜 간사함을 물리치고 요망한 자의 허리와 머리를 삼대 자르듯 베어버리는 義로운 기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므로, 인검이 잘 간수되어서 제때에 사용되면 곧 완악한 간신과 악인을 물리치는 義劍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인검은 <劍說>에서 언급되었던 道者劍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인이 쓰면 샅된 것을 물리치는 神物인 佛家の 金剛杵[金剛之寶]¹⁴⁾와 玄天上帝인 신선 眞武¹⁵⁾・晉나라 도사 旌陽¹⁶⁾・唐나라의 대표적인 신인 呂洞賓¹⁷⁾의 검과 王殷의 故事¹⁸⁾에서 나오는 腦後의 탄환과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 즉 辟邪劍¹⁹⁾이 되고, 惡臣 張禹를 베어서 처단하려

- 14) 金剛杵 : 승려들이 불도를 닦을 때에 쓰는 도구. 본래 인도 무기의 하나로, 인간 번뇌를 부숴버리는 菩提心을 상징한다.
- 15) 眞武 : 淨樂國王의 태자로 玄天大聖이라고도 한다. 원래 玄武였으나 1012년 10월에 宋나라 왕실의 趙玄郎이 그의 시호를 진무로 바꾸었다. 진무는 동해를 건너다 天神을 만나 보검을 수여받고 武當山(湖北省 太和山)에 들어가 42년간 수련하여 白日昇天하였으며, 상제의 명을 받들어 마왕을 진압했다(『湖廣通志』 卷74 『仙釋志』 ‘襄陽府’).
- 16) 旌陽 : 정양은 晉나라 許遜으로 온 가족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로 유명하다. 어느 날 길가에서 한 소년을 보고는 이무기의 精인데 곧 黃牛로 변할 것이라고 하고, 얼마 뒤에 자신이 黑牛로 변해 그 황우를 쫓아가서 문인에게 황우를 칼로 베어 죽이도록 하였다(『江西通志』 卷103 『山澤』 ‘南昌府’).
- 17) 呂洞賓 : 唐의 유명한 신선 呂巖. 字 洞賓, 號 純陽. 중국 도교의 유파인 全眞敎의 祖師이며, 항상 純陽巾을 쓰고 검을 등에 지고 있는 儒者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스스로 煩惱와 貪嗔, 色慾을 끊는 3劍을 지녔다고 자부했다(『能改齋漫錄』 卷18 『神仙鬼怪』).
- 18) 王殷의 故事 : 五代 後晉때 王殷이 杜重威의 화살을 뺏아 맞았는데 머리 뒤로 뚫고나오자, 이 화살을 바로 뽑아서 도로 활을 쏘았다는 고사로서 기사회생의 수단을 말한다(『舊五代史』 卷124 『列傳』 4).

10) 기타1 - 『南冥集』 卷1 <佩劍銘>.

11) 기타2 - 『鳳棲集』 卷3 <金渭師(尙鉉)家藏古劍銘>.

12) 『北溪字義』 卷上 <仁義禮智信> : 文公謂義之在心 如利刃 然物來觸之 便成兩片.

13) 자료6 - 『谿谷集』 卷1 <三寅劍賦>.

했던 漢나라의 충신 朱雲²⁰⁾과 같은 인물이 청해서 쓰면 간신을 베는 義物인 상방참마검[尙方之斬馬], 즉 義劔이 되며, 烈士가 휘두르면 燕나라 태자의 명으로 진시황을 척살하려 했던 衛나라 劔士 荊軻와 배를 습격한 두 마리 교룡의 목을 베 楚나라 劔士 欒飛²¹⁾의 검처럼 俠氣로 長江의 물결을 잠재우고 蛟龍을 베는 任俠의 劔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검을 소유한 장유는, 자신의 검이 차라리 豫章의 豐城縣에 묻혀있던 楚나라의 유명한 보검인 龍淵劔²²⁾처럼 흙 속에 묻혀서 자줏빛 劔氣를 斗星과 牛星 사이에 내쫓지언정, 자신이 직접 속세 사람들의 무딘 검과 날카로운 칼끝을 서로 다투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장유의 인검은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義氣의 상징이 된다. 그는 이 검에 元陽勝邪蒼精之劔: 양기를 근본으로 사악함을 이기는 푸른 정기의 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온종일 차고 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다.²³⁾

- 21) 장유가 <삼인검부>에서 검을 사용하는 도가적인 신선들을 열거함을 통해 인검이 지니는 벽사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일상 속에서 『莊子』를 즐겨 읽었던 그의 독서취향과도 연관된다. 장유가 그의 인검에 붙인 ‘원양승사창정검’이라는 검의 이름도 도가적 선인이었던 여동빈의 純陽劔 개념을 의식하고 지은 것이다.
- 22) 朱雲: 漢 成帝 때 安昌侯 張禹가 전횡을 일삼자, 주운이 성제에게 간신인 장유를 배도록 참마검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성제가 노하여 무관들에게 그를 끌어내도록 하자, 주운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결국 난간이 부러지게 되었다. 후후 성제는 난간을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여 직언을 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정표로 삼았다(『前漢書』 卷67).
- 23) 欒飛: 依非. 楚나라 劔士로 일찍이 양자강을 건너다가 두 마리의 교룡이 배를 습격하자 그 목을 베고 풍파를 잠잠하게 하였다(『淮南子』 卷12 『道應訓』).
- 24) 龍淵劔: 楚나라의 보검. 龍泉劔과 동일하다. 晉나라 武帝 때 斗星과 牛星 사이에 紫氣가 감돌자 張華가 雷煥에게 부탁하여 豫章의 豐城縣에서 龍泉과 太阿 두 검을 파내었다고 한다(『晉書』 卷36 『列傳』 6 『張華』).
- 25) 이 <삼인검부>의 序에서 보이는 ‘내가 그 검을 사랑하여 허리에 차고[余故愛而服之]’라는 부분과 賦의 끝에서 보이는 ‘온종일 차고 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도대[朝夕服之未嘗離身]’라는 구절은 기존의 인검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인검의 실제 휴대 여부를 규명해주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장유의 <삼인검부> 운자를 차용해서 지은 趙龜命의 <四寅刀賦> 서문에도 ‘내가 바야흐로 사인도를 차고 다녔는데[余方佩四寅刀]’라는 구절이 보인다.

당시대에 있어서 인검이라는 기물은 사대부들에게 결코 생소하거나 거리감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사대부에게 있어서 평소에 휴대하고 다닐 만큼 각별한 기물이기도 했던 인검은 단순한 벽사용 신물인 벽사검이라는 이미지만 아니라, 악인을 베는 의물인 의검으로서의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장유는 친분이 있던 鄭斗卿(1597~1673)의 시에 대해 體格의 고고함과 雷霆霹靂같은 기상이 드러난다는 칭송을 남겼었는데,²⁴⁾ 정두경이 지은 <三寅劔歌>²⁵⁾에 나타난 인검도 벽사검과 의검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0세 때인 1616년(광해군 8)에 <劔賦>를 지어 武와 劔에 대한 관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정두경은, 30세였던 1626년(인조 4)에 평안북도 원접사 밑에서 제술에 종사하면서 변방의 정세를 몸소 체험하였고, 1632년(인조 10)부터 2년간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北評事가 되어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호방한 武風이 드러나는 작품을 많이 남겼고, 정묘·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조정에서 국가 방비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했다. 그는 향시 『史記』와 『戰國策』의 古今興亡史와 匈奴討伐史, 그리고 그 안에 수없이 등장하는 용사와 협객들의 기사를 즐겨 읽었으며, 거거하던 방의 오른쪽 벽에는 ‘구름을 탄 용과 바람 속의 호랑이 형상[雲龍風虎之狀]’을 그려서 붙이고 왼쪽 벽에는 ‘장강의 달빛, 태화산의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長江月色 太華松聲]’ 8자를 써 붙여 자신의 기상을 드러냈다고 한다.²⁶⁾

정두경은 평소 문학작품 속에서 劔이라는 소재를 즐겨 사용했는데, <三寅劔歌>에서는 도깨비를 물리치는 벽사검으로서의 인검과 간신을 베어버리는 의검으로서의 인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정두경은 許侯²⁷⁾가 얻은 칼인

24) 『國朝人物考』.

25) 자료7 - 『東溟集』 卷11 <三寅劔歌>.

26) 『東溟集』 附錄 下, 門人 晉山 姜彬 <東溟先生言行錄>.

삼인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작할 때 寅年・寅月・寅日을 썼기 때문에 명칭을 삼인검이라고 한다는 점과, 맹호가 산 속에 있으면 짐승들이 떠는 법이기 때문에 그 때에 검을 만든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허후의 인검은 용연검처럼 칼집에서 다 나오기 전에도 칼빛이 斗星・牛星과 부딪히고, 칼날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눈부신 검광이 연꽃이 핀 듯한 느낌을 준다. 눈서리 같은 칼날빛은 백호를 방불케 하고, 폭풍우 속의 우레와도 같은 번쩍임은 푸른 정기를 가진 용의 변화처럼 보인다. 용의 몸체와 호랑이의 기운이 서로 교착하자, 잠깐 보니 바람과 구름이 흰 벽에서 일어난 듯 벽에 비친 검광이 아른거린다. 이 인검은 온갖 요물들을 쫓아내므로, 허후의 정직함과 쌍벽을 이루는 기물이 된다. 허후가 일찍이 혼란한 조정 속에 있으면서 글을 올려 임금에게 원통함을 호소하고 斬馬劔을 청하여 빌려서 간신을 베고 싶다고 했으니, 허후의 끝은 정기는 자웅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었었다. 하지만 허후의 장렬한 뜻이 이제 그가 늙어서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인검의 옥칼집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한다.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커다란 자라와 같은 간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호랑이 될 모자 쓴 용사를 어찌해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삼인검가> 속에서 허후라는 충신의 장렬한 뜻[壯志]이 형상화된 실체인 삼인검이라는 義劔은, 허후가 나이가 들게 되자 옥칼집 속에서 뿔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집 속의 인검은 조정에서 자신의 雄志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老臣의 울분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27) 허후는 현종・숙종년간에 영의정을 지낸 許積(1610~1680)이다. <三寅劔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이 작품은 1672년 허적이 宋時烈의 논척을 받아 영의정에서 명예직에 가까운 領中樞府事로 전임된 시기, 즉 1672년부터 정두경이 사망한 1673년 사이에 지어졌을 확률이 크다.

(3) 君子의 修身物, 修養劔

유언호의 친척인 俞漢雋(1732~1811)은 1762년(영조 38년)에 지은 <三寅刀銘>²⁸⁾에서 인검을 칭송하고 있다. 사악함과 뜬 기운을 배어서 동틀녘[昧爽]과 이른 아침[平朝]의 仁을 회복하게 하는 검인 인검은, 이 글에서 士大夫인 君子의 정신수양의 상징인 修身物, 즉 ‘修養劔’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검명의 序에서는 寅劔의 寅이 곧 敬이며, ‘이 사악한 마음을 배어버리고 이 뜬 기운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敬義劔의 검명을 떠올려보자.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內明者敬 外斷者義]에서의 敬은 修身의 개념이다. 朱子는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것을 敬’이라고 한다”²⁹⁾고 말하였다. 여기서 敬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군자의 내면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군자의 敬은 곧 작가에 의해 문학 속에서 투영되어 修身의 기물 修養劔인 寅劔으로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뜻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자신을 닦을 때’³⁰⁾ 모름지기 사용되는 敬은, 劔에 적용되면 이를 君子의 修身器物인 ‘修養劔’으로 탈바꿈시켜준다. ‘단정하고 엄숙한’³¹⁾ 모습, 즉 敬의 모습을 지닌 군자는 인검을 소지함으로 인해 한층 더 자신을 다잡는 修養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수양검’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君子의 修身器物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18세기에 훌륭한 문필로 인해 『并世才彥錄』에서 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던 趙龜命(1693~1737)의 <四寅刀賦>³²⁾는 인검이라는 역사적 신물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와, 군자의 기물로서의 수양검인 인검의 성격을

28) 자료8 - 『自著』 卷19 <三寅刀銘>.

29) 『北溪字義』 卷上 <敬> : 文公合而言之曰 主一無適之謂敬.

30) 『北溪字義』 卷上 <敬> : 誠意正心修身也 須敬.

31) 『北溪字義』 卷上 <敬> : 整齊嚴肅 敬之容.

32) 자료9 - 『東谿集』 卷12 <四寅刀賦>.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四寅刀賦>는 인검이 지니는 벽사적 성격의 기본적인 형성원리와 그 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귀명은 四壬寅이 합쳐지는 1722년(경종 2) 정월에 이 칼을 만들었는데, 寅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속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60음을 60甲子에 배정하여 五行으로 나타낸 ‘納音’과 天干을 八卦에 나누어 배당한 ‘納甲’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검의 벽사적 성격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寅은 맹호가 되는데 손톱을 늘리고 이를 간다. 壬은 곧 太陰이 되어, 칼날 끝의 차가움을 도와서 이에 꾸미고 차는 것인데 寅月辰을 썼고, 6은 陰의 數를 한껏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귀명의 사인도는 이보다 월등함을 견줄만한 물건이 없을 만큼 보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인도는 요망한 것들이 달아나다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고, 도깨비가 휘둘러 풀처럼 잘리게 하는 무기로서, 모든 調和를 꾸미는 하늘의 기밀인 天機를 빼앗으니 진실로 회세의 보배가 된다. 그 때문에 조귀명은 뛰어난 慧劍을 소유하여 한 몸에 갈무리하였고 義로써 배며 仁으로써 갈아내니, 칼날이 가리키면 온갖 괴물이 그 냇을 잃고 劍光이 달하면 긴 밤 새벽을 깨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검의 쓰임은 커서 우주를 막을 수 있고, 그 거두는 것은 작아서 탄환도 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검을 義로써 배며 仁으로써 갈아내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군자인 조귀명의 수양과정이 되며, 이를 통해 그의 인검은 修養劍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조귀명의 글은 계속해서 그가 소장한 사인도가 비록 풍성에 묻혀있던 절세의 명검인 龍泉・太阿보다는 못하지만 그 劍氣가 두성과 우성까지 뻗쳐 오르고, 누런 소로 변신한 이무기를 베어죽인 仙人인 旃陽의 검이라고 자랑하기에는 부족하지만 惡獸인 이무기의 간사함을 찍어 누르며 邪魔를 물리치는 벽사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검을 몸 밖에 패용하는 것은 자신을 관리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함이 곧 마음의 군주가 명한 것이라고 하여 修養劍으로서의 인검 소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귀명은 인검을 휘둘

러 검의 견고함과 완전함을 시험해 보고나서, 이 인검이 延津에 빠진 神物³³⁾의 기운과 유형에 짝할 정도의 명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조가 친히 조귀명의 문집인 『東谿集』의 서문을 써줄 정도로 당대에 文名을 떨쳤던 조귀명은, 사람됨이 淸靜하고 욕심이 없었으며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布衣의 신분으로 내면의 수양에 힘썼다. <사인도부>는 바로 그러한 조귀명이 일생동안 군자의 道를 추구한 자신의 정신수양 태도를 인검에 투영한 문학작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結 論

丁卯胡亂(1627)과 丙子胡亂(1636~1637)을 거치게 되면서 17세기 朝鮮 士大夫의 觀念 속에는 ‘武’에 대한 認識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전란 체험에 대한 반영 양상의 한 형태로 劍이라는 소재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조선 문화가 전반적으로 흥성하면서 ‘武’의 문화도 아울러 번성하게 되었다. 국가의 주도하에 『武藝新譜』와 『武藝圖譜通志』 등 여러 兵仗器와 劍의 사용법을 수록한 武書들이 편찬되었으며, 서울에 근거지를 둔 閥閥世家인 京華族을 위시한 士大夫들의 고급 취향인 書畫・古董 수집 경향이 대두되면서 그 일환으로 刀劍 수집 및 감식이 하나의 문화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시대에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였던 武風의 興起에 발맞추어 당시대의

33) 張華의 부탁을 받은 雷煥이 豫章의 豐城縣에서 龍泉과 太阿 두 검을 파내고 나서 장화가 용천검을, 뇌환이 태아검을 보관하였다. 장화가 伏誅되면서 용천검은 없어졌고, 뇌환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雷華가 太阿劍을 차고 다녔다. 어느날 뇌환이 延平津을 지날 때 홀연히 검이 그의 허리춤에서 튀어나와 물 속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시켜 잠수하여 찾아 보게 하니, 검이 빠진 자리에 몇 길 되는 용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晉書』 卷36 『列傳』 6 『張華』).

문학작품에서도 ‘武’를 상징하는 劔이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寅劔이라는 특징적인 器物이 사대부들에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본고를 통해 분석했던 인검을 주제로 한 한문학 작품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들이 대부분 17~18세기에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인검은 辟邪劔, 義劔, 修養劔이라는 문학적 상징성을 지닌다.

조선의 寅劔은 조선조 士大夫의 관념 속에 깃들어있던 文武兼全의 정신을 상징하는 귀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사대부에게 있어서 寅劔은 辟邪劔, 義劔, 修養劔의 성격을 아울러 포함하는 상징적인 器物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사대부가 남긴 한문학 텍스트 안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한문학 속에서 인검은 辟邪用 神物인 辟邪劔과, 간신과 악인을 베는 의물인 사대부의 義劔으로서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선비의 義氣 그 자체로서, 혹은 정신수양의 상징물인 修養劔으로서 특징적인 象徵性을 지니고 있다.

<표 1> 寅劔文獻目錄

目錄	作者	生沒年	作品名	作成年代	象徵性
자료1	宋文欽	1710~1752	<三寅七星劔>	18C	辟邪劔
자료2	趙持謙	1639~1685	<感懷>	17C	辟邪劔
자료3	申欽	1566~1628	<四寅刀歌>	17C	辟邪劔, 義劔
자료4	俞彦鎬	1730~1796	<三寅劔贊>	18C	辟邪劔, 義劔
자료5	釋息影菴	??	<劔說>	14C(高麗)	義劔
자료6	張維	1587~1638	<三寅劔賦>	17C	辟邪劔, 義劔
자료7	鄭斗卿	1597~1673	<三寅劔歌>	17C	辟邪劔, 義劔
자료8	俞漢雋	1732~1811	<三寅刀銘>	18~19C	修養劔
자료9	趙龜命	1693~1737	<四寅刀賦>	18C	辟邪劔, 修養劔
기타1	曹植	1501~1572	<佩劔銘>	16C	義劔, 修養劔
기타2	俞莘煥	1801~1859	<金渭師(尙鉉)家藏古劔銘>	19C	義劔, 修養劔

인검이라는 유물에 대해 사대부들이 남긴 한문학 작품과, 그들이 소장했던 현존유물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조선의 도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君子가 되기 위한 정신적 수양을 상징하는 수양검으로서 인검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검은 사대부의 義를 구현하게 하는 義劔과 요물을 쫓아내는 辟邪劔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규명은 곧 조선조 인검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조선 도검문화의 특징을 통찰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단초가 된다.

조선시대 한문학 텍스트 속에서 형상화된 인검의 文學的 象徵性, 즉 辟邪劔·義劔·修養劔은 조선조 사대부들이 평소 인검에 대해서 생각했던 관념들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다만 인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대부들이 七星劔이나 雲劔 등 다른 조선시대 검에 대해 가졌던 정신적 인식 태도로도 유추 해석될 수 있다. 인검과 기타 조선시대 도검에 대한 비교연구는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원고투고일 : 2007. 2. 23,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인검, 삼인검, 사인검, 벽사검, 의검

<附錄>

寅劔文獻資料

● 자료1 - 宋文欽(1710~1752) : 『閒靜堂集』 卷7 <三寅七星劔>

日月贊剛	일월이 陽剛을 도우니
星文昭光	북두칠성 무늬 밝게 비치네
操以必割	잡으면 반드시 베며
柔道是絶	柔도로 이에 끊어버리네

● 자료2 - 趙持謙(1639~1685) : 『迂齋集』 卷2 <感懷>

塞外歸來鬢已殘	국경 밖에서 돌아오니 귀밑머리 이미 쇠었고
秋霜又落蓼花灘	가을서리 또 蓼花灘에 떨어지네
書搜二酉螢囊弊	二酉山の 책 찾으니 반딧불주머니 해질 정도이고
劔倚三寅鬼膽寒	삼인검에 의지하니 귀신의 마음 떨게하네
少日雲雷曾有志	젊은 날 구름과 우레처럼 일찍이 雄志 있었으나
頻年風浪太無端	노년의 풍랑은 너무도 종잡을 수 없더라
愁來乍向虛簷睡	수심이 밀려와 얼핏 빈 집에서 낮잠자면서
夢裏猶吟行路難	꿈속에서는 오히려 행로난을 읊는구나.

● 자료3 - 申欽(1566~1628) : 『象村集』 卷7 <四寅刀歌>

俗傳寅年月日時打成者曰四寅劔 能辟鬼 甲寅春正 東陽爲余鑄成.

세속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寅年·寅月·寅日·寅時에 두드려 제조한 칼을 四寅劔이라 한다. 이것이 잡귀를 물리친다고 하는 데, 甲寅年(1614: 광해군 6) 정월에 東陽尉가 나를 위해 이 칼을 만들었다.

林有魑兮山有夔	숲에는 魑가 있고 산에는 夔가 있으며
陸有虎兮水有螭	물에는 범이 있고 물에는 이무기가 있어
夜而行兮晝而伏	밤이면 나와 다니고 낮이면 숨어있으면서
攬余裾兮嚙余足	나의 옷깃 끌어잡고 나의 발을 물어뜯도다

橫中途兮不可制	길 한복판에서 횡행하니 억제할 수 없고
爲民害兮勢漸猘	백성을 침해하니 형세 점점 포악하네
我有刀兮名四寅	나에게 四寅이라 이름하는 칼 있어
讐地祇兮通天神	땅귀신을 두렵게 하며 천신과도 통하는데
白銀粧兮沈香飾	백은으로 단장하고沉香으로 꾸몄으며
光潑潑兮霜花色	광채가 서리빛처럼 번쩍번쩍하네
防余身兮奚所懼	내 몸을 방어하는데 두려울게 무엇인고
邪自辟兮罔余迕	邪鬼 저절로 쫓겨가서 나를 범하지 못하리
精爲龍兮氣爲虹	精髓는 용이 되고 氣는 무지개되어
橫北斗兮亘紫宮	북두성을 가로질러 자미궁까지 뻗치나니
行與藏兮惟余同	나가거나 감추어지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다가
歲將暮兮倚空同	나이 장차 늙어지면 空同山에 의지하리

● 자료4 - 俞彦鎬(1730~1796) : 『燕石』 冊4 <三寅劔贊>

家有一古劔 長纔容尺 槩以虎骨 鞘以魚皮 號三寅劔 盖成於寅年月日者也 世傳三寅劔 能揮呵不祥 而是劔也 久未發硃 芒刃剗敵 不足以周防 委諸壁間堆塵 有年矣 今冬夢有鬼狀 極醜醜 直犯臥內 亟以是劔擲之 中其額 仆地啼號 因忽不見 覺來猶餘悸也 乃知神物有時沉晦 而亦自隨機效靈 莫能遏也 於是命工淬濯 悉去其鱗皴 如萍開見水 晶光燁然也 遂爲文以贊之曰 劔兮劔兮 凝三陽之精 鍾四氣之元 其文則綺流星連 其利則斷浮翮截堅珎 其爲用則能使倭孽破其膽 而鬼魅遁其身 盖神物不能自運 必待乎人 人固隨時而顯晦 物亦爲然 故當其不遇也 潛光匿耀 零落塵埃之間 綉藟苔生 無以自奮其威神 然惟一段純剛之氣 鬱而不散 中自輪困 或騰紫輝而射斗躔 或憑宵寐而攘妖姦 夫豈若屠者之刀 獵夫之鋌 剗鈍不靈 終沒沒以無聞 噫 劔兮人兮 跡有隱見 道有屈伸 善藏時用 惟聽命于天

집에 한 자루 옛날 칼이 있는 데, 길이는 겨우 1척 남짓이고 자루는 호랑이뼈로, 칼집은 어피로 하였다. 삼인검이라 부르는 데, 寅年·寅月·寅日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삼인검은 능히 상서롭지 못한 것을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 검을 말함이다. 오랫동안 숫돌질하지 않았기에 칼날이 무디어져서 귀신을 두루 방어하기에 부족하여, 벽 사이

먼지구덩이 속에 버려둔지 여러 해가 되었다. 올 겨울 꿈에 매우 험상궂은 귀신 형상이 나타났는 데 바로 이불 속으로 침범해오거늘, 얼른 이 검을 집어던지자 귀신의 이마에 적중하니, 귀신이 땅에 엎어져 울부짖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났는 데도 오히려 가슴이 떨렸다. 이에 신물이 때로는 어둠에 잠길 때도 있지만, 또한 스스로 天機를 따라서 신령스러움을 나타내면 귀신도 검을 막아낼 수 없음을 알았다. 이에 대장장이에게 명하여 담금질하여 씻어 내어 그 녹슨 껍데기를 모두 없애버리게 하니, 개구리밥이 열려서 물이 보이자 광채가 번쩍이는 것 같았다. 드디어 글을 지어 贊하여 말하길,

‘검이여! 검이여! 三陽의 精氣가 엉기고 四氣의 근원이 모이니, 그 무늬가 아름다운 유성처럼 이어지고, 그 날카로움이 나는 새를 베고 견고한 옥돌을 자르며, 그 사용함이 능히 소인배로 하여금 간담을 섬찟하게 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그 몸을 도망가게 한다. 대개 神物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데, 사람은 진실로 時運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으며 사물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불우한 세상을 당하게 되면 빛이 잠겨 섬광을 감추고, 먼지구덩이 사이에 떨어져서 무늬도 거칠어지고 녹도 생겨나서 스스로 그 위험과 신비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한 줄기의 純剛한 기가 맺혀서 흩어지지 않고, 가운데에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다가 흑 붉은 광휘가 올라가서 두성의 궤도를 쏘기도 하고, 혹은 침실에 의지해서 요귀들을 물리치기도 하니, 어찌 백정의 칼이나 사냥꾼의 칼처럼 무디고 신령스럽지도 않아서, 끝내 묻혀버려 소문도 들리지 않게 되는 칼과 같겠는가? 아! 검이여! 사람이여! 자취는 감춰진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으며 道는 굽힘과 펴짐이 있으니, 잘 보관할 것인지 때에 맞게 쓸 것인지는 오직 하늘의 명을 들어야 하리라.’

● 자료5 - 釋息影菴(?~?) : 『東文選』 卷97 <劍說>

…… 道者劍者 握起劍云 卽此是已 鐵刃銀裝 三寅所鑄 鋟二曜九星 以文其缺 鏤二龍 以飾其口 赤木之把 青絲之緘 長不越一尺 闊不盈一寸 …… 道者劍 本之本 …… 此劍時大時小時柔時剛 如來用之 如來劍 菩薩用之 菩薩劍 祖師用之 祖師劍 天子與諸侯與至庶人用之 皆其劍也 而不離乎道者 一用 死却天下人由己也 活却天下人亦由己也 …….

道者劍이란 것은 握起劍이라 이르는 데, 바로 이것ियो. 쇠 칼날에 銀 장식을 했는 데, 三寅에 만들었고, 二曜·九星을 새겨서 칼날에 무늬를 놓았으며, 두 마리 龍을 아로새겨 그 칼집 입구를 꾸몄고, 손잡이는 赤木으로, 끈은 푸른 실로 하되, 길이가 한 자를 넘지 않고 넓이가 한 치에 차지 않으며 …… 道者劍은 근본 중의 근본이며 …… 이 검은 때로 크고 때로 작고, 때로 부드럽고 때로 강하며, 여래가 쓰면 如來劍, 보살이 쓰면 菩薩劍, 조사가 쓰면 祖師劍, 천자·제후 내지 서인이 쓰면 다 그의 검인데, 道를 떠나지 않은 자가 한 번 쓰면 천하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고, 천하의 사람을 다 살리는 것도 또한 자기에게 달렸소.

● 자료6 - 張維(1587~1638) : 『谿谷集』 卷1 <三寅劍賦>

余偶得三寅短鉞 盖鑄於寅年月日者也 世傳三寅之劍 能辟除不祥 余故愛而服之 爲賦以贊之

내가 우연히 三寅 단검을 얻었는 데, 삼인이라 함은 대체로 인년·인월·인일에 그 검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전해 오는 말로는 삼인검은 상서롭지 못한 것들을 물리쳐 준다고 하기에 내가 그 검을 사랑하여 허리에 차고는 賦를 지어 기리는 바이다.

我有寶劍	나의 이 보검
成於三寅	三寅에 만들어졌도다
長未滿尺	길이는 채 한 자가 못 되지만
晶光燦然	맑은 빛 눈이 부시도다
夫寅者	대저 寅은
三陽之會	세 개의 陽이 모여
四氣之元	사계절 중 첫 번째요
陽剛而明	陽이 굳세고 밝아서
元首而尊	으뜸으로 대우받고
物所資始	만물이 비롯되니
其德則仁	仁이 바로 그 德이라
十二之屬	十二支 中에서는

寔爲虎焉	호랑이에 해당되니
奮其威猛	위엄과 용맹을 떨쳐
百獸所君	백수의 왕이 되어
孽狐野豕	여우나 들개 따윈
糜之一齷	한 입에 박살나네
維歲月日	해와 달과 날이 모두
萃于茲辰	이 辰에 모여들어
劍鍾其精	칼이 그 정기 듬뿍 받고
而全其神	신통력을 온전히 하니
故其爲用也	그러므로 칼을 한 번 쓰노라면
攝魔驅邪	사마가 쫓겨가고
揮霍妖昏	요망한 기운 삼시간에 없어지며
魑魅獠狂	장난치는 도깨비들
莫敢近旃	감히 접근 못하도다
亦可光芒六合	상하 사방 뻗치는 칼빛
衛身攘姦	몸 지켜 간사함 물리치고
妖要亂領	요망한 자의 허리와 머리
翦若芟菅	삼대 자르듯 베어 버리니
善藏時用	잘 간수해서 제때에 쓰면
前無堅頑	앞에 완악한 자 나오지 못하리라
然則是器也	그러니 이 물건을
道人御之	도인이 쓰면
則爲金剛之寶眞武之仗旌陽洞賓	금강저와 진무·정양·여동빈의 검,
腦後之丸	뇌후의 탄환되고
忠臣請之	충신이 청하면
則爲尙方之斬馬而佞孽膽寒	상방참마검이 되어 간신의 간담 서늘케 하네
烈士奮之	열사가 휘두르면
則爲荊飛之擒蛟而長江戢瀾	荊軻와 依飛처럼 교룡잡고 장강 물결 잠재우리니
寧爲土中之龍淵	차라리 龍淵劍마냥 흙 속에 묻혀
衝紫氣於星躔	자줏빛 劍氣를 별자리에 내쏟지언정
不願與鉛刀爭鋒	무딘 검과 날카로운 칼끝을 서로 다투며

覬俗子之見珍	세상의 인정 받으려고 안달하지 않으리라
遂號之曰元陽勝邪蒼精之劍	이에 元陽勝邪蒼精劍이라 이름하고
朝夕服之未嘗離身	온종일 차고다니며 몸에서 떼지 않는도다

● 자료7 - 鄭斗卿(1597~1673) : 『東溟集』 卷11 <三寅劍歌>

吾聞	내가 들으니
三寅之劍能辟邪	삼인검은 능히 邪氣를 막는다 했는데
許侯得之信奇絶	許侯가 얻은 칼이 진실로 기이하고 절세에 뛰어나네
借問如何號三寅	묻노니 왜 삼인검인가
鑄用寅年與月日	만들 때 寅年·寅月·寅日을 썼기 때문이라네
猛虎在山百獸恐	맹호가 산 속에 있으면 짐승들이 떠는 법
鑄劍故用寅年月	그래서 寅年·寅月에 검을 만든다네
未出匣中斗牛衝	칼집에서 다 나오기 전에도 칼빛이 斗星·牛星과 부딪히니
看來鏖鏑開芙蓉	칼날을 보고 있노라면 연꽃이 핀 듯
雪霜彷彿白額虎	눈서리 같은 칼날빛은 백호를 방불케 하고
雷雨變化蒼精龍	雷雨같은 번쩍임은 푸른 정기가진 용의 변화러라
龍身虎氣相交錯	용의 몸체 호랑이의 氣가 서로 교착하여
倏見風雲起素壁	잠깐 보니 風雲이 흰 벽에서 일어난 듯
魑魅魍魎皆辟易	도깨비들 모두 쫓아내기 쉬우니
許侯正直眞相敵	許侯의 정직함이 진실로 대적할 만 하구나
許侯曾在昏朝中	許侯가 일찍이 혼란한 조정 속에 있으면서
上書叫闥蓬萊宮	글을 올려 蓬萊宮에 원통함을 호소하였네
請借斬馬斬佞臣	청컨대 참마검 빌려 간신을 베고 싶다 했으니
直氣豈不爭雄雌	곧은 정기가 어찌 자웅을 다퉴 수 있으랴?
壯志如今成皓首	장렬한 뜻이 이제는 늙고 말았으니
摩挲玉匣長歎久	옥칼집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노라
東海三山動巨鼇	동해의 삼신산을 커다란 자라가 요동치게 하니
安得猛士頭虎毛	어찌해야 호랑이털 모자쓴 용사 얻어서 (一作持此刀)
一爲斬斷清風濤	맑은 바람 이는 파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으랴

● 자료8 - 俞漢雋(1732~1811) : 『自著』 卷19 <三寅刀銘>

三寅刀者 寅年寅月寅日作刀者 斬截割斷之用也 寅在一日之中則味爽也 人之心湛然故伊尹曰味爽丕顯 又平明也 人之氣浩然 故孟子曰 平朝之氣 及至於辰卯之朝午未之晝而始枯矣 心與事接 氣爲物疲 於斯時也 不敬何以清之 故帝典曰 夙夜惟寅 直哉惟清 寅者敬也 夫不清由不直 不直由不寅 故寅者所以斬截此邪心 割斷此浮氣者也 浮氣去邪心退 而始有以復乎味爽平朝之寅矣 刀之有警乎余也 大矣乎 銘曰 嗟刀乎 嗟刀乎 爾光燁然而破膠也 爾響砉然而剗茅也 常湛湛也 常惺惺也 字之曰操 刀乎刀乎 惟爾之勞.

三寅刀라는 것은 寅年·寅月·寅일에 만든 칼인 데, 베고 자르는 데 쓰인다. 寅은 하루 가운데 味爽(黎明)의 때이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러므로 伊尹은 말하기를 ‘동틀녘(味爽)에 크게 德을 밝히시어’라 하였다. 또 아침[平明]의 때이다. 사람의 氣가 浩然해지니, 그런 까닭으로 맹자는 말하기를, ‘아침의 맑은 기운[平朝之氣]’이라 하였는데, 辰時·卯時의 아침을 지나서 午時·未時의 낮 이름에 미쳐서 흩어져버린다. 마음이 일과 더불어 접촉이 되면 氣가 사물에 의해 피곤해진다. 이때에는 공경함이 아니고서 어떻게 맑아지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帝典>에서 말하기를, ‘밤낮을 공경하여 곧게 하여야 깨끗할 것이다[夙夜惟寅 直哉惟清]’라고 하였다. 寅이라는 것은 敬이다. 무릇 맑지 않음은 곧지 않음에서 비롯되고 곧지 않음은 寅이 아님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寅이라는 것은 이 사악한 마음을 배어버리고 이 뜬 기운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뜬 기운을 제거하고 사심을 물리치게 되면 비로소 다시금 味爽·平朝의 寅을 회복함이 있다. 칼이 나에게 경계함이 크도다. 銘에 이르기를,

야! 칼이여! 야! 칼이여! 너의 빛은 번쩍이며 아교처럼 굳은 것도 깨뜨리는구나. 너의 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대풀을 깎아내는구나. 항상 검푸르면서도 항상 빛이 맑구나. 이름지어 말하기를 조(操)라 하니, 칼이여! 칼이여! 오직 너의 수고로다.

● 자료9 - 趙龜命(1693~1737) : 『東谿集』 卷12 <四寅刀賦>

余方佩四寅刀 偶閱谿谷集 有三寅劔賦 仍用其韻 擬之

내가 일찌기 사인도를 차고 다녔는데, 우연히 『谿谷集』을 보니 <三寅劔賦>가 있어서 이에 운자를 차용하여 본떠서 지었다.

余昔鑄刀于四壬寅 寅辟弗祥 俗則云然 加之壬者 盖取諸納音之金焉 壬水寅木 亦具貞元 寅爲猛虎 舞爪厲鬚 壬乃太陰 助其芒寒 爰飾爰佩 用寅月辰 六窮陰數 物莫競尊 妖孽迎而螢粉 魑魅揮爲草菅 惟其奪天之機 允矣希世之珍 然而人有慧劔藏于一身 割之以義 磨之以仁 刃指而百怪隕其魄 光達而長夜破其昏 其用也大 可以塞宇宙 其歛也小 可以納彈丸 豐城之埋不足稱 其氣射牛躔 旌陽之鍊不足誇 其威鎮蜃蛟 斯爲勝邪攝魔也至矣 又奚藉乎四寅之神 盖君子之道 內外勉旃 佩之外者 司於身之官 葆之內者 命於心之君 砉然響然 均試堅頑 則神物之氣類相配 豈但在延津之洪瀾.

내가 옛날에 四壬寅에 칼을 만들었는데, 寅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고 속설에 이르니, 壬을 더한 것은 대개 納音의 金에서 취한 것이다. 북쪽인 壬의 水와 동쪽인 寅의 木은 또한 겨울인 貞과 봄인 元을 갖추고 있다. 寅은 맹호가 되는 데 손톱을 늘리고 이를 간다. 壬은 곧 太陰이니, 칼날 끝의 차가움을 도와서 이에 꾸미고 차는 것인데 寅月辰을 썼고, 6은 陰의 數를 한껏 하였다. 어떤 물건이 그보다 월등함을 견주겠는가? 요망한 것들이 달아나다가 산산이 부서지고, 도깨비가 휘둘러 풀처럼 잘린다. 생각컨대 天機를 빼앗으니 진실로 희세의 보배로다. 그러하여 사람이 慧劔을 소유하여 한 몸에 갈무리하는데, 義로써 베며 仁으로써 갈아내니, 칼날이 가리키면 온갖 괴물이 그 낫을 잃고, 劔光이 달하면 긴 밤 새벽을 깨뜨린다. 그 쓰임은 커서 우주를 막을 수 있고, 그 거두는 것은 작아서 탄환도 들일 수 있다. 豐城에 묻힌 칼이라 칭하기엔 부족하지만 그 氣는 斗星과 牛星을 쏘고, 旌陽의 검이라 자랑하기엔 부족하지만 그 위세는 이 무기의 간사함을 누르니, 이는 사악함을 이기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데 이른다. 또 어찌 四寅의 신통함에게만 의지하겠는가? 대개 군자의 도는 안팎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밖에 차는 것은 몸의 관리를 맡은 것이요, 안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의 군주가 명한 것이라, 쇠썩 쟁그렁 소리나게 견고하고 완전함을 끝으로 시험해 보았으니, 신물의 기운과 유형이 서로 짝하는 것이 어찌 다만 延津의 큰 물결에만 있겠느냐?

- 기타1 - 南冥 曹植(1501~1572) : 『南冥集』 卷1 <佩劔銘>

안으로 밝히는 것은 敬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은 義이다.

內明者敬 外斷者義.

- 기타2 - 俞莘煥(1801~1859) : 『鳳棲集』 卷3 <金渭師(尙鉉)家藏古劔銘>
(并序 생략)

劔이여! 안으로 밝히는 것은 智이며, 밖으로 강직하게 하는 것은 義이다. (...
이하 생략)

劔乎 內明者智也 外剛者義也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zation of Korean Tiger Swords in *Joseon* Dynasty

Cho, Hyuk-sang

Ingeom, a Korean Tiger Sword in *Joseon* Dynasty, had been produced at the time corresponded to 'In(寅)' which means tiger. Such as, month, day, and year of 'In', month, day, and time of 'In', or month, day, time and year of 'In', it was made. The ancestors in that time kept it as an amulet sword to avert the evils. According to the time when '*Ingeom*' was produced, there are two sorts of '*Ingeom*': '*Samingeom*'(Three Tigers Sword) and '*Saingeom*'(Four Tigers Swor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Ingeom*' in that period and the substance of it in the ancestor's general idea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Korean Literatures about '*Ingeom*',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by *Sadaebu* class(Gentry of *Joseon* Dynasty). *Geomseol* (Sword Story) by monk *Sik Youngam* in *Goryeo* Dynasty, and *Geommyeong* (Sword Maxim) *Saminchilseongeom* by Song Mun-heum, *Gamhoe*(Thinking) by Cho Ji-kyeum, *Saindoga*(Song of *Saindo*) by Shin Heum, *Samingeomchan* (Praise of *Samingeom*) by You Un-ho, *Samingeombu*(Ode of *Samingeom*) by Jang Yu, *Samingeomga*(Song of *Samingeom*) by Jeong Du-kyeong, *Samin-domyeong*(Maxim of *Samindo*) by You Han-jun, *Saindobu*(Ode of *Saindo*)> by Cho Gui-myeong in *Joseon* Dynasty: these Korean Literatures show the meaning and the imagery of *Ingeom*. After considering of these Korean *Ingeom* Literatures, we can find the three imageries of *Ingeom*: *Byeoksageom* (Amulet Sword to avert Evils), *Uigeom*(Sword of Justice), and *Suyanggeom*

(Sword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Byeoksageom* is the Amulet Sword to avert monsters and evils. *Uigeom* is the Sword of justice to slice villainous retainer and evil men. *Suyanggeom* is the Sword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which had been used by *Sadaebu* class.

‘*Ingeom*’ of *Joseon* is the special sword that symbolizes the spirit of *Sadaebu* possessed both literary and military accomplishments. It 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Korea. ‘*Ingeom*’ includes the meaning of the three imageries(*Byeouksageom*, *Uigeom*, *Suyanggeom*) and it has been described in Korean Literatures.

This is very unique fact that Korean Literatures of *Ingeom* and real *Ingeoms* still remain. *Sadaebu* wrote these Literatures as well as possessing *Ingeoms*. In this Study, we would find out the real truth about *Ingeom* of *Joseon* Dynasty. And this would be the basic step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hole Korean Sword Culture.

Key Words : *Ingeom*, *Samingeom*, *Saingeom*, *Byeouksageom*, *Uigeom*

明代 遼東防禦戰略의 變化와 防禦力の 衰退

南 義 鉉*

1. 序 論
2. 明初 遼東防禦와 指揮體系의 形成
3. 遼東都司 管轄範圍의 擴大 試圖와 限界
4. 邊牆體制로의 轉換과 防禦力の 弱화
5. 結 論

1. 序 論

본 논문은 明代 遼東¹⁾ 防禦戰略의 變化와 防禦力の 弱화라는 시각에서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 1) 명대 ‘遼東’의 개념은 ‘遼河의 동쪽’, 遼東都司가 있는 ‘遼陽城’, ‘遼東都司 관할지역’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明代에 편찬된 『遼東志』 『疆域』에서는 “東至鴨綠江五百三十里, 西至山海關一千五十里, 至北京一千七百里, 南至旅順海口七百三十里, 渡海至南京三千四十里”로 기록하고 있으며, 『籌遼碩畫』 역시 비슷한 범위를 遼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明代에는 일반적으로 遼東의 범위를 遼東都司가 형식적으로 관할했던 지역을 많

遼東都司(遼東都指揮使司) 防禦體系의 形成과 變化過程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明은 건국 초기 北邊의 防禦가 시급하였다. 비록 元이 붕괴하였지만 몽골 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한 저항을 하고 있었으며, 遼東 역시 納哈出(나하추) 등이 세력을 형성하여 상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明初 大同, 宣府 등의 北邊과 遼東 등을 하나의 방어선으로 연결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방어체계의 정비가 시급하였다.

일반적으로 明代 遼東都司와 그 군사방어체제를 연구한 성과물들은 明初 防禦體制의 形成過程 등 제도사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전반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초기에 北元과의 전쟁이 가장 심각하였고 또한 군사방어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지만 明初에 형성된 방어체제는 여러 변화를 거치지만 후기까지 그 기본적인 형태가 지속되었다.

명 초기-중기-후기로 갈수록 요동정세는 변화되고, 변화에 따라 명의 遼東 防禦體系 역시 형성-정비-변화-쇠퇴라는 다양한 전략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명 요동방어체제를 시간의 단절 속에서 각 시기를 연구한 성과들은 있지만 그 초기~후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연결시켜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연구 성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明代 遼東防禦體制의 변화과정을 명 요동정책의 전략적 변화과

이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明初 25衛 체제 속에 포함된 동쪽의 鴨綠江, 서쪽의 山海關, 남쪽의 旅順口, 북쪽의 開原에 이르는 遼東都司의 관할지역을 ‘遼東’의 범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遼東이라는 용어는 遼東都司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역을 지칭하며, 기타 지역은 여진지역, 몽골지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遼東은 極東에 위치하면서 長城의 天下第一關인 山海關과 직접 연결되었으며, 9邊(明代 長城을 구성하는 9개의 重鎮)을 구성하고 연결시키는 동쪽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점하고 방어하는 것은 내몽골, 吉林, 黑龍江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山海關, 北京, 나아가 中原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상의 이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明朝는 遼東을 明代 9邊에 포함시켜 극동의 전초기지로 경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극동 사령부에 해당하는 遼東都司, 25衛와 所, 城堡, 驛站路, 海運網, 烽火臺, 邊牆 등 다양한 군사시설물을 수축하여 遼東都司 防禦體制을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 明代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遼東 군사력과 방어력, 遼東都司의 性格과 對外關係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²⁾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遼東防禦體系의 形成過程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초기 明은 遼東에 遼東都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체제가 정비되지 못하여 北元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패하였으며 遼西 지방 역시 몽골군이 장악함으로써 山海關과도 단절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遼東의 일부를 점거한 明軍은 山東으로부터 旅順에 이르는 해로를 통해 모든 군수품과 군사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며 遼東都司와 25衛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이는 곧 요동방어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반부에서는 초기의 遼東防禦體制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관할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와 그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된 衛所와 城堡의 설치, 驛站, 海運網 정비 등은 체제 내부의 발전을 정비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豆滿江 및 松花江 유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였다. 黑龍江 하류 유역에 설치한 奴兒干都司는 黑龍江 유역의 여진 세력을 明의 관할범위 속에 넣으려는 대외적인 시도로 볼 수 있으며, 女眞 지역에 설치한 衛所들 역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조선과의 갈등을 야기한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도 明의 대외 영향력의 확대와 시도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2) 明代 初期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遼東政策의 결과 永樂年間에 이르자 몽골親征, 奴兒干都司와 女眞衛所의 설치 등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으나, 中期로 갈수록 屯田 인구의 이탈과 관리들의 토지침탈, 衛所軍의 逃亡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後期에 이르자 이러한 모순은 극대화되어 지역 사령부에 해당하는 遼東都司는 내부적 개혁과 운영에 실패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여진·몽골 勢力의 成長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그 支配力의 限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遼東都司 防禦體系의 특징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된 연구 성과물들은 중·후기의 변화와 연결시켜 明代 遼東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明의 이러한 시도는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내부적으로 遼東都司를 구성하는 25衛는 永樂年間에는 屯田에 기초한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의 확보 등으로 조직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점차 屯田 생산량의 감소로 식량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衛所의 군사들이 도망하는 등 방어체제에 문제점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衛所體制와 屯田 경영의 불안정은 驛站路의 運營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역부들의 부역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초기에 정비된 遼東海運³⁾ 역시 명대 해양정책 특징 중의 하나인 海禁의 영향으로 山東과 遼東의 交易를 감소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遼東 經濟를 어렵게 함으로써 遼東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明 前期 遼東都司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防禦體制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적 변화 속에서 구상된 遼東邊牆의 修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遼東邊牆은 명 전기 遼東都司 防禦體系의 弱화와 대외 세력의 성장이라는 원인과 연결시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수축된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 遼東邊牆은 築造過程 이외에 明 遼東 방어정책의 성격, 明과 朝鮮의 國境線 문제, 나아가 明朝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에 대한 지배력의 문제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山東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遼東海運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鄭炳喆의 『明末 山東과 遼東間의 交流와 그 性格』(『明清史研究』 第3輯, 明清史研究會, 1994); 『明 前·中期 山東의 人口移動과 社會變化』(『東洋史學研究』 第55輯, 東洋史學會, 1996); 『明末 遼東 沿海一帶의 ‘海上勢力’』(『明清史研究』 第23輯, 明清史學會, 2005) 등을 들 수 있다.

4) 遼東邊牆을 연구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행본으로 董曜會, 『瓦合集-長城研究文論-』, 科學出版社, 2004; 孟森, 『明代邊防』, 學生書局, 1968; 肖立軍, 『明代中後期九邊兵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1; 劉謙, 『明遼東鎮長城及 防禦考』, 文物出版社, 1989 등을 들 수 있다. 논문으로는 武家昌, 王德柱, 『試探明代萬里長城東部起點』, 『北方文物』, 1990年 第1期; 薛景平, 『明遼東鎮長城東西兩端的實地考察』, 『北方文物』, 1996年 第3期; 刁書仁, 『明朝前中期東段邊界的變化』, 『史學集刊』, 2000年 第2期; 叢佩遠, 『明代遼東邊牆』, 『東北地方史研究』, 遼寧省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85年 第1期 등이 있다. 이들 연구물들은 遼東邊牆의 축조과정을 서술하고 변장을 단순한 방어선으로 인식함으로써 邊牆과 遼東都司 지배력과의 관련성, 국경선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明代 遼東의 방어체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근 몇 년간 東北 프로젝트(東北工程)를 통해 滿洲史를 자국의 地方史로 편입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데, 明代 滿洲史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북 프로젝트의 과제 속에는 明代의 疆域, 民族, 國境 문제가 포함되어 그 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데,⁵⁾ 모든 연구 성과물들의 공통점은 내몽골, 松花江, 黑龍江, 豆滿江, 鴨綠江 유역 등 滿洲 지역에 대해 明이 상당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은 만주를 지방사적 시각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만주지역의 주변세력들, 곧 명대 高麗(朝鮮), 여진,⁶⁾ 몽골 등의 성장과정과 滿洲와의 관계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서술에서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진 전지역을 明이 관할했다고 함으로써 朝鮮의 북진정책 내지 여진정책을 영토 확장 내지 여진지역을 약탈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으며,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女眞衛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진에 대한 明의 影響力을 확대해석하는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향으로 중국의 성과물들은 鴨綠江과 豆滿江이 애초부터 明

5) 저서로 楊陽, 『中國的東北社會 — 十四~十七世紀 —』(遼寧人民出版社, 1991)와 『明代東北史綱』(學生書局, 1993); 李樹田, 『中國東北通史』(吉林文史出版社, 1993); 刁書仁 主編,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吉林文史出版社, 1995); 叢佩遠, 『中國東北史』 1-6卷(吉林文史出版社, 1998); 顧頡剛·史念海, 『中國疆域沿革史』(商務印書館, 1999); 寧夢辰, 『東北地方史』(遼寧大學出版社, 1999); 肖立軍, 『明代中後期九邊兵制研究』(吉林人民出版社, 2001); 朱誠如, 『管窺集』(紫禁城出版社, 2001);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中州古籍出版社, 2003) 등을 들 수 있다.

6) 建州女眞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河內良弘, 『明代女眞史の研究』(東朋舍, 1992); 江嶋壽雄, 『明代清初の女眞史研究』(中國書店, 1999) 등을 들 수 있다. 刁書仁, 『論明前期 韓采里與眞與明·朝鮮之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 3月, 第12卷 第1期); 李婷, 『明前期朝鮮族移居遼東的原因, 途徑及開發貢獻』(『鄂州大學學報』 第9卷 第3期, 2002.7); 王臻, 『朝鮮太宗與明朝爭奪建州女眞所有權述論』(『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3.9); 于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論析』(『歷史研究』, 2003年, 第1期 第19卷); 劉秉虎, 『建州女眞與朝鮮交涉之研究』(『大連大學學報』, 2003年 6月, 第24卷 第3期) 등이 있다.

과 朝鮮의 고정된 경계였으며, 遼東八站(鴨綠江~遼陽 사이의 8站)⁷⁾ 지역 역시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던 국경 중립지대 임에도 明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여진 지역 중 永樂年間 黑龍江 하류에 설치한 奴兒干都司⁸⁾ 역시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이미 宣德年間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明 後期까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서술하여 明代 여진지역을 明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⁹⁾ 이러한 중국 연구 성과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明의 遼東防禦

7) 遼東八站 지역은 遼東都司가 설치된 遼陽으로부터 鴨綠江 사이에 8개의 站이 설치된 곳을 가리킨다. 이 八站은 高麗末에는 八站으로, 朝鮮 初期에는 東八站으로 그리고 明에서는 遼東八站 또는 遼左八站으로 통칭되었다. 遼東八站은 朝鮮으로 明으로 들어가는 使行路로, 元末 紅巾賊의 亂, 元·明交替期の 혼란, 그리고 明初 北邊의 우환으로 明 시기 내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지 못했다. 이 지역은 明이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요동공벌의 대상지역이 되기도 하였으며, 朝鮮과 明의 완충지대로 兩國 사이에 영토, 인구, 女眞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전략적으로도 鳳凰山과 같은 천연의 要塞가 위치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곳이다. 遼東八站은 국경사적 시각에서도 朝鮮과 明의 실질적인 국경선이 鴨綠江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8) 奴兒干都司와 관련한 저서로는 楊陽 外,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中州書畫社); 楊陽, 1988, 『明代遼東都司』(中州古籍出版社), 1991, 『中國的東北社會 十四~一七世紀』(遼寧人民出版社) 1993, 『明代東北史綱』(學生書局),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第3卷(吉林文史出版社),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東朋舍), 江嶋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眞史研究』(中國書店)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烏居龍藏, 『奴兒干都司考』, 『燕京學報』 第33期; 內藤虎次郎, 1970, 『奴兒干永寧寺記補考』, 『內藤湖南全集』 卷; 王綿厚 外, 1978, 『明代管理奴兒干的歷史新證』, 『文物』; 蔣秀松·王兆蘭, 1982, 『從永寧寺碑看明代東北各族的關係』, 『歷史教學』; 蔣秀松, 1990, 『關於奴兒干都司的問題』, 『民族研究』; 王鍾翰, 1997, 『明代女眞人的分布』, 『清史新考』(遼寧大學出版社); 楊陽, 2005, 『明代奴兒干永寧寺碑研究的諸問題論辨』, 『東北史地』; 楊陽, 2006, 『永寧寺碑文銘刻的奴兒干都司與黑龍江下流, 庫頁島的先居民族關係』, 『東北史地』 등이 있다.

9) 朝鮮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중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전통시대 ‘邊界’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鴨綠江과 豆滿江을 明과 朝鮮의 國境線으로 확정함으로써 遼東八站과 같은 邊境地帶를 明 遼東都司의 관할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명은 원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원이 지배했던 영역은 明의 영토이며, 따라서 高麗의 遼東征伐는 元을 계승한 明의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明 초기에 쟁점이 되었던 明의 鐵嶺衛 역시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高麗의 방해로 좌절된 것으로

體系를 중심으로 그 形成過程과 防禦力의 弱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明初 遼東防禦와 指揮體系의 形成

明은 洪武 20年(1387) 遼東 최대의 北元 세력인 納哈出과의 金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신속히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防禦體系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元 遼陽行省 지역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성하였다. 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遼東의 遼陽과 遼西의 廣寧을 그 중심에 두고 東으로 高麗(朝鮮)를 견제하는 한편, 北으로 松花江과 黑龍江 지역으로, 西로 내몽골의 大寧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진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모두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長城과 遼東을 견고하게 연결시켜 방어선을 일치시키려는 군사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洪武 28年(1395)에 遼東都司 소속 25衛 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마침내 25衛 지역 내의 기존의 府·州·縣 制度를 폐지함으로써 遼東都司와

인식하거나, 4郡 6鎮의 문제도 朝鮮이 군사력을 동원해 明의 舊土를 차지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그 서술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김한규는 『遼東史』(문학과 지성사, 2004) 명대 부분의 서술에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遼東邊牆, 女眞衛所 등 諸門題를 다루어 明代 遼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한중관계사Ⅱ(아르케, 1999)에서도 요동을 둘러싸고 高麗(朝鮮)·明 사이에 발생한 각축과 갈등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朴元煥은 『明初朝鮮關係史研究』(知識産業社, 2002)에서 10여 편의 대외관계사 논문을 통해 明初 遼東의 歸屬問題, 明과 朝鮮의 女眞의 問題, 靖難의 役과 朝鮮의 對應, 15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등을 주제로 다루어 遼東과 韓·中關係史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徐炳國의 『童猛哥帖木兒의 建州左衛研究』, 『凡察의 建州左衛研究』,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金九鎮의 『麗末鮮初 頭滿江 지역의 女眞分布』, 『初期 毛憐兀良哈 研究』, 『明代 女眞의 中國에 대한 公貿易과 私貿易』, 曹永綠의 『入官前明·鮮時代의 滿洲女眞史』, 金渭顯의 『女眞의 馬貿易考』 등이 있다.

소속 衛所는 이 지역의 군사·행정·감찰·경제·법률·징세 등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는 軍政合一의 성격을 갖는 기구가 되었다.¹⁰⁾

遼東都司의 설치는 高麗(朝鮮)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行禮, 使行路 閉鎖, 貢馬 要求, 表箋, 女眞人送還 등 麗末鮮初 高麗(朝鮮)·明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은 모두 遼東都司의 설치 및 요동정세와 관련이 있었다. 결국 明은 遼東都司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를 정지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 明이 遼東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高麗와 北元の 연합이었기 때문이다. 明 건국 이후에도 北元은 高麗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었고, 高麗 역시 遼東征伐을 단행하는 등 遼東을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明 初期 高麗와 北元에 대한 明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였다. 이로써 明은 高麗에 대해 3年1使와 陸路를 통한 使行路 閉鎖라는 交流斷絶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高麗(朝鮮)와 北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遼東都司를 통해 遼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¹¹⁾

10) 張士尊, 『明代遼東都司軍政管理體制及其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第5期, p. 70. 洪武 20年(1387)을 전후하여 遼東都司는 金州衛(大連 金州), 復州衛(瓦房店 復州鎮), 盖州衛(盖州), 海州衛(海城), 遼海衛(海城 牛庄鎮),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東寧衛(5衛의 治所는 遼陽에 있음), 瀋陽中衛, 瀋陽左衛(2衛는 瀋陽에 治所가 있음) 등 12衛를 설치하였는데, 구릉과 평원을 전략적으로 적절히 이용하면서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12衛를 중심으로 納哈出을 金山 전투에서 항복시킨 후 明朝는 점차 遼西 지역 5곳의 방어지점을 정하고 10개의 衛를 신설하였다. 이들 遼西地方의 衛는 義州衛(遼寧省 義縣)·廣寧左屯衛·廣寧中屯衛(錦州)·廣寧右屯衛(凌海右屯鎮)·廣寧前屯衛(綏中前衛鎮)·廣寧後屯衛(義縣)와 廣寧에 위치한 廣寧衛·廣寧中衛·廣寧左衛·廣寧右衛 등이다. 이 5개 지점이 확보되면서 遼東都司는 遼河 동쪽의 遼陽을 중심으로 開原 등의 遼東북부 지역과 遼河 서쪽의 大寧 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防禦體系를 만들면서 遼東鎮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11) 朱元璋은 明 건국 이전부터 高麗의 태도가 변할 경우 장차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정권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복원세력이나 동북의 나하추, 그리고 張士誠 方國珍 등이 끊임없이 고려에 대해 교류를 요구해 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朝鮮 건국 후에도 明의 고압적인 태도는 지속되었다. 洪武年間 遼東都司가 이미 그 방어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육로를 통한 사행은 戰馬 교역을 위한 遼東 入境 이외에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당시 明은 遼東都司를 비롯하여 定遼中衛,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등 25衛 체제를 거의 갖추었지만 遼陽 이남지역, 곧 遼東八站 지역은 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朝鮮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식량의 확보와 朝鮮의 군대를 상대해 싸울만한 전문적인 군대가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그는 당시 朝鮮에 대해 “朝鮮은 國都에서 鴨綠江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식량이 1만 석에서 10여 만 석에 이르고 東寧府의 女真人을 유인하고 있으며 … 그러나 遼東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바 … 그들(조선)이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¹²⁾라고 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던 遼王의 궁실공사마저 정지시켰다. 이는 당시 遼東都司의 군사적 관심이 북변의 몽골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고려 및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준비가 매우 취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山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北元勢力이 여전히 遼西를 장악하고 있어서 明軍은 山海關을 통해 遼東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을 지원하는 군사와 물자는 모두 山東의 登州衛를 출발하여 海路를 통해 遼東으로 들어옴으로써 山東은 遼東을 지원하는 중요한 군사와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¹³⁾ 더구나 明 初期에는 아직 遼東 屯田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明은 遼東으로의 군수공급을 위해 내지에서 최대 70여 만석의 군량을 수송해오던 시기였으며,¹⁴⁾ 군사

역시 내지에서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명대 遼東이 山東에 의존하는 정도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¹⁵⁾

遼東都司는 전국적인 都司體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洪武 初期 중앙에는 최고군사기구인 大都督府를 설치하여 전국의 都指揮使司(‘都司’로 약칭함)를 관할하였다. 洪武 13年(1380) 大都督府는 다시 中·左·右·前·後 등의 五軍都督府로 분리되어 각 해당 지역의 都司를 관할하였으며, 都司 아래에 衛所를 설치하였다.¹⁶⁾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都司와 衛所

14) 『明太祖實錄』 洪武 18年 5月 己丑.

15) 『全遼志』 卷5, 劉九容 『海運議』, 『籌遼石畫』 卷6, 萬曆 46년 『宮應震題奏』, 『明史』 卷41, 地理志 2, 『全遼志』 卷1, 沿革 등. 明代 사료에는 遼東의 발전에 山東의 역할이 매우 필요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많다. 예를 들면 『全遼志』는 ‘山東과 遼東은 같은 省이다’라고 하였고, 『籌遼石畫』도 ‘국초에 遼東을 두었는데 山東에 속해 있다’고 하였는데, 모두 山東과 遼東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讀史方輿紀要』는 모두 遼東都指揮使司를 山東承宣布政使司에 속해 있는 것으로, 『全遼志』도 遼東都司는 25衛와 2州를 관할하며 山東布政使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遼東이 山東이나 山東行省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都司는 각 성에 설립한 최고군사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都司 이외에 민사를 관리하는 布政司, 형사를 관리하는 按察使司가 있는 데 이들을 ‘三司’라고 칭하였다. 衛와 所는 都司에 예속된 하급의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明朝는 大都督府·都司·衛·所 체제를 중심으로 원시대부터 사용하던 樞密·平章·元帥·總管·萬戶 등 군직계통의 관호를 혁파하였다. 都司에는 都指揮使(正2品) 1명, 都指揮同知(從2品) 2명, 都指揮僉事(正3品) 2명 등의 관직을 설치하고 衛所, 군사훈련, 둔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都司 아래에는 衛指揮使司(略稱 ‘衛司’)와 千戶所와 百戶所를 두었으며 衛司에는 指揮使(正3品) 1명, 指揮同知(從2品) 2명, 指揮僉事(正4品) 4명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明代 衛所軍은 주로 징발된 자, 귀부한 자, 充軍 등으로 구성되었다. 징발된 자는 농민기의군이나 反元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군사 등이, 歸附軍에는 주로 투항한 元軍이, 그리고 充軍은 죄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垛集軍이 있는 데, 이는 전국 각지에서 평민을 징발하여 군인으로 삼는 제도로 세습적으로 군직에 편입되었다. 明代는 民籍과 軍籍이 구분되었으며 軍籍은 軍戶라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1衛는 5,600명으로 구성되어 指揮使 등이 관할하였다. 각 衛는 5개의 千戶所로 구성되었으며 1千戶所는 1,120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千戶 등을 임명하였다. 각 千戶所는 10개의 百戶所로 구성되었는데, 1개 百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百戶所는 2개의 總旗로 구성하고 總旗의 관직을 두었으며, 각 總旗는 5개의 小旗로 구성하였다. 遼東의 衛所軍은 둔전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 屯田에 종사하였으므로 ‘屯軍’이라고도 칭하였다.

高麗는 1370년 李成桂를 통해 1월과 8월에 東寧府를 정벌하여 遼陽에서 가까운 螺匠塔까지 이르는 등 高麗와 北元의 遼東에 대한 위협은 明의 요동진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요동정세 속에서 明 太祖는 1370년 遼東都司의 전신이 되는 遼東衛得利羸城을 설치하고 투항해 온 遼東地圖 등을 가지고 투항해 온 北元의 劉益을 指揮同知로 삼고, 다시 7월에 定遼都衛指揮使司를 두고 馬雲, 葉旺 등을 明 관리를 都指揮使로 삼는 등 본격적인 요동진출을 시도하였다.

12) 『明太祖實錄』 洪武 28년 4월 辛未.

13)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正月 壬午.

<표 1> 明代 五軍都督府와 소속 衛所

		都司 및 在京衛所	관할衛所
五軍都督府	左軍都督府	在京衛所	8衛
		浙江都司	16衛 4所
		遼東都司	20衛
		山東都司	11衛 4所
	右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雲南都司	15衛 1所
		貴州都司	18衛 1所
		四川都司	17衛 3所
		陝西都司	30衛 2所
		廣西都司	6衛 1所
	中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1所
		中都留守司	8衛 1所
		河南都司	20衛 1所
		在外直隸揚州衛等衛所	18衛 1所
	前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湖廣都司	33衛 14所
		福建都司	11衛
		江西都司	5衛 9所
		廣東都司	11衛 13所
		在外直隸九江衛	
		福建行都司	6衛 1所
	後軍都督府	在京衛所	6衛
		北平都司	15衛 1所
		北平行都司	8衛
		山西都司	7衛 5所
		山西行都司	5衛
		北平三護衛	3衛
		山西三護衛	3衛

制度 등을 시행하면서 군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한 일이었으므로 그들 대부분은 屯田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洪武 26년 ‘軍士屯田則例’를 만들어 외지의 둔군은 ‘三分守城 七分屯開耕種’을, 내지의 둔군은 ‘二分守城 八分屯開耕種’의 원칙을 세우면서 屯田經營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군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¹⁷⁾

전국의 군사, 곧 軍戶는 지방행정장관의 제약을 받지 않고 五軍都督府의 관할을 받았으며 기본적으로 세습되었다. 그리고 군대의 파견이나 군관의 임명은 兵部의 소관이었으며, 국가가 전쟁 등 위급한 상황에 돌입했을 때 兵部로부터 황제의 칙서를 받고, 都督府의 관리를 임명·파견하였다. 이처럼 明朝는 軍權을 都督府와 兵部로 분산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軍權의 집중과 남용 그리고 중앙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遼東都司는 體系的인 指揮系統에 따라 먼저 都司 아래 都指揮使·指揮僉事·指揮同知 등의 관리를 두고 전체적인 관련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都司 아래 經歷司를 두고 관리 經歷으로 하여금 문서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斷事司(斷事, 副斷事를 두고 사법처리를 담당)·都事司(都事を 두고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都司儒學(教授와 訓導를 두고 학교와 교육을 담당) 등을 설치하여 행정 사법 교육 등을 분담하여 처리하였다.¹⁸⁾

17) 正統年間 이후 衛所兵의 이탈로 衛所의 전투능력이 나날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明朝는 募兵制度를 시작하였다. 募兵制는 일반 백성 중에 군사를 모집하고 모병된 자들은 衛所의 군과는 달리 軍籍이 아니라 民籍에 편입시키는 제도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군량과 군수품은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였으며 조정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그 세금을 백성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모병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募兵制度의 弊端은 明末에 이르자 농민반란을 야기하여 明이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8) 1402년~1424년 동안 遼東都司의 都指揮使, 指揮同知, 指揮僉事 등은 약 54명에 이르는 데 이들의 주요 임무는 行政의인 問題의 해결이 아니라 城堡와 관련된 군사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업무와 관련하여 遼東都司가 아닌 鎮守總兵의 명을 받고 있다. 이는 곧 행정관리계통과 군사지휘계통이 분리되지 않은 洪武時期에 비하면 永樂時期은 이미 전문적인 군사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都指揮使 이외에 鎮守總兵制度를 두었는 데, 이는 특정한 군사임무를 위하여 황제의 命에 의해 總兵을 변방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그들의 중요한 업무를 정리해 보면 군사방어, 軍法의 執行, 人物의 推薦, 遼東馬市의 管理, 驛站의 運營과 管理, 屯田의 整理, 도망한 屯軍과 屯民의 處理, 邊方民族問題의 處理, 軍隊의 再調整, 使臣護送 그리고 宦官의 司法處理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遼東에 파견된 總兵의 권한이 都指揮使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시 점차 위급해지는 遼東 情勢 속에서 황제가 부여한 군사임무를 직접 신속하게 수행하면서 都指揮使의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려는 중앙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역시 군권의 집중을 막으려는 중앙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巡撫를 파견하는 監察制度 역시 遼東都司의 指揮體系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正統·景泰年間은 遼東巡撫制度가 형성되는 시기로, 遼東의 軍事指揮權은 洪武時期에는 都指揮使가, 永樂 시기에는 總兵이, 그리고 宣德 10年(1435)에는 巡撫·提督·御使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업무가 크게 行政·軍事·監察의 세부분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中·後期로 갈수록 總兵을 견제하는 監察權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⁰⁾ 이러한 상황은 明代 遼東이 기본적으로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하는 行政管理體系와 總兵을²¹⁾ 중심으로 하는 軍事指揮體系, 그리고 巡撫·提督·御使 등을 중심

19) 『明宣宗實錄』 洪熙 元年 閏7月 壬戌; 『明宣宗實錄』 宣德 10年 8月 己酉. 중앙에서 파견된 總兵官은 전시에만 동원되는 非常設 관직이었으나 明 初期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군무를 총괄하는 고정된 관직으로 변화하였으며 ‘鎮守’라고도 칭하였다. 總兵官은 永樂時期 지방과 변방을 방어하는 임무가 강조되면서 무신을 總兵官으로 파견하여 지방과 변방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總兵官(鎮守)은 처음에는 都指揮使司(都司)의 지방관과 그 위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그 지위와 권력이 확대되면서 도사의 총 책임자인 都指揮使가 오히려 總兵官에게 예속되어갔다. 總兵官이 그 지방을 지키는 최고의 군사장관이 되면서 전쟁 시에 조정에서 또 다른 관리를 내려 보냈는데, 그가 곧 巡撫였다. 그러나 巡撫 또한 遼東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고정된 관직으로 변화하였으며 장기간 지방에 체류하면서 지방의 상황을 파악하여 上奏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 『明英宗實錄』 正統 7年 11月 乙丑; 『明史』 卷177, 『王翱傳』.

21) 總兵體制的 구조를 보면 總兵 아래 副總兵·左參將·右參將·備御都指揮·守備都指揮·

으로 하는 監察體系로 구성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²²⁾

3. 遼東都司 管轄範圍의 擴大 試圖와 限界

明은 이제 초기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방어선과 25위 체제 등을 형성하고 한 후 그 외곽지역, 곧 몽골과 여진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진출의 시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明이 몽골과 여진 지역에 많은 衛所를 설치하였지만 결국 모두 형식적인 설치에 머물거나 유지가 힘들어 방어선을 축소시키며 遼東都司로 흡수시켰기 때문이다. 우선 명은 내몽골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大寧都司를 방치함으로써 내몽골의 넓은 지역이 몽골 兀良哈 3衛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大寧都司의 설치는 遼東과 몽골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大寧을 내지로 만들고자 하는 明의 전략이었으나²³⁾ 결국 군사력의 약화와 물자공급의 곤란 등으로 大寧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明이 女眞과 朝鮮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하려했던 東寧衛, 三萬衛, 鐵嶺衛 등도 모두 遼東都司로 흡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遼

守備把總 등이 있고 이후에 遊擊 등의 직위가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22) 『明太祖實錄』 洪武 15年 2月 壬戌, 洪武 18年 9月 甲申; 『明太祖實錄』 洪武 11年 6月 辛酉; 洪武 14年 7月 乙丑; 洪武 17年 6月 辛酉. 遼東都司는 이러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군사적인 방어 이외에 南遷한 몽골족과 女眞族 그리고 기타 流移民들에 대해 招撫·懷柔·優待·賞賜·安置, 衛所로의 編入, 官職의 世襲과 俸祿의 支給을 통한 人口確保 등 민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들도 처리하였다.

23) 명은 大寧 지역(내몽골 자치구 寧城)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여, 大寧·寬河·會州·富峪 등의 4성을 구축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洪武 20년(1387)을 전후하여 大寧에 前·後·左·右·中의 5衛가 설치되어 大寧都指揮使司(약칭 ‘大寧都司’)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이 지역을 포기함으로써 大寧 지역은 몽골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東都司를 구성하는 25衛 중 상당수의 衛는 이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東寧衛, 三萬衛, 鐵嶺衛 등의 3衛는 대부분 여진, 조선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安樂州, 自在州 등도 遼東都司 북부 開原 지방에 설치되어 遼東都司가 필요로 하던 대외 교섭과 통역 등 중요한 임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 1> 遼東都司 관할 25衛・驛路 및 遼東防禦線



자료: 『中國歷史地圖集』 第7冊 參照.

명이 女眞 지역에 설치하려다가 遼東都司로 흡수한 3개의 衛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寧衛는²⁴⁾ 洪武 13년(1380) 東寧・南京・海洋・草河・女眞 등 5개의 千戶所로서 여진지역에 설립되었다.²⁵⁾ 東寧은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豆滿江 상류에 설치된 元代 東寧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元代 역시 당시 豆滿江 유역에 살던 高麗인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南京은 지금의 吉林省 延吉 부근으로 元代 開原路를 중심으로 散居하던 女眞人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海洋은 咸鏡北道 吉州로 高麗와 女眞人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여진과 고려지역을 포괄하던 원대 東寧府는 洪武 19년(1386)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東寧을 衛로 승격시키고 그 주위에 左・右・中・前・後의 5개 所를 설치하였다.²⁶⁾ 그리고 그 治所를 遼東都司가 위치한 遼陽의 북쪽으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5개 千戶所 중 中千戶所는 漢軍으로, 나머지 4개의 千戶所는 朝鮮人和 女眞人을 통해 운영하였다.²⁷⁾ 명은 결국 이들을 초기의 여진지역에서 遼東都司의 治所인 遼陽城 북쪽으로 이전시켜 遼陽城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진지역을 포함하던 원대 東寧府의 상당부분을 포기하였던 것이다.²⁸⁾

24) 河內良弘, 『明代遼陽의 東寧衛について』(『東洋史研究』 44-4, 1986)과 최근의 연구성과로 徐仁範, 『明代의 遼東都司와 東寧衛』(『明清史研究』 第23輯, 2005. 4); 程尼娜, 『明代對 遼東都司東寧衛朝鮮居民的統轄探析』, 『登州港與中韓交流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學出版社, 2005 등을 들 수 있다.

25) 『遼東志』 卷1 地理.

26) 『遼東志』 卷2 建置.

27) 『明太祖實錄』 洪武 19年 7月 戊午. 遼東都司로 편입된 東寧衛의 전체 호수는 15,634戶口인데, 朝鮮인들이 東寧衛의 상당부분을 구성하였다. 靖難의 變과 같은 戰亂期에는 東寧衛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朝鮮인들이 鴨綠江을 넘어 朝鮮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東寧衛의 인구구성에서 조선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東寧衛를 비롯한 상당수의 遼東 사람들은 正統年間 이후 몽골 등의 遼東침입으로 인해 朝鮮으로 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던 遼東八站에도 상당히 많은 東寧衛의 朝鮮人이나 遊民들이 숨어들게 되었다. 당시 遼東八站은 遼東都司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使行의 要路로, 遼陽에 이르기까지 5~6일의 노정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朝鮮人의 민가에서 숙박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遼東八站 역시 많은 朝鮮人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鐵嶺衛는 처음 輯安에 설치하여 朝鮮과 女眞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高麗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遼東攻伐을 야기하는 등의 사태로 결국 설치되지 못하고, 洪武 21년(1388) 奉集堡(지금의 瀋陽 동남쪽 40리 지점)에 이전되어 遼東都司를 방어하였다. 다시 洪武 26년에는 奉集堡에서 瀋陽과 開原의 경계인 古 罌州, 곧 지금의 鐵嶺市로 이전하여²⁹⁾ 요동 북쪽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³⁰⁾

당시 明은 遼東進出을 확대하기 위해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25衛 體制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鴨綠江 유역에 鐵嶺衛를 설치하겠다는 明의 결정은 鴨綠江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진정책을 추진하던 高麗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³¹⁾ 鐵嶺衛 設置에 대한 遼東征伐論의 대두는³²⁾ 鐵嶺 지역이 明의 領土로 귀속될 수 있다는 對明危機意識 이외에도 明 初期 明과 高麗 사이의 군사적 갈등, 여진관할권의 문제, 明의 貢路閉鎖와 무리한 貢馬 要求, 禡王 시기의 反明的 態度 등 明과 高麗 사이에 발생한 갈등들이 응축되어 표출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明의 鐵嶺衛는 鴨綠江의 皇城(輯安)에 설치하려다가 瀋陽 동남쪽 40리 奉集堡에 설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遼東都司 북부 방어선에 해당하는 鐵嶺(지금의 遼寧省 鐵嶺市)에 설치됨으로써 압록강 유역에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던

28) 『遼東志』 卷6 『人物志』.

29) 『明太祖實錄』 洪武 21年 3月; 洪武 26年 4月 壬午.

30) 『明太祖實錄』 洪武 20年 12月 壬申. 당시 遼東都司는 納哈出的 세력을 흡수하기는 하였지만, 주변의 여러 세력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었다. 遼陽行省 지역의 高麗人이나 女眞族은 상당수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遼東都司 관할지역 밖으로 이주하는 등 遼東都司의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高麗에서는 遼東征伐論이 제기되고 高麗가 女眞을 적극적으로 초무하는 등 明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遼東都司가 관할지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鐵嶺衛를 통해 관할지역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31) 『高麗史』 卷136, 禡王 13年 5月.

32) 刁書仁, 卜照品,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 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 2001年 第2卷 第1期, p. 54.

것이다.³³⁾

三萬衛 역시 豆滿江 유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訓春江(琿春江) 유역의 韓朵里 유역에 처음 설치하였으나,³⁴⁾ 곧 식량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遼東都司 북부에 해당하는 開原으로 옮겼다.³⁵⁾ 開原은 지금의 遼寧省 開原老城鎮으로, 遼代의 咸州, 金·元代의 咸平府에 해당한다. 洪武 21년(1388) 開元은 開原으로 고치고, 동쪽으로는 女眞 각부를 서북쪽으로는 몽골 兀良哈를 통제하는 遼東都司가 관할하는 重鎮의 역할을 하였다. 開原은 몽골세력과 女眞세력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기도 하지만 遼河를 끼고 있는 重鎮이기 때문에 遼河를 이용하여 군수물자가 공급되기도 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등 군사 및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들 衛의 설치과정과 특징으로 볼 때 洪武年間の 遼東은 納哈出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遼東都司와 25衛 중심의 衛所體制를 1단계

33) 鐵嶺衛의 위치에 대해서는 輯安(黃城), 江界, 함경도 鐵嶺, 奉集 등 논쟁이 많았으나, 최근 박원호는 그의 논문 『鐵嶺衛의 位置에 대한 再考』(『東北亞歷史論叢』 13호, 2006.11)에서 衛所制의 특징과 군사 숫자, 둔전 경영의 특징상 함경도 남부와 강원도 북부에 해당하는 鐵嶺은 초기 계획된 鐵嶺衛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明史』 『明實錄』 『遼東志』 『全遼志』 등의 사료를 분석하여 명군이 처음 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은 黃城이며, 江界에 까지 가서 초무활동을 벌이다가 奉集으로 철회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鐵嶺衛의 문제는 三萬衛와 더불어 14세기 遼東과 동아시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34) 『明太祖實錄』 洪武 21年 3月 辛丑.

35) 三萬衛의 문제 역시 鐵嶺衛와 마찬가지로 明 初期 遼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三萬衛의 초설지를 둘러싸고 크게 松花江과 豆滿江설로 나누어지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14세기 명의 요동전략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최근 박원호는 역시 『鐵嶺衛의 位置에 대한 再考』(『東北亞歷史論叢』 13호, 2006.11)에서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가 明이 요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초설지의 위치를 豆滿江 유역의 女眞 韓朵里部로 추정하였다. 삼민주의 설치시기가 鐵嶺衛와 비슷함을 분석하고 그 위치를 두만강 유역으로 추정함으로써 明 初期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鴨綠江과 豆滿江으로 明이 管轄範圍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鐵嶺衛와 三萬衛의 상관관계는 14세기 요동정세와 명의 요동정책, 조선과의 여진 관할권 등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몽골과 여진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곧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동으로 連山關, 북으로 開原과 昌圖, 遼西로 廣寧을 중심으로 遼東都司 방어선을 유지 강화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洪武年間 女眞 지역은 明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없었으며, 오히려 여진지역으로 밀려들어오는 몽골의 공격과 약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洪武年間 遼東都司로 방어선을 축소하여 군사력과 노동력에 필요한 인구를 흡수하고 방어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대의 팽창기로 알려진 永樂年間에도 開原 성내에 安樂州·自在州(自在州는 正統 8년에 遼陽으로 옮김)를 설치하여 몽골과 女眞 등의 귀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치한 것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永樂帝는 여진 지역에 衛所를 설치하면서 朝鮮에 대해 豆滿江 주변의 11處 女眞을 귀속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明은 使臣 王可仁을 통해 朝鮮에 칙서를 보내 參散·禿魯兀 등 11處의 溪關萬戶 寧馬哈 등을 招諭할 것을 통보하였으나,³⁶⁾ 朝鮮은 金瞻을 京師에 보내 11處 女眞 지역이 이미 朝鮮에 편입되어 호적에 올라있다고 보고함으로써³⁷⁾ 明은 이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³⁸⁾ 鐵嶺衛와 三萬衛의 이동, 奴兒干都司의 기능정지, 11處 女眞 지역의 포기 등은 모두 遼東都司 體系가 더 이상 외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명이 이처럼 관할 범위를 여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국 朝鮮과의 긴장국면을 조성하였으며 여진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明은 永樂年間 여진 지역으로 대대적인 진출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두만강 유역 斡朵里部的 猛哥帖木兒를 明으로 흡수하려는데 집중

하였다. 朝鮮은 明에 앞서 豆滿江 유역의 女眞問題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斡朵里部를 이끌고 가던 猛哥帖木兒를 초기부터 朝鮮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었는데, 明의 진출 시도로 明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明이 豆滿江을 확보할 경우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鴨綠江과 연결시켜 방어선으로 설정하게 되면 朝鮮과 女眞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의 女眞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과 몽골을 배후에서 막아 줄 세력을 확보하는 등 많은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太祖年間에 鐵嶺衛와 三萬衛를 각각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에 설치하려다가 좌절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두만강 여진 회유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³⁹⁾ 그러나 조선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진회유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猛哥帖木兒는 명나라 사신 千戶 高時羅 등에게 자신들을 吾都里衛라고만 하고 萬戶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明으로 귀부하라는 황제의 칙서와 명령을 거절하고 明과의 단절을 통보하는 한편 조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⁴⁰⁾ 그러나 明의 사신 王敎化的의 끊임없는 접촉과 회유로, 永樂 3년(1405) 5월 猛哥帖木兒는 마침내 기존의 明에 대한 강경한 태

39) 『朝鮮王朝實錄』太宗 3年 6月 辛未; 太宗 4年 3月 甲寅, 己未; 太宗 5年 2月 己丑; 太宗 5年 5月 庚戌. 1403년 明은 朝鮮에 칙유를 내려 猛哥帖木兒의 斡朵里, 兀良哈 등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明에 대해 朝鮮은 明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豆滿江 유역은 朝鮮의 중요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10처 女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猛哥帖木兒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朝鮮은 다양한 물품 공세와 함께 猛哥帖木兒에게 上將軍의 관직을 내리고 동시에 기타 女眞人들에게도 護軍, 司直, 副司直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들을 朝鮮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明의 입장에 대해 朝鮮은 ①이미 猛哥帖木兒 등은 朝鮮의 호적에 편입되어 있으며, ②더구나 그들은 이전에 明 成祖가 차지하려다가 朝鮮의 영토로 인정하고 포기한 10處 女眞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明에게 이 지역의 女眞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40) 『朝鮮王朝實錄』太宗 5年 春正月 庚子; 太宗 5年 3月 丙午. 猛哥帖木兒의 거절에도 永樂 3년(1405) 정월과 3월에 成祖는 다시 千戶 高時羅와 王敎化的을 보내 猛哥帖木兒와 지속적으로 여진과 접촉하는 한편, 朝鮮에게도 칙서를 보내 협조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36)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4月 甲戌.

37)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5月 己未.

38)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10月 己巳.

도를 버리고 같은 해 9월 마침내 明의 京師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明은 한 걸음 나아가 朝鮮을 강하게 질책하며⁴¹⁾ 朝鮮과 猛哥帖木兒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女眞人은 成化 元年(1465) 稱波右가 전한 기록⁴²⁾과 申叔舟가 수집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婆猪江 유역을 중심으로 전체 建州 3衛의 33,200의 인구 중 대략 13,000여 명이 군역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명과 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女眞이 明과 朝鮮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지만,⁴³⁾ 이러한 군사적 공격이 女眞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오히려 그들은 成化 13年(1477) 海西 各 衛의 수령들은 建州 3衛를 규합해서 遼東都司 동부의 중요 거점인 靉陽堡를 공격하는 등 요동을 점차 강도 높게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몇 차례의 대대적인 建州女眞에 대한 토벌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약탈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며 이들의 점진적인 성장은 遼東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었다.

41) 『朝鮮王朝實錄』太宗 5年 9月 己酉. 질책의 내용은 지난날에 동북면 10處의 人民 2천여 명을 이미 모두 請한 대로 朝鮮에 양보하였는데 皇后의 親族인 猛哥帖木兒를 조선이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곧 明이 朝鮮의 土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皇親 猛哥帖木兒를 회유할 뿐이라는 명분을 朝鮮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실상 猛哥帖木兒가 明에 회유된다는 것은 그 일대의 女眞 部族이 모두 明의 衛所體制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豆滿江과 인접한 朝鮮의 邊境에 불안정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42) 『朝鮮王朝實錄』世祖 11年 5月 丁未.

43) 『明憲宗實錄』成化 16年 2月 壬申. 成化 15年(1479) 9월 明朝는 太監 汪直을 都督軍務로, 撫寧侯 朱永을 征虜將軍으로 임명하는 등 군사적인 조직을 재편하여 건주 토벌을 계획하여 659명을 참수하고 486인을 포로로 잡는 등 큰 전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44) 『明憲宗實錄』成化 4年 3月 戊寅.

4. 邊牆體制로의 轉換과 防禦力의 弱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은 초기부터 遼東都司와 25衛 방어체제를 통해 遼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永樂年間(1403~1424)에는 黑龍江 지역에 奴兒干都司를 건립하여 해당지역의 女眞 초무를 계획할 정도로 明의 여진지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明代 遼東政策의 핵심에 있었던 遼東都司는 방어체제와 지휘체계의 구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크게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방어체제 약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들, 곧 둔전 생산량의 감소,⁴⁵⁾ 衛所兵의 도망과 인구의 감소,⁴⁶⁾ 관리들의 토지 침탈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

45) 『明宣宗實錄』宣德 8年 8月 庚戌; 『明英宗實錄』正統 4年 2月 辛巳; 『明憲宗實錄』成化 13年 正月 丁未. 永樂 시기에 생산되던 최대 70여만 석의 屯田 생산량은 明 中期가 되면서 36만여 석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둔전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宣德 8年(1433)에는 遼東都司 25衛에 소속된 屯軍을 빈부와 노동력의 구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屯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明 後期까지 둔전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공한지 개간과 이에 대한 세금 면제, 富戶들의 둔전 점유 금지, 屯田의 정확한 측량과 균등한 분배 등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명 후기로 갈수록 둔전의 연 생산량이 약 16만석으로 급감하였다. 더구나 자연재해가 겹칠 경우 생산량이 78만석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明 初期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다.

46) 『明熹宗實錄』天啓 2年 1月 乙丑, 2月 戊辰; 天啓 元年 5月 癸丑. 明初 遼東都司 관할지역에 거주하던 50여 만의 인구는 嘉靖 44年(1565)에 96,441戶에 381,496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天啓年間(1621~1627) 이후에는 요동의 위기와 혼란으로 山海關과 山東 등으로 피난한 인구는 작게는 10여 만에서 많게는 수십만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0여 만 명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朝鮮으로 도망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는데, 毛文龍이 朝鮮으로 넘어올 때 군사 26,000여 명, 난민 9~10만 약 10여 만에 가까운 인구를 인솔하고 朝鮮으로 넘어왔다. 이 숫자만 합쳐도 山海關·山東·朝鮮 등으로 도망해 온 군사가 최소 25만 이상이다. 25만이 전쟁을 피해 遼東都司 지역을 빠져나왔다면 약 10~15만 정도의 인구만이 遼東都司 지역에 남아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었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遼東都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동 위기가 심화되었던 正統年間 몽골세력은 ‘土木堡의 變’을 통해 明의 英宗 을 포로로 잡고 변방 방어선을 돌파하여 북경과 변경을 위협할 정도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진 역시 북변이 소란한 틈을 타 遼東의 동부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 변방 군사력이 여러 면에서 이미 몽골을 능가할 수 없으며 遼東都司가 새로운 방어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특히 서몽골(오이라트) 세력은 遼東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兀良哈 3衛, 大同, 宣府, 北京, 遼東, 女眞 등 넓은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며 朝鮮 까지 위협하고 있었다.⁴⁸⁾ 서몽골 세력이 강할 때는 교역을 요구하는 入貢者가 1년에 2~3천 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서몽골의 성장은 遼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遼東 防禦線 북쪽에는 몽골 兀良哈 3衛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서몽골의 공격을 받음으로서 많은 몽골족이 遼東 防禦線으로 밀려들어 遼東都司를 위협하였다. 兀良哈 3衛의 분포지역 중에 虹螺山(興城), 老虎林(鐵嶺), 車輪坡, 刀背山 등의 지명이 보이고 있는 데 이들은 모두 遼東 방어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다. 成化 元年(1465) 10월에는 遼東太監 李良이 兀良哈 3衛를 구성하고 있는 泰寧·朵顏 2衛의 1천여 명이 변방에 들어와 사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약탈이 우려된다고 보고하는 등 遼東의 북부 변경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遼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明은 더욱 방어시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었다.⁴⁹⁾

47) 楊艷秋, 『論明代洪熙宣德年間的蒙古政策』, 『中州學刊』, 1997年 第2期, p. 7.

48) 『朝鮮王朝實錄』世宗 24年 8月 己亥.

49) 成化年間 余子俊은 榆林 長城을 수축하였으며, 弘治年間에는 固原 長城이 강화되는 등 明의 몽골정책은 장성방어선을 강화하여 몽골 防禦體系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곧 明은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몽골의 통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였으며, 성보를 축성하고 연결하는 防禦體系는 遼東에도 영향을 주어 遼東邊牆을 수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 장성중심의 防禦體系는 장성 밖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몽고정세에 대한 정보과 접촉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몽정책을 수립할

<표 2> 遼西邊牆 주둔군수와 특징

보명칭	주둔군	특징	보명칭	주둔군	특징	비고
鐵場堡	126	通賊道路	大興堡	351	通賊道路	
永安堡	151	通賊道路	大福堡	351	通賊道路	
三山營堡	176	通賊道路	大鎮堡	350	通賊道路	
平山營堡	175	通賊道路	大勝堡	350	通賊道路	
高臺營堡	176	通賊道路	大茂堡	351	通賊道路	
新興營堡	490	通賊道路	大定堡	351	通賊道路	
錦川營堡	175	通賊道路	大安堡	351	通賊道路	
黑庄窩堡	251	通賊道路	大康堡	351	通賊道路	
仙靈寺堡	435	通賊道路	大平堡	351	通賊道路	
小團山堡	176	通賊道路	大寧堡	351	通賊道路	
興水縣堡	195	通賊道路	大靜堡	301	通賊道路	
白塔峪堡	171	通賊道路	大清堡	351	通賊道路	
寨兒山堡	171	通賊道路	鎮夷堡	503	通賊道路	
灰山堡	148	通賊道路	鎮邊堡	501	通賊道路	
松山寺堡	196	通賊道路	鎮靜堡	503	通賊道路	
沙河兒堡	201	通賊要路	鎮安堡	497	通賊道路	
長嶺山堡	172	通賊道路				
椴木冲堡	126	通賊道路				

그리고 遼東都司의 동부, 곧 여진지역에서도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建州女眞의 성장이다. 建州女眞은 처음 松花江 유역에서 성장하였으나 朝鮮의 豆滿江 유역 등 여러 차례 이동을 거듭하면서 朝鮮과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婆猪江 유역으로 대거 이동하여 그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正統 元年(1436) 建州衛 都指揮 李滿住는 渾江(婆猪江)⁵⁰⁾ 유역에 거주하다

수 없었다. 遼東 지역 역시 遼東邊牆의 수축으로 동부의 여진세력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50) 渾江(婆猪江)의 위치는 吉林省 동남의 通化和 遼寧省 동부의 桓仁·寬甸에 해당하는 데,

가 다시 遼陽에서 가까운 草河 부근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李滿住가 草河 유역으로 이주하겠다고 한 원인은 忽刺溫의 침입,⁵¹⁾ 朝鮮의 女眞 招撫, 유사시 明의 지원과 보호 요청 등을 들 수 있으나, 李滿住의 계획은 遼東都司가 계속 몽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女眞을 遼東都司 방어선 근처 草河에 둔다는 것은 전략상 明에게 분리하였으므로 용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遼東의 危機 속에서 明은 강력 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곧 遼東邊牆의 築造라는 대안 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遼東邊牆은⁵²⁾ 중국의 연구성과들이 遼東長城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하지만 大同이나 宣府 지역의 萬里長城처럼 벽돌을 이용한 견고한 축조물은 아니었다. 遼東邊牆은 주로 木柵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흙과 나무를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중요한 요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견고성에서 萬里長城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견고성에서 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明의 遼東邊牆 수축 상황은 朝鮮 平安道敬差官 李淳叔에 의해 조사되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遼東都司와도 가깝지만 朝鮮의 군사 중진 閔延·江界와 아주 근접한 지역이다. 곧 朝鮮 변경의 서남쪽에 해당하며 鴨綠江에서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이 자리를 잡는다면 朝鮮의 변경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51) 『明宣宗實錄』 宣德 10年 2月 戊申.

52) 張德玉, 『滿族發源地歷史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1, p. 33. 遼東邊牆의 遼西와 遼河套邊牆을 ‘西牆’, 동쪽의 邊牆을 ‘東牆’이라고 하기도 한다. 西牆은 주로 兀良哈 침입을 막기 위하여, 東牆은 女眞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邊牆의 성격을 놓고 단순한 邊牆이라는 說과 國界說이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한 邊牆으로 보는 입장은 楊暘 등 중국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國界가 아니라 內地의 北部邊疆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明代 邊牆의 기능은 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몽고와 여진지역을 방어한 성격이 강하며, 기록에서도 방어선의 위치를 적과 대치한 지점, 곧 ‘賊路’ ‘臨境’에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國界說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明이 설치한 女眞 衛所는 永樂年間に 상당수가 설치되었으나 中·後期로 갈수록 建州女眞 같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해가며 遼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미위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邊牆의 성격과 女眞衛所 등의 성장과정과 위협 등은 遼東邊牆이 國境線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臣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서 강을 건너 也郎洞에 이르러 長牆의 경계를 보니, 川溪에는 나무와 돌을 서로 섞어서 溝牆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척이고, 너비가 4척이며, 평지에는 나무를 엇갈아 놓았는데 너비가 1백여 척 이었습니다. 남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높은 봉우리에는 나무를 엇갈아 쌓아서 높이가 8척이고 사면의 너비가 각각 13척이 되게 煙臺를 쌓고 연대 위에 높이 5척의 板屋을 만들었으며, 연대와와 거리는 혹은 20여리에, 혹은 15여 리인데, 長牆으로부터 동쪽으로 昌城府의 雲豆伊 煙臺와의 거리가 1백여 리이고 남쪽으로 仇寧口子까지의 거리가 60여 리입니다.⁵³⁾

이러한 보고를 보면 邊牆의 주요한 재료는 벽돌이 아닌 목재와 석재를 섞어서 축조된 것이며, 흙벽, 목책, 석축이 주를 이루며 자연적인 지세를 이용하여 그 견고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⁴⁾ 요동변장은 山海關-開元-鴨綠江 부근에 이르는 대 공사로, 邊牆의 전체 길이는 약 880km (2,300여 리)로 M자형을 그리며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遼東邊牆의 수축은 앞서 언급한 바 기본적으로 동·서몽골과 兀良哈 3衛 그리고 동부의 女眞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⁵⁵⁾

遼東邊牆은 대체로 변경에 설치된 성보, 봉수대 등을 연결시켰는데, 주로 3지역(西段邊牆,⁵⁶⁾ 遼河套邊牆,⁵⁷⁾ 東段邊牆⁵⁸⁾)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도

53) 『朝鮮王朝實錄』 睿宗 1年 8月 甲子.

54) 당시의 전투에는 불을 이용하여 적진을 불태우는 화공전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遼東邊牆이 木柵으로 구축되어 화공전에 매우 약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遼東邊牆은 萬里長城과는 달리 벽돌로 연결된 견고한 성은 아니다. 그러나 『全遼志』 등의 사료를 분석해 보면 주로 험준한 자연 지세를 이용하였고 女眞 등이 침입한 곳은 주로 길이 통하는 지역이었다. 明은 이러한 적의 침입 경로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표로 제시한 것처럼 城堡가 적의 침입 예상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이 성보들은 木柵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과 돌 등으로 축조되어 화공 등의 공격을 예방하였다. 주로 騎馬兵 위주로 구성된 女眞이 침입해 오는 경로는 험준한 산악이 아니라 보가 설치된 입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明代 遼東邊牆은 험준한 자연지세, 침입하기 힘든 곳은 木柵 등으로, 그리고 침입하기 쉬운 교통로는 벽돌과 돌 등을 이용하여 城堡를 수축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邊牆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55) 楊暘, 『明代東北史綱』 學生書局, 1993, p. 224.

1> 참조). 遼河套 邊牆은 黑山에서 開原까지 34城堡와 414개의 墩臺로 구성되어 있으며, 邊牆의 중간부분에 해당하며 遼河를 따라 형성되었다. 축조 시기도 가장 빠르는데, 그 이유는 遼河套 지역은 비교적 지세가 평탄하고 험산이 없으며, 대부분의 하천 역시 수심이 낮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쉽게 동결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분리함 때문에 방어가 시급하였고, 명초 大寧都司가 방치된 후 몽골 兀良哈 3衛 세력이 이 지역으로 내려와 거주하며 遼東을 크게 위협했다. 正統 元年(1436) 薊州, 永平 등의 總兵이 올린 상주문을 보면 이미 긴 城을 설치하여 3리마다 墩臺와 포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2백여 좌의 墩臺가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이것으로 보아 1436년은 遼河套 지역에서 邊牆 형태의 防禦體系가 이미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⁹⁾

56)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pp. 388-389. 西段邊牆은 遼西邊牆이라고도 하는데, 邊牆을 따라 형성된 관할 堡는 鐵場堡(관할 墩臺 8좌, 이하 숫자만 표기)-永安堡(9)-背陰章堡(8)-新興營堡(11)-三山營堡(15)-平山營堡(12)-瑞昌堡(12)-高臺堡(8)-三道溝堡(9)-新興營堡(11)-錦川營堡(13)-黑庄窩堡(13)-仙靈寺堡(12)-小團山堡(16)-興水縣堡(20)-白塔峪堡(19)-寒兒山堡(13)-灰山堡(9)-松山寺堡(14)-長嶺山堡(10)-沙河兒堡(11)-椴木冲堡(18)-大興堡(19)-大福堡(18)-大鎮堡(18)-大勝堡(22)-大茂堡(17)-大定堡(17)-大康堡(22)-太平堡(18)-大寧堡(11)-大安堡(6)-大靖堡(13)-大清堡(13)-鎮夷堡(13)-鎮邊堡(14)-鎮靖堡(17)-鎮安堡(13)등이다.

57) 遼河套 邊牆의 주요 연결 堡는 鎮遠堡(관할墩臺 10좌, 이하 숫자만 표기함)-鎮寧堡(13)-西興堡(16)-鎮武堡(15)-西平堡(13)-西寧堡(9)-東昌堡(12)-東勝堡(19)-長靜堡(9)-長寧堡(13)-長定堡(12)-長安堡(15)-長勝堡(13)-長營堡(16)-長勇堡(13)-武靜營堡(0)-奉集堡(0)-靖遠堡(14)-平虜堡(5)-上榆林堡(12)-十方寺堡(14)-丁字泊堡(13)-宋家泊堡(13)-曾遲堡(7)-鎮西堡(11)-定遠堡(12)-殷家窩堡(12)-慶雲堡(10)-古城堡(7)-永寧堡(4)-鎮夷堡(12)-清陽堡(13)-鎮北堡(18)-威遠堡(20) 등이다.

58) 東段邊牆을 구성하고 있는 城堡의 구성과 돈대수는 다음과 같다. 靖安堡(관할 墩臺 21좌, 이하 숫자만 표기)-松山堡(10)-柴河堡(17)-撫安堡(10)-花抱冲堡(분명치 않음)-三岔兒堡(10)-會安堡(10)-撫順所城堡(12)-東州堡(17)-馬根單堡(7)-散羊峪堡(4)-清河堡(16)-堵牆堡(5)-鹹場堡(10)-孤山堡(7)-酒馬古堡(9)-薊陽堡(14)-險山堡(17)-大甸子堡(불명확함)-新安堡(17)-寧東堡(불명확함)-江沿臺堡(12) 등이다.

59)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4月 甲寅, “先已奏准于所割地方長城內, 每三里設墩架炮, 遇賊薄城舉火發炮, 庶使不能潛越, 今墩臺二百餘座已完, 清給合用信炮”.

<표 3> 遼河套邊牆 주둔군수와 위치의 특징

보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보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鎮遠堡	502	通賊道路	奉集堡	139	腹裏無邊
鎮寧堡	503	通賊道路	靖遠堡	364	臨境
西興堡	340	臨境	平虜堡	271	臨境
西平堡	552	通賊道路	上榆林堡	388	通賊道路
西寧堡	407	通賊道路	十方寺堡	335	通賊道路
東昌堡	463	無通賊道路	丁字泊堡	200	通賊道路
東勝堡	452	臨境	三岔兒堡	381	通賊道路
長靜堡	301	臨境	宋家泊堡	261	通賊道路
長寧堡	419	通賊道路	曾遲堡	201	通賊道路
長定堡	515		定遠堡	251	通賊道路
長安堡	491	臨境	鎮夷堡	251	通賊道路
長勝堡	461	臨境	清陽堡	325	通賊道路
長勇堡	583	臨境	鎮北堡	351	通賊道路
長營堡	500	通賊道路	威遠堡	351	通賊道路

東段邊牆은 開原에서 撫順 방면으로 진행되어 鴨綠江 부근까지 이르렀다. 이 지역은 산과 구릉이 많아 明 初期부터 지형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여러 關을 설치하였는 데, 片嶺關·刺榆關·連山關·撫順關·鎮北關 등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東段邊牆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여진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데, 正統年間 建州女眞이 南遷하여 撫順 동쪽의 渾河와 그 지류인 蘇子河 유역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李滿住·董山 등이 遼東 지역을 공격하였고, 1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成化 2年(1466) 1年間 建州 3衛가 兀良哈과 연합하여 97차례의 遼東을 공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⁶⁰⁾ 이로써 撫順

60) 『明憲宗實錄』 成化 14年 2月 庚申; 『朝鮮王朝實錄』 睿宗 元年 9月 壬申. 15세기 중엽 이러한 여진의 성장으로 明과 朝鮮 역시 대대적인 여진에 대해 토벌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成化 3年(1467) 女眞의 童山과 李古納哈 등을 체포하기도 하였으며, 女眞을 토벌

남쪽의 東州堡・馬根單堡・清河堡, 靉陽堡 등을 지속적으로 수축 정비되었으며,⁶¹⁾ 嘉靖年間(1522~1566)에는 3만에서 4만의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段邊牆의 구조 역시 기본적으로 鎮城・路城・衛城・所城・驛城・鋪城・路臺 등과 城池・邊堡・邊臺・邊牆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망을 의미한다.

변장은 주로 방어벽의 역할을, 크고 작은 성보들은 지휘 기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堡는 주로 작은 규모의 성으로 적로와 통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적의 동태와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하며 후방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墩臺는 일종의 망루로서 높은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邊牆 지역의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체계는 후방의 역로망과 연결되어 군수품을 공급받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며 유기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衛城과 所城은 약 5백~1천여 명의 군대가, 보에는 100~500명 정도가, 邊臺 등에는 평균 5명이 주둔하며 2~3리의 지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衛城과 所城은 주위의 堡城 3~4개를 책임지는데, 약 30여 리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遼東邊牆 防禦體系 역시 점차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遼東邊牆 중 초기부터 방어가 가장 취약한 곳은 遼河套 지역이었다. 遼河套 지역은 山海關과 開原 사이의 오목하게 들어간 彎曲(河套) 지역 지역으로써

<표 4> 東段邊牆의 堡, 駐屯軍數, 위치의 특징

堡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堡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靖安堡	351	通賊道路	馬根單堡	484	通賊道路
松山堡	251	通賊道路	鹹場堡	461	臨境
柴河堡	251	通賊道路	清河堡	484	通賊道路
撫安堡	201	通賊道路	酒馬古堡	461	通賊道路
會安堡	422	臨境	靉陽堡	999	臨境
東州堡	526	通賊道路	新安堡	452	臨境

明初 大寧都司 관할지역이었던 데, 방어선의 축소로 大寧이 방치되면서 兀良哈 3衛가 서서히 남하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明 中期는 둔전생산력이 감소하고 衛所制度가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2천 여리의 요동변장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조건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긴 방어선을 축소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M자형 방어선 중 遼河套 지역을 짧은 직선으로 변경하여 冂字형의 방어선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곧 오목한 방어선 부분을 일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요하를 방어선 안쪽으로 편입시켜 전략적으로 이용가치를 높이고, 방어선의 길이가 축소된 만큼 물적 인적 자원을 절약하자는 전략적 계산이었다. 그러나 결국 변경 기강의 해이, 人的・物的資源의 부족, 이미 마주하고 있는 몽골과의 갈등,⁶²⁾ 이미 심각해진 변경의 위기, 衛所와 둔전의 폐해로 인한 인구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遼東邊牆 방어선의 변경은 실행될 수 없었다. 또한 군사력과 직결되는 戰馬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明初 遼東에는 몽골, 조선, 여진 등과의 교역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戰馬가 사육되고 있었다. 그러나 말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操軍들의 과중과 부역과 책임, 변방의 기강 해이로 인한 관리들의 戰馬 밀

하여 56인을 참수하고 200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 군사적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朝鮮 역시 1469년 李滿住의 본거지를 공략하여 童山 李滿住 및 그 아들 古納哈 등 273명을 죽이고 24명을 생포하였으며 은신처 200여 곳 이상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렸다. 成化 14년(1478) 2월에도 遼東總兵官 都督同知 歐信과 巡撫遼東左部都御使 陳鉞은 建州 3衛를 공격하여 적의 본거지 53寨와 가옥 200여 채 그리고 2백여 명을 참수하는 등 강경한 군사적 방법으로 女眞을 습격하였다.

61) 叢佩遠, 『明代遼東邊牆』, 『東北地方史研究』, 遼寧省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85년 第1期, 『遼東志』(遼海叢書本) 卷7, 『藝文』 韓斌遼東防守規劃條. 東州堡는 撫順 남쪽 40리 지점에, 馬根單堡는 東州의 남쪽 30리 지점에, 清河堡는 馬根單堡 남쪽 90리 지점에, 鹹場堡는 清河堡 남쪽 70리 지점에, 靉陽堡는 鹹場堡 남쪽 120리 지점에 각각 위치하였다.

62) 『明憲宗實錄』 成化 23年 7月 丁未.

때 등 馬政 經營을 소홀히 함으로써 변방의 戰馬需給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명 전기 50여 년 동안 조선으로부터 약 5만여 필의 말을 교역하는 등 명의 戰馬 확보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明初 10여 만 필을 초과하던 遼東의 戰馬가 萬曆 28년(1600)에는 2만여 필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遼東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곧 요동도사 방어체계의 전략적 변화였던 遼東邊牆은 明初 遼東都司와 25衛 체제의 방어선을 변장, 성보, 봉수대, 망루 등을 연결해 요동도사 방어체제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전략적 대안이었지만 대내외적 원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함으로써 그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5. 結 論

명은 건국 직후 旅順, 金州 등 遼東의 남쪽, 곧 遼南 지역 점거를 시작으로 遼東都司 防禦體制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몽골 세력을 제압하면서 遼河 동쪽의 중심이 되는 遼陽, 瀋陽 등을 점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衛所 중심의 방어체제를 형성하여 나갔다. 그리고 최대의 北元 세력 納哈出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遼西로 진출하여 山海關을 요동과 연결시키고 25衛 體制를 수립한 후 驛路, 驛站, 屯田 등 방어체제 전반을 정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은 내몽골, 鴨綠江, 松花江, 豆滿江 그리고 黑龍江 유역으로 진출하여 元代 遼陽行省 지역까지 관할 지역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遼東都司를 遼東의 중심에 두고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都司 內地에 각종 크고 작은 城堡의 수축, 35개의 驛站網, 물자를 수송하는 遞運所, 공문을 전달하는 急遞鋪, 山東으로 연결되는 海路의 확보, 遼河를 통하는 河運 등 遼東都司體制的 전반적인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명의 계획대로 遼東都司 방어체제는 조직되었으나, 몽골지역과 여진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우선 遼東都司의 영향력으로는 여진과 몽골지역에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하거나 물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가 없었다. 당시 遼東은 농업생산량 및 군사력이 풍족하지 못했고 山東으로부터 모든 물자를 공급받아야 했으며, 明 中·後期에는 海禁 등으로 山東과의 교류가 축소되어 遼東 경제가 타격을 받는 등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몽골과 여진으로 통하는 교통은 더욱 불편하여 초기부터 元代的 遼陽行省 지역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실현되기 힘들었다. 명은 결국 대외적으로 팽창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몽골과 여진 등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遼東都司 體制를 강화시켜 그 방어선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초기 여진 지역에 설치하려했던 鐵嶺衛, 東寧衛, 三萬衛 등이 遼東都司 25衛 체계 속으로 편입된 것은 요동도사의 군사적 한계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永樂年間 5차의 몽골 親征을 통해 北邊과 遼東都司에 대한 몽골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흑룡강 등의 여진지역에 奴兒干都司와 180여 개의 女眞衛所를 설치함으로써 遼東都司의 영향력을 吉林과 黑龍江 지역으로 일시 확대시키는 듯하였다. 그러나 奴兒干都司 역시 여진과 관련한 조무 등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宣德年間 遼東都司로 흡수되었으며, 女眞 역시 建州衛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 감으로써 鴨綠江, 豆滿江, 黑龍江, 松花江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명 遼東都司가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永樂年間 이후 遼東都司는 더 이상 대외적으로 팽창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遼東都司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遼東政策을 시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遼東都司의 변화와는 달리 몽골과 여진 등은 방어선 밖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大同, 宣府 등의 長城 지대 및 遼東을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遼東都司는 기존의 遼東

防禦線을 견고히 연결시켜 방어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를 계획함으로써 遼東邊牆의 수축이 시작되었다.

遼東邊牆은 明 前期에 이미 축조가 시작되어 後期까지 지속적으로 수축 정비되었는데 크게 세 지역, 곧 遼西邊牆, 遼河套邊牆, 遼東邊牆으로 구분되었다. 그 길이는 800km가 넘었으며, 93개의 城堡와 1,146개의 墩臺 등 다양한 방어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遼東邊牆의 修築은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수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방어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우선 대외적으로 遼河套 지역은 서몽골 也先의 兀良哈 3衛에 대한 공격과 兀良哈의 남침으로 상당수 몽골인들이 遼東 북부邊牆을 위협하고 있었고, 여진과 더불어 開原·瀋陽·撫順城 등 遼東都司 內地까지 대대적으로 침략함으로써 遼東都司의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대외적 어려움 외에 遼東都司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초기 자급자족할 정도로 생산되던 屯田은 衛所兵의 이탈, 遼東 관리들의 토지 침탈, 과중한 부역으로 인한 인구의 도망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더욱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주로 遼東賦役의 과중함, 전염병·홍수·가뭄·폭설·해충 등의 자연재해의 위협, 북방으로부터의 미미한 人口壓力, 遼東都司의 人口增加政策의 失敗, 遼東의 지리적 특수성,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써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가 형성될 당시의 인구규모인 40~50만의 遼東人口는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군사력의 중추인 戰馬를 관리하는 馬政 역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戰馬의 숫자는 나날이 감소하여 明 後期에는 明 初期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전투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遼東防禦體系가 붕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요약하면, 明代 遼東都司는 極東 지역에 위치하며 9邊의 重鎮을 구성하면서 北邊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써 출발하였으며, 그 중요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전략적 정책들이 지원되고 시도되었다. 永樂

年間に 遼東都司의 관할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등 일시적으로 발전적인 시기도 있었으나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및 몽골 여진 등 대외세력의 성장과 위협 등으로 소극적 방어전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명은 최후로 遼東邊牆의 修築으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방어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지만 방어기능마저 약화되었다. 그리고 明代 後期가 되자 遼東都司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한계력을 보이면서 이미 遼東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都司’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明 後期 몽골과 女眞은 通婚 등의 연합을 통하여 北邊과 遼東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07. 1. 1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요동, 요동도사, 요하, 여진

<ABSTRACT>

Liadongdusi(遼東都司)'s Defense System and decline in Defense Power in *Ming*(明) Dynasty

Nam, Eui-hyeon

Ming dynasty devoted all his strength to enhance *Liadong*'s Defense System right after founding a state. This enabled *Ming* Dynasty to succeed in occupying the eastern central area of *Liao*(遼) River and to build up the defense system. *Ming* also could extend to *Liaoxi*(遼西) after defeating the strongest power of Mongol, and then tried to extend his influence up to *Jilin*(吉林) and *Heilong River*(黑龍江).

Contrary to *Ming*'s pla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have a power over the area of Mongol and *Jurchen*. First, it was not easy to supply goods. *Liadong* was not enough agricultural production at those ages, and all goods were provided from *Shandong*(山東) due to the inconvenience of overland transportation.

Finally *Ming* recognized that there were too many limits to extend their power outside, and set up the strategy to enhance *Liadongdusi*'s Defense System. The change of *Ming*'s strategy caused Mongol and *Jurchen* in frontier district to escape from *Ming*'s influence and to grow up to be a strong and independent power.

Liadong Defense Line, about 2000-*li*(里)'s length, had been constantly repairing and maintaining until the latter period of *Ming* Dynasty. Although the repair and maintenance were performed on the basis of strategic plan, *Liadong* Defense Line could not play a role as a firm defense line. Defense

power of *Liadongdusi* revealed it's weak point in facts that *Liaohetao*(遼河套) was threatened from Mongol's attack and the major communities including *Jurchen* were invaded on a large scale.

Facing with foreign difficulties, *Liadongdusi* showed it's inner conflict as well. Defense system got weaker and weaker due to the decrease of military provision, which result from soldiers' flight, officials' occupation of lands and overweight labor. Population also decreased due to the overweight labor, natural disaster such as infection, flood, drought, vermin, heavy snowfall, failure in population increase policy and geographic feature of *Liadong*. Therefore, the initial population that reached at 40~50 million decreased sharply, and the number of military horses also decreased day after day. These brought about weakness of fighting power, and resulted in the main factor of breakdown of defense system.

To sum up, *Liadongdusi* was an important military base which constituted The Great Wall, so every policy was attempted and supported nationally. There was a developmental period once when *Liadongdusi* enlarged it's influence power during *Yong-le*'s period. But after his death, it was changed to negative defense. *Liadongdusi* could not have influence on outside any more by changing strategy through repair and maintenance of *Liadong* Defense Line, therefore, the foreign function of *Liadongdusi* became weaker than ever before. At last, in the latter period of *Ming*, *Liadongdusi* degraded to the formal organization that had lost dominant power, while Mongol and *Jurchen* that grew enough to threaten *Liadong* and northern area were emerging as a new master who could replace *Liadongdusi*.

Key Words: *Liadong*(遼東), *Liadongdusi*(遼東都司), *Liao* River(遼河), *Jurchen* (女真)

조선 후기 국왕의 幸行時 궁궐의 宿衛와 留都軍 연구

李 旺 茂*

1. 머 리 말
2. 궁궐의 宿衛와 守門
3. 유도군의 편성과 숙위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시대 국왕은 수시로 궁궐과 도성 밖으로 행행하였다. 국왕들은 건국 초기부터 사직과 종묘의 제사, 능행, 원행, 閱武, 사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행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국왕이 궁궐과 도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볼 때 상징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국가에서 국왕 그 자체가 권력이며 만인의 상징이었음을 감안할 때 행행은 민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국왕의 행행이 있을 때마다 觀

光民人이 등장하였으며 이들과의 만남,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

행행은 국왕의 존재를 신료와 민인에게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국가적 정치행사였다. 국왕은 행행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왕실의 계승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행행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궁궐의 숙위문제였다. 행행이 당일 환궁하는 여정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도성을 벗어나 經宿하는 경우에는 궁궐의 숙위를 재편해야 했다. 국왕이 궁궐에 거처하는 상황에서는 법전의 규정대로 숙위체제가 가동되면 되었지만, 행행시에는 숙위의 주 대상인 국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조반정을 비롯한 몇 차례의 정변은 궁궐은 물론 도성의 방비가 곧 국왕의 안위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행행으로 국왕이 부재하는 궁궐의 숙위는 평소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중앙군으로 오위체제를 대신하여 오군영이 등장한 시기로서 정파간 군영 군사력 장악이 치열하였다.²⁾ 그러므로 행행에 나서는 국왕은 궁궐의 숙위를 평소와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본 논문은 조선후기 국왕의 행행시 이루어졌던 궁궐의 숙위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행행시 궁궐의 숙위체제 연구를 위해 평상시의 숙위체제와 중앙군이었던 오군영 체제를 비교할 것이며, 숙위의 근간인 유도군의 편성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유도군은 행행이 거행될 때만 편성되는 군병으로 궁궐과 도성을 동시에 방어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행행시 궁궐 숙위의 일면을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본다.

현재 조선후기 궁궐의 숙위 연구는 정조의 화성 원행을 기록한 『園幸乙

1)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8월 19일(계사).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1997; 한상권, 『정조대 사회 문제와 民訴의 활성화』, 『18세기 연구』 3, 2000.

2)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 1996;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체제와 숙위체제를 비교하거나,³⁾ 정조대 변화된 숙위체제를 장용영의 설치를 통해 보거나,⁴⁾ 『경국대전』의 숙위 규정과 정조대 숙위체제 강화에 대해서,⁵⁾ 국왕의 온행시 궁궐의 숙위⁶⁾ 등에 대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조선 전기의 금군과 숙위체제에 대한 연구⁷⁾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국왕의 행행시 숙위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국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특히 정조의 화성 원행과 장용영 설치에 초점을 두거나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행행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행시 숙위에 대한 조선후기 각 국왕별 사례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통시대적인 체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현종부터 정조대까지를 중심으로 국왕의 행행시 궁궐 숙위체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숙위체제에서도 守門과 숙위군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행행시 궁궐의 숙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숙위군의 동원이었으며, 수문은 궁궐의 숙위에서 근간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통시대적인 숙위체제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각 국왕의 통치술 등으로 인해 일관된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법전에 기재된 숙위체제를 기본으로 각 시대별 군영등록에 나타난 숙위체제의 사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현종에서 정조대라는 긴 시기이지만 숙위체제가 안정화되고 개편되는 영조와 정조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제-원행음료정리의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사학보』 17, 2001.

4)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1991.

5)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와 행행』, 『장서각』 7, 2002.

6)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온행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7) 박홍갑, 『조선 초기 禁軍과 宿衛체제』, 『조선시대 양반사회와 문화』, 집문당, 2003.

2. 궁궐의 宿衛와 守門

(1) 法典의 숙위와 수문 규정

숙위는 入直, 巡行, 侍衛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직은 궁궐에 直宿하는 것이며, 순행은 궁궐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이며, 시위는 국왕의 행행시 그 주위를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⁸⁾ 입직, 순행, 시위는 해당 직위에 따라 그 시행 규모와 시간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방법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궁궐의 숙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守門이었다.

궁궐 숙위의 근간이기도 한 수문제도의 정비는 『경국대전』의 완성기인 성종대에 이루어진다. 수문을 담당하던 수문장이 처음 배정된 것은 예종 원년(1469)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종 이전의 궁궐 수문은 재위한 왕들의 의지에 따라 별도로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겠다. 예종때 정해진 수문장 제도는 법전에 그 규정이 정해진 이후, 한때 그 효과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조선 말기까지 그 근간을 유지하였다.

궁궐의 수문은 본래 西班 4품 이하가 윤번으로 담당하였는데, 守門將廳이 설치되면서 수문장(종6품) 13명, 수문장 참하(종9품) 23명을 두었다. 이 수문장 36명이 조선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궁궐의 守門을 담당하였다.⁹⁾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소실되어 창덕궁이 正宮이 되면서 궁궐의 수문체제가 변화되지만, 그 형태는 법전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 전기부터 法宮인 경복궁의 숙위는 중앙군인 五衛에서 윤번으로 담당하였다.¹⁰⁾ 이점은 조선 후기 법궁인 창덕궁에서도 지속된다. 오위에 대

8)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9)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이후의 기술은 『경국대전』의 숙위조와 비교한 내용이다.

10) 박홍갑, 앞의 논문.

한 감독은 도총부에서 시행하였다. 도총부의 일일 근무 상황을 보면, 도총부의 入直은 당상관과 낭관 각 2명이 서는데, 당상은 標信이 내려올 때 수령하고, 낭관은 날마다 宣仁門과 通化門을 개폐할 때의 검사와 建陽門 동쪽에 있는 번서는 군병 검사를 전담하여 거행하였다. 야간 순찰을 할 때도 건양문에서 여러 곳의 위장, 부장들이 시간을 맞추어 순찰하는 것과 각 문에 대하여 감찰한 뒤 이튿날 사고의 유무를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순찰시에 휴대하는 것이 御牌이다.¹¹⁾ 어패는 본부에 내려주는 패로 두개인데, 하나는 당상관이 坐直하는 곳에 영구히 보관하고, 하나는 申時에 번서는 낭관이 당상관에게 받아 가지고 야간 순찰시 차고 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반납하였다.

<그림 1>에서 수문장청은 돈화문과 금호문 사이에 있으며 오위소는 금호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오위의 각 위장들은 衛將所에서 근무하였다. 위장소에는 衛將 15명으로 문관, 음관, 무관의 당상관 3품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그중 2명을 曹司衛將이라 칭하고 당해관청의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위장 아래의 部將은 25명으로 무신參上 10명, 參外 14명, 南行 1명인데 내금위를 겸했다. 업무를 보조하는 書員은 衛將外所에 21명, 衛將內所의 네 곳에 9명, 部將廳에 2명, 사령 및 각 名色の 하인은 外所에 18명, 內所 네 곳에 15명, 部將



<그림 1> 창덕궁의 守門將廳과 衛將所

11) 『숙종실록』 숙종 12년, 9월 5일(병술).

廳에 7명이었다.¹²⁾

이들의 입직은 4개소의 위장과 부장 각 1명이 3일마다 번갈아 실시되, 위장과 부장은 번이 바뀌는 날에 명단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受牌는 4개소의 위장소에서 각기 한 개씩을 받는데 번이 바뀌는 날마다 번을 나서는 사람이 먼저 들여놓고 번서는 사람이 뒤에 받아내었다. 부장소에서는 각기 한 개씩을 받는데 이것은 본래 들여놓고 받아내는 규정이 없고 교대하는 날에 번을 나서는 사람이 번서는 사람에게 직접 전하도록 하였다.¹³⁾

숙위 때는 위장 전원이 참가하였으며 부장은 다만 행행할 때에 도로의 정리, 명령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숙위에 따른 軍號의 수령은 매일 초저녁에 네 군데의 衛將所에서 번서는 부장이 병조에 나아가 군호를 받아서 도총부와 네 곳의 위장소와 각 군영의 번서는 將官, 금군, 局出身者, 外兵曹에 전하였다. 또한 국왕이 행행할 때에는 分軍 부장 1명이 국왕에게 나아가 군호를 받아 내병조에 전하도록 하였다.¹⁴⁾

숙위에는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입직 외에 巡更이 있다. 궁궐 내에서는 위장과 부장이 군사 10명씩을 데리고 시간 배정대로 순행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병사의 숫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대는 동일했다. 巡更에는 네 곳의 번서는 위장과 부장 1명이 각각 야간 순찰하는 기병 6명을 거느리고 사령과 兒房直 각 1명이 순찰을 행하였다. 이들은 밤마다 초경 3점 초부터 부장과 위장이 서로 반대편에서 잇달아 출발하여 서로 돌아가며 끊임없이 순찰하였다.¹⁵⁾

예를 들어 창덕궁 東所의 부장이 초경에 출발했다면, 西所 衛將은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2경에는 南所와 北所, 3경에는 東所와 西所, 4경과 5경에는 南所와 北所가 차례대로 이 방식으로 출발하여 파루를 칠 때까지 하였

12)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3)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4)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5)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다. 그 경계는, 동쪽은 통화문까지, 서쪽은 영숙문밖까지, 남쪽은 단봉문, 북쪽은 집성문 밖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들 순경자는 번이 있는 초일에 시간별로 순경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부장은 번이 끝나는 날마다, 순찰 상황을 병조에 보고하고, 매월 5일부터 30일까지 도합 6회에 걸쳐 동소와 남소의 당직한 위장과 부장이 궁장 구역을 순찰한 의견을 승정원에 품의하였다.¹⁶⁾

순경에는 화재 및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 요령을 치는 군사가 있었다. 매일 광화문의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鐸과 군호를 받은 뒤, 인정이 친 뒤에 정병 2명으로 하여금 방울을 흔들며 궁성을 순행케 하고, 4면의 警守所와 각 문에 차례로 傳授하여 끊임없이 돌다가 파루를 친 뒤에 그치게 하였다. 당시 궁궐에서 시간을 알리는 것은 坐更[座更]이라고 하였다. 좌경은 궁궐의 報漏閣에서 징과 북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 것으로 야간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누고, 更을 다시 點으로 구분하여 경에는 북을 점에는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렸다. 제일 먼저 보루각에서 북과 징을 치면, 근처의 再點軍이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북과 징을 다시 울려 차례로 시각을 알리는 것이다. 궁궐의 수문교대식은 물론 숙직 교대도 이 신호에 따라 행해졌다. 이 좌경은 도적방비, 화재예방에 주목적을 두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는 큰 종을 달아 새벽과 밤늦게 쳐서 궁궐 밖으로 시간을 알리고 20대, 5경 10개였으며, 인명을 사칭하거나 일부러 석방시키면 군법으로 논죄하였다. 巡更과 함께 중요한 건물과 지역은 별도로 伏處座更軍이 배치되었는데, 종친부, 사직, 종묘, 궁궐 등과 각 궁방, 錢穀衙門의 街路는 각각 2명이 모두 건물이 자리 잡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번을 돌았다.¹⁷⁾

그런데 궁궐의 숙위에서 수문에 대한 규정은 법전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수문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궁

16)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17) 『대전통편』, 『병전』, 숙위조.

궐의 숙위체제를 뚫고 들어오는 격쟁인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궁궐의 수문장들이 숙위체제에 맞추어 움직여도 격쟁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였다. 더욱이 격쟁인들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창경궁의 홍화문은 물론 丹鳳門 등을 뚫고 들어와 편전에 인접한 差備門에 당도하기까지 하였다.¹⁸⁾ 문제는 이러한 수문의 허점이 매번 반복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문장이 추고되었음에도 5~7일 간격으로 재차 격쟁인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⁹⁾

평상시 국왕이 거처하는 상황에서도 수문의 허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국왕의 행행시에는 더욱 더 많은 숙위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궁궐문의 개폐를 법전에 규정한 대로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수문장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경우,²⁰⁾ 궁궐 내에서 수문장이 야간 숙위시 흡연을 하다가 巡檢에게 적발되는 경우,²¹⁾ 궁궐의 수문을 무단으로 빼먹은 수문장의 경우²²⁾ 등 수문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각 국

18)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 12월 25일(신해).

19)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 5월 20일(무술)과 현종 원년, 5월 25일(기묘); 『승정원일기』 현종 2년, 6월 7일(갑신)과 현종 2년, 6월 9일(병술);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4일(신묘)과 현종 5년, 11월 7일(갑오);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11월 16일(정해)과 현종 13년, 11월 21일(임진);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1월 4일(을해)과 현종 14년 1월 9일.

20) 『승정원일기』 현종 2년, 7월 20일(정묘).

鄭萬和, 以兵曹言啓曰, 例於闕門開閉之際, 都總府郎廳宣傳官, 親受鎖金, 開金於政院, 與守門將眼同開閉, 乃所以重其事也. 今日通化門守門將, 不待政院鎖金之受來, 徑先閉門, 極爲可駭. 當該守門將,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21) 『승정원일기』 현종 8년, 4월 14일(무오).

兵曹啓曰, 去夜, 本曹郎廳, 闕內巡檢時, 守門將鄭東美鄭台周, 旗牌官成禮端等, 吸煙見捉, 竝自本曹決棍之意, 敢啓.

22)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6월 12일(계유).

政院啓曰, 卽朝都承旨南龍翼, 槐院褒貶進去時, 目見金虎門守門將闕直, 送言于院中, 招致番次守門將詰問, 則今日乃替直日, 而渠未及入來, 出番守門將, 不待面看徑出, 以致如此云. 闕門守直, 何等重事, 而公然闕直, 誠極痛駭, 頃日以守門將慢不舉職之罪, 請推警飭, 而恬不動心, 今又闕直, 怠習已痼, 不宜歇治. 今日交番守門將, 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竝先罷後推.

왕대 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왕의 행행 시나 평소 거처할 때를 막론하고 궁궐의 숙위체제는 숙위군의 기강 여부에 따라 좌우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현종대 이후 정착하게 되는 오군영 체제에 따라 군영병이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게 되는 이후부터는 수문을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궁궐의 숙위는 법전에 규정된 사항에 맞추어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증감되는 시위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생각된다. 숙위를 어디에서 어떠한 무력집단이 담당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궁궐의 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은 법전에 규정된 체제로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음을 앞에서 열거한 각종 숙위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전체제의 숙위 규정과 함께 시대적 상황에 의해 마련된 숙위 병력의 변화가 주목된다. 임진왜란의 여파로 법궁인 경복궁을 위시로 이궁인 창덕궁, 창경궁 등 京城의 모든 궁궐이 왜군에 의해 파괴되고 소실되어 숙위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궁궐의 수비나 국왕이 숙위체제 등 시스템의 재정립만이 아니라 散逸된 군병과 인원의 확충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러한 숙위 문제에 상응하여 등장한 것이 오군영체제와 도성삼군문 체제라고 볼 수 있겠다. 오군영과 도성삼군문 체제는 수도의 방위를 각 군문에서 분할하여 담당하는 체제로 그 근본 목적은 국왕의 안위와 궁궐의 숙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몇 차례의 전쟁이후 조선 후기 궁궐의 숙위체제가 개편되고 정착되는 과정은 군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五軍營체제와 궁궐의 숙위

오군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의 방어까지 담당하던 수도 방위군이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훈련도감을 위시하여 인조대 후금군을

막는다는 구실로 만든 어영청, 북한산성 방어를 위한 총융청, 남한산성의 방어를 위한 수어청, 그리고 훈련별대와 청초군을 통합해 설립한 금위영 등이 그것이다.²³⁾

오군영은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 이후 조선전기의 중앙군인 오위체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하지만 그 설립의 취지부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어영청은 인조반정의 공신들이 사적인 무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금위영은 당쟁의 와중에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 군영병은 모병과 번상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일원화된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군영은 오위체제가 병조판서→국왕 등으로 연결되던 군제와 달리 각 군영의 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파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 사병적 성격이 농후하였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군영체제가 완성기에 접어드는 숙종 이후 궁성의 숙위를 오군영에서 담당하게 했다는 것은 이들 군영 외에 궁성의 숙위에 동원할 수 있는 중앙군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²⁵⁾ 그리고 숙종과 영조·정조대는 선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영의 통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숙종대 삼군문의 설치, 영조대 守城節目的 제정, 정조대 오군영을 장악한 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장용영을 설립한 것에서 잘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오군영 중에서 총융청은 북한산성,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궁성의 숙위를 담당한 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의 삼군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삼군문이 중심이 되어 숙종대

23)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해안, 2003.

차문섭,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최효식, 『어영청에 대한 일고찰』, 『군사』 5, 전사편찬위원회, 1982.

24) 김준석,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 『전통사론』 2, 1996.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26~40쪽.

25) 현전하는 사료 상으로 호위청은 그 규모나 실제 활동 사항이 궁궐 숙위에 있어서는 그 활동상이 오군영에 미치지 못해서 제외하였다.

성립되는 것이 도성삼군문 수비체제였다.²⁶⁾

삼군문은 도성을 경계로 경기 지역을 분할하여 해당 지역의 축성과 捉虎 등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은 개성·고양·파주·가평·연천 등의 경기북부, 어영청은 양주·광주·음죽·용인·여주 등의 경기동남부, 금위영은 김포·강화·안산·수원·남양 등의 경기서남부를 관장하였다.²⁷⁾ 그러므로 삼군문은 도성의 방비는 물론 경기 지역의 방어까지 책임지던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배경으로 삼군문이 본격적으로 궁성 숙위를 전담하게 된 것은 영조대에 와서 이루어졌다.²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삼군문에서 궁성 숙위를 전담하게 되는 때는 영조 5년인 1729년 초부터이다. 당시 영조는 孝章世子の 발인 때 궁성의 호위를 삼군문으로 하여금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물론 영조 이전에도 군영에서 발인시 궁성의 호위를 한 적은 있었다. 군영에서 궁성 호위를 담당한 것은 인조대(1624년) 소현세자의 발인 때 훈련도감에서 거행한 것이 시초였다. 그렇지만 당시는 금위영·어영청 두 군문이 채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군문체제와 같은 체계적인 궁성 호위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삼군문에서 궁성 숙위를 전담한 것은 효장세자의 발인에 맞추어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²⁹⁾ 물론 영조의 집권 초기 발생한 戊申亂의 여파로 궁궐의 숙위가 개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보이지만 사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효장세자의 발인 때였으므로

26) 1682년(숙종8) 금위영이 설립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과 함께 삼군문으로 통칭되었으며 1704년(숙종30) 공표된 釐正廳案에 따라 삼군문체제가 성립된다.

27) 이근호, 위의 논문, 56~60쪽.

28)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판본과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29)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월 21일(병인).

權益淳, 以兵曹言啓曰, 取考曆錄, 則乙酉年昭顯世子喪發軔時, 禁御兩營未及創設之故, 今訓局軍兵, 六月十四日午後爲始, 宮牆扈衛, 十五日發軔後平明, 待標信罷陣矣. 今此發軔時, 似當依此例舉行, 令政院臨時稟旨, 分付三軍門, 何如? 傳曰, 令三軍門依例舉行.

이 시기를 중심으로 기준하였다.³⁰⁾ 이후 1743년(영조 19)의 國恤때에도 삼군문이 지속적으로 숙위를 담당했는데, 당시 훈련대장은 돈화문 밖 창덕궁에서, 금위대장은 금호문 밖, 어영대장은 선인문 밖에서 잡인을 막으며 把守에 임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1757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³¹⁾

그런데 영조대 정비된 군영의 궁성과 도성 방어 시스템이 안정적이었는가의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1760년(영조 36) 경희궁에서 훈련대장이었던 具善行은 궁성의 방벽과 숙위체제의 허술함을 지적하였다. 구선행은 궁성의 營繕을 맡은 자가 草率하게 담장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삼군문이 이미 도성의 영선을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궁성은 바로 內城이므로 오군영에 나누어 주면 그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궁성의 숙위는 오영의 입직하는 군사를 분배하여 守直하게 하며, 매 舖에 다섯 사람이 돌려가면서 1경씩 순찰하여 연락이 서로 잇달아서 밤을 마치도록 경비하고 지키며, 將官은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담당 구역 안을 巡回하면 숙위체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영조는 구선행의 의견을 중요시 여겨서 임시변통인 절목 수준이 아니라 병조와 호조판서, 그리고 삼군문의 대장들이 입회하여 궁성을 측량하고 경계를 나눈 뒤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다.³²⁾

이후 새롭게 정비된 궁성 숙위의 한 예로 경희궁에 대한 궁성 파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이 담당한 경희궁의 字內는 홍화문 북변에서 출발하여 武德門, 어영청은 무덕문에서 崇義門, 훈련도감이 숭의문에서 홍화문, 남변은 금위영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훈련도감이 담당한 창덕궁의 파수를 보면, 궁성의 1칸은 8명, 2칸은 10명, 3~4칸은 15명, 5~6칸은 20명이 분장했으며, 해당 字內와 도감군은 돈화문 서변에서 明禮門까지는 금호문의

30) 영조가 무신란을 전후하여 각 군문에는 소론 측에서 현종대부터 양성한 군병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고 짐작했다면 쉽사리 궁궐의 숙위를 군문에 맡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1) 『호위청등록』 권3, 정축 3월 26일.

32)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8월 2일(계유).

입직군, 拱北門 서변에서 集春門까지는 廣智營軍, 집춘문에서 通化門 남변까지, 통화문에서 司僕水門 서변까지는 홍화문군이 담당이었다.³³⁾ 1733년(영조 9)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훈련도감군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외장 순라는 장교 1인과 군병 5명이 초경부터 날이 셀 때까지 순행하였다. 금위영의 경우는 공북문에서 명례문까지였으며, 어영청은 집춘문 남변에서 통화문, 내사복시 앞 수문 모퉁이에서 동영, 內農圃에서 돈화문 동쪽까지였다.³⁴⁾

궐내의 주야간 行巡을 보면 훈련도감은 건양문에서 歲書閣, 漏局과 摠府의 뒷담에서 光政門과 銅龍門까지, 광정문 북변에서 明光門과 홍화문까지를 숙위하였다. 금위영은 공북문에서 명례문까지로 훈련도감과 동일하게 장교 1인에 군병 5명이 초경부터 파루까지 순행하였다. 어영청은 月觀門 동쪽에서 집춘문 북쪽, 집춘문에서 上水門까지였으며 군병수는 훈련도감·금위영과 같았다.³⁵⁾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궁성의 수비가 허술하다는 의견은 각 국왕대에 언제나 제기되던 문제였다는 점이다. 정조 즉위초인 1777년 정조는 병조판서와 삼군문의 대장들이 궁궐 내에서 更을 나누어 숙위하는 체제에 대해 신칙하였다. 당시 영의정 김상철은 궐내를 巡更하는 일이 소홀하기 짝이 없다면서, 五衛將들이 2경 이후로는 더 돌지 않고 있으니 규례에 따라 四所의 오위장과 부장들이 나누어 맡아 번갈아 돌으로써 중단되거나 소홀하게 될 염려가 없도록 하라고 병조에 신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衛將과 部將들이 규례대로 순경하는 외에, 훈련도감과 금위영의 入直將官들로 하여금 각기 그들의 군졸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更을 안배하여 윤번으로 순경하게 함으로써 위장 및 부장들과 서로 안팎에서 호응이 되도록 해야 보다 숙위를 엄중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⁶⁾

33)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訓局總要』 11 宮牆.

34)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35) 『만기요람』 권2, 훈련도감, 『훈국총요』 11 궁장.

36) 『일성록』 정조 1년, 7월 29일(임진).

이와 함께 궁성의 방벽도 새롭게 영선되었다. 정조는 숙위체제의 강화와 함께 궁궐의 담장을 修築하도록 하였다. 이때 궁성의 방벽은 도성의 사례대로 삼군문이 각기 관장하는 字內에 나아가 거행하되, 수축할 때에는 또 한 도성의 규례에 의하여 戶料와 兵布를 劃給하도록 명하였다. 궁성의 수축은 정조가 명을 내린 당일 거행되었다. 정조는 이날 여러 將臣에게 명하여 궁성의 상황을 살펴보고 景秋門 宮牆부터 수축을 시작하도록 하였다.³⁷⁾ 물론 당시 정조가 궁성의 방벽을 수축한 배경은 전달에 발생한 암살사건 때문이었다.³⁸⁾

그러므로 궁성의 숙위는 각 국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체제가 추가되거나 과거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숙위체제의 문제점은 통시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숙위군의 기강 해이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점은 정조대의 숙위체제 개편과 연결해 보면 잘 알 수 있겠다.

(3) 숙위체제의 개편

조선 후기 궁궐 숙위체제는 영조대 오군영에서 수도 京城의 수비를 구역별로 정해 담당할 것을 계기로 정조대에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조는 부친인 사도세자가 노론 정치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보위에 오르기까지 신변의 위협을 여러 번 겪은 이유로 즉위 초부터 궁궐의 숙위와 국왕의 시위 체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정조는 즉위 초인 1777년 7월 28일 밤 경희궁 尊賢閣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새로운 숙위체제의 정비를 결심하게 된다.

당시 정조는 경희궁 존현각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책을 읽고 있다가 자객

37)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0일(계묘).

38) 이 부분은 정조대 숙위체제의 개편을 참고.

의 접근을 알았다. 이에 정조는 금위대장인 洪國榮에게 信箭을 쏘도록 하여 延和門에서 숙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게 했으며, 三營의 踐更軍은 궁궐 담장 안팎을 수비하게 하고 武藝別監을 閣門의 파수로 세우고 궁궐을 두루 수색하게 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범인은 잡지 못했다.³⁹⁾

다음날 정조는 숙위체제를 바꾸고 거처를 창덕궁으로 이어하고자 하였다. 먼저 궁궐의 숙위는 三軍門의 대장이 수시로 순찰하며, 훈련도감과 금위영 두 營의 入直 將官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서 衛將·部將과 함께 안팎에서 야간 검문을 하고, 궁궐 안의 巡更도 四所의 오위장과 부장을 그전의 규례대로 更마다 나누어 배치하여 輪番으로 순찰하도록 하여, 間斷이 생기거나 허술하게 되는 염려를 해소하려고 했다.⁴⁰⁾ 그리고 경희궁은 祖宗朝에 한때의 離宮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이유로 창덕궁 이어를 준비하였다. 이때 창덕궁은 수리 중이었고 魂殿이 있어서 정조가 거처를 경희궁으로 한 것이다. 이에 신료들은 창덕궁에 혼전을 마련하고 3년 내에 옮기는 것이 구해질 일이 아니며 숙종도 을묘년 5월에 慶德宮으로 이어했다가 11월에 이르러서는 창경궁으로 이어하여, 3년이란 것에 구애하지 않았다며 창덕궁 이어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당장 창덕궁으로 이어할 의사를 보이며 영조의 혼전은 文政殿에 옮기고 眞宗의 神位는 爲善堂에 옮기도록 했다.⁴¹⁾

정조의 창덕궁 이어는 2주 만에 거행되었다. 이때의 창덕궁 이어에는 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도 함께 하였다. 정조는 練冠을 갖추고 孝明殿에서 告動駕祭를 거행하였으며, 白布로 쓴 翼善冠과 백포로 된 도포와 띠로 고쳐서 갖추고 창덕궁으로 나아가 徽寧殿에 展拜하고, 明政門 밖으로 나아가 왕대비전과 혜경궁의 輦輿가 이르자 祗迎하여 還內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창덕궁의 호위 병력을 증가하였다. 주로 훈련도감군이 동원되었는데, 興化

門의 군사 1백 명을 金虎門으로 옮기어 들이고, 원래 內入하는 군사 1백 명을 弘化門과 崇義門으로 옮기어 들이며, 訓局 출신 45인을 永肅門으로 옮기어 들이고, 東營의 군사 50명을 集春營으로 옮기어 들이며, 西營의 군사 50명을 廣知營으로 옮기어 들이고, 北一營의 馬兵 50명을 南營으로 옮기어 들이며, 新營의 七色軍 40명을 北營으로 옮겨서 숙위 병력의 증강과 시위체제를 새롭게 하였다.⁴²⁾

정조는 창덕궁의 숙위체제를 강화하면서 당시까지 경희궁 존현각에 침입한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던 右捕盜大將 李柱國을 파직하고 具善復으로 대신하였다.⁴³⁾ 그리고 창덕궁 담장의 修築을 지시하였다. 궁궐 담장의 수축은 都城의 사례대로 三軍門이 각기 管掌하는 字內에 나아가 거행하되, 수축할 때에는 또한 도성의 규례에 의하여 戶料와 兵布를 劃給하도록 명하였다. 창덕궁 담장의 수축은 景秋門 宮牆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막 賊變을 겪고 났기 때문이었다.⁴⁴⁾

이러한 정조의 신속한 숙위체제 강화와 궁궐 숙위체제의 개편 때문인지 경희궁 존현각 침입자들이 8월 11일 伏誅되었다. 궁궐이 암살자들에게 침범되고 국왕의 안위가 위협되던 7월 28일부터 보름만의 일이었다. 경희궁에서 정조를 암살하고자 한 일당은 창덕궁에 재차 침입하려다 새롭게 변경된 숙위체제에 걸려든 것이다. 당시 사건의 공초를 보면 범인인 金春得과 田興文 등은 7월 28일 궁궐로 들어가서 姜繼昌이라는 別監과 姜月惠라는 內人을 불러 내부 사정을 들은 뒤 밤에 존현각에 침입했다가 실패하고는 大駕가 還御하였음을 듣고 재차 거사하려다가 守鋪軍에게 잡혔다라고 하였다.⁴⁵⁾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범인 중에서 掖隸 姜繼昌과 宮人 姜月惠의 가담

39) 『정조실록』 정조 1년, 7월 28일(신묘).

40) 『정조실록』 정조 1월, 7월 29일(임진).

41) 『정조실록』 정조 1월, 7월 30일(계사).

42)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6일(기해).

43) 『일성록』 정조 1년, 8월 7일(경자).

44)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0일(계묘).

45)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1일(갑진).

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강월혜는 姜龍輝의 딸이고 강계창은 그의 조카로 인척 관계인 宮人이었다. 이들의 인도에 따라 자객들이 궁궐에 쉽게 들어 올 수 있었으며 내부 지리를 파악하여 정조의 안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의 가담은 궁궐 숙위의 허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宮人이 가담한 자객 사건은 정조 즉위 초 국왕과 궁궐의 숙위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들의 공초에서 궁궐의 담장을 호위하는 군병이 밤에는 취침에 들거나 밖에 나와서 숙위하지 않으므로 담장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전홍문 등이 정조의 암살에 실패하고 침입자에 대한 수색이 있자 報漏閣 뒤의 풀 속에 엎드려 있다가 다음날 興元門으로 해서 도망쳐 나오고, 강용휘는 禁川橋로 향하여 水門桶을 제쳐버리고 빠져 나왔다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정조 즉위 초 궁궐의 숙위는 물론 국왕의 시위조차 해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⁴⁶⁾

물론 정조를 암살하려는 무리가 궁궐내외에서 서로 결탁했기 때문에 쉽사리 침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왕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숙위체제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침입자를 잡기 위해 밤새 수색했음에도 궁궐 내에 잠복해 있던 전홍문 등이 쉽사리 궐문을 통해 빠져 나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궁궐과 같은 건축물의 숙위에서 문은 가장 중요한 단속처임에도 침입자에게 쉽사리 뚫렸다는 것은 내통자의 존재는 물론 숙위가 해이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정조는 일련의 암살 사건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8월 11일 蔡濟恭을 창경궁 守宮大將으로 삼고 군영의 병력을 동원하여 궁궐 경비를 강화하게 했다. 그런데 궁궐의 호위가 언제나 수많은 군병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숙위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특별한 위협이 없고 별다른 위협 요소가 없는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로 엄중한 호위체제를 거두고 평상시의 숙위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군영병으로 궁궐을 숙위하게 한지 4일 만인 8월

46) 『승정원일기』 정조 1년, 8월 11일(갑진).

14일 三營의 中軍이 입직한 標下軍을 거느리고서 信地만 파수하고, 삼군의 군병 각각 10명씩을 長官이 거느리고 更마다 巡衛하는 것은 그만두게 하였다.⁴⁷⁾

한편 정조대 창덕궁 숙위군의 지휘체계는 宿衛大將→衛將→部將→수문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위대장은 숙위소에서 근무하며 入直하는 군병과 巡邏들의 사고 유무를 매일 보고받고, 3일마다 체대한 단자를 제출받았으며, 숙위소에서는 該房에 보내어 捧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조시기 숙위체제는 1784년(정조 8)에 제정된 [監門節目]과 관계가 깊다.

[監門節目]이 제정된 배경에는 정조 자신이 숙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있다. [監門節目]은 정조가 궁궐의 대표적인 숙위인 守門에 관한 절목을 지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조가 즉위 초 직면하였던 尊賢閣에 침입한 자객사건으로 호위의 불안에 따른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정조가 지시한 [監門節目]이다.⁴⁸⁾

[監門節目]

본래 坐直하는 승지가 閣門에서 朝夕으로 문안하였다. 그러므로 저녁 문안 후 자물쇠를 청하여 문을 닫고, 아침 문안때 열쇠를 청하여 문을 열었는데, 근래에 이 규정이 없어졌다. 새롭게 만들 규정에는, 열쇠 내주는 것을 좌직 승지가 전담하여 보관하고, 자물쇠를 연 후에는 該房承旨가 주관하여 관장하되,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승지를 의금부에 내려서 중히 감죄하고, 주서와 摠郎, 宣傳官, 司鑰 가운데서 해당 문을 관리하는 사람 역시 攸司로 하여금 勘斷하라. 병조에서 巡檢하면서 자물쇠를 확인하는 것은 본래 職掌이니,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하여 수문장·위장과 함께 같은 죄를 주고, 만일 파손된 곳이 있으면 즉시 와서 고하라. 이후로 성문과 궐문의 자물쇠는 호조 낭관이 감독해 만들어서 판서가 句檢하는 것을 일체 절목으로 만들어 啓下하라. 이렇게 정식하면 도총

47)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4일(정미).

48) 『정조실록』 정조 8년, 5월 22일(병자).

부 낭관이 돈화문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으니, 선전관이 돈화문을 관리하고, 도총부 낭관은 통화문과 선인문을 관리하라. 각 문의 관할은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한다. 서쪽은 병조의 담당, 동쪽은 도총부 담당이다. 그러나 병조는 이미 궐내 각처를 관할하는 형편이니 건양문 동쪽도 총괄하여 감찰해야 한다. 소남문은 단봉문 수문장이 겸하고, 소동문은 선인문 수문장이 겸한다. 각문의 자물쇠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해소 부장을 안동하여 각각 그 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피어 승정원에 고한다. 각문을 개폐할 때 감약은 돈화문, 요금문, 단봉문은 선전관이 금호문은 주서가 홍화문, 선인문, 통화문은 도총부 낭청이 담당하되 각 해당문의 수문장 및 담당 사약이 안동하여 거행한다. 각처 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니, 남수각 수문은 돈화문 수문장이 겸관하고 북수각 수문은 요금문 수문장이 겸관한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各門의 개폐는 옛날 예대로 승정원이 주관한다. 자물쇠를 잠근 후에 열쇠는 坐直 下位가 친히 받아서 司에 보관한다. 그 출납은 자물쇠를 연 후에 자물쇠와 열쇠를 해방 승지가 친히 받아서 보관하고, 申時 이후에는 上直 하위 승지에게 전해 보관하게 한다.
- ② 각문의 관할은 建陽門 동서를 경계로 한다. 서쪽은 서·남 兩所에서 분장하는데 병조의 담당이다. 동쪽은 동·북 양소에서 분장하는데 도총부 담당이다. 수문장은 각기 그 부근에 가는데, 小南門은 丹鳳門 수문장이 兼官하고, 小東門은 宣仁門 수문장이 겸관하는데, 만일 섬가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엄법으로 勘處한다.
- ③ 각문의 자물쇠에 만일 파손되어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해당 문의 수문장이 該所 部將을 眼同하여 각각 그 字內에 가서 고하면, 병조나 혹은 도총부의 낭청이 친히 가서 살피어 승정원에 고하는데 고치는 절차는, 신시 이전에는 해방에서 관장하고, 신시 이후에는 좌직 승지가 관장한다.
- ④ 각문을 개폐할 때 監鑰은, 敦化門, 曜金門, 丹鳳門은 선전관이, 金虎門은 注書가, 弘化門, 宣仁門, 通化門은 도총부 낭청이 담당하되 각 해당문의 수문장 및 담당 司鑰이 안동하여 거행한다.

- ⑤ 병조 낭청 및 도총부 낭청이 夜巡할 때 각문의 자물쇠는 그 字內에 따라서 해당 수문장을 안동하여 살피되, 小東門, 小南門도 일체로 昭檢한다.
- ⑥ 각처 水門의 중대한 열쇠를 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일이 매우 미안하니, 南水閣 水門은 돈화문 수문장이 겸관하고, 北水閣 수문은 요금문 수문장이 겸관하여, 파손된 곳의 수리와 照檢때 살피는 등의 절차는 다른 문의 예에 의해서 시행한다.
- ⑦ 성문과 궁궐문을 잠그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자물쇠를 수리할 때에는 호조 낭청이 몸소 監造하고, 판서가 句檢한다.
- ⑧ 각문을 나누어 담당시키는 것이 비록 건양문 동서를 경계로 삼았으나 병조는 이미 궐내 각처를 관할하는 처지이니 경계를 정하였다 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며, 건양문 동쪽 역시 총괄하여 감찰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궁궐의 숙위체제가 당시에는 이미 形骸化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제도들을 유지하던 군직은 남아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守門制度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창덕궁 건양문을 기준으로 守門이 이루어지는데, 각 문마다 별도로 수문장을 배정하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궁궐의 출입을 국왕이 직접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조가 직접 守門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배경이 있다. 실록에는 [監門節目]이 발표되기 전에 수문에 대한 정조의 불만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문 군졸들이 通符를 가지고 궐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 병조와 당상에게 보고하는 것을 문제 삼는 점이다. 국왕의 면대자를 일반 관리들이 아는 것을 꺼리는 내용으로 수문을 담당하는 군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항은, 수문장이 단순한 수문의 역할만이 아니라 궐내의 단속까지 담당하게 하는 점이다. 즉위 초부터 신변의 안전을 우선시 한 정조는 군기를 항상 휴대하는 무관에 대해 큰 주의를 지녔다. 따라서 이들 무관이 궐내의 내인들과 연결되는 것을 꺼려서 서로 말하는 것

을 금하기도 하였다. 결국 정조는 비망기를 내려 수문장 등 궁궐 내의 숙위자들에게 무관이 내시와 내통하여 말하는 것을 단속하게 하였다. 당시 정조는 자신의 신변을 노렸던 李德師·柳翰申·南泰興 등과 李景聃·金壽賢·金應澤·李德秀·閔德泰·韓景勛 등 여러 환관들을 지목하였으며, 특히 무기를 소지하던 무신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⁴⁹⁾

이외에 정조는 수문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왕의 시위와 궁궐의 숙위를 책임지는 수문장이 외부와 내통하는 행위를 엄금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엄명은 오히려 수문장에 대한 권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조대 수문군의 특징은 화약 병기를 소지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개된 조총을 비롯한 여러 화기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군의 기본 병기가 된다. 이점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는 능행도에 잘 나타난다.

화성능행도에는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의 대다수가 조총을 휴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창덕궁의 수문에서도 조총과 같은 화약 병기를 휴대하였음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이와 함께 수문군에 있어서, 그 구성 인원이 장용영에 소속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현재까지 사료 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한 정황을 참작할 때 자신의 친위군이었던 장용영의 내영군으로 하여금 창덕궁의 侍衛를 담당하게 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군영군을 바탕으로 정조대에 정비된 궁궐의 숙위체제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만 정조가 육성하고 신임했던 장용영이 해체되어 숙위 군병의 변경은 있게 되지만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선 후기 궁궐의 숙위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립되기 시작한 오군영체제와 영조대의 삼군문 수비체제, 그리고 정조대의 숙위 절목 등이 어우러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⁰⁾

49) 『정조실록』 정조 9년, 5월 4일(임자).

50) 정조대 장용영의 설치가 곧 오군영체제의 해체가 아니라 축소였으며, 장용영이 강화되

3. 유도군의 편성과 숙위

(1) 유도군의 편성

국왕의 행행이 결정되면 병조와 각 군영에서 행행에 참여하는 시위 병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유도절목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유도절목은 행행시 편성하는 유도군의 구성 방법과 배치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유도절목은 『御營廳舉動謄錄』, 『禁衛營舉動節目』, 『摠戎廳幸行謄錄』을 비롯한 장서각 소장 군영 등록에만 남아 있어서 행행의 한 부분을 담당한 유도군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유도군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되었던 5군영의 군병이 윤번제로 하였는데 주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담당하였다.⁵¹⁾ 이들은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행하였을 때 궁궐의 수비는 물론 도성내외의 守門, 街巷과 行廊 後路 등에서 잡인을 엄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먼저 『御營廳舉動謄錄』(권1~12)에서 현종부터 정조대까지의 기록 중 유도절목의 주요내용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御營廳 留都節目]

- 유도대장 2인을 선발하여 1인은 궐내를, 1인은 궐외에 留住
- 행행 전날 未時경 유도대장의 領率로 유도군은 信地에 結陣후 즉시 傍청이 승정원에 보고

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존의 오군영에서 담당한 숙위체제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용영의 설치가 기존 군영의 청산과 새로운 숙위체제의 양산이 아니라 기존의 숙위체제에 장용영이 가세하여 오군영의 잔재와 중첩적인 숙위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다.

51) 『御營廳舉動謄錄』 권1, 정묘 8월 11일, 康陵 행행, K2-3344, 장서각.

- 유도군은 행행 전에 궐문에서 도성문까지 좌우의 大小屏門과 伏兵處에 分派
- 御駕가 도성을 벗어나면 移陣 상황을 유도대신에게 보고
- 매일 도성 9門, 궁성 외 軍堡 27처, 도성 내의 巡邏 16牌, 남북 屏門 54處의 把守 보고

위의 유도절목을 보면, 유도군을 지휘하는 유도대장이 2인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인이 차정되었으며 군영대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행행 때 도성 부근과 도성 내의 伏兵과 斥候는 유도군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각 국왕별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거행되었다. 행행 전날 유도군이 집결하는 시각과 형태, 유도군의 복병처, 행행 기간 중 궁성과 도성의 파수 상황 보고 등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중 유도군의 복병과 관련하여 그 세부사항을 보면, 복병은 모두 11處로 御營軍官 11員 都監馬兵 33인, 군병 165명(어영군 55, 도감포수 110)이 군관 1원, 포수 10명, 마병 3명, 어영군 5명으로 조를 이루어 진행했는데, 東小門外秋嶮, 제기삼거리, 東關王廟삼거리, 守口門外삼거리, 典牲署삼거리, 南關王廟삼거리, 焰硝廳삼거리, 西小門外삼거리, 新門外삼거리, 彰義門外삼거리, 都莊洞 등인데 이 중 도장동은 군관이 아니라 哨官 1員이 배치되었다.⁵²⁾

그리고 이들 복병처에서는 매일 전날 근무사항을 보고했는데 그 보고문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狀啓式]⁵³⁾

外面 承政院 開折 臣 謹封 臣字下着御

內面 第三貼書我御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御營大將 臣柳

52) 『御營廳舉動曆錄』 권1~12.

53) 『御營廳舉動曆錄』 권1, 무진 8월 16일, 온양 행행.

去夜 宮牆內外各營 宿衛及都城九門城外十處把守巡邏并只無事爲白臥乎事是良
余詮次

善啓向教是事

大年號 某月某日 時

南小門 伏兵將 御營廳 哨官 李萬衛

척후는 17處로 北岳, 曲城, 鞍峴, 萬里峴, 蠶頭, 渭水室, 伐兒峙, 讀書堂峴, 往十里後峰, 東關王廟後峰, 沙河里高峰, 典農後峰, 芴古至後峰, 鷹峰, 浮石高峰, 院峴後峰, 僧房後峰 등인데 御營別抄武士 17員, 군병 102명(금위군 34명, 도감포수 68명)이 매 處에 군관 1員, 포수 4명, 금군 2명씩으로 조를 이루었다.⁵⁴⁾

그런데 온행과 같이 국왕이 장기간 궁궐과 도성을 비우게 되는 경우 유도군의 임무는 많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1668년 8월 16일 현종이 온양에 온행을 가려고 할 때 유도군이 담당한 숙위처와 군병수, 방법 등을 보면 궁성은 물론 도성 내외의 문과 要處를 빠짐없이 파수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먼저 宮牆 외 軍堡 27處에 어영청군과 도감군이 번갈아가며 군병 3명씩 3일마다 贊直하였다. 軍堡 27處는 돈화문 西邊부터 軍堡將(訓局哨官 1員) 1인씩 1~14보까지 매 堡에 포수 3명씩, 돈화문 東邊은 軍堡將(禁衛哨官 1員) 1인씩 1~13보까지 매 보에 금위군 3명씩⁵⁵⁾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성 9문은 매 문에 領將 1員과 군병 10명씩 주야 교대로 파수하고 3일에 贊直하였으며 영장은 초관과 군관이 윤회하였다. 도성 밖 10처의 매 처에 領將, 別馬隊 2명, 군 10명씩 주야로 파수하였는데, 도성 밖 10처는 彰義門외 삼거리, 弘濟院, 藥田峴, 典牲署 근처, 伐兒峴, 讀書堂峴, 車峴, 鼓岩, 沙河里, 都莊洞 등으로 오늘날의 검문소 기능을 하였다. 이 도성 밖 10

54) 『御營廳舉動曆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55) 『御營廳舉動曆錄』 권1, 무신 8월 16일.

處중는 상호 긴밀하게 연락 관계를 가졌는데, 도장동에서 초관이 巡牌로 초경, 2경, 3경, 4경, 5경에 사하리로 傳納하면 차차 전해져서 창의원 복병 장에게까지 오게 되어 보고하였다.⁵⁶⁾ 그리고 이렇게 보고된 전날의 숙위 사항은 해당 군영의 대장이 종합해서 보고하는 체제였다.⁵⁷⁾

도성 내에서는 군관 250명이 閭巷에 매일 밤 좌우포청의 入牌軍官 1員과 巡邏했는데, 도성을 좌우상하로 나누어 左一牌 11명, 上二牌 12명, 下二牌 12명, 三牌 15명, 四牌 20명, 五牌 20명, 六牌 25명, 右一牌 25명, 二牌 20명, 三牌 20명, 四牌 20명, 五牌 15명, 六牌 10명, 七牌 10명, 八牌 15명 등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외에 도성의 9문인 남대문, 西小門, 新門, 彰儀門, 北靑門, 東小門, 동대문, 水口門, 南小門 등에는 파수장 9員이 매門에 포수 10, 어영군 5, 금위군 5명씩 모두 180명과 조를 이루어 근무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유도군은 국왕의 행행을 시위하던 군사에 못지않게 행행 기간 중 궁성과 도성의 안위를 위해 끊임없이 숙위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숙위체제는 온행과 같이 국왕이 1달 이상 도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된 임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유도군을 한 개 군영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隨駕軍兵과 마찬가지로 각 군영의 군병을 혼성하여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59년(영조 35) 영조의 명릉 능행시 유도군 1,690명의 구성을 보면, 어영청 중군1·종사관1·별장1·천총1·騎士將2·초관8, 無軍千總2·把總2·초관14, 교련관 12원, 旗牌官 2원, 별군관 9원, 三廳所任 군관 4원, 어영청 군관 4원, 출신 군관 4원, 騎士 103인, 별무사 21인, 出番 別破陣 20명, 京標下軍 543명, 어영청 군 舊番 三哨 341명, 어영청군 新番 五哨 593명 등으로 어영청과 훈련도감

56) 『御營廳舉動謄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57) 『승정원일기』 현종 8년, 윤4월 2일(병자).

訓練大將李浣, 初二日成貼狀啓, 宮城內外各營宿衛及都城九門, 城外十處把守巡邏, 竝只無事爲臥乎事, 啓下備邊司.

58) 『御營廳舉動謄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의 군병을 혼성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성과 도성의 방비는 각 군영에서 차출하여 편성한 혼성군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유도군이 담당한 것이다. 즉 어느 일개 군영이 유도군을 전담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현종대부터 정조까지 숙위체제에 동원된 유도군은 보통 1,000명 이상을 상회하여 국왕이 도성을 비우는 행행이 거행되면 도성은 군병이 사방에 주둔하는 군사 도시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1>은 현종부터 정조까지의 유도군 수치이다.

<표 1>은 유도대장이 유도군을 領率할 때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국왕별 유도군을 영솔한 자는 어영대장과 같은 군영대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도군은 군영군을 동원하는 동시에 그 지휘는 각 군영의 대장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군영대장이 영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729년 경릉 행행의 한성좌윤, 1751년 명릉 행행의 예조참판, 1752년 의릉 행행의 호조참판, 1753년 건원릉 행행의 행부사직 등이다. 그 중 1751~1753년(영조 27~29) 사이의 유도대장은 홍봉한으로 영조의 신임을 받던 왕실의 외척으로 군영대장이 아님에도 유도대장이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왕별 행행시 동원된 유도군의 평균적 수치는 1,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최하로 1,102명, 최고로 3,113명이 동원되는 시기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1,4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능행지의 원근에 따라 병력의 증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표 1>에서 동일한 능행지라도 국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조의 1754, 1758, 1759년도 명릉 행행시의 유도군의 수치도 상이하다. 따라서 한 국왕대는 물론 각 국왕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유도군의 수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59) 『御營廳舉動謄錄』 권7, 기묘 3월 25일.

<표 1> 국왕별 幸行時 편성된 유도군의 수치⁶⁰⁾

王代	幸行 年月日	幸行地	소재지	軍兵數	領率者
현종2	1661년 8월 28일	寧陵	동구릉	1,631	어영대장
숙종3	1677년 3월 17일	崇陵	동구릉	1,396	어영대장
숙종10	1684년 8월 24일	崇陵	동구릉	1,535	어영대장
숙종12	1686년 3월 16일	崇陵	동구릉	1,558	어영대장
숙종16	1690년 8월 28일	徽陵	동구릉	1,880	어영대장
숙종17	1691년 9월 1일	章陵	김포	2,000	어영대장
숙종18	1692년 2월 26일	光陵	양주군	3,113	어영대장
숙종19	1693년 2월 20일	穆陵	동구릉	1,369	어영대장
숙종19	1693년 8월 28일	齊陵, 厚陵	開豐郡	2,622	어영대장
숙종20	1694년 2월 26일	獻陵	광주군	1,356	어영대장
영조5	1729년 8월 16일	敬陵	고양군	1,356	한성좌윤
영조27	1751년 8월 6일	明陵	고양군	1,282	예조참판
영조28	1752년 8월 25일	懿陵	石串洞	1,141	호조참판
영조29	1753년 8월 9일	健元陵	동구릉	1,388	행부사직
영조29	1753년 9월 12일	昭寧園	양주군	2,041	어영대장
영조30	1754년 7월 30일	明陵	고양군	1,301	어영대장
영조34	1758년 1월 25일	明陵	고양군	1,425	총융사
영조35	1759년 3월 26일	明陵	고양군	1,690	어영대장
영조35	1759년 9월 30일	懿陵	石串洞	1,102	금위대장
영조43	1767년 8월 20일	明陵	고양군	1,278	총융사
정조9	1785년 2월 10일	泰陵, 康陵	孔陵洞	1,441	어영대장
정조9	1785년 9월 4일	明陵	고양군	1,425	총융사

<표 1>에서 1693년 숙종의 齊陵·厚陵 능행에 동원된 2,622명의 유도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東營入直把總 1員·哨官 2員·別馬隊 52명·軍 108명, 新營入直別將 1員·초관 2員·별파진 22명·군 132명, 어

60) 『御營廳舉動謄錄』 권1~12와 『禁衛營舉動謄錄』 권1~5를 정리하였음.

영청군 2,161명(宮牆 외 군보 27처 군 81명, 도성9문 파수장 9원·군 180명, 복병 11처 將 11원·군 165명, 척후 17처 將 17원·군 102명, 도성내 외순라 16패장·군 320명, 병문 파수 54처 將 34원·군 184명), 훈련도감군 859명, 금위영군 51명 등 3,391명에서 각 營 입직군 769명을 제외한 2,622명이다.⁶¹⁾

이외에 유도군의 운영 면에서 보면 행행지의 원근에 크게 관계없이 군병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다른 능에 비해 원거리인 경기도 김포에 위치하던 元宗의 章陵, 양주에 있던 세조의 光陵 행행에는 2,000에서 3,000여명의 군병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런 몇몇 원거리 행행을 제외하면 큰 수치의 변화 없이 거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궐과 도성의 수비는 전적으로 유도군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만 숙종(1692년)과 영조(1755년)대의 광릉 행행시 유도군의 수치가 1천명 이상 차이나고 있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 각 국왕별 능행시 유도군의 증감은 각 시대별 군영의 운영과 비교해보아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 이미 언급한대로 <표 1>에서 유도군은 어느 한 군영이 전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군영에서 유도군을 두 번 연달아 할 수는 있었지만 세 번씩은 하지 않았다. 가령 어영청이 연달아 유도군을 하게 되면 훈국·어영·금위 삼군이 隨駕하고 총융청에서 유도⁶²⁾하여 각 군영이 윤번 형태로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숙위군의 동원 형태는 행행시 隨駕 군병의 구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⁶³⁾ 따라서 국왕은 행행시 동원되는 군영의 무력을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셈이다.

61) 『御營廳舉動謄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62) 『御營廳舉動謄錄』 권1, 정묘 8월 11일, 康陵 행행.

63) 『현종실록』 현종 9년, 8월 4일(경오).

(2) 留都大臣과 留都將臣

국왕의 행행이 결정되면 동시에 궁궐과 도성에 남아 숙위할 留都大臣, 守宮大將, 留都大將 등이 선임된다. 그 중 유도대신은 도성에 남아 군무를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대신으로 정승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수궁대장은 궁중에 숙직하면서 궁중경비를 책임지던 대장이며, 유도대장은 도성 내에 주둔하면서 京城을 수비하던 부대의 대장이다. 이처럼 국왕이 자리를 비운 궁궐과 도성을 책임지는 자리인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은 당연히 국왕의 신임이 두터운 측근이나 외척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행행시 도성 및 궁궐을 수비하기 위한 책임자는 유도대신, 유도대장, 수궁대장이었다. 이 중에서 유도대신과 유도대장은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수궁대장은 궁궐수비를 책임졌다. 그러나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는 문제였다. 수궁대장은 궁궐 내에서 숙직하면서 궁궐을 숙위한다고 하지만, 궁성 밖은 바로 유도대신과 유도대장이 시위하기 때문에 안팎에서 서로 시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궁대장은 국왕이 행행에 나섰을 때 궁궐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국왕의 행행이 밤을 지내는 거동일 때는 궐내에 직숙하였으며 수궁대장이 계차한 종사관 1명은 궁장 내부를 순찰하였다.⁶⁴⁾ 정조대 수궁대장이 창덕·창경궁에 직숙하던 곳은 南所의 衛將房이었으며, 종사관은 部將房, 衛將은 金虎門의 把總房, 部將은 守門將房, 把總은 哨官房에 함께 들어가고, 移接할 때에는 규례대로 標信을 없이 하며, 수궁대장과 종사관은 출궁할 때에 弘化門 안에서 祗迎하였다.⁶⁵⁾

『대전통편』에서는 수궁대장이 숙직할 곳으로 창덕궁의 도총부, 빈청, 남



<그림 2> 창덕궁의 수궁대장 숙직소

소를 지칭하고 있다. 특히 빈청은 정전과 정문 사이의 창덕궁내 중심공간이었으며, 금호문 안의 南所는 창덕궁 밖의 유도대신[유도대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숙위처였다.

<그림 2>는 수궁대장의 거처 중 하나인 빈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빈청은 인정전과 대조전 사이면서 종묘의 산줄기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덕궁의 남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전통편』과 같은 법조문 외에도 1795년 정조의 을묘년 화성 행행에서도 수궁대장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수궁대장 1인을 차출하여 궐 안에서 숙위, 즉 숙직하게 하고 입직하는 衛卒들은 각별히 엄히 다스리며 종사관 1인을 스스로 뽑아 옆에 데리고 다니도록 할 것”

“수궁대장이 입직하는 곳은 남쪽에 있는 衛將房으로 하고 종사관은 部將房에, 위졸의 장은 금호문에 있는 哨官房에, 부장은 금호문 수문장방에 동시에 들어가고 차례가 되어 자리를 옮길 때는 전례에 따라 표신을 제하되 숙직이 끝난 다음에는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입직할 것”⁶⁶⁾

『대전통편』과 정조의 을묘년 화성 원행과 비교하여 창덕궁내의 숙위소를 보면 수궁대장은 남면하여 궁궐의 중앙에 위치해서 사방 문의 숙위를 명령

64) 『大典通編』, 兵典, 入直條.

“城外經宿動駕時 本曹啓差守宮大將 直宿闕內 大將啓差從事官一員 巡察宮牆內”.

65) 『일성록』 정조 10년, 윤7월 13일(갑신).

66)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

하고 지휘하고 있다. 또한 시간대를 정하여 순번대로 자리를 옮기고 있어서 오늘날의 경호체제와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궁대장과 유도대장의 차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1761년 8월 영조가 明陵에 행행했을 때 궁을 지키는 從事官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衛內에서 시끄럽게 하는 자는 수궁대장에게로 보내고, 衛外에서 시끄럽게 하는 자는 유도대장에게로 넘겨주라”⁶⁷⁾고 하여, 수궁대장은 궁궐 내의 숙위만이 아니라 국왕의 행행 중에 국왕과 至近인 위내에서 발생한 일을 책임지고 있으며, 유도대장은 궁궐 밖에서 발생하는 일과 국왕의 행행 중에 호위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반면 유도대신과 수궁대장을 지명하지 않고 국왕의 행행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832년 5월 순조가 延慶墓에 나아가 친히 奠酌하기 위해 動駕할 때는 京舉動의 예로 하였다. 이에 순조는 경거둥이라고 하여 유도대신과 수궁대장을 모두 임명하지 않고 단출하게 행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⁶⁸⁾ 당시 연경묘는 경종의 능침인 의릉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흥인문을 지나 당일 환궁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순조는 연경묘 행행에 임하면서 번거롭게 유도대신과 수궁대장 등 행행에 뒤 따르는 행정적, 의례적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수궁대장은 평소에 宿衛大將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1777년 정조는 궁궐의 숙위를 정비하면서 숙위대장이라는 명칭과 그 역할을 거론한다. 정조는 숙위대장이 이미 궁궐 내부 각 곳의 숙위를 도맡게 되었으니 그 관할하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서로 유지해 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 衛將・部將・禁軍都監의 군병・각 문의 수문장・局別將과 밖으로는 궁궐 담장 밖에 三營에서 입직한 순라들이 날마다 사고 유무를 숙위 대장

에게 申報해야 한다.

- 위장・부장・內三廳・금군과 金虎門・弘化門・建陽門 將官의 군병 및 局別將・有廳軍 등은 3일 마다 체대한 單子를 숙위소에 내야 하고, 숙위소에서는 該房에 보내어 捧入하게 해야 한다.
- 도총부와 병조는 소속 관사들과는 다름이 있어서 또한 서로가 통지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巡檢하는 등 일로 숙위소에서 거행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 같은 것은 숙위대장에게 文移해야 함을 현저한 격식으로 삼도록 하라.⁶⁹⁾

위의 숙위대장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평소 궁궐내의 숙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를 책임지는 수궁대장은 숙위대장의 임무를 대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수궁대장과 숙위대장은 혹 명칭은 상이하나 동일한 임무를 뜻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행행시 수궁대장이 정해지면 숙위대장은 그 동안 그 임무에서 제외되는 건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튼 국왕의 행행시 선정되는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은 고금을 통해 국왕의 신임이 있어야 선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국왕별 명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다. 다음의 <표 2>는 현종에서 정조대까지 행행지 중에서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도대장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현종부터 정조까지의 행행시 유도군을 영솔하던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유도대신이나 수궁대장, 유도대장들의 직위이다. 특히 유도대신의 경우 정승을 지낸 국가의 원로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유도대신은 국왕이 신임하는 인물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영조대 유도대신인 이태좌, 김재로, 유척기 등은 유도대신에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67) 『영조실록』 영조 37년, 8월 13일.

68) 『순조실록』 순조 32년, 5월 5일.

69) 『정조실록』 정조 1년, 11월 17일(기묘).

<표 2> 국왕별 유도대신과 將臣⁷⁰⁾

국왕	시 기	행행지	유도대신	관 직	수궁대장	관 직	유도대장	관 직	비고
현종	1662. 9. 9	건원릉	李景奭	영중추			洪重普		
현종	1668. 8.16	온양	李景奭	영중추	金佑明	부원군	柳	지중추	
숙종	1717. 3. 4	온양	李濡	판부사	金柱臣	부원군	李基夏	총융사	
영조	1727. 8.16	송릉	魚有龜	영돈녕	姜錕		李	부사직	
영조	1728. 9. 1	靖陵	張鵬翼						
영조	1729. 2.13	順陵	李台佐	우의정	金始煥	공조판서	張鵬翼	한성좌윤	
영조	1729. 8.16	敬陵	李台佐	우의정	金始煥	공조판서	張鵬翼	한성좌윤	
영조	1750. 8.20	懿陵	趙顯命	영의정	元景夏	우참찬	具聖任	총융사	
영조	1751. 8. 6	明陵	鄭羽良	판부사	徐	좌참찬	洪鳳漢	예조참판	
영조	1752. 8.25	懿陵	金典洞	판부사	趙載浩	이조판서	洪鳳漢	호조참판	
영조	1753. 8. 9	건원릉	金在魯	영중추	金尙星	판의금	洪鳳漢	행부사직	
영조	1754. 8.15	明陵	金在魯	영중추	徐宗伋	행사직	洪鳳漢	우참찬	
영조	1755. 8. 4	順康園	金尙魯	좌의정	申晩	이조판서	鄭汝稷	어영대장	
영조	1758. 1.25	明陵	俞拓基	영중추	徐命彬	전판서	鄭汝稷	총융사	유도대2
영조	1759. 3.26	明陵	俞拓基	영중추	申晦	전판서	鄭汝稷	都正	
영조	1759. 8.28	明陵	俞拓基	영중추	申晦		鄭汝稷	都正	
영조	1759. 9.30	懿陵	李天輔	판부사	李昌誼	판돈녕	具善復	금위대장	
영조	1767. 8.20	明陵	尹東度	영중추	趙明鼎	판윤	金時默	총융사	
정조	1785. 2.10	泰陵	李		趙時俊		李昌運	어영대장	
정조	1785. 9. 4	明陵	洪		李命植	형조판서	金思穆	총융사	유도대2
정조	1786. 2.25	孝陵	金	영중추	李命植	행사직			
정조	1795. 윤2.8	현릉원	金憲	판중추	趙宗鉉	행사직	金持默		
정조	1798. 8.29	敬陵	蔡濟恭	판중추	鄭昌順	상호군	李	都正	
정조	1799. 8.19	獻陵	沈煥之	판중추	洪良浩	대호군	李	행호군	

* 비고의 유도대2는 유도대장이 2명 선정된 것을 말한다.

70) 『御營廳舉動曆錄』 권1~17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궁대장과 유도대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궁대장의 경우 영조대 김시환, 신회와 정조대 이명식이 반복적으로 임용되고 있다. 유도대장은 영조대 장봉익, 홍봉한, 정여직 등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다. 이중 홍봉한은 정조의 외조로서 왕실과 지근인 인물이기도 하다. 수궁대장의 경우에도 國舅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종의 은행시 淸風府院君 김우명, 숙종의 은행시 慶恩府院君 김주신, 영조대 홍봉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도대신과 유도대장 등은 매일 전날의 궁궐 숙위 상황과 변경된 내용을 빠짐없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⁷¹⁾ 그러므로 국왕의 행행시 궁궐과 도성의 숙위를 담당한 유도군의 지휘는 국왕이 신임하는 최측근이거나 왕실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⁷²⁾ 이런 배경으로 국왕이 행행에 임해도 궁성과 도성을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체제는 역대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3) 유도군의 배치와 숙위

궁궐에는 동서남북의 기본적인 4문을 위시하여 동소, 서소, 남소, 북소의 4개 衛將所 그리고 수비해야 할 중요 아문 등 숙위할 곳이 많았다. 조선 전기 예종대의 경우를 보면, 경복궁에 입직한 군사의 수는 2,163명으로 나타난다. 예종이 疊鐘을 하여 궐내 입직 군사를 점검한 결과가 2,163명이었다. 따라서 조선초기부터 평상시에도 이 정도의 병력이 궁궐 안에서 입직

71)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28일(무신).

領中樞府事李景奭, 左議政洪命夏, 領敦寧府事金佑明等, 同日辰時成貼, 宮城內外宿衛無事爲白乎旃, 去夜闕內別巡衛將, 則南所入直衛將洪宇 缺外巡將則行副司果李必馨, 行副司果南淑, 監軍則都總經歷朴晟, 兵曹正郎李翊相等, 以差定, 使之受牌分巡爲白乎旃, 軍營及各處把守巡邏夜禁等事, 加申飭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 詮次善啓向教是事. 啓下備邊司.

72) 이왕부, 『조선시대 국왕의 은행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211~212쪽.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⁷³⁾

조선 후기 궐내의 입직군사는 아마도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경우에도 입직군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 법궁이 창덕궁임을 감안한다면 경복궁과의 비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 이후 오히려 궁궐수비를 위해서는 입직 군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795년, 을묘년 정조의 화성 원행을 중심으로 궁궐 숙위 상황을 보면, 당시의 수궁대장 趙宗鉉은 종사관과 함께 禁軍, 扈衛軍官, 訓練都監軍士, 局出身有廳軍士, 各門守門將 등의 근무처를 순찰하였다. 화성 행행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사례를 보면, 수궁대장 조종현은 병조의 省記를 가지고 궁내 각처의 근무상황을 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禁軍, 扈衛軍官, 訓練都監軍士, 局出身有廳軍士, 各門守門將들이 바로 궐내의 각처를 수비하는 실 병력 및 현장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의 근무 장소 및 각 근무지의 수비 병력은 평상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1793년 정조가 화성에 원행했을 때는 도성에 남아 궁궐을 숙위한 군영은 금위영이었으며 유도대장 金持默이 영솔한 유도군의 총수는 2,798명이었다. 그 금위영의 중군이 상변군 1哨 100명을 거느리고 朝房에서 숙위하였으며, 수어청의 수어사도 훈련도감 소속의 군병으로 도성을 수비하던 留營軍 1초 100명을 거느리고 조방에 머물렀다. 이들은 정조가 화성으로 행행한 이후 도성에서 낮에는 궁궐의 각 문을 검문검색하고 야간에는 궁궐의 담장을 순찰하였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1795년 화성 원행에서도 훈련도감의 중군이 예비병력 1초를 거느리고 창경궁 통화문 밖의 조방에서 숙위하도록 했다.⁷⁴⁾ 1793년부터 1795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화성 원행에서 궁궐의 숙위와 시위군은 장용영을 비롯한 군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73) 신명호, 앞의 논문.

74)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절목.

궁궐의 외곽 수비는 군영의 중군 이상의 관원이 궁궐 바로 바깥에 위치하는 조방에 거처하며 담당하였다.

국왕의 행행시를 제외한 평상시의 궁궐 각처의 숙위병 근무지 및 숙위 병력은 『만기요람』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⁷⁵⁾ 『만기요람』 군정편에 기재된 숙위체제를 보면, 창경궁을 기준으로 궁궐 안의 숙위에는 각 군영에서 선발된 위장과 부장이 각각 군사 5명씩을 거느리고 更을 나누어 巡行하고 있다. 이들은 명례문 안에서 통화문까지 그 숙위 범위를 삼아서 초경에 만일 東所의 위장과 西所의 위장이 순행한다면, 다음 2경에는 남소의 부장과 북소의 위장이 순행하는 순서로 돌아가며 순행하였다.

그리고 궁궐 밖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에서 번드는 초관 1명과 군사 20명으로 更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본래 창덕궁 사방에는 궁을 기준으로 정문인 돈화문 앞에 훈련도감의 分營인 南營, 창덕궁 서쪽에 금위영의 分營인 西營, 창덕궁 뒤 응봉 밑에 廣智營, 창덕궁 集春門 밖에 어영청의 分營인 集春營, 창덕궁 동쪽에 어영청의 分營인 東營 등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의 삼군영에서 파견된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각 군영에서 파견된 부대가 주둔하던 分營은 更을 나누어 순행하였다. 남영은 초경, 서영은 2경, 광지영은 3경, 집춘영은 4경, 동영은 5경으로 하였는데, 보통 2차례 정도 순행하는 체제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법궁인 창덕궁의 숙위는 궁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오군영에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궁궐 밖 담장에도 각 군영에서 담당한 숙위군의 주둔처가 20개 있었다. 훈련도감 담당 구역에 6개소, 금위영 담당 구역 8개소, 어영청 담당 구역 6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때 각 舖마다 배치된 군병은 2명이었다. 그리고 훈련도감, 금위영,

75) 『만기요람』은 순조대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 시기의 숙위를 논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군영과 장용영에 대한 기존 연구물을 검토해 보면 순조 이후 각 군영의 무력이 정조대에 비해 강화되고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므로 오히려 『만기요람』에 기재된 군영 관계 자료가 순조 이전에 정비된 군영의 실체를 보다 잘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어영청 소속의 패장 1명은 5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각기 구역을 따라 밤을 새며 순찰하고, 3군영의 번드는 장관 각 1명은 5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罷漏를 칠 때까지 담당 구역을 검찰 하였다. 또한 각 군영의 장교와 군졸 각 1명씩을 선발하여 都巡하게 해서 궁궐의 내외를 삼군문의 군병이 순찰하였다.⁷⁶⁾

이처럼 평상시 궁궐의 숙위체제와 행행시를 비교해 볼 때 숙위 병력의 동원수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국왕의 행행에 隨駕한 군병이 유도군과의 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행행시 궁궐의 숙위는 평소의 시위 시스템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측할 수 있겠다. 다만 국왕이 자리를 비운 도성과 궁궐의 경비 태세가 수시로 보고되고 평소보다 많은 군영병이 각 처를 숙위한다는 점이 행행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행행시 숙위체제가 평소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변경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점은 숙위군 편성의 한 과정인 병조의 省記 작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각 군영에서 숙위군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반면 병조의 소관은 숙위 병력의 선발 및 이들의 근무지와 근무 날짜를 정하는 省記의 작성이었다.

병조의 省記는 야간암호인 軍號와 함께 야간수비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군호와 省記는 본래 병조의 省記色이 담당하였다.⁷⁷⁾ 평상시의 군호는 내병조의 입직하는 당상관이 직접 써서 봉합하고 수결을 친 후 낭관에게 주어 申時에 승정원에 직접 바치게 하여 결재를 받았다. 확정된 군호는 궁궐 문을 잠글 때인 해가 질 때에 궁궐 안팎의 각 관청과 각 군영에 배분하였다. 省記의 경우도 낭관이 신시에 국왕에게 직접 바치게 하였다. 다만 국왕이 교외에 거동하였다가 밤을 지낼 때에는 다음날의 군호를 날짜별로 적어 미리 결재를 맡았다.⁷⁸⁾ 이처럼 省記의 작성에 있어서도 행

76)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巡邏.

77)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兵曹各掌 事例 省記色.

78) 『만기요람』 권2, 군정편, 兵曹各掌 事例 省記色.

행시 교외에 있는 국왕에게 재가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도군이 행행시에만 시행하는 일도 있었다. 유도군은 궁궐의 숙위와 도성의 방비와 함께 국왕의 행행시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검문소와 같은 병문을 설치하여 잡인을 단속하는 일을 담당 하였다. 원래 도성내의 치안이나 행인의 단속은 포도청의 소관이었으나 포도청의 임무가 느슨해지면서 각 군영에서 책임지게 되어 행행시 병문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⁷⁹⁾ 1693년 숙종의 제릉 능행시 유도군이 담당하였던 병문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⁰⁾

○ 동편

於花洞 병문: 군관 2원, 국출신 2인, 군 5명

洪繼寬 병문: 군관 2원, 군 5명

馬前橋 병문: 군관 3원, 군 5명

二石橋 병문: 군관 3원, 군 5명

○ 서편

生鮮前 병문: 군관 5원, 군 10명

壽進宮 병문: 군관 3원, 군 5명

六曹洞口前 병문: 국출신 5인, 군 15명

의정부 남변 병문: 국출신 2인, 군 5명

司醞洞 병문: 국출신 2인, 군 5명

鍾閣隅 병문: 국출신 5인, 군 15명

경복궁 동변 병문: 국출신 3인, 군 5명

夜晝古介 병문: 국출신 5인, 군 10명

大貞陵洞 병문: 군관 3원, 군 5명

西小門洞 삼거리 병문: 군관 3원, 군 5명

79) 『정조실록』 정조 1년, 7월 30일,

80) 『御營廳舉動曆錄』 권2, 계유 8월 28일, 齊陵・厚陵 행행.

대광통교 남변 병문: 금위군 1명

仇里介 병문: 금위군 2명

倉洞 병문: 금위군 3명

전의감동 병문: 금위군 2명

七間 병문: 금위군 3명

위의 도성 내 병문에 동원된 將軍兵은 159명으로 어영청군이 군관 24원, 군 100명이며 국출신이 24원, 금위군이 11명이다. 그리고 각 병문에 배치된 군병은 15명이 넘지 않으며 대개 5~10명 선임을 알 수 있다. 군병이 15명 이상 배치되는 곳은 六曹洞口前과 종각으로 인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당연히 다른 곳에 비해 배치되는 군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행행시 설치되는 병문은 궁궐을 기준으로 도성문에 이르는 길목까지 주요한 곳에 설치되었다. 병문은 국왕이 행행지로 갈 때와 回鑾시 두 번에 걸쳐 설치되었다. 위의 각 병문이 설치된 곳을 보면, 육조동구, 종각, 서소문, 대광통교 등 주로 행인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거나 삼거리여서 병문의 설치 기준이 행인의 통제가 용이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행시 유도군의 숙위와 배치는 행행 당일과 回鑾시 설치되는 병문을 제외하면 평소의 궁궐 숙위체제와 마찬가지로 도성 각 성문과 성문 밖 군보, 궁궐 내부의 순찰과 궁궐 밖 궁장의 순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숙위군은 국왕이 궁궐에 거쳐 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숙위처에 배치되었으며, 다만 행행시에는 숙위군의 수치가 증가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4. 맺 음 말

조선시대 국왕은 행행을 통해 통치권과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인정받았다.

행행은 국왕이 대외적으로 왕실의 적통성과 권력자로서의 통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례였다. 이에 조선의 국왕들은 누구라도 신체적 문제가 없으면 수시로 행행을 거행하였다.

국왕의 행행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선대 국왕과 왕비의 능침이 증가되어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건국 초부터 거행된 사직과 종묘의 제사, 능행, 원행, 온행 등은 1년에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으로 국왕의 행행은 그 빈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라 궁궐 숙위의 중요성도 자주 언급되고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궁궐의 숙위는 조선 전기부터 오위에서 담당했는데, 임진왜란과 양차의 호란을 거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의 삼군문이 실질적인 숙위군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궁궐의 숙위체제는 『경국대전』과 『대전통편』에 기재된 조항에 맞추어 시대가 변화되어도 그 근간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의 결과 경복궁이 소실되어 『경국대전』에 기재된 궁궐의 숙위체계가 새로이 법궁으로 지정된 창덕궁에 맞추어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숙위군의 편성도 오군영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오군영은 전란의 영향과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대별 국왕의 통치 역량에 따라 숙위군의 편성이 좌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왕별로 상이한 통치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숙위군의 근간인 군영의 지휘권 향방도 여기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체제는 법전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롭게 편성된 숙위군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왕은 행행시 궁궐 수비의 핵심인 숙위군의 지휘를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에게 전담시키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숙위체제를 크게 조정하지 않으면서 행행에 임할 수 있었다. 또한 숙위군에 동원되는 군병도 일개 군영이 전담하지 않고 여러 군영에서 차출하는 형태를

취하여 무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숙위체제는 국왕별로 개편되기도 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숙위군의 기강 해이와 궁궐 침입 사건 때문이었다. 특히 정조 즉위 초기에 발생한 경희궁 자객 사건 때문에 제정된 『감문절목』은 궁궐의 숙위체제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는 체제였다. 결국 국왕의 행행시 궁궐의 숙위는 법전의 규정을 기본 바탕으로 국왕별로 개편된 체제가 동시에 운영되는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07. 2. 21,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幸行, 궁궐, 宿衛, 五軍營, 경국대전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y of Palace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Wang-moo

This thesis is to study of palace security system,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n late *Joseon* Dynasty. As we know the Kings parade is very symbolize, and visuality, mobilize. And that King's Movement, is called *Hanghaeng*(幸行), this movement belonged Korea and China's the part of ruler system. It just happen like Ritual action, therefore it makes people believed, the Royal class was been long period in father land. And therefore, there is no one doubt about Kings power and exist. It happened every each Kings period in *Joseon* Dynasty. People simply depend on there own eyes. Those rituals had massive significance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in which the King, the subjects, and the commoners participated together. It was happen all the time in Kingdom of confucian, we called *Joseon* Dynasty. Royal Ceremony is very fixed to continue forever. The one of the best ceremony was the parade of Kings. The Kings parade, it's highest ritual action in Kingdom of confucian society. The Kings security system in palace, when during the kings parade, it based on the *National Law*(經國大典; 大典通編). In the law was to organize soldiers in palace.

In the 16th century, the Japanese Forces invaded the *Joseon* Dynasty. And 17th century, the *Manchurian* Forces invaded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e National Defense System was changed. Also Kings and Palace

Security System were changed, too. The new military strategy was based on China, especially the tactical manual *Jixiaoxinshu*(紀效新書) written by *Ji-Guang*(戚繼光). And basically in those new military manual to suggest a new way of security system, when King's Parade in palace. According the new military strategies, that makes new military camp, we called *5 military camp*(五軍營). And the Kings and Palace security system support by those military camp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Dynasty. In those time, about 1,400 soldiers of new 5 Military Camps were guarded during the Kings parade. The new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King *Yeongjo*(英祖) made circle of security system in capital city by 3 Military Camps(都城三軍門體制) and *Jeongjo* made the New Security System of Palace(監門節目). However, the Kings and Palaces Security System was not just followed new military strategies, Basically the new system still based on the National Law. Usually since the King's Parade displayed in late *Joseon* Dynasty, and also security of palace system was not changed from the *Jeongjo*'s period. Because the King's Parade was an assembly system with Royal ceremonies. And it was ritual thing, not just King's played. As we know, ritual is most powerful thing in human society, and most King's power depends on that, also the King's political power proceeding and make more powerful hands. After all, the Kings and Palaces Security system organized in 18th century, which based on the National Law system, it continued until the end of Lee Dynasty.

Key Words : *Hanghaeng*(幸行), Palace, Security System, *Five Military Camp*(五軍營), National Law(經國大典)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趙 誠 倫**

1. 머 리 말
2. 연구의 과제와 조사 방법
3.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과 전투준비
4.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부터 제주도에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여 연합군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본토결전(本土決戰)에 대비하였음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4년 말 일본군은 『결호작전(決號作戰)』이라는 일본 본토 방어 작전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결7호작전(決7

號作戰)』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¹⁾ 작전 수행을 위해 1945년 8월까지 7만여 명의 일본군이 들어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제주섬 전체를 요새화 하는 것이었다.

제주도에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시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비행장, 포대, 참호, 훈련장 및 감시초소, 대피소,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폭탄매립지 등 군사시설의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한라산 중턱에 ‘머리머를 두른 형국’이라는 뜻에서 ‘하치마키(鉢巻)’라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졌으며, 각 진지와 진지, 진지와 포구를 연결하는 군사도로도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제주도 서남부 대정지역은 군사전략상 요충지로서, 모슬포 앞뜨르 비행장, 오오무라(大村) 해군 항공대 병사, 첫알 오름의 고사포진지, 해안 특공기지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제주도내 일본군의 군사시설은 국내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일제 침략의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상을 통해 평화를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유적지(戰爭遺跡地)²⁾라고 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정부가 항복하면서 제주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전투를 준비하던 각종 시설 공사는 중지되었고, 일본군은 미군의 배에 실려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제주도민 가운데 현재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지금도 1945년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 또 송악산이나 성산포 등 바닷가는 물론 제주도 전역의 오름마다 눈에 띄는 인공 경도(坑道)가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뚫어 놓은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혀 보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1)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31쪽.

2) 전쟁유적지(戰爭遺跡地)란 일반적으로는 전투가 있었던 장소를 가리키지만, 좀 더 넓게는 전쟁과 관련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 철거된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十菱駿武, 菊池實編, 『しらべる戦争遺跡の事典』, 柏書房, 2002, 4쪽.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8).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러다가 1992년 SBS에서 일본군의 전쟁유적지에 관한 특집 방송³⁾을 내 보낸 이후, MBC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면서 점차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주 동굴연구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제주도 전역의 지하 갱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⁴⁾ 2004년 지하호가 잘 남아 있는 가마오름을 정비한 평화박물관이 개관하였다. 문화재청은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전쟁 유적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⁵⁾ 이처럼 잊혀졌던, 혹은 외면당하던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일본군들이 조성해 놓은 군사시설에 대한 관심이 지난 5~6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커졌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일제하 제주도 전쟁유적 조사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주도 전역의 일제하 일본군 전쟁유적지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실시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지가 속속 발견되고, 인터뷰 대상자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기는 무리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가능했다. 이 글은 이번 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일제 말기 ‘본토결전’ 준비와 제주주둔 일본군의 주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남겨 놓은 전적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945년 제주도, 결7호작전의 비밀”, SBS 문성근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1994년 4월 21일.

4) 『제주시 사라봉, 별도봉, 화북동 일대 일본군 진지동굴 종합학술조사』, 2000; 『제주도 일대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조사 연구보고』, 2001; 『진지동굴 및 진지조사 연구보고서』, 2001; 『남제주군 서부지역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2005; 『송악산 제1차 분화구 외륜산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조사(측량)보고서』, 2006.

5) 『한라일보』 2006년 2월 18일.

2. 연구의 과제와 조사 방법

(1) 기존 연구의 검토

그동안 국내 전쟁 유적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꼽는다면 단연 제주도일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 일본군이 남긴 전적지에 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과 전라도 도서지역에도 일부 전적지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⁶⁾ 체계적인 보고는 아직 없다.

제주도의 전적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인 탐사와 자료 정리가 있었다. 먼저 한국공군 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이 제주도 전적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⁷⁾ 고병오와 박용후는 모슬포의 제주도 항공기지를 다루면서 공사개요와 시설분포도를 제시하였다.⁸⁾ 김봉옥은 전시하의 일본군에 대해 주로 일본 자료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를 요약했지만, 교육과 문화에도 언급하고 있으며, 전후 일본군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⁹⁾ 일본에서는 『朝鮮軍概要史』가 발간되어¹⁰⁾ 부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고, 森田芳夫는 『朝鮮에서의 戰爭準備』를 기초로 일본인 쪽의 증언을 더하여 간단하게나마 정리한 바 있다.¹¹⁾ 神谷丹路는 1991년과 2000년에 제주도 현지조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여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¹²⁾

6) “서울의 지하 군사시설: 경희궁에 일제 때 만든 105m 지하벙커!”, 『조선일보』 2006년 1월 10일; “거문도 일제 군사시설”, 『서울신문』 2006년 5월 29일.

7) 한국 공군 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제주도 전사적지 탐방기』, 1996.

8) 고병오·박용후, 『元 大靜郡志』, 박문출판사, 1968.

9)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10)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朝鮮思想關係資料集 五, 高麗書林, 1989, 附錄1.

11)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1964.

12) 神谷丹路, 『日本軍の足跡』, 『韓國近い昔の旅』, 凱風社, 1994; 神谷丹路, 『韓國歷史漫歩1』,

지하호(地下壕)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 동굴연구소』가 시작하였다. 비록 아직 일부이지만, 일본군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각종 지하호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¹³⁾ 이 작업들은 몇 년 동안에 걸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군이 파 놓은 지하 갱도들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실제 규모를 과학적 측량 방법을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시함으로써 면모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를 사이판과 비교하는 작업을 한 바 있으며,¹⁴⁾ 남제주군이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만든 모슬포 전쟁 유적지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도 나와 있다.¹⁵⁾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일본군 전적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자원화 논의를 전개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역사학 연구자들에 의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츠카자키는 당시 제주도에서 거대한 ‘본토결전’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왜 ‘일본본토’ 밖에서 ‘본토결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준비는 일본인 병사만으로 행해진 것일까,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본토결전’은 어떻게 행해지려 했던 것일까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의 특성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였다.¹⁶⁾ 신주백은 1945년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를 주제로 삼아 편제와 병사 노무동원 방식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 논문에서 제주 주둔 일본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조사·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제주도 전쟁유적지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적 접근 방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와 관련한 일본군의 전략과 주둔 상황을 잘 규명하지 못했다. 현장 탐방류의 현지 기초 조사와 측량 위주의 지하호 조사 등은 일본군의 전략, 전술 및 주둔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지하호와 비행장 시설 등을 실측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일본군 전쟁 유적을 폭넓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패전 이후 모든 무기를 회수당한 채 미군 LST에 실려서 돌아갈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야에 넣고 파악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당시 문헌 자료가 파괴되고 사라진 지금, 군사시설의 구축에 강제 동원되었던 주민들에 대한 면접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구술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지 못했었다. 셋째,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일제 군사시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즉 보존 활용 대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생활실태, 그들의 일본군과의 관계 및 일본군에 대한 인식, 나아가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조사·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문제

『月刊韓國文化』 33号, 2000; 神谷丹路, 『韓國歴史漫歩2』, 『月刊韓國文化』 34号, 2001.

13) 주5의 문헌과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003; 손인석,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구조적 유형과 병력』, 『동굴연구』 제3호, 제주도 동굴연구소, 2004; 강순원, 『제주지역 진지동굴의 역사적 고찰』, 『동굴연구』 제3호, 제주동굴연구소, 2004;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I (제1단계 남제주군 서부지역 조사 중간보고)』, 2005.

1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 방안』, 2001.

15) 남제주군,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2005.

16) 塚崎昌之, 『“神州不滅”本土決戦の實態』, 『季刊戦争責任研究』 29, 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00; 塚崎昌之,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叢 第22輯,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塚崎昌之, 『朝鮮人徴兵制度の實態-武器を与えられなかった“兵士”たち』, 『在日朝鮮人史研究』 34, 綠陰書房, 2004.

17)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현실』 제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제주도에 산재한 일본군 전쟁유적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과제를 해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군의 전략과 주둔 실태, 그리고 전적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방법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생존자 인터뷰 조사의 세 가지였다. 이 세 가지 조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문헌 조사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연구 주제와 관련된 1차 문헌 확보에 주력했다. 먼저 일본에서 찾아낸 것은 동경의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자료가 중심이다. 그 중 중요한 목록으로 ① 『濟州島航空基地』(『鎮海警備府 引渡目録』), ②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朝鮮軍 殘務整理簿), ③ 『濟州島航空基地位置圖』, ④ 『第58軍配備概見圖』, ⑤ 알뜨르飛行場 平面圖, ⑥ 『機密作戰日誌』(乙綴), ⑦ 海軍 『引渡目録』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쟁 직후 일본군이 남긴 서류철로 당시 제주도 주둔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본군 내부 자료이다. 이 자료만으로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보기 어렵다.¹⁸⁾

18) 그 이유를 이케다는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육·해군이 처음으로 내린 지령은 『모든 軍史資料의 처분』이었다. 각 군은 기지에서 그 명령을 실행에 옮겨 파괴, 소각, 바다에 던지거나, 묻어 버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전쟁 기록을 소멸시켰다. 일본 국내에서는 점령군이 도착하기까지 약 40일 동안 매일 이 작업이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池田一郎, 『戦争遺跡をして何を語らせるか』, 十菱駿武, 菊池實 編, 『しらべる戦争遺跡の事典』, 柏書房, 2002, 71쪽). 그런 점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일본군 관련 자료는 소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미처 소각하지 못한 일부 자료인 셈이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인 병사 및 군속 약 24만명의 명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인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명부에는 제58군 직할부대, 예하부대, 제1특설 근무대 명부도 포함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이 명부는 현재 자료 전산화가 진행 중이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이용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미국측 자료였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미국측 자료에는 9월 28일 제주도에 특별히 파견되어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담당한 미군 ‘항복 접수팀’과 ‘무장 해제팀’이 남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미군이 남긴 보고서에는 제주 주둔 일본군의 배치 현황, 일본군의 구성, 무기 장비 실태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⁰⁾

둘째로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필자를 포함한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팀이 등산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2005년 9월 첫 주부터 시작된 조사는 2006년 7월까지 모두 40회 실시되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비교적 높은 고도의 산악지역을 조사하다가,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눈이 쌓여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바다가 가까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4월 이후 다시 산악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일본군 지도에 표기된 전적지를 현재 지도 및 지적도와 비교해 현 위치를 비정하고, 위치가 확인된 전적지를 찾아가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전적지에 대해 정보를 가진 지역 주민들 중에서 구술증언자를 물색하였다. 증언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구술증

19)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72-3쪽.

20) 제주4·3연구소, 『제주 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언자를 확보한 경우는 현장에 동행하였다. 전적지 현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도상에서 좌표를 확인하고, 기록사진을 찍고, 캠코더로 촬영하였으며, 지 하호의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였다.²¹⁾

셋째로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지 생존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이므로, 시간이 흐르면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조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주 면담자 1명과 보조 면담자 1~2 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모두 두 팀이 매주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현장에서는 두 팀 모두 MD녹음기와 보이스레코더, 카메라, 캠코더를 갖추고 인터뷰 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하면서 실시하였으며, 돌아온 뒤에는 주로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구술조사는 2006년 7월까지 매주 실시되었다. 강제동원 구술 대상자는 징병과 일반 노무동원으로 나누고, 질문할 때는 동원과정, 동원시기, 동원기간, 동원지역, 일본군과의 관계 등을 질문하는 한편, 당시 일본군의 동향, 마을 주민들의 일본군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모두 55명을 인터뷰하였고, 구술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²²⁾

한편 조사과정에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사를 찾아냈고, 그 중에서 2명을 면접 조사하였다. 그러나 면접한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이며,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제한된 경험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과는 다른 지배자의 입장에서 있던 병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²³⁾ 그 중

21) 현장 조사 결과는 『일제말기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의 현장조사보고서』(가제)로 2007년도에 간행될 예정이다.

22) 조사 결과는 『일제말기 제주도 일본군과 제주도 : 인터뷰 조사 보고서』(가제)로 2007년도에 간행될 예정이다.

23) 상세한 자료 설명은 다카무라 료헤이,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

1명은 직접 제주도를 찾아와 자신이 주둔했던 지역을 확인하고 증언했다.

이와 같이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생존자 인터뷰 조사 결과로 상당량의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 자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일본군이 제주도에 들어와 각종 전투 시설을 구축하며 전쟁을 준비하던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인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병력 배치와 전력,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등으로 정리하겠다.

3.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과 전투준비

(1)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

오래 동안 제주도는 진해에 설치되어 있던 해군 진수부 관할 하에 있었지만, 일본군의 관심 밖에 있다가 현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모슬포 지역에 1930년대초 일본 해군 비행장이 조성되었다. 이 비행장은 1937년부터 난징(南京) 해양폭격 기지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오오무라(大村) 항공기지에서 출격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의 착륙장소로 사용되다가 점차 제주도를 거점으로 출격하게 되었다.²⁴⁾ 일본군이 1938년 11월 중순 상하이를 점령한 후 오무라 해군항공부대는 다시 본거지를 중국 상해로 옮겨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오오무라 해군항공대 연습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비행장은 그 뒤 공사를 거듭하면서 1945년에는 80만평 규모로 확장되었다.

『사회와역사』 70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24) 巖谷二三男, 『中攻-海軍陸上攻撃機隊史(上巻)』, 出版協同社, 1955;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제주도가 해군 항공기로서가 아니라 본토결전 장소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일본 상공에 미군 B29기가 출현하는 1944년 5월경이다. 이는 일본 본토가 공습권역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데, 일본군 육군이 제주도 모슬봉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주둔하기 시작하였다.²⁵⁾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작전, 즉 암호명 “결호작전”을 지시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방어 작전계획, 이른바 결7호작전(決7號作戰)이다. 결1호작전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시마(天島) 방면, 결2호작전은 토호쿠(東北) 방면, 결3호작전은 간토(關東) 방면, 결4호작전은 토카이(東海) 방면, 결5호작전은 주부(中部) 방면, 결6호작전은 규슈(九州) 방면, 제7호작전은 제주도 조선방면으로 구분하였다. 결호작전은 대부분 일본 영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제주도가 유일하게 결7호작전의 대상이 되었다.²⁶⁾

이때 조선 방어를 책임진 제17방면군(方面軍)이 대본영으로부터 ‘국토결전작전 준비요강(國土決戰作戰 準備要綱)’을 지시받았다. 내용은 제주도에 제58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력병력으로 2개 사단 및 1개 혼성여단, 그리고 그 밖의 예하부대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45년 4월 15일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었고,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 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가 배치되며, 조선 본토에 제121사단을 대기시키고, 포병과 전차부대를 중국과 만주에서 제58군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였다.²⁷⁾

제58군은 1945년 4월 제주도에 섬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사령부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제주도에 창설된 제58군의 임무는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58군의 군대의 배치와 작전지휘에 관해서는

25) 츠카사키, 앞 글, 2004, 227쪽.

2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錄1, 163-6쪽.

27)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71-2쪽.

제17방면군이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독자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본 전략을 놓고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는 처음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결7호작전의 기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해안결전이고, 또 하나는 후퇴배치 내륙결전이다. 해안결전은 해안 가까운 곳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물리치는 전법이다. 이 작전은 상대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아군도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적이 제공권을 가지고 함포사격 엄호가 있을 때는 상황은 더 나쁘다. 한편 내륙결전은 해안에서 약간 후퇴한 지점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상륙은 허락하지만, 장기 지구전으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작전이다. 아군 전력의 조기소모는 피할 수 있지만, 적에게 한 번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²⁸⁾

제17방면군사령부는 1945년초부터 이미 해안결전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말하자면 작전 초기단계부터 상륙하는 미군을 저지하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제58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병력과 화력이 부족해 해안결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후퇴배치 내륙결전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즉, 미군 상륙과 동시에 타격을 입히는 전술보다는 상륙을 허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게릴라식 방어 전략을 선택한다.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 제2방어선으로 이동하고 최후에는 한라산(어승생악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전투로서 미군에 타격을 주려는 전술전략이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전쟁지휘부와 제17방면군은 제58군이 해안결전 전략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²⁹⁾ 특히 오키나와전에서 일본 수비군이 채택했던 내륙결전이 패전으로 귀결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58군 사령부의 작전계획도 해안결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제3차 전력 강화’가 진행되었다. 그 핵심은 대기시켰던 제120사단을 제주도로 배치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³⁰⁾ 제120사단은 해안예의 전진 배치가 예정되었는데, 이를

28) 츠카사키, 앞 글, 2004, 255-6쪽.

29)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174쪽.

통해서 볼 때 제58군 사령부는 기존의 자신들의 내륙결전 전략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해안결전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일본군의 유입과 병력 배치

1945년 3월부터 일본군 병력이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일본이 항복하던 8월 15일경에도 계속 들어오는 중이었으므로, 일본군의 제주도 유입과 배치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와 일본 방위청 소장 자료인 ‘기밀작전일지(을철)’³¹⁾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표 1>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³²⁾

부대명	第59軍	第96師團	第111師團	第121師團	獨立混成 108旅團
통 칭	砦(도리데)	玄(겐)	市(이찌)	榮光(에이코)	翠(스이)
편성시기	1945. 4	1945. 2. 6	1944. 7. 12	1945. 1. 16.	1945. 3. 16
편 성 지	濟州	京城	滿洲	滿洲	京都
책 임 자	中將 永津左比重	中將 飯沼守→ 中將 玉田美郎	中將 岩崎民男	中將 正井義人	少將 平岡力
병 력	370명	9,000명	12,000명	13,000명	6,000명

30) 츠카사키, 앞 글, 2004, 256-7쪽; 황석규, 『전쟁말기 제주도 일본군 주둔의 사회역사적 의미-제111사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2006.

31) 『機密作戦日誌(乙綴)』, 1945, 日本防衛研究所圖書館 所藏.

32) <http://homepage1.nifty.com/kitabatake/rikukaiguntop.html>: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附表3, 附表4.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군이 대량으로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45년 4월부터이고, 그 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다. 제주도에 먼저 들어온 것은 96사단이며, 다음으로 108여단이 들어왔고, 뒤를 이어 만주의 관동군(關東軍)이었던 111사단과 121사단이 제주도에 배치되었다. 제96사단은 총병력 9,000여명에 예하부대 6개, 제111사단은 1만2,000여명에 예하부대 4개, 제121사단은 1만3,000여명, 독립혼성제108여단은 6,000여명에 예하부대 3개 등이었다.³³⁾

제96사단(사단장 이이누마 중장)과 제108여단(여단장 히라오카 츠토무 소장)은 전쟁 말기 일본군의 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급히 창설한 부대이다. 제96사단은 후쿠오카(福岡) 지역 예비역들을, 제108여단은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관서지역 예비역들을 재소집해서 만들었다. 제96사단과 제108여단은 무장도 허술했고, 재소집병들이 대부분이라 나이도 많고,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³⁴⁾

이 부대들은 창설하자마자 제주도 배치를 명령받고, 장비도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로 들어왔다. 제96사단은 4월 8일에서 22일까지 여수와 목포항을 거쳐 제주 산지항으로, 제108여단은 4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에 대마도를 거쳐 모슬포항으로 각각 상륙한다.³⁵⁾ 제96사단은 제주

33)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表3, 附表4.

34) 당시 일본군은 1945년 초부터 본토결전 준비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50개 사단이 필요했지만 병력이 크게 부족했다. 작년에 이미 29개 사단을 창설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농업종사자, 공장종사자, 교사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였다. 그래도 40개 사단밖에 구성할 수 없었고 화력도 크게 부족하였다. 太平洋戦争研究會, 『戦略・戦術でわかる太平洋戦争』, 日本文芸社, 2002, 272쪽.

35) 96사단의 도착은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172쪽; 독립혼성제108여단 병력의 제주도 도착 사실은 일본군 비밀전문에서 일부 발견된다. 1945년 4월 16일 제주항으로 1,642명, 서귀포항으로 1,591명 등이 도착. 일본방위연구소도서관, 『玄師參電 第60号』, 『玄師參電 第103号』, 『機密作戦日誌(乙綴)』, 1945.

시를 중심으로, 제108여단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제96사단은 들어오자마자 사전 준비 및 경찰 임무를 맡아 활동하다가 4월 20일 군사령부가 제주시 공업농림학교에 자리 잡게 되자, 결과를 제58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일부는 제111사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진지구축을 위해 모슬포지구에 투입되었다.³⁶⁾

한편 제111사단(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만주 관동군 제9독립수비대를 바탕으로 1944년 7월 편성되었는데, 4월 4일 제주도 진출명령을 받고, 4월 8일 참모장 및 58명의 선발대가 제주도로 들어왔다.³⁷⁾ 본대는 4월 14일부터 만주로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5월 상순에 목포를 거쳐 제주도 산지향에 상륙하였다. 독립산포제23대대, 본진포제1대대, 전신제11연대, 제1, 제3독립 작정소대, 전차1중대, 야전중포병부대1중대, 제1특수군무대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상륙했다.

1945년 6월 중순에 제121사단이 상륙하였다. 제121사단(사단장 마사이 요이히토 중장)은 제28사단의 잔류부대를 바탕으로 1945년 1월 만주 하얼빈에서 관동군 예하부대로 창설되었는데, 다른 부대보다 이동이 늦어 먼저 만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5월 21일에서 6월 20일 사이 제주도에 상륙한다.³⁸⁾ 두 사단은 만주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현역 병사들이 중심이었으며, 화력도 강해 정예부대로 평가받고 있었다.

만주철도수비대로 시작한 관동군은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일전쟁을 치렀으며, 대소전쟁을 준비하였다. 물론 일본이 대소전쟁을 포기하면서 예비병력으로 남게 되었지만, 언제 소련이 침공해 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대기상태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고 남방(南方)전선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자, 1943년부터 중국 만주 지역의 관동군과 조선군이 속속 남부로 배치되었다.³⁹⁾ 따라서 이미 많은 병력이 빠져나가 1945년에는

3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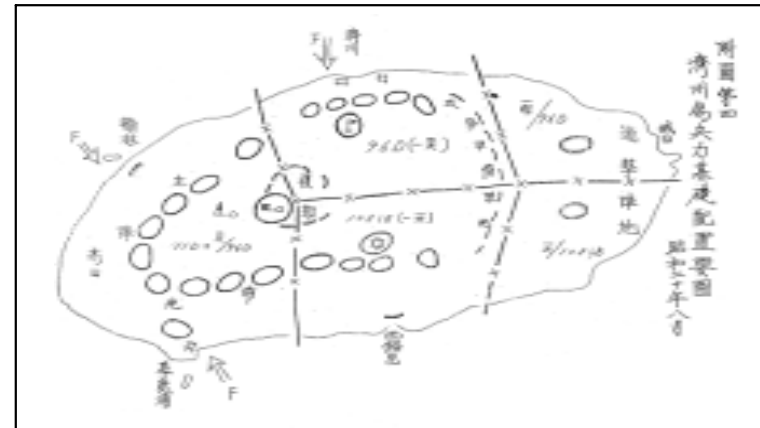
37) 策參電 第209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玄師參電 第6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38)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33쪽; 策參電 第2492號, 機密作戰日誌(乙綴).

관동군에도 병력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지만, 소련이 침공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토 결전에 필요한 병력을 다시 관동군으로 채운 것이다.

제58군(사령관 나가쓰 사비주 중장) 사령부는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였다.⁴⁰⁾ 제주시 공립농업학교(흔히 農高라고 부른다)에 자리 잡고, 직할부대는 사령부를 비롯해 전신부대, 공병대, 병참병원, 비행장경비대 등 14개 부대가 있었다. 제12포병사령부도 제58군의 직접 지휘를 받았으며 4개 포병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지도 1> 제주도병력 기초배치요도(1945년 8월)⁴¹⁾



39) 다음은 조선주둔 부대의 남방 이동에 관한 기록이다.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31-4쪽.

1. 1943년 1월 제20사단이 京城에서 動員을 完結하고, 釜山을 거쳐서 新加坡로 출정
2. 1943년 2월 제49사단을 京城에서 편성하여 6월 부산을 거쳐 巴拿馬를 향해 出征시킴
3. 1944년 5월 평양 제30사단에 東원명령이 떨어져 곧바로 필리핀을 향해 부산항을 출발
4. 1944년 11월 나남의 제19사단 東원을 完結하여 12월 필리핀을 향해 부산항을 출발하였으나, 해상수송 방해를 받아 주력은 대만에 상륙하여 대만군에 편입

40) 策參電 第3901號, 機密作戰日誌(乙綴).

41) 第1復員局, 『本土作戰記錄 第5卷 第17方面軍』,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附圖 第4 濟州島兵力 基礎配置要圖, 246-7쪽.

<지도 2>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⁴²⁾



다음으로 부대배치를 보자. 제주도에 일본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미군 공격 예상로를 따라 방어선을 설정하고 각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미군 침투 예상 지역은 모슬포 일대의 서남부지역, 비양도, 한림항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 그리고 제주시 일대의 중부 지역이었다. 따라서 <지도 1>에서 보듯이 미군 침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부지역(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을 ‘주진지대(主陣地帶)’로 설정하고, 중부지역(제주시-서귀포)을 ‘공세준비진지(攻勢準備陣地)’로, 그리고 침투 가능성이 낮은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을 ‘유격진지(遊擊陣地)’로 설정하였다. 제1방어선이 주진지대이고, 제1방어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부대가 공격준비진지대에 자리 잡으며,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부대가 유격진지에 자리 잡았다.

제111사단은 들어오자마자 주진지대에 폭넓게 배치되었다가, 6월 중순에 제121사단이 들어오면서 제111사단의 작전범위는 서부지역 전체에서 안덕

대정, 고산에 이르는 서남부지역으로 좁혀졌다. 사령부도 북제주군 당오름, 원물오름(남제주군 동광리 일대)에 자리 잡았다. 동시에 동부지역 방어에 투입되었던 제108여단으로부터 2개 대대 병력을 지원받아 배치하였다.⁴³⁾

한편 제121사단은 서북부지역인 한경, 한림, 애월 지역에 배치되었다. 제121사단이 담당했던 서북부 지역은 일본군의 상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점으로 판단되어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수비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바리악의 사단사령부를 중심으로 보병제262연대가 한림읍 금악 지역에, 263연대가 애월읍 금덕 지역, 제264연대가 애월 지역에 주둔했다. 주로 해발 200m 고지대에 연대급 본부 숙영지를 설치하고, 말이나 포나 식량 전투 준비물도 이 숙영지를 중심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했고, 그 아래쪽으로는 대대, 중대급이 포진하였다.

제2방어선으로 제1방어선을 지원할 ‘공격준비진지대’와 가장 후방인 ‘유격진지대’에는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각각 주둔했다. 제96사단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민전동(현 산천단)에 자리 잡고, 보병제292, 제293, 제294연대가 주둔하고, 정뜨르와 진드르의 육군 동·서비행장 경비를 담당하였다. 한편 송당지역과 그 해안가 쪽으로 1개 대대가 주둔하였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제1, 2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유격진지대’인 서귀포시 지역과 동남지역에 폭넓게 주둔했다. 여단사령부를 거문오름과 부대악(조천읍 선흘리) 부근에 두었으며, 서귀포 녹하지악과 성읍리 등에 주력부대를 두었다. 그러나 종전 직전에는 여단사령부가 구좌읍 평대리 부근에 위치하고 예하 보병제646대대, 여단통신대, 여단공병대, 제64병참병원 1개 중대, 제2독립작정소대, 독립자동차제300중대 등이 배치됐다. 또 보병제644대대는 함덕, 보병제643와 645대대는 김녕과 표선, 647대대는 하도, 642대대는 성산지역에 각각 주둔했다.⁴⁴⁾

43) 강순원, 2006, 44쪽.

44)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보고서』, 제주도, 2000, 187-188쪽.

42) 『第58軍配備概見圖』, 1945,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한편 제58군 사령부는 제주시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미군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한라산 중턱의 어승생악 일대로 사령부를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사령부가 제주시의 제주공립농업학교에 계속 위치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 옮긴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키나와전이 패전으로 끝난 다음, 제17방면군은 주진지대, 공격준비진지대, 유격진지대라는 역할 분담을 벗어나, 제주도 주둔 부대를 연안구속병단과 기동결전병단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역할분담을 지시하였다. 연안구속병단이란 상륙예상지점에 배치되어, 그 지역을 사수하는 병단이고, 기동결전병단은 예상되는 상륙지점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병단이다. 이 작전명령을 받은 제58군사령부는 8월 1일에 제주도내 참모를 모아 작전계획의 변경을 명령한다.⁴⁵⁾ 제111사단은 연안구속병단으로 소속되며, 전투 시 한발도 후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후까지 싸우면서 미군에게 충격을 가하는 결전태세를 갖추게 된다. 또한 기동결전 병단인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은 항상 연안구속병단을 지원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내륙결전에서 해안결전으로 전략이 바뀌자 서남부지역의 제111사단은 예하부대를 해안가 쪽으로 전진 배치한다. 특히 산방산-단산-논오름-윌라봉-군산 일대는 제111사단의 예하부대인 보병제245연대를 중심으로 증강부대들이 배치되어 최후 결전을 준비했다.

4.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제주도내 일본군 전적지는 크게 비행장, 해군 특공기지,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구축된 방어진지들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비행장이라고 하더라도

45) 츠카사키, 2004, 258쪽.

활주로만이 아니라, 관제탑,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대공포 진지, 참호, 감시초소, 통신시설, 숙소, 대피소 등 많은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군 특공기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어진지도 간단한 개인 참호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지하호까지 다양한 형태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비행장

당시 제주도내 비행장은 해군의 대정읍 모슬포 알프르의 해군항공기지(일명 알프르비행장), 육군의 제주시 용담동의 육군서비행장(일명 정뜨르 비행장), 조천읍의 육군동비행장(일명 진드르 비행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건설된 교래리 비행장의 4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정뜨르 비행장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래리 비행장은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진드르 비행장은 활주로가 현재 제주시와 조천읍을 잇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그 주변의 넓은 토지는 농경지로 바뀌었다. 이 세 군데 비행장은 모두 현재 과거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상태이다.

반면 알프르의 해군항공기지는 국방부 소유지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당시의 시설이 가장 풍부하게 원형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1945년 종전될 때 비행장 관련 토지 면적은 80만 평에 이르렀다. 비행장 면적은 120만㎡, 활주로는 남북방향 1,400×70m, 유도로 3,500×2,500m의 규모이다. 현재 알프르비행장은 공군의 비상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 구축된 군사시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행기를 감춰 두었던 엄체호(掩體壕)이다. 엄체호는 20기가 있었던 데, 19기는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모두 콘크리트로 위를 덮은 유개(有蓋) 엄체호다. 나머지 1기는 콘크리트가 해체되어 잔해만 남은 상태다. 아래 폭이 20m, 높이가

4m에 이르는 엄체호는 근처 바닷가에서 가져온 잔자갈과 모래, 시멘트 철근 등을 혼합해서 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는 미군의 공습이나 폭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 위장했다. 활주로 옆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병커가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지하병커는 외부에서는 낮은 언덕처럼 보이도록 위장해서 만들었다. 활주로 부속시설로서 통신시설이 아난가 추측된다. 내부 벽면에는 사각형 홈이 여러 개 있으며,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안쪽에 관측용 통로가 위를 향해 나 있다.

그밖에 고사포진지 3곳, 탄약고 1동, 청사 2동, 사관숙소 2동, 병사숙소 17동, 공장, 창고, 병원막사, 지하병커 등 대규모로 시설이 들어섰지만, 현재 이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알오름 내부에 만들어진 미로와 같은 지하호가 옛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다.⁴⁶⁾

(2) 해안특공기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위기에 몰리자 1945년 들어 해안가에 자살 특공기지를 건설하였다. 해군의 자살특공대는 미군 상륙용 선단이 상륙지점으로 진입하여 병원자재 등의 상륙을 시작하기 전에 선박을 공격, 침몰 또는 파손시키는 임무를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다. 일제가 제주도 해안에 만든 특공기지는 모슬포 송악산을 비롯 북촌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성산 일출봉과 고산 수월봉 해안가 모두 5곳이었다.⁴⁷⁾ 교룡(蛟龍), 해룡(海龍), 회천(回天), 진양(津洋) 등 특공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었다.⁴⁸⁾

46) 일본 방위청에 소장된 이 지역 관련 지도(『航空基地圖』)를 보면,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군사시설 배치 상황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또한 『濟州島航空基地 位置圖』에는 알오름 내부의 군사시설 배치까지 잘 그려져 있다.

47)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 1946, 附圖 第1其2 濟州島沿岸防禦配備要圖.

48)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31쪽.

이 가운데 회천기지는 송악산과 서우봉에 구축되었으나 실제 배치되지는 않았다. 모슬포 송악산 바닷가 쪽에는 16개의 회천(카이텐)이라는 특공정을 위한 갯도를 파다. 당시 갯도를 파는 현장에 동원되었던 증언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침식 작용에 의해 길이도 많이 짧아지고,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고 한다.⁴⁹⁾ 현재는 일자형 'H'자형, 'ㄷ'자형 등 동굴식 요새 15개가 굴착되어 있다.⁵⁰⁾ 서우봉 해안의 경우는 북촌 어촌계 포구(알개)에서 동쪽으로 10개, 북쪽으로 5~6개가 구축되어 있다.

일출봉과 삼매봉, 수월봉은 진양기지로 실제로 진양대가 제주도에 주둔했다. 고산 수월봉의 경우 당시 일제가 파놓은 유도로 시설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다. 확인된 유도로 시설은 처음에는 수월봉 해안의 특공정격납고(갱도)와 연결돼 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유도로 시설에서 해안 갯도까지의 거리가 60m 정도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도로는 적어도 70m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6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 등에 의해 침식돼 10여m만 남아 있다.

(3) 방어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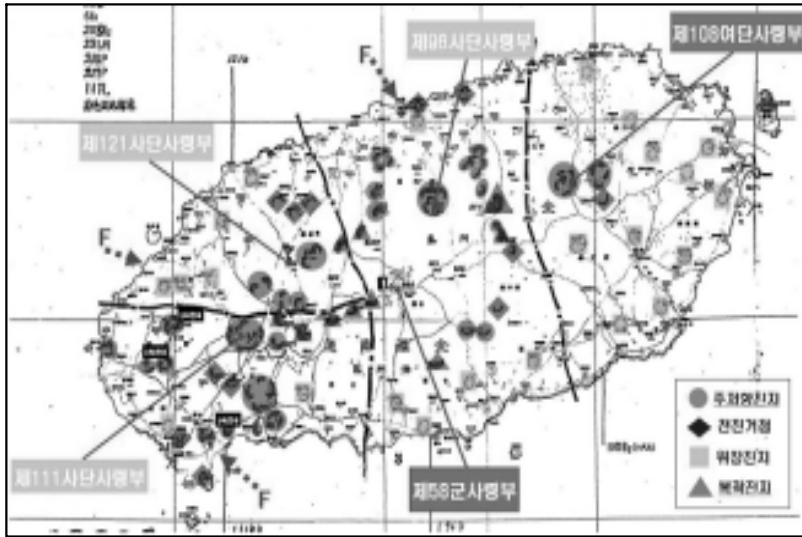
우선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두 장의 지도(<지도 1>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와 <지도 2>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의 현재 위치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는 실제 지도와 맞추어 볼 때 진지가 있는 거점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지도이므로,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새로운 전적지 분포도를 그려보았다. 그것이 <지도 3>이다.

49) 임창수(1927년생, 면답자 : 지영임, 면답일시 : 2006년 5월 27일).

김봉현(1928년생, 면답자 : 지영임, 면답일시 : 2005년 11월 5일).

50) 제주도동굴연구소, 『송악산 화산체의 해안절벽 진지동굴 측량도』,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1』, 2005, 55쪽.

<지도 3> 제주도 일본군 병력 배치도



<지도 3>을 토대로 제주도내 방어진지를 지역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우선 지역별로는 제주도 전역을 서부(主陣地帶), 중부(攻勢準備陣地), 동부(遊擊陣地)로 크게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 구분 방식에 따라서 제주도를 행정권역별로 나눠보면, 서북부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남부는 대정읍·안덕면·중문면, 중부는 제주시·조천읍·서귀읍·남원읍, 동부는 구좌읍·성산읍·표선면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본토결전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에 4종류의 진지가 구축되었다. 위장진지(偽裝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가 그것이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등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부대를 파견하여, 주저항진지에 적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뼈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력을 쏟아 부어 방어하는 진지이다. 보병의 항전지대와 후방

의 주력포병으로 구성된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 것이다.

방어진지는 모두 104개소에 구축되었는데, 위장진지 21개소, 전진거점 17개소, 주저항진지 54개소, 복곽진지 11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진지라고 할 수 있는 주저항진지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제111사단이 구축병단으로 배치된 서남부지역에 40%가,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한 중앙부에 30%가 밀집해 있다. 반면 제108여단 주둔지인 동부지역은 8개였고, 제121사단이 주둔한 서북부는 7개로 가장 적다. 최후 방어선인 복곽진지 역시 서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모두 한라산 정상에 가까운 고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지역별·유형별 전적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지역별 유형별	서남부	서북부	중 부	동 부	합계
사령부 위치	동광 당오름	애월 밭이오름	영평동 삼의악오름, 어승생악	교래 부대오름	
위장진지(수)	2	3	5	11	21
전진거점(수)	5	5	6	2	18
주저항진지(수)	22	7	17	8	54
복곽진지(수)	5	1	5		11
비 행 장	모슬포 항공기지		동비행장 서비행장	교래리 비행장	4
해군특공기지	화순리 송악산	고산리 수월봉	북촌리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성산리 일출봉	5
합 계	35	16	35	22	113

참고 : 『第58軍配備概見圖 濟州島』

제주도 서남부 지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군사거점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고 다양한 군사시설을 집중시켰다. 특히 안덕면의 군산에서 월라봉, 산방산,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오름마다 대규모 지하호를 파놓았다. 제주도내 지하호가 구축되어 있는 오름은 150여개로 추정된다. 이 오름들은 주위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고지대에 지휘소, 또는 관측소가 자리를 잡았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오름을 중심으로 주변의 넓은 개활지에 숙영지를 설치하고, 훈련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호도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것이다. 탄약이나 유류, 각종 군수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군 비행기의 공습에 대비하여 지하 사령부와 각종 사무실이 들어선 곳도 있었다. 제 111사단 보병제244연대가 배치되었던 가마오름이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현재 가마오름에는 지하갱도를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한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공개된 지하갱도 구간은 300m이지만, 실제로 가마오름 갱도는 구조나 규모면에서 다른 오름의 갱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완성도도 높다.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대형갱도 3곳을 추가 확인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규모·길이는 알 수 없다.

한편 야전에서 적의 관측과 사격을 피하기 위해 엄폐를 위한 갱도도 있었고, 적을 맞아 싸울 때 한 쪽 입구로 숨어 들어가 10~20m 떨어진 다른 입구로 나올 수 있도록 파 놓은 이동호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수평 갱도를 4~6개 정도 뚫어 놓고, 각 갱도를 연결하는 교통호를 파놓기도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현장 조사를 수행하면서 일본군이 구축해 놓았던 전쟁 관련 시설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너지거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군사시설이 들어섰던 토지 중에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는 개인 소유지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멸되고 있었다.

당시 파 놓은 지하호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지하호 중에서 상당수가 입구가 무너져 내리거나 갱도 곳곳의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에 흙이 쌓이고 물이 차서 진입(進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하호를 건설할 때 양 옆과 천장으로 갱목을 받쳐주면서 앞으로 나아갔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 갱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갱목을 가져다 사용했던 이야기들은 증언 중에 많이 나온다.⁵¹⁾

한편 121사단 예하부대들은 해안가로부터 중산간 지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에 121사단 예하부대인 대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했었다고 한다. 이 군인들이 저지대로 내려와서 구업 신업 일대 지금 일주도로변 조금 위 언덕 있는 곳에 천정이 없는 교통호, 또는 무개호를 100~200m씩 이어가면서 수십 km를 뚫다. 일단 파는 작업이 끝나면 다시 수십 m 위로 올라가서 또 무개호를 파면서 계속해서 진지를 구축했다. 이것은 일단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 저지대에 구축해 놓은 무개호에서 적을 맞아 전투를 하다가, 밀리면 이미 구축해 놓은 고지대의 진지로 이동하며 방어를 할 수 있는 진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둔 것이다.⁵²⁾

8월 15일 항복 선언이 있고, 전쟁이 끝나자 지하호를 비롯한 일체의 군사시설 구축 작업은 중단되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지하호가 많고, 파다 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⁵³⁾

51) 오항인, 2006년 2월 18일 남제주군 안덕면 군산 현장에서의 인터뷰.

52) 강종화(애월읍 장전리, 75세)의 증언, 2006년 1월 25일.

53) 따라서 어떤 지역이 완성도가 높고 정교하게 갱도가 구축되었는지, 어떤 지역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전체 구도를 그려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5. 맺 음 말

이상의 작업은 일제 말기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에 대한 역사적 접근으로,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인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병력 배치와 전력, 현재 남아 있는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문헌 자료 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연구팀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확인할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군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일본군은 본토결전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결7호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방어를 전담하는 제58군이 창설되고 그 밑에 관동군 111사단과 121사단이 투입되고, 신설된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합류해, 제주도 전역에 배치되어 미군 상륙에 대비하였다.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전투준비에 분주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민들도 비행장, 특공기지, 각종 지하 대피 시설 등을 구축하는 공사에 대부분 투입되었고, 수많은 물자 공출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문헌과 현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당시 전투준비를 위해 파놓은 100개소가 넘는 방어진지들 가운데 파괴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유적들도 많지만, 지하호를 중심으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전적지가 생생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과 해안특공기지 가운데 알뜨르 비행장을 포함한 여러 곳의 기지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제주도에 산재한 일제하 군사유적의 대체적인 윤곽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좀더 풍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본군이 남긴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일본군 관련 유적은 우리에게서 점령당했다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과거를 말해주는 부끄러운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제국 주위에 저항하며 싸웠던 의병과 독립군들의 유적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해온 반면, 일본군 관련 전쟁유적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방치되어 왔으며, 남아 있는 것들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에 밀려 조사도 되지 않은 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일본군 전쟁 유적은 무조건 파괴하여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조사, 보존하여야 이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전쟁을 벌였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유적을 통해서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상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쟁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쟁유적은 역사 속의 전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물인 셈이다. 전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전쟁을 통한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하려는 시각에서 보면, 전쟁유적은 당연히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입장에서 서더라도 전쟁유적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전쟁의 잔학성과 비참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전쟁을 반복하지 말자고 평화를 호소하기 위한 평화학습에서도 전쟁유적은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유적지는 미래의 평화운동, 반전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자신의 무관심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군사시설을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선하는 과제인 것이다. 제주도의 전적지는 현대인들에게 과거 일본군이 벌였던 전쟁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과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평화 교육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7. 2. 9,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제주도, 전적지, 일본군, 일제말기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Army and War Remains in
Jejudo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Cho, Sung-youn

This paper is to report the survey of the Japanese Army and war remains in *Jejudo*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By doing this,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historic values of the Japanese war remains which have scattered in a lot of places in *Jejudo* and obtain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easures for protection and usage. The Japanese soldiers were more than 70,000 from the spring in 1945 to the unconditional surrender. Their war remains for the defense for the homeland are army and navy's airfields, anti-aircraft emplacements, trenches, training camps, shelters, tunnels, special attack units' bases, hangars, ammunition storages, etc.

I reviewed the direction and the task of the survey as follows: how many war remains are still exist, the practices of the Japanese Army who stayed in *Jejudo*,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Army and the *Jeju* islanders who were forced to be mobilized, the strategic values of *Jejudo*, the Japanese Army's preparations for the defense for the homeland, etc.

The adopted methods for performing this included literature survey, fieldwork, the interviews with the survivors. Considering the literature survey as basic task, it is concluded that the historic study for war remains through fieldwork and the cultural anthropologic study through the interview studies with the survivors have been needed.

Especially, it is heavily focused on the interview studies which has not studied at all. When these three surveys are interwoven mechanically, its situation would appeared vividly.

Key Words : *Jejudo*, War Remains, Japanese Army, The End of the Pacific War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 사이의 상관관계

— 한국의 국방예산의 변화와 그 추이를 중심으로 —

李 必 重*

金 龍 輝**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3. 연구의 함의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한국군 창군 이래로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수단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왔다.¹⁾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철군이 네 차례 있었으나, 현재에도 미

* 국방대학교 교수

** 육군보병학교

1)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구체적 수단을 실체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2사단과 미 7공군을 포함하여 2만 9천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에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감행될 경우, 미국은 각종 첨단 무기체계를 비롯하여 69만 여명의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예정이다.²⁾ 이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핵심적인 가정사항이며, 한국의 군사전략 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³⁾ 또한 현재 한·미간에 논의가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관한 이슈를 고려할 때도 과거 주한미군의 군사력변화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정책의 상관관계를 찾는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능력의 발전과정과 군사력 건설정책의 역사적 분석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는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군사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열식 연구이다. 김일영, 이상현, 조성렬 등의 연구는 대체로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서술'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⁴⁾

둘째, 동맹이론과 동맹전략에 기반을 둔 설명식 연구이다. 김우상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온창일,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 136.

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5-2006(London: Routledge Publishment, 2005), p. 287.

3) 2004년도 한국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군사력 운용의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군은 유사시 한국으로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병력 69만 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에 대하여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 『200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4), pp. 54-61 참조.

4) 한용섭 편, 『자주나 동맹이나』(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4), pp. 11-12 참조.

고,⁵⁾ 전제성 역시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탈냉전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선험적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객관화 되어진 수치를 통한 연구이다. 이필중은 국방경제학에 바탕을 두어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산술적 접근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한용섭 역시 군비통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⁶⁾

이중 세 번째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내 안보전문가들에 의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군 군사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개념적 설명’ 외에 다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군 군사력 건설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의 개략적 군사전략,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에 따른 군사력의 변화, 즉 시기별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국방정책,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정책을 분석하겠다.

5) 김우상, 『신한국책략 : 동아시아 국제관계』(서울 : 나남출판, 2002), pp. 60-67 참조.

6)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 박영사, 2004), pp. 128-131.

2.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제2차 주한미군 감축(1954~1965)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기까지, 미국은 압도적인 ‘핵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50년대 초반, 트루먼(Truman) 행정부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나, 아이젠하워(Eisenhower)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 등은 세계전략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엿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⁷⁾

이러한 미국의 전략변화는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내 상원의원들과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단 1년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의 규모를 무려 1/3수준으로 감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소련 핵전력 우위’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2차 철군시기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2차 철군이 단순히 미국의 ‘핵전력 우위’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의 일방적 감축’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최초계획 중 ‘주한미군, 그 중에서도 지상군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

7) 이 같은 전략은 ‘절대위협’으로써의 핵무기가 지닌 ‘억제의 최종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핵무기를 전제로 수립된 미국의 초기 핵정책으로 수립되어졌다. 남정욱, “미국 군사전략의 발전적 분석 고찰,” 『군사연구』 제114집(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pp. 77-81 참조.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부터 1956년까지 22만 3천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7만 5천명 선으로 급격히 감축한 이후 1971년까지 무려 15년간 연평균 6만 여 명의 미 지상군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주둔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한미군 2차 철군 이후 미국은, 1957년 일본에 있던 유엔사령부를 한국으로 이전하였고, 1954년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⁸⁾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주한미군 2차 철군시기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 증대와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염두했던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6·25전쟁 이후 1965년까지, 한국의 국방정책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 양극체제와 한반도의 양극체제가 서로 중첩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매우 단순하고도 분명했다는 점이다.⁹⁾

둘째, 당시 한국은 자력으로 국가를 방위할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을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계철선’이 필요했다. 당시 휴전선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던 미 2사단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8) 이와 함께 오산에 위치해 있던 제5공군사령부를 일본 나고야로 옮겨 한반도에서의 전투 환경을 확장시킨 것은 ‘주한미군 2차 철군’에 따른 한반도 내(內) 미국의 억제력 감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9) Kang, Sung-Hack, “Crisis Management under Armisti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Vol. 31, No. 4(Winter 1991), pp. 24-25 참조.

셋째,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대 소련 핵전력 우위를 기반으로 주한미군 2차 철군과 원시적·일방적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으로, 1950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대부분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이후에도 한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연합방위전략’이었다.¹¹⁾ 당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의지는 독자적 군사전략을 구사하기에 대단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유지 상황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61년 5·16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제3공화국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¹²⁾

냉전기 자유진영의 범세계적 기치는 반공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철저한 반공 중심의 혁명정부였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반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도 끼치지 않는 박정희 혁명정부는 한국 내부의 거센 민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암묵적인 용인을 얻는데 성공하였다.¹³⁾

10) 특히, 1953년부터 1961년까지는 한국의 ‘전후복구기’로서, 국방소요의 대부분을 미국의 유·무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한국은 단년도 중심의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만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한국은 중기 및 장기 차원의 목표에 의한 계획수립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박기철,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5), p. 4 참조.

11) 장문석·김현기, “한국의 군사전략의 변천과 미래 전략 선택방향: 1945년 이후,” 정책연구보고서 97-9(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7), p. 63 참조.

12) 그러나 박정희 정부 이전에 한국군의 재정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8월, 장면 정부(제2공화국)가 출범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감군(減軍)정책과 함께 정군(整軍)정책이 추진되었다. 다만 장면 정부의 정군정책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미국정부와 한국군내 정군 대상자들의 조직적 반발 그리고 장면 총리를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 의지 저하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정책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홍준기, “제2공화국의 국방정책 평가,” 『軍史』, 제58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276-280.

13) 박정희 정부의 대미 공조 의지 및 안보성향은 5·16혁명의 목적과 목표가 내포된 혁명공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25-126 참조.

<표 1> 한국군 현대화와 브라운 각서

구 분	브라운 각서의 주요내용
한국군 현대화지원 분야	• 향후 수년에 걸친 상당량의 장비의 제공 • 월남파전 증파병력에 대한 대치 및 보충 병력의 장비와 훈련 소요재원(재정) 부담 • 한국 내 탄약생산 증가를 위한 병기창 확장시설 제공 • '67 회계연도에 계획된 품목 중 가능한 품목을 한국에 조달

출처 :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1994), pp. 17-18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러한 양국 간의 밀월관계는 1960년대 초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부터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하였다.¹⁴⁾ 1965년 7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전 파병을 전격 결정하였으며, 이후 1973년 3월 완전철군까지 8여 년 동안 총 34만여 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으로 파병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태도변화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는, 한국군 베트남파병 중 미국이 제시한 ‘브라운 각서’에서 찾을 수 있다.

1965년 이후 한국군 군사력 건설은 전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원조를 근간으로 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당시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브라운 각서’를 기초로 한 노후 장비의 교체 및 향후 수년에 걸친 상당량의 장비 획득이 주를 이루었다.

14) 최초의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1964년 9월에 제1이동외과병원 병력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의 파견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추가 파병함으로써 베트남파병은 본격화 되었다. 앞의 책, pp. 128-129 참조.

따라서 초기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특징은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를 통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의 기반조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한국의 초기 군사력 건설기간 중, 국방재원의 부족은 군 장비의 현대화가 한계에 봉착하게 했다.¹⁵⁾ 그러나 1963년부터 1970년까지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과 GDP 대비 국방예산은 각각 평균 26%와 3.9%로, 이는 한국과 비슷한 안보환경을 가진 당시의 여느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¹⁶⁾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8%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 국방재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1960년대 한국의 안보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병력과 무기체계의 수준에 있어서 주적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겨우 50%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¹⁷⁾ 더욱이 한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정전협정)을 통하여 겨우 몇 킬로미터(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긴장상태 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한국의 노력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으로 집약되어졌다. 실제로 1966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은 상당량의 무기체계들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해당연도의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15) 앞의 책, pp. 147-148 참조.

16) 앞의 책, p. 52, p. 431 참조.

17) 더욱이 북한의 ‘독자적 군사 전략기(戰略期)’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1970년 초까지, 북한은 ‘남조선 혁명 전략’을 앞세워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었다. 정병호, “북한의 군사전략,” 안보문제연구소 편, 『2005년 한반도 전략평가 : 김정일 ‘선군정치’ 10년의 평가와 전망』(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p. 64-65 참조.

당시 도입되었던 무기체계들을 구매하거나 대여하기에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은 <표 2>로 제시된 미국의 군사원조 규모에서 찾을 수가 있다.¹⁸⁾

<표 2>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현대화계획 성과(1966~1971)

(단위 : 억 원)

구분	한국의 국방예산	군사 현대화	국내재원	미국의 군사원조			
				소계	대총지원	파월지원	직접지원
1966년	405.4	15.8	146.2	575.4	259.1	·	316.2
1967년	495.5	35.6	221.8	669.5	245.7	28.0	395.8
1968년	647.0	65.3	425.0	983.6	194.3	27.6	761.6
1969년	843.8	111.3	666.4	515.5	157.0	20.3	338.2
1970년	1,023.5	103.3	897.0	858.4	126.5	62.0	669.9
소 계	3,415.2	331.3	2,356.4	3,602.4	982.6	137.9	2,481.7
1971년	1,348.5	146.9	1,323.5	1,183.5	25.0	71.0	1,087.5
총 계	4,763.7	478.2	3,679.9	4,785.9	1,007.6	208.9	3,569.2
1971년 획득된 장비 및 자금사용내역			장 비		신규장비금액	초과품장비금액	총계
			항공기 6개 중, 해상장비 3개 중, 화력장비 9개 중, 기동장비 10개 중, 공병장비 17개 중, 통신장비 8개 중, 기타장비 18개 중		15,854만 달러 ≒ 466억 원	5,600만 달러 ≒ 164억 원	21,454만 달러 ≒ 630억 원
					1966~1971년 평균 원/달러 환율=294.3		

출처 : 국방부 재정국, 『국방예산통계』(서울 : 국방부, 1972), pp. 316-317; 윤석환 · 이필중, “21세기 한국의 적정 군사비”(서울 : 국방대학교, 2000), p. 64; 국방부, 『국방사 3』(서울 : 국방부, 1900), p. 29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06. 3. 30)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18)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비용은 331억 원 규모로써 당시의 ‘군 현대화계획’이 100% 무기구입 비용임을 감안할 때, 1971년 기준 장비획득 자금 약 630억 원(21,454만 달러)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차상철, 『한미동맹 50년』(서울 : 생각의 나무, 2004), p. 133 참조.

1953년부터 1962년까지의 전후복구기에 GDP 대비 6% 이상의 정부재정이 국방부문에 투입됨으로 군사력 건설 우선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던 반면, 1960년대 중반 이후 국방예산은 그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방정책은 ‘선 경제성장, 후 군사력 건설전략’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확연히 벗어나 있었다.¹⁹⁾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국방예산 누계는 총 3,4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재정 누계 대비 24.5%, GDP 누계 대비 3.8% 수준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군사현대화에 소요된 비용은 331억 원으로, 국방예산 대비 9.7%에 그쳤다. 국가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국내재원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순수 국내재원 대비 군사현대화 비용은 약 14.1%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 같은 수치를 1971년 획득된 장비 및 자금사용내역과 비교하면, 사용금액 총계 630여억 원은 한국의 한해 국방예산 총액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초기 군사력건설 단계의 국방재원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반면, 한국의 자체 군사력 건설투자비용은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3차 주한미군 감축(1969~1971)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주둔정책

1960년대 후반,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소간의 냉전구도는 일대 변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닉슨은 이미 이데

19) 1963년 이전까지 한국의 재정정책은 중앙정부재정의 30%를 국방부문에, 20%를 사회개선에, 30% 정도를 경제개발 부문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약 28%가 사회개발에, 그리고 30% 이상이 경제개발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선 경제개발정책’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윤석환 · 이필중, “21세기 한국의 적정 군사비”(서울 : 국방대학교, 2000), pp. 61-62 참조.

올로기적 경직성 탈피와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구상하고 있었다.²⁰⁾ 이러한 그의 정책노선은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1969년 중국 방문과 ‘괌 독트린’(Guam Doctrine) 발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괌 독트린)’은 단순히 닉슨 대통령 개인의 선언적 군사전략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기까지의 국제정치현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극체제를 수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전쟁이었다.²¹⁾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핵무기 딜레마에 의하여 현상유지가 이루어지면서 재래식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던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기간 중 추진되어졌던 케네디 행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충 정책은, 당시 석유산유국들의 담합으로 인한 석유과동 전초전과 함께 미국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국내 반전여론과 고질적인 정부 재정적자는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전격적 감축을 결정하게 하였다.²²⁾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을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었다. 10년 넘게 계속되어오던 소련과 중국의 마찰이 1969년에는 무력충돌(우수리강 국경분쟁)로까지

20) 유찬열,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전개,” 이범준 편, 『미국외교정책』(서울: 박영사, 1998), p. 81.

21) 유찬열은 베트남전쟁을 ‘닉슨 독트린’ 조성의 정치적·재정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의 책, 82-83 참조.

22) 이 기간(1969~1971) 동안 아시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은 총 44만 3,300명이 감축되었으며, 그중 주한미군은 주(駐)베트남미군 다음으로 많은 2만 명의 병력이 감축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방예산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1968년 기준 GDP 대비’ 9.4%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후 미국과 소련의 상호 ‘데탕트 정책’으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Tatsuro Yada, “Recalibrating Alliance Contributions: Changing Policy Environment and Military Alliances,” *Graduate School dissertation series* (Santa Monica: CA: RAND Corp., 2005), p. 113 참조.

격화되자, 미국이 이를 계기로 세력균형의 변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1972년에 중국과의 수교를 공식화함으로써 기존의 ‘2와 1/2 전략’에서, 소련과의 전면전쟁인 ‘1’과 동북아 지역 및 중동 지역에 대한 ‘1/2’을 합친 ‘1과 1/2 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대변혁을 꾀하게 되었다. 이는 다극화 시대의 대탕트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략변화는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닉슨 독트린’ 구현은 미 국방장관의 철군계획발표와 주한미국대사의 철군계획통보로 이어졌으며,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군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졌다. 이후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한·미 양측의 최종 합의가 반년 넘게 진행되었으나, 철군 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미국은 1969년 3월 ‘포커스 레티나 훈련’, 1971년 3월 ‘프리덤 볼트 훈련’과 같은 대규모 공수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대응태세의 불변과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상존을 과시할 뿐이었다.²³⁾

2)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한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은 그 대상 기간을 1971년에서부터 1975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초기 군사력 건설과 육곡사업이 맞물리는 기간으로써,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획기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평가될

23) 1973년 한·미 1군단 사령관으로 임명된 홀링스워스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주한미군에게 부여된 기존의 기본적인 작전개념을 ‘방어’에서 ‘공세’로 변환시켰으며, 105밀리 곡사포를 포함한 대규모 야포부대를 비무장지대 남쪽 최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 ‘전진방어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해 당시 불안에 떨던 한국인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러한 전략변화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야포를 비무장지대로 전진 배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91; 고대승·고경은 역,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한울, 1993, pp. 198-200 재인용.

만하다. 때문에 이 시기 군사력 건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국안보의 한국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의 시발점은 1960년대 후반, 북한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군의 인식차이와 미국이 보여준 대응태도의 양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8년도에 일어난 1·21사태의 경우, 동맹국가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시해미수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였다. 반면 자국 국민과 관련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북협상을 통하여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²⁴⁾

존슨에 이은 닉슨 행정부 역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닉슨 독트린)를 보임으로써,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행보는 발 빠르게 진행되어졌다. 특히, 1968년도 방위산업 육성목표 하에 진행되어진 기본병기 국산화 사업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의 1차 목표로 추진되었다. 1972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4,2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투자하여 M-16 소총공장을 완공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자주국방력 배양을 위한 방위산업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⁵⁾

이 같은 한국군 현대화 진행과정을 볼 때, 1960년 후반 한국 국방정책의 특징은 자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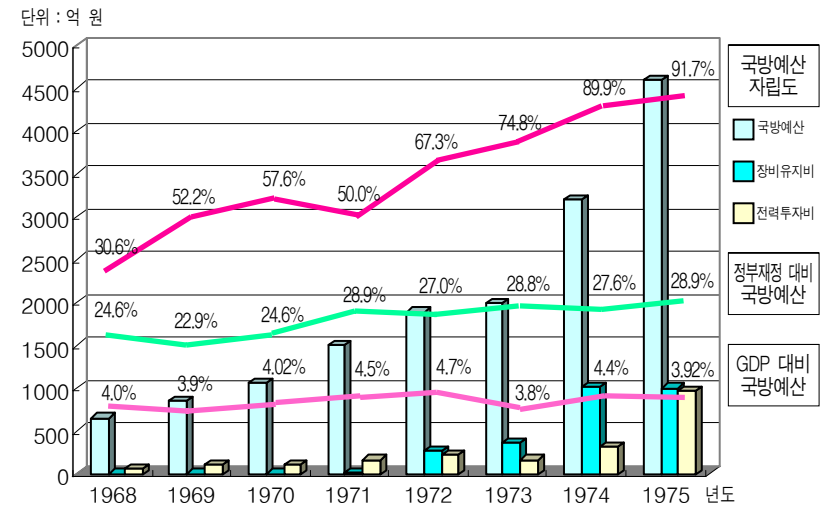
박정희 정부의 ‘한국안보의 한국화 정책’은 1970년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정책에 앞선 최우선 정책이었다.²⁶⁾ 한국안보의 한국화라는 모토가

24) 이영찬,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8), pp. 103-108.

25)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36-138 참조.

말해주듯, 당시의 국방정책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1968년 ‘방위산업 육성목표’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국방예산 중 전력투자비의 비중을 급격히 향상시켰다.²⁷⁾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국방예산 중 30%가 전력증강에 투자됨으로써,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국방예산 자립도는 90%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림 1>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방예산추이



출처: 국방부 재정국, 『국방예산통계』(서울: 국방부, 1972), pp. 316-317; 윤석완·이필중, “21세기 한국의 적정 군사비”(서울: 국방대학교, 2000), pp. 52-64; 국방부, 『국방사 3』(서울: 국방부, 1900), p. 293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

26) 앞의 책, p. 201 참조.

27) 이 기간 중 전력투자비의 90% 이상이 무기 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었음으로 1972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장비유지비는 한국군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에 대한 미국의 재원지원은 신규 군사원조가 8억 4,190만 달러, 초과품 장비비가 1억 4,610만 달러, 대외군사 판매차관이 5억 2,820만 달러 등 총 15억 1,620만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신규 군사원조의 경우 전체 8억 4,190만 달러 중 3억 7,000만 달러가 정상 군사원조(부대 운영비, 훈련비 기타 등)임을 감안할 때, 총 11억 4,100만 달러가 국군현대화 계획에 배정된 실질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한국 국방예산 중 평균 25.4%(해외 군사판매 4.8% 포함)를 차지하는 금액으로써, 미국의 무상지원이 1981년도에 중단된 것을 감안할 때,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 한국 군사원조정책에 명백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 한국 지원정책의 변화는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는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야기시켰던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결국 동맹국에 대한 군사지원 역시 감소시켰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시발점이 되었던 1970년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국방예산과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규모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또는 5% 미만의 상승)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른 국방예산의 동반증가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방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국방예산의 비중이 전후복구기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나가는 것 역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전후복구기의 국가 목표만큼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정책으로 평가될 만하며, 전력투자의 증가와 국방예산 자립도 향상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 4차 주한미군 감축(1977~1978)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주둔정책

1977년에 들어선 카터 행정부의 집권 초기 외교정책은 인권정책을 통한 국제환경의 평화분위기(테탕트)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유화정책은 우방국에 대한 군사정책의 후퇴로 이어졌으며, 이와 함께 제3세계에 대한 소련의 세력 팽창은 급속히 진행되어 나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지시 제59호를 통해 유연반응전략에 기반을 둔 ‘상쇄전략(Countervailing Strategy)’과 아시아 지역의 ‘해외주둔 미군전력에 대한 유럽지역으로의 전환전략, 즉 ‘스윙(Swing Strategy)전략’을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채택하였다.²⁸⁾

1977년 3월 9일, 카터 대통령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1978년부터 4~5년에 걸쳐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군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는 공군을 제외한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미 2사단은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실질적인 주력이었다. 더욱이 1970년대 후반, 북한의 포병전력이 이미 비무장지대로의 전진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음으로 미국이 미 2사단을 완전히 철군시키게 된다면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승 가능성을 오판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억제력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이후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철군취소를 호소하였고, 미국 내 주한미군 철군 반대여론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1979년 2월 9일, 카터 대통령은 철군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였으며, 1981년에는 주한미군 철군중지를 발표하기에 이른다.²⁹⁾ 결국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은 제1진인 3,400명의 지

28) 윤덕민, “신 세계질서와 미국의 핵 정책,” 『국방논집』 17호(한국국방연구원, 1992년 봄), pp. 7-9 참조.

상군이 철군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로써 주한미군 4차 철군은 주한미군의 전체적인 구조나 군사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징적인 철군으로 남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 지상군 완전 철군계획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³⁰⁾ 최초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은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써 계획되어졌으나, 철군계획이 철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하여 소련과 맺었던 전략무기제한회담Ⅱ(SALTⅡ)의 조약 비준이 미 상원에서 철회되어졌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 이후 양분되었던 미국 내 군비감축론자와 군비증강론자 사이의 대립에서 군비증강론자의 입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³¹⁾ 바야흐로 미·소 관계는 신 냉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의 전면철회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되었다. 당시 소련은, 1970년대 데탕트 정책으로 국방비의 제한을 받던 미국과는 달리 재래식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1970년대 후반에는 이미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은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에서 만큼은 해외주둔 미군의 영향력, 즉 대북 억제력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4차 철군의 전격적인 철회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9)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95.

30) 1977년 5월부터 미국은 한국과의 ‘주한미군 철군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연합사령부’의 창설 또한 논의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594 참조.

31) 지효근, “한미동맹결속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학술교류세미나 논문집』(서울: 국방대학교, 2005), p. 50 참조.

이후 1980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 소련 억제력 강화 노력은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다.³²⁾ 특히,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동북아시아·태평양의 전진전력배치계획에는 한·미·일의 통상전력 강화와 미국의 핵우산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³³⁾

결국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의 철회 이후,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신 냉전체제의 도래는,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하여금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정책의 강화로 돌아서게 하였다. 이로써 카터 행정부 초기의 축소 지향적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레이건 행정부의 주한미군 군사력 현상유지 결정과 전략적 무기체계의 추가배치 가능성 등으로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1차 울곡사업의 시작은 실제로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과 탄약공장의 건설, 그리고 지상군 장비의 한정적 조립생산과 소형 해군함정 및 항공장비 생산 시설 착공 등은 이후 1, 2차 울곡사업의 기술적 원동력으로 평가될 만하다.³⁴⁾ 그러나 1970년대 초, 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은 당시 북한 군사력의 50% 내외로 평가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197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률 역시 향후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청신호

32) 레이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기치 아래, 대(對) 소련 군사력 우위 확보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국방예산의 엄청난 증액을 통한 군비 증강을 실천에 옮겼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첫 4년 동안 국방비 지출은 약 2,000억 달러에서 2,640억 달러로 무려 3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시 미국 GDP의 1.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차상철, 『한미동맹 50년』(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 190 참조.

33) 뿐만 아니라 레이건 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수를 카터 대통령이 철군정책을 실시할 때의 규모보다 3,000명 더 많은 4만 3,000명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1972년 이래 최대의 병력규모였다. 미·소간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은 과히 대리전의 양상을 띠었으며,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對北) 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준하, 편집실 편역, 『레이건 정부의 한태평양 정책』(서울: 인간사, 1985), pp. 236-239 참조.

34) 윤석완·이필중, “21세기 한국의 적정 군사비”(서울: 국방대학교, 2000), pp. 62-63 참조.

일 뿐이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무기에 의한 대북 억제력 유지는 계속 되었고, 1974년부터 한국은 연합전비태세 강화와 한반도 전쟁억제력 제고를 위한 ‘연합방위 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을 시작하게 되었다.³⁵⁾

이와 함께 전략무기에 대한 한국의 관심 역시 계속되어졌다. 특히 비밀리에 추진되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개발 계획과 북한의 FROG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미사일개발 계획은 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³⁶⁾

여기에 1976년 카터 대통령의 취임은 한국정부의 군사력 건설 의지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정부와의 사전협조 없이 발표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완전철군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가중시켰으며, 이와 함께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완전철군계획은 미국의 대 중국 화해정책 수단으로 규정되어졌다. 특히, 1974년 5월 예기치 못한 인도의 핵실험 성공으로 핵무기확산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저지공작이 시작되었다. 결국, 1977년 1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포기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한국의 자주국방 달성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 4월 한국은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6일에는 국산 유도탄 ‘백곰’이 시험발사에 성공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는 실로 한국 군사력 건설의 한 획을 긋는 중대사건이라 할 것이다.

35) 1974년부터 시작된 ‘연합방위증강사업’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무기체계, 장비, 기술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 연합사령부’와 같은 조직의 마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645 참조.

36) 차상철, 『한미동맹 50년』(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 154.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전략무기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소총과 탄약 생산의 한국화를 기반으로 획기적 수준의 전력증강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완전철군계획은, 한국군 1차 전력증강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차 율곡사업’이 이미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완전철군 계획 발표 이후 율곡사업의 발전은 전략무기 확보 노력과 2차 율곡사업의 구상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FROG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많았으며, 1972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의 개발이 추진되었다.³⁷⁾

그러나 1979년, 10.26사건과 12.12사태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지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시 정통성이 미약했던 전두환 정부는 대미 관계개선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1970년대 후반까지 강도 높게 진행되어 오던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은 한·미 연합전력의 테두리 안에서 하향조정 되고 말았다. 전두환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1980년대 초, 제2차 율곡사업의 특징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2차 율곡사업은 F-5 전투기의 기술도입·생산과 한국형 구축함의 건조, 야포 및 한국형 전차·장갑차의 개발 등에 집중함으로써,³⁸⁾ 무기체계에 대한 자체연구개발보다는 고도정밀병기의 수입과 선별적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1979년 11월 한·미 미사일 각서로 대북 공격용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으로써, 1차 율곡사업 중 진행되어온 전략무기 확보사업은 일시에 무효화 되어버렸다.³⁹⁾ 이로써 남·북

37) 1976년, 한국은 사정거리 200km의 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9년까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였다. 차상철, 『한미동맹 50년』(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 154 참조.

38)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무기체계의 상당수는 제2차 율곡사업을 통해 획득된 것들이다. 그러나 2차 율곡사업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군은 노후한 무기체계의 교체소요와 차기(次期)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소요의 증가로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 37 참조.

한 미사일 능력의 격차가 현격해지기 시작했으며, 무기체계의 도입을 비롯한 관련기술 전반에 걸쳐서 대미 의존도는 다시금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초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이다. 제4차 주한미군 철군 당시 주한미군의 병력은 3만 9,000명 정도였으나, 레이건 정부 집권 1기를 거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는 4만 3,000명으로 약 4,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다.⁴⁰⁾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미 관계개선 노력으로 주한미군 군사력의 현상유지가 보장됨으로써,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으로 다시금 부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결국, 독자적 전략무기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이라는 울곡사업 고유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3) 한국의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울곡사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는 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제1차 울곡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6년에는 한국의 국방예산 자립도가 9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국방비 역시 급증하게 되었다. 1976년 시작된 방위세 신설을 포함하여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제1차 울곡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3조 1,402억 원으로 이는 국방비 대비 31.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닉슨 독트린 이후 고조되어진 한국의 안보불안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방정책은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한국은 ‘자주국방 추진기’를 맞이하게 된

39) 1979년, 한국정부는 나이키 호크 미사일 개량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한다.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 박영사, 2004), p. 357 참조.

40) 당시 레이건 정부의 군사전략은 소위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써, 구소련의 대전구 동시다발 분쟁 가능성을 대비한 전략구상이었다. 이 기간 중 레이건 정부의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은 매년 14% 이상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전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모두 압도적 승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것이다.

이후 제1차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이어서 본격적인 전력증강사업(1차 울곡사업: 제2차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1979년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⁴¹⁾ 그러나 이 같은 전력증강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분산과 무기체계 선정의 착오 등으로 대북 전력격차는 1973년 49.2%에서 1981년 45.8%로 약 3.4% 줄어드는데 그쳤다.⁴²⁾ 이와 더불어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4차 철군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에게 있어서 독자적 전력개발은 절실한 사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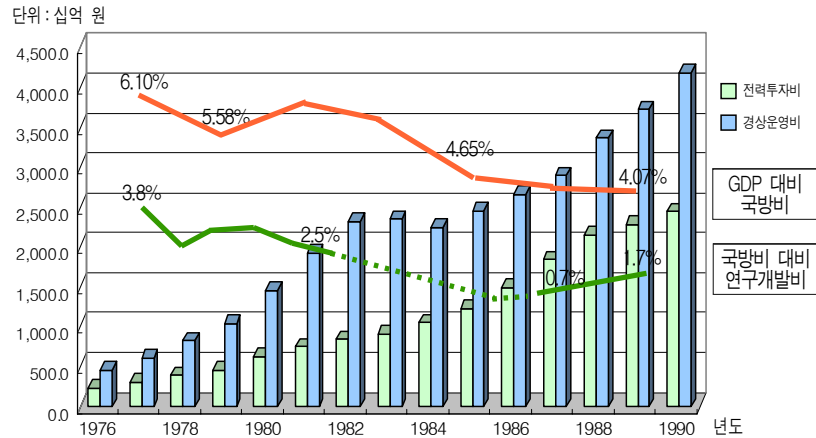
1982년부터 1986년 기간의 제2차 울곡계획은 1983년 예산개혁 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목표지향형 고정계획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계획으로 변경되었다. 2차 울곡계획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도 이때부터였으며,⁴³⁾ 울곡사업 본연의 자주국방 목표는 주변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전두환 정부가 자주국방의 의지가 저하되었던 정부로 평가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성향은 한국군의 연구개발 투자비 추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1981년 2.5%이던 연구개발 투자비는 전두환 정부가 마감되던 1987년에는 0.7%(약 330억 원)로 줄어들면서, K-II 유도탄 개발을 비롯한 한국의 자주적 국방 연구개발 사업 역시 1979년 한·미 미사일 각서와 함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41)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4월 14일, 『항공공업 육성계획 수립지시』의 제목으로 극비리에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것을 ADD에 지시하였으며, 유도탄 개발은 ‘1차 울곡사업’으로 확정되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명, “한국의 미사일 정책 결정요인 분석”(서울 :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1999), p. 57 참조.

42)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169 참조.

43) 당시, 국방중기5개년계획의 ‘고정계획’이 ‘연동계획’으로의 변환된 것은 울곡계획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변화요인을 매년 수정·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앞의 책, p. 269 참조.

<그림 2> 자주국방기 국방예산의 구성과 추이(1976~1990)



또한 2차 율곡사업 기간(1982~1986) 중 GDP 대비 국방예산은 1.5% 줄어들었다. 이중 전력증강 투자비는 1983년 28%에서 1987년 38.8%로 증가되었으나, 당시의 전력투자비 증가가 대부분 무기의 도입에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군사력 건설은 선별적 무기체계의 직수입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율곡사업 고유의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5차 주한미군 감축(1990~1992)과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주둔정책

1980년대 말, 지난 40년간 국제정치의 근간이 되어왔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은 새 시대에 걸맞은 세계전략을 구상해야 했었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의 미국의 전략보고서들은, 천편일률적이었던 냉전기의 전략보고서들과는 달리 빈번한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전략구상에 대한 미

국의 노력은 1989년 3월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내 조야를 중심으로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재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9년 7월 31일, 민주당의 년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 의원을 포함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골자로 한 ‘년 워너 수정안’이 미 상원 본회의에 제출되게 되었다.⁴⁴⁾ 일명 ‘이지(EASI-I: East Asia Strategy Initiative)’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전략구상은 바로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대통령 보고서인 것이다.

그러나 EASI-I의 실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EASI-I는 처음 출발부터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구상되어진 전략이었음으로, 결국 국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1991년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환경에 묵과할 수 없는 이변들이 속출하면서, EASI-I 역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게 되었다.⁴⁵⁾

결국, EASI-I은 EASI-II와 EASR(East Asia Strategy Report)의 동아시아 정책구상들로 대체되어졌으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비록,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변화로 EASI-I 계획은 그 중 일부(1단계 주한미군 철군)만이 실행되는데 그쳤으나,⁴⁶⁾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의 철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한미군의 군사력 면에서는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는 소련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상응조치로 전 세계에 배치된 지상 및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711 참조.

45) 이춘근, “미국의 신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백종천 편, 『분석과 정책: 한미동맹 50년』(서울: 세종연구소, 2003), pp. 247-252 참조.

46) EASI-I 이후 발표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중, 1995년 2월 27일 발표된 EASR은 EASI-I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후 동아시아에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를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발표됨으로써 동북아에서 담당해 왔던 미군의 군사적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차상철, 『한미동맹 50년』(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 222 참조.

해상발사 핵무기를 전면 철군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미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협상의 수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정부 일각에서 대두된 바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전술핵무기의 철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991년 12월 31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중 가장 직접적인 대북 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졌으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⁴⁷⁾ 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와 한국의 비핵화 선언 등은, 이후 한·미의 대북 억제전략 구상과 대북 협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5차 주한미군 철군기간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물론 지역안보 증진을 위한 미래 안보환경 조성에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2차 율곡사업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군 군사력 건설사업은 대체로 1, 2차 율곡사업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한 전력보강사업이었다. 1980년대 중반,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중점과제는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전력보강과 대북 방위전력 확보였다.⁴⁸⁾ 그러나 1990년대 초 독일 통일과

47) Daniel A. Pinkston, "Nuclear Program's Impact on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KNDU Review*, Vol. 8, No. 2, December 2003, p. 5 참조.

48)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1994), p. 40 참조.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국제환경에 변화가 일면서 이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어졌다. 특히, 탈냉전 이후 포괄적 안보 및 군비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결구도 역시 변화되었다. 1990년 초반 한국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 가능성을 높여나갔다.⁴⁹⁾ 또한 1994년 제네바협정으로 북한의 핵개발 사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면서, 군사력 건설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었으며, 1992년까지의 북한대비 한국의 군사력 규모 역시 겨우 71%에 불과하였다. 박춘삼의 '북한 군사비규모 판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한국의 군사비 누계는 북한의 군사비 누계 대비 약 9%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 공산권 국가의 전력투자비 비율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력투자비는 한국의 전력투자비에 1.6~2배 정도로 평가된 바 있다.⁵⁰⁾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도 여전히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초, 미국은 3단계 주한미군 철군계획을 골자로 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I)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기정사실처럼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과거와는 달랐다. 1989년 한·미간 주한미군의 감

49)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에 뒤이은 남북한 경제회담 개최로 남북한간 경제·교육협력이 시작되었다. 이상목, "안보전략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상관성 증진 방안," 『남북교류시대의 북한군사력과 북한정세』(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p. 124-125 참조.

50) 박춘삼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남·북한 군사비 누계 대비에 대하여 1977년도 불변 달러화를 적용하였다. 또한 북한의 무기구입비, 건설비,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가격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권국가들과 상이했음으로 높은 수준의 군사력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춘삼, "북한 군사비규모 판단," 『국방논집』 제15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1), pp. 94-99 참조.

축계획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지나친 부담보다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다.⁵¹⁾ 주한미군 5차 철군에 대한 협의는 과거 주한미군 철군협상과는 달리,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슈는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국의 군사력 건설정책은 자주적 방위전력과 억제전력의 단계적 확보를 그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high-low mix개념의 무기체계 배합과 해·공군의 군사력건설이 상대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⁵²⁾ 무엇보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전에 군사력 건설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간 갈등과 함께 한국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국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군사력 건설정책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 기간 중 추진되어졌던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연구(일명 818계획)는 유명무실화 되었으며,⁵³⁾ 이를 토대로 계획되었던 군사력 건설계획들은 물론 자주국방정책 자체가 유보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3) 한국의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1980년대 후반, 1986년도 아미타지 보고서 이후 우려되어왔던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1987년 FMS(Foreign Military Sales) 차관마저 중단되었다. 당시 미국은 1억 6,300만 달러의 군사판매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방향은 한국군 장비현대화를 통한 한국군의 방위분담 증가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수혜국 위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한미군 5차 철군계획 중 안보공백을 고려한 미국의 주한미군전력의 강화에 대한 한·미간의 군사협력이 미약했던 점과, 노태우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가치를 다시 올리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주둔정책의 변화에 기이한 것이었다. <그림 3>은 방위비 분담기의 국방예산 구성 및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변화와 주한미군 현상유지 결정은 한국의 전력투자 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으로 한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을곡사업 추진 당시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다.⁵⁴⁾ 둘째로는 1991년 체결된 제1차 방위비특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특별협정)에서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 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1/3을 한국이 분담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군사력건설 외에 추가적인 국방예산 지출항목을 가지게 되었다.⁵⁵⁾ 이는 1990년대 한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재원 운용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1)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46~14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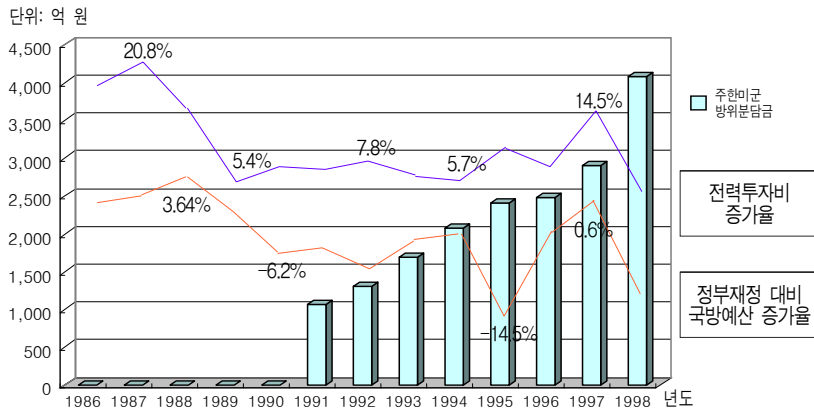
52) 당시 한국군은 작전효율성과 군비통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가의 고성능 무기와 저가의 저성능 무기를 배합한 'high-low mix' 개념으로 무기체계의 발전을 꾀하였다. 앞의 책, pp. 316~317 참조.

53) 국방부, 『정보·지식 기반 국방력 창출을 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서울: 군인공제회, 2003), p. 286.

54) 1990년대 초반, 한국의 GNP성장률은 13.7%이었고 정부재정 증가율은 15.9%이었으나, 국방비는 정부의 타부서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한국군은 계획된 전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308 참조.

55) 당시 한·미 양국은 1995년까지 1991년의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 Won-Based Costs)이 개략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WBC의 1/3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증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571 참조.

<그림 3> 방위분담기 국방예산의 구성과 추이(1986-1998)



(5)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2006~2012)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

1)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다분히 미국 우선주의적 시각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다.⁵⁶⁾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포용’과 ‘확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압도적 힘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말미

56)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를 지배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직에 진출한 신보수주의자 중 상당수가 ‘새 미국 세기(世紀)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의 회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NAC의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적 원칙을 전 세계에 소신 있게 펼쳐야 한다.” 즉, 이것이 미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문화사, 2005), p. 172 참조.

암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성격이 ‘방어와 반격’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는 2001년 ‘9·11테러’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본토방위’와 ‘테러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핵심개념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 선제공격’, ‘예방적 개입’, ‘핵무기 사용 불사’, ‘불량국가에 대한 적극적 정권교체’ 등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하게 되었다.⁵⁸⁾ ‘9·11테러’의 충격속에서 만들어진 2001년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의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지정학적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가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부상, 우방동맹국들의 중요성 부각,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의 접근성 제고, 전진 배치된 군사력의 유지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중심 역시 경제에서 군사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⁹⁾

이 같은 미국의 안보전략기조는 『2006년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이동과, 테러리스트들과의 연계성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선제공격 역시 정당화 되고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일지라도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어능력이 부족한 정부나,

57)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문화사, 2005), pp. 233-234 참조.

58) 앞의 책, p. 175 참조.

59)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주요전쟁 대비 전략으로써 이른바 ‘1-4-2-1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실패한 국가와 비대칭 위협, 그리고 미래 잠재적 경쟁자 등장저지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의 책, p. 265 참조.

60) 이와 함께 2006년도 QDR에서는, 예상되는 대량살상무기 보관소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찰과 감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제공격의 실행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Pentagon, 2001), p. 31.

국내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들 또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위협가능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선제공격력 구비가 긴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주둔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가 실질적인 군사력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2003년 6월,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군사변혁계획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추구해온 군사혁신(RMA)의 개념을 소위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의 구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해외 미군병력의 감축 및 재배치와 지역 및 국가별 동맹우선순위의 조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발표함으로써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의 재조정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능력을 기초로 한 군사력 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것은 그 실행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06년도 GPR 발표 이후,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이 가지는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사변혁에 부흥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달성과, 지역안보 및 범세계적 테러방지를 위한 한·미 동맹의 유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라는 논쟁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전력으로써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기지통합과 증원체제의 정비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기인한 것이며, 2006년 초반부터 진행 중인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사업’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실질적인 진척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곧바로 대북 억제전력의 저하로 이어지는가?”라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주한 미 2사단의 부대 구조변화를 보더라도 병력규모 면에서는 축소가, 기능과 전력 면에서는 보강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대북 억제전력의 수준에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이다.⁶¹⁾ 이와 함께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미간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증강 투자를 이미 약속한 바 있다.⁶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 역할 자체보다는 한·미 연합전력의 구심점이 되어온 한·미 연합사령부의 변화 가능성이야 할 것이다.⁶³⁾ 주한 미군기지의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연합사령부의 해체와 같은 문제들이 한·미 군사현안으로 떠오른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또한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와 한·미의 2개 독자 사령부 구성이 검토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임으로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⁶⁴⁾

결국, 한국군 창군과정부터 자주국방기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미쳐온 영향과 작금의 한·미 연합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한·미 연합전력체계의 변화는 향후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61) “주한미군 2사단 미래형 사단 개편 … ‘몸집’ 줄였지만 전력은 그대로,” 『중앙일보』, 2005. 7. 7.

62) “盧정부 국책사업 비용분석 : 자주국방·수도이전,” 『조선일보』, 2004. 5. 24.

63) 한국정부(참여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선진·자주국방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핵심적 국방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주목할 점은 ‘미래지향(未來指向)적’이라는 부분이다. 즉, 한미동맹 및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략적 수준의 군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국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력구조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옥임,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p. 10 참조.

64) “美 ‘작전통제권 4년내 반환,’” 『조선일보』, 2006. 7. 19; “한국 독자능력 갖출 때까지 한미연합사 존속 바람직,” 『조선일보』, 2006. 7. 24.

2)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한·미 연합전력체계의 변화를 통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이를 통한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 가능성 등은 한국군의 군 구조 변화 가능성 및 군사력 건설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즉, 9·11테러 이후 새롭게 변모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를 둘러싼 안보환경 속에서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에는 그만한 안보여건 변화가 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의 국방개혁은 민주화와 함께 새로운 군의 역할정립이 모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끊임없는 화두로 등장하여 왔다.⁶⁵⁾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그 용어의 상이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국방분야에 대한 과거와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형성되었던 것이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이 이전의 개혁들과 달리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국방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혁신과제로써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⁶⁷⁾ 즉, 참여정부는 개혁과제의 실천에 있어서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군사력 건설 역시 이러한 국방정책의 정책적 우선순위 상향조정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65)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포괄적 개념에서의 ‘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군 ‘군사력 건설 변천사’의 일부(一部)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국방개혁 2020’을 일컬어 ‘참여정부의 군사력 건설정책’ 또는 ‘참여정부의 군사력 건설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66)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문화사, 2005), p. 322.

67) 김종하,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조직 발전방향: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 제8회 공군력 국제 학술회의 자료(2005. 9. 8), p. 122 참조.

3) 한국의 국방재원과 군사력 건설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원투자가 필수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정 국방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안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후 군사력 건설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국방재원 확보 여건 부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되어지는 모순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도발과 같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전력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⁸⁾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변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방향이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표명한 상태이며,⁶⁹⁾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 노력은 이미 LPP와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따른 군사력 소요 발생에 대하여 연구와 대비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림 4>의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2006년 7월 11일 발표)은, 향후 5년간의 방위력 개선내용과 재원소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방개혁 2020’의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중기계획이 연평균 9.9%라는 국방예산 증가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도 9.4% 정도의 예산증액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 역시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에서는 재원확보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⁷⁰⁾

68)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문화사, 2005), p. 329.

69) 2006년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첫 고위전략대화에서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韓美),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동아일보』, 2006. 2. 20.

<그림 4> 2006년도 국방부 중기계획 소요재원과 전력강화 방안



출처: “국방부 중기계획 5년간 151조 투입 방위력 증강,” 『국민일보』 2005. 7. 12.

3. 연구의 함의

1945년,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역사는 6·25전쟁을 통하여 한·미 안보동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한·미 안보동맹은 수차례에 걸친 안보위기 속에서 현재의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로 성숙하게 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동시에 안보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미간의 갈등은 오히려 국가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안보관계의

70) “국방부 중기계획 5년간 151조 투입 방위력 증강,” 『국민일보』, 2005. 7. 12.

미묘한 변화를 수반하는 독특한 형태의 갈등구조로 얽혀져 왔다.⁷¹⁾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된 한·미간의 안보갈등은 북한과의 전력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결정이 대부분 미국의 선언적 군사전략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주한미군 철군에 따른 안보불안은 한국에게는 국가의 위기로 인식되어졌다. 그때마다 한국의 국방정책은 정부정책 중 최우선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군사력 건설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군 현대화의 상승효과를 창출해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국방재원의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군사력 변화는 한국 국방정책의 정책적 우선순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한국의 정부재정 증가율 대 국방예산 증가율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차 주한미군 철군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의 한국의 정부재정 증가율 대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평균 1.5배로, 당시의 여타 정부정책들보다 국방부문이 차지하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의 5차 주한미군 철군 철회결정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이 예상되던 1990년대 정부재정 증가율 대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1.0 이하인 0.65를 기록하면서, 국방부문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²⁾

둘째, 주한미군 군사력 변화는 한국 국방재원의 배분정책 변화를 유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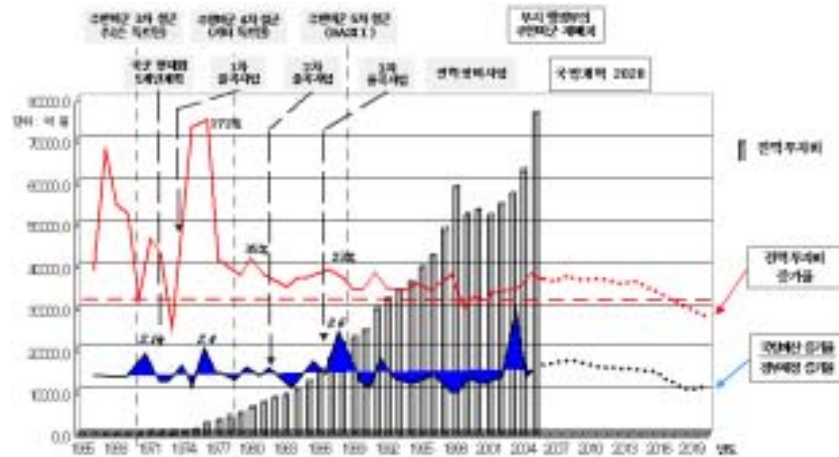
71) 문창국의 책, pp. 9-10 참조.

72) 예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정부재정 증가율 대 국방예산 증가율’ 비가 ‘3.6’으로 상승한 것은 당시의 국내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차 울곡사업(1987~1992) 기간 중,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최초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88안보대비 전력보강’ 및 ‘대북 방위전력의 조기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국방정책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냉전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국방정책은 전체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1994), pp. 40-41 참조.

켰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철군은 한국군 군사력 증강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국방예산 중 전력투자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사력이 급격히 감소했던 3차 주한미군 철군계획에 따른 감축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투자비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궁극적으로 철군철회로 귀결되었던 4차 주한미군의 철군과 5차 철군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중 전력투자비의 증가율은 평균 20~30%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전력과 한국군의 군사력 구성이다. 주한미군의 장비자산 스톡은 1975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던 반면, 한국군의 장비자산 스톡은 전력투자비 증가와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또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의 장비자산 스톡은 주한미군의 장비자산 스톡을 능가하였으며, 현재에는 한·미 연합장비자산 스톡 중 한국군의 장비자산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 이른다.⁷³⁾

<그림 5> 주한미군 철군시기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사업



73) 백재욱 외,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방향』(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47.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군사력의 대북 억제력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장비자산 스톡은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⁷⁴⁾ 즉,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하여 왔던 주한미군의 장비자산은 대북 억제력의 실체이며, 만약 주한미군 철군이 이 같은 대북 억제력의 실체와 연계된다면 이로 인한 안보불안과 군사력 건설 수요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⁵⁾ 즉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의 변화에 따른 군사력의 감축은 한국의 군사력 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함의를 감안할 때, 한국이 미래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한미군 주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주한미군 군사력의 성격과 역할이 향후 작전통제권의 이전과, 지휘체계의 협상 그리고 한국의 군사전략 기획과 군사력 건설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 2007. 2. 22,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주한미군, 군사력 건설, 한·미 연합사령부, 재배치

74) 장비스톡 추계를 이용한 비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력을 하나의 방법, 즉 '장비스톡'으로 단순히 비교한 것임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투력을 정확히 나타내는 '대리변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투력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로서의 장비스톡은 분명 유의미한 것이며, 말 그대로 전투력의 단순비교에 있어서는 단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백재욱 외,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방향』(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48 참조.

75)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군사력 건설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확보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의 모순적 현상은 지속되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이 안보의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 평단문화사, 2005), p. 329 참조.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 Forces Changes in
The ROK and The ROK's Military Building-Up
— Focussing on the Changes and Trends of the ROK's Defense Budget —

Lee, Pil-jung
Kim, Yong-hui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hereafter it will be called 'USFK') had begun in 1945, when the independence of Korea. At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had made to relief the Korean's survival and economy from the war. Through such assistance for the Korea could boost up its economy, and eventually became 10th ranking nation in the world at present.

However, there has been several conflicts on the military and foreign affairs between the US and the ROK, because of the four times' withdrawal of USFK. In fact, the ROK has achieved several military building-up measures like 'Yulgok Project' as self-defense measures. Technically both USFK's re-deployment of Bush's Administration and 'the Reform of Defense 2020' of the ROK can be understood with thos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r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how the changes of the US Forces have influenced to the ROK's military building-up not only through conceptional methods but also empirical ones, which a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preference of the ROK

Government and the changes of defense budgeting.

Key Words: The US Forces in Korea (USFK), Military Building-up,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e-deployment

러시아 平和維持活動에 대한 軍事史的 考察*

金 泰 雄**

1. 머 리 말
2. 평화유지활동의 태동
3. 러시아 주도 평화유지활동의 군사적 측면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간의 냉전은 이념적 갈등 및 대립과 함께, 미·소간의 치열한 핵무기 경쟁에 따른 핵전략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약 45년간

지속된 냉전의 패러다임도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에 밀려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국제관계에는 물론 국가간의 분쟁형태 및 그 본질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소간의 대립양상의 종결과 전통적인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제분쟁은 이제 명백하게 지역적 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한 개혁·개방노선이 추구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국제구조의 본질적 변화는 걸프전에 이르러 동·서간의 군사적 환경이 완전히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¹⁾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가능성이나 그 형태는 점차 감소된 반면, 오히려 국지적 규모의 분쟁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대체로 군사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지역분쟁들이 특정한 단일적 원인에 의해 발발되고 있다가보다는,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민족·종교적 분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고 보고 있다.

그러한 지역적 분쟁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국제안보나 지역안보에는 ‘신냉전 체제의 도래’라 할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냉전체제에서 나타났던 수준이나 형태와 달리, 또 다른 갈등 형태나 대립 요소들에 의해 야기되는 우려적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다양한 지역분쟁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과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이 국제기구나 국가간의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과거 냉전체제에서와 달리, 오늘날 국제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협력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사사적인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교수

1)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Harvard University, 2000, pp. 240-241.

2) 이기택, 『국제 정치사』, 1997, pp. 658-660.

고찰을 통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오늘의 러시아는 단일 국가로서의 기능보다는,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국제기구나 레짐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안보 및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비록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서 15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현대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은 분명히 러시아의 중요한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사사적인 실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현대 국제사회의 안정 및 평화체제 유지 발전이라는 측면과, 나아가 국제 정치사의 연구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평화유지활동의 태동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추진 배경

유엔 헌장 제6장에는 분쟁들이 지속될 경우 평화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반 수단들이 열거³⁾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분쟁 해결 원칙으로 국제평화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과 위협상황의 예방 및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 원칙은 이 분야에서의 유엔의 역할 문제를 논의한 1988년의 ‘마닐라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1989년 11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국제 평화유지 해결 방안에 관한 결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유엔 헌장 제6장에 명시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는 협상(Negotiation), 조사(Inquiry), 중재(Mediation), 화해(Concil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사법적 해결 등의 방법이 있다.

통상 내란으로 이행하는 분쟁과정에서 국제협약에 반하는 난폭한 사태로 인해 평화로운 시민들의 거주지나 도시들이 파괴됨으로써 반인간적인 수많은 중범죄가 야기되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까지 발발한 100여개 이상 되는 거대한 규모의 분쟁과정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 6백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1,700만 명의 난민과 2,0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만큼 그 피해가 막중한 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에 유엔의 평화적 역할이 합법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세계평화의 보존과 분쟁 요인의 제거를 위한 유엔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는 유엔 헌장 제6장의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와 회원국들 간에 필수 군사력 및 그 운용 수단의 안보리로의 위임에 관한 협약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꾸준히 준비되어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던 사실에 관한 출판이 이루어진 러시아연방 창설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6·25전쟁 당시 미-소간의 냉전적 사고는 상대 조치에 대한 협조적 자세보다는, 사실상 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⁴⁾ 당시 소련의 정책결정자들은 1950년에서 1953년 기간 중에 발생한 6·25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던 ‘말리크(Jacob Malik)’ 주유엔 소련 대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유엔군의 결성과 군사행동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군사행동은 본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련 공공군 중공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이 북한 측에 대해 군사 활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등 16개 유엔참전국의 한국

4)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2002, pp. 326-327.

지원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무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그 당시 소련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내 일부 극소수의 비판적 시각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6·25전쟁은 유엔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된 전쟁이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6·25전쟁은 평화유지작전의 영향을 받는 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6·25전쟁은 급기야 냉전 과정에서 동서간 갈등과 대립의 극치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결과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장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을 위시한 그 우방 국가들은 유엔의 현장을 교묘히 피하면서, 유엔군을 안보리의 주도하에 편성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의 감독이나 서구 강대국들이 대다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 총회의 감독 하에 편성하였다.”⁵⁾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유엔군의 배치 상황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유엔 총회에서 더 이상 다수 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작전과 평화를 위한 무력적 강제 활동도 유엔 사무부총장을 통한 유엔 결정에 따라 유엔의 안보리에서 비준된 유엔 연합군에 의해 분쟁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들 역시 필수불가결한 유엔군 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엔 사무처와 유엔 사무총장의 관할로 유엔군 병력의 지휘권이 이전되기에 이른 것이다.

5) 6·25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전문가 R. Mackever는 “한국전쟁은 당시 국제상황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았다. 일련의 유리한 상황 조성으로 유엔군의 깃발이 유엔의 통제 하에 군사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원정군 사령관실 앞에 게양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중요한 결정들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라고 지극히 왜곡되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소련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964년 7월 10일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에 대한 유엔의 효율성 강화 대책들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 각서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 및 군사 블록 미참가 국가들과 함께 유엔 구성군으로 편입하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1964말, 체코와 불가리아가 “유엔 안보리의 관할로 자신의 군대를 소속 전환시키겠다”는 합의를 안보리와 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작전의 시행방법에 관한 주요 원칙을 보완하는 제33차 실무 소위원회에서 긍정적 조치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조치들은 1973년 10월 중동전쟁의 새로운 발발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에 의한 중동 지역에서의 유엔군 창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군과 그 기관의 범주 및 성격, 유엔군 운용에 따른 존속 기간과 기간 연장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의결의 필요성, 지리적 배분의 합리적 원칙을 기초로 한 병력 수와 국가별 군대정원의 설정, 그리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안보리로의 작전지휘관 임명 제청 및 그 책임 부여와 같은 작전기구의 중요한 요소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되었다.

(2) 평화유지활동과 나토-러시아 관계

나토는 최근에 나토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법적 기초들은 유엔 헌장 제7장(지역적 협약)과 유엔의 본질적 원칙들에 대한 나토 동맹의 준수를 확인하는 ‘나토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장 제53조에서는 제반 지역 협약이나 강제 활동 기관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전권 위임 없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제반 지역적 협약이나 지역기구들에 의해 그 어떤 강제 행동도 시행되어질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유엔이 존속하는 한, 1945년

에 채택된 유엔 헌장에 기초하여 유엔의 우선적 특권이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 러시아의 정치·군사지도자들은 슬라브 민족국가로서 나토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고에서의 장기 살육전과 관련된 분규적 사태와 그러한 전쟁 과정에서 유고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유고 분규사태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나토군의 군사 활동은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무엇보다도 나토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원칙에 결코 충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등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측은 나토의 회원국들이 나토 기구 내에서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정치적 해결에 이르는 다양한 사태 해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던 점에 대해 “1992년 12월 월레회의에서 나타난 나토 군사 계획 위원회의 태도에 나토 내 모든 공식적인 책임자들이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⁶⁾ 이러한 입장은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Douglas Herd)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⁷⁾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반대 입장은 결과적으로 나토의 행동에 대해 일부 변화를 유도하였다. 나토는 1992년 7월부터 지중해에 상주하는 연합해군 예하의 전함들에 의해 세르비아 및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무역 봉쇄와 구 유고연방 공화국들에 대한 무기공급 봉쇄를 위한 아드리아해(Adrian Sea)

6)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Jan. 4. 1993.

7) David D. Caron,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v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7, No. 4, 1993, p. 448. 허드는 나토가 유고사태에서 보여주었던 유엔과의 협조 부족 현상을 우려하면서, “나토란, 국제 경찰의 성격을 갖지만, 물론 싸우고 있는 부대를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외국 땅에 자신의 軍旗를 휘날리기 위해 투입하는 십자군도 아니다. 나토 참가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서구적 가치를 강요한다거나 다른 국가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그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나토는 유엔은 물론이요, 유럽안보협력 회의 또는 유럽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유엔의 특별한 권위에 필적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에서의 평화유지작전들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유고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협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영공 상에서의 비행금지조치도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그로 인한 나토의 변화는 유고지역에서의 평화유지작전의 시행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토는 서구 유럽과 이격되어 있는 유고지역에서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사전 확보되지 못한 작전지역상의 특징으로 인해 사실상 작전 시행 초기부터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있는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공중폭격을 가하는 것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1994년 시라예보에서의 폭발사고가 유고의 상황을 매우 긴박하게 몰고 갔는데, 당시 사고로 민간인 68명이 사망하고 약 2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나토는 이미 1993년 8월 단계적인 장거리 공중포격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있었다. 이 무렵 ‘맨프레드 버너(Manfred Berner)’ 나토 사무총장도, 1993년 7월부터 유엔 안보리 결정 836호에 의거 나토 공군을 운용할 준비를 완료했고, 유엔 총회는 1993년 8월 12일 나토 군사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에서의 공중 폭격에 따른 작전적 방안들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음을 발표했다.

그는 “1993년 6월 4일 유엔 안보리 제3,228차 회의에서 의결된 유엔 안보리 결정 제836호에는 ‘사라예보’ 지역에 대한 나토의 구체적인 공습계획 시행에 관한 그 어떤 전권위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사라예보 주변 지역에 대한 나토 공군의 폭격은 유엔 안보리의 특별한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나토는 나토의 이름으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에게 1993년 8월 21일 밤 1시부터 10일 내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화기를 ‘세르비아’ 시 20km 외곽으로 철수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게 되었다.

나토 측의 최후통첩은 세르비아가 나토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공중 포격

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나토의 위협은 보스니아에서 공동체간의 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간섭의 실질적 가능성을 야기시켰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⁸⁾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파리·뉴욕에서의 협의 후에 나토의 사실상 대표이자, 영국군 장군이었던 ‘마이클 로즈(Michael Rose)’ 보스니아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성명은 보스니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그의 성명에는 세르비아측에 공중폭격을 가하는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으며, 동시에 “나토의 공군력이 내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술적 차원에서 나토와 본인은 일심동체이다”라는 그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나토 및 미국의 공식적 인사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인용하여 “본인은 공군 지원 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중 폭격에 대해서는 나토 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은 유엔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행을 원활하게 촉진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 ‘갈리(B. Galli)’ 사무총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아므르 무아마드 무사(Amr Muhamad Musa)’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러시아 정책 집행자들도 이 같은 나토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자신들의 ‘결정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나토의 조치에 대해 유고와 같은 슬라브 민족국가로서 고려할 수도 있었던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분쟁 확대를 피하였던 러시아의 조치를 매우 이성적인 대외정책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었다.⁹⁾

8) Sirenko V.F.,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of Russian Federation: The Question and Method Krasnaya Zvezda of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1993. 2. 24.

9)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Nov. 24. 1993. 그 당시 러시아의 국내적 상황은 구소련 붕괴 직후 야기된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

평화유지군에 소속되어 있던 러시아 공수 대대의 ‘사라예보’ 부근의 ‘그라비짜’ 지역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참가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작전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세르비아인들과 회교인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4년 2월 22일 ‘사라예보’ 부근으로부터 포병부대를 피해 없이 철수시키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한데 이어, 나토의 결단에 의해 유고에서 수행한 평화유지작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후, 나토는 ‘클린턴’ 미 대통령과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공중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써 러시아 국내에서의 나토와 미국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 의식이 냉전시대 이후 전례 없이 증대되었다.¹⁰⁾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타 분쟁과 마찬가지로 유고의 위기도 유엔헌장에 의해 강화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기초로 했을 때만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나토는 이른바 ‘나토의 신 군사전략’을 수립 완료한 상태이며,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이익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¹¹⁾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 각 지역기구들에 의해 무력 분쟁을 조정하는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는데, 예컨대 분쟁해결을 위한 특수중재위원회의 활동이 그 대

적 불안정 증대로 러시아는 유고사태에 대해 개입할만한 실질적인 여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10) 당시 러시아 국영방송은 물론, 국내 일간지였던 *Commerçant*, *Nezavisimaya Gazeta*, *Segodnya*, *Moscow Tribune* 등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이러한 서방 자세에 대해 비난과 성토를 실시하였다.

11) Frederic L. Kirgis, Jr., “The Security Council’s First Yea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No. 3(July 1995), p. 519.

표적인 實例가 되고 있다.¹²⁾

특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동·서(서구 및 공산지역)간의 관계 조정과 전 유럽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0년대 초에 등장한 포럼형태의 '유럽안보협력회의(이하 '유럽회의'로 약함)'가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 것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1992~94년간에 유럽회의는 팔복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고 사태, '몰다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는 '프리드네스트로브예' 사태, 그루지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등을 중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었다. 그 결과, 1992년 3월 15일 개최된 '나토 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적 절차를 규정한 '나토-독립국가연합(CIS) 공동계획'이 승인되었고, 유럽회의의 최종 임무도 기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구소련 영토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 확보'라는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 분명히 반영된 가운데, 러시아는 유엔 헌장 제6장에 명시된 이념과 '나토-독립국가연합 공동계획'이라는 공동 합의에 의해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2월 25일 로마에서 유럽안보협력 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야기된 그해 3월의 아르메니아군의 공격은 이러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유산시켜 버리는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유럽회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이를 보강하기 위한 특수 평화유지군 설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유럽 안보협력회의-나토-유럽 공동체-독립국가연합(CIS)'간을 연계하는 협력구조 설치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¹³⁾

3. 러시아 주도 평화유지활동의 군사적 측면

(1) 분쟁과 비상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교리

지역적 전쟁과 군사적 분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전쟁이나 분쟁을 예방 및 방지하고 국지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94년 무렵, 지구상에는 70여개 이상 지역이 군사적 긴장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25개 국가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24개 국가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었다. 앙골라, 소말리,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지역,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및 아이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이 그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 지역내의 '타지키스탄',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브카지아' 등에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연합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내의 '북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진행된 바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작전이 그 효율성 면에서 아직은 저조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데,¹⁴⁾ 그 이유를 첫째, 각 국가별로 상이한 능력과 환경 때문에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접근 방법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무력을 제외한 다른 수단이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무력 수단마저 결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

12)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8, p. 332.

13) 이를 위해 1998년 6월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5개국에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를 창설할 목적으로 '타슈켄트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및 불법 마약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협력

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14)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6, pp. 334-335.

고, 우유부단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실무 담당자들이 내린 평가로서, 구 유고연방 지역 주둔 연합군사령관이었던 ‘잔 콥’ 장군(프랑스)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결국 그러한 접근은 ‘합의위원회’나 ‘불간섭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찰단의 파견 조치 등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과거 국제연맹의 경험¹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국제연맹의 소심한 업무 처리 방식은 침략자들을 오히려 고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의할 만한 사실은,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군사활동 수행과정에서 최신 자동소총과 포병, 유도화력체제, 장갑 장비, 다양한 기술 탄약 및 설비 등이 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쟁 지역에서 공군력, 즉 전투 헬기와 항공기 등도 보다 자주 출현하였는데, 예컨대 ‘프리드네스트로브예’ 지역 평화유지활동간 몰다비아 측은 일찍이 러시아에 의해 제공된 바 있었던 최신에 전투기 MIG-29기를 폭격에 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연방 지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리만큼 치열한 고강도의 무력분쟁 사태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최신에 군사장비가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이 특정지역에서의 비상사태 조치들과 관련되어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비상사태 조치란, 사회적·민족적 분쟁 해소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요구하는 배타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역이나 각개 개별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통치형태¹⁶⁾로 나

타나고 있다.

실제로 1988년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 구소련 영토상에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사태 조치가 26회 가량 실시된 바 있었다.¹⁷⁾ 러시아에서는 비상사태하의 법적인 체제유지의 임무를 내무부 예하의 연대 및 사단급 작전부대에 부여하고 있는 데, 이들 부대들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 북코카서스 지역에 편제병력의 83%, 편제전투장비의 90%, 그리고 편제수송장비의 83%를 투입했다. 그들은 전장 공포증·대중적 소요 및 반항 차단을 비롯하여 비상조치 하의 통행금지조치 등 각종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¹⁸⁾

러시아는 냉전시절에는 평화유지군 운용 문제에 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오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 국가 창설 초기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같은 사활적 국가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영토 내나 구소련 영토에 대해서는 소위 무력적 개입 성격을 갖는 내무군(내무부 예하 작전부대)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파견과 운용이 경제·사회적 능력상의 부족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핵심적 이익지역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운용할 때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있다.¹⁹⁾

첫째, ‘합법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합법성의 원칙’이란, 평화유지군 구성요원들이 비상상황에서 법적 기준과 합법적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5)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Harvard University, 2000, pp. 132-143.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는 1931년 9월에 발생한 만주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이 운영한 ‘리튼 조사 위원회’를 들 수 있음.

16)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Military Encyclopedia*, 1987, p. 811.

17) Dulimov E. I., *State Governing and Local Self-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1995, p. 58. 그 경우는 아제르바이잔·키르기지아·타지키스탄 등에서 각 4회(총 12회), 아르메니아·그루지아·몰다비아·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각 3회(총 12회),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각 1회(총 2회)씩이었다.

18) Ibid., pp. 58-62.

19) Osipov V. I., *Problems between Power and Governing of State in Regional Aspect*, Saratov, 1997, pp. 124-136.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방지 및 예방적 활동 실시의 원칙’이다. 이는 분쟁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분쟁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준비에 대한 치밀성의 원칙’이다. 어떠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여부는 평화유지작전의 철저한 준비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명확한 협조의 원칙’이다. 평화유지작전간 협조의 명확성이란 지방 행정부나 법 수호기관 및 내무군(내무부 예하 작전부대)들과의 협조를 의미한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기초로 분쟁 상황을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했는데, 분쟁 발생을 위한 정치적·사회-경제적·군사적·심리적 전제 조건들이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쟁 야기 단계, 위협 기간 중 지역 내에서의 긴장 침례화 단계, 분쟁 활동의 초기 단계, 군사적 충돌 형태를 갖는 분쟁 발전의 위험 단계, 그리고 분쟁 상황의 국지전으로의 확전 허용 단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²⁰⁾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군사독트린에 대한 개정에 주목하고, 2003년 10월 새로이 제정된 신 군사독트린을 공포하여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하는 기능을 러시아에 부여함과 동시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²¹⁾의 국경,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의 중요 일상 이익을 위협하는 무력분쟁을 차단하는 기능도 러시아군에게 부여한다²²⁾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 Zotova Z. M., *The Optimization of Mutual Relation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Moscow, 1998, pp. 68-86.

21)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서, 동 조약에 최초에는 구루지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몰다비아가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최근 들어 옵서버 참여 방식으로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22)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New Military Doctrine of Russian*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내적 군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 러시아군이 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신 군사독트린에서는 이러한 국내적 군사 위협근원을, 국내 상황의 불안정을 획책하는 민족주의자와 고립주의자 및 기타 단체의 위법적 활동, 헌법 제도의 강제적인 타도와 국가권력 기관 및 통치기관의 기능파괴 시도, 핵 에너지와 생·화학 공장 시설물에 대한 공격 및 불법적 무장단체 창설, 범죄 기구의 성장 및 병기고에 대한 공격 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²³⁾

(2) 러시아 평화유지작전에서의 군의 역할

러시아에 있어서는 분쟁이 무력적 적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책임이 군부대에 부여되어 있다. 특히, 거대한 폭도 단체들의 투쟁에 대한 군부대의 활동은 특징적이라 할 만큼 군부대 구성요원들의 특별한 전투준비와 부대 전술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타지키스탄’ 및 ‘아브카지아’, 그리고 ‘프레드네스트로브예’ 지역에서 의 러시아 평화유지군 부대와 법 수호기관의 운용경험 분석에 나타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부대 군사활동은 매우 특징적²⁴⁾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내무군 작전부대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단의 책임지역은 무려 3,925km²에 달했다. 그 책임지역 내에는 약 126개 경계시설(이중 78개가 통신시설에 해당)이 위치해 있었고, 약 14만 5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위수지역 내에는 약 7만 5천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위치해 있었고,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의

Federation, Moscow, 2003, pp. 25-36.

23) Ibid., 2003, p. 28.

24) Zukov V. A., *The Power and State Governing of Recent Russian Federation*, Moscow, 1998, pp. 232-234.

인구를 가진 3개의 중·소 도시와 69개의 마을이 산재해 있었으며, 606km에 달하는 자동차로와 171km에 달하는 철로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작전 책임지역 내에는 40~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10여개 폭도 집단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무력적 대립형태로 발전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책임을 평화유지군에 부여했는 데, 평화유지군의 폭도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평화유지군 부대는 분쟁지역으로의 성공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부대 지휘관의 입장에서 작전상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 및 분석하고 비상사태 하의 법 체제 강구에 따른 필수 대책들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지방 행정부와 법 수호기관 및 내무군 예하 임시 작전부대들과의 긴밀한 관계 수립·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시에는 헬기에 의한 지형순찰과 주민 거주지역 및 도로상의 이동 통제를 위해 특수수색정찰팀이 즉각 편성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폭도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도들의 활동성격과 보유 장비 및 훈련정도에 따라 특수작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적 방법 중 하나인 수색은 포로들의 활동지역이 개략적으로만 나타날 뿐, 정확한 기지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무장 폭력단체 섬멸계획 수립 시에는 우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 무장 폭력집단의 최우선적인 선정, 전투진지 구축, 정찰수색 활동수단·화력타격수단·공중습격(공중 기동)수단의 결정, 공수습격부대 및 차단부대의 결정, 화집점 설치수단·매복부대 및 엄호부대의 결정, 그리고 지휘통제 및 상호 협조체제와 전투근무지원 체제 준비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25)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The Military Doctrine*, 2003, pp. 34-3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평화유지작전의 군사적인 특징들은 러시아연방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복잡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 전략은 결국 상황의 안정과 무기 사용의 제한에 중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데, 요컨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분쟁 잠재지역과 긴장 근원지역에 대한 부단한 분석·예측과 위협정도에 따른 분쟁의 열거 및 분류, 지휘기관에 상응한 국제·지역·국내 평화유지군의 편성,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의 권리와 의무의 엄격한 규정 및 법적 근거의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²⁶⁾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1) 1990년대 중반까지의 러시아 평화유지활동 기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결정하는 일은 막대한 군사적 노력 투자가 요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과도한 재정적 투자를 강요하는 사안이 되어 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재정적·물질적 수단을 할당해 주고 있는 유엔의 주도하에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통상 수행하고 있음에 반해,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과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정치지도부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이익 분

26)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6, p. 348.

야를 러시아의 최근거리지역에 위치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게 두고 있는 데, 이는 러시아의 안정과 발전이 이 지역의 안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정책결정자들의 전통적인 전략적 사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러시아는 국가안정과 안보유지에 따른 핵심적 국가이익을 방호하기 위한 최적의 명분으로서, 헌법과 국방법, 그리고 군사독트린상의 주요 전문 및 기타 기본문서상에 “다양한 평화단체나 집단안보기구의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특수 평화유지군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시행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을 러시아의 주요 국가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활동과 평화유지작전 시행에 따른 제반 활동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법적인 지위마저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말하자면, 러시아 대통령의 훈령과 국방장관의 지시만을 근거로 정규 군대에 소속된 부대들이 러시아와 인접한 많은 국내외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병력 수는 만 6천명 이상 규모로서 사실상 매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규군 요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소지를 늘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의 단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편성 및 보충과 운용에 관한 합법적 기반을 갖추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가 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 대가로서 유엔에 대해 재정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은 “러시아가 평화유지작전을 평화단체의 성실한 임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외부의 일체 간섭 없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지역

에서 활동을 적극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적 입장에서는 평화유지작전에 참가하는 부대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러시아 정부의 별도 책정 예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의 자체 예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러시아 국방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군다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내 국가들이 ‘타슈켄트 의정서’에 따라 상호 합의된 금액을 각출하여 역내 평화유지작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활동 수행 입장에 따른 권리만 주장할 뿐 경제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이미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간에 합의한 의무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러시아군의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러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태들은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러한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의 집단 평화유지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위해 기존의 재래식 정규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운용의 효율성 강구 측면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사전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활동 상황과 임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의 총 병력 규모는 지상군 2개 사단(1만 5천명~1만 6천명)으로서, 러시아군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작전 임무를 수행하는데 비교적 충분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협약’에 명시된 규모의 병력을 파견토록 요구하고 있는 ‘유럽 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1994년 러시아내 ‘토즈코예’ 지역에서 미-러 연합 참모훈련(러시아 제27

보병사단과 미 제3보병사단에서 각각 250명의 병력이 참가) 형태로 실시되었던 ‘평화유지군-94’는 각급 평화유지군 부대에서 이루어져야 할 치밀한 전투 준비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 훈련에 참가했던 러시아 전 장병들은 평화유지작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 훈련에 이어 미국에서 교대로 실시된 같은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러시아 평화유지군 부대 요원들은 戰役(Theater) 次元의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²⁷⁾

그러나 독립국가연합(CIS) 및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작전은 초기에는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1993년 10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간에 평화유지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협약 조인국들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지아·타지키스탄 등지의 모든 평화유지군 병력을 총 2만 5천명 규모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약의 체결은 여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동 협약으로의 참여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동 협약 체결로 인해 당시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타지키스탄 지역에 러시아연방군 예하 증강된 1개 사단(제201보병사단)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앞서 설명된 협약 이외에도, 북 코카사스 지역에 위치한 중요 통신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그루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의 국가들과 또 다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의 잉구세티아 및 북 오세티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만 6천 5백 명을 주둔시킨 바 있었던 데, 러시아군 단독으로 1994년 4월 타지키스탄과 그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 국방장관 주도하에 특수 평화유지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7) 당시 러시아연방은 미국 이외에 평화유지활동에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영국 등과도 평화유지군 훈련교류협약을 맺는 것을 바랐지만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러시아 내의 다양한 무력기관 예하 부대들이 쌓아온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별로 충분치 못한 경험은 합법적인 기반을 구비한 평화유지활동의 시행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 하원(두마)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합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²⁸⁾

그동안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던 구소련 영토 및 러시아 내 지방정부 및 행정 관구에서 분쟁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병력 및 장비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비상조치가 발현된 바 있었는데, 예컨대 1988년 2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지역에서 위수령, 동년 3월 ‘아담스크’ 구역에서의 특별 비상조치, 1988년 2월 아르메니아의 수도 ‘에레반’에서 특별 비상조치, 1989년 8월 ‘아브카지아’ 지역에서 시민 통행금지에 따른 특별 조치, 그리고 1992년 1월 북 코카사스 지역에서 비상사태 조치 등을 들 수 있겠다.²⁹⁾

그런데, 이러한 비상사태에 관한 조치법은 러시아가 출범(1991년 12월)하기 직전인 1991년 5월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Republic of Socialistic Federation of Soviet Russia; RSFSR)’ 시절에 제정되었다가, 러시아연방이 창설된 직후인 1992년 10월 ‘블라디카프카즈’ 지역 및 ‘프리고로드니이’ 지역에서의 상황 악화로 인해 ‘북 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 지역에서 비로소 공포 및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임무수행도 바로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가운데, 그 당시 이들 지역에서의 민족·종교·영토적 분쟁 발발 가능성은 높은 위험 수준에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지에서

28) 이것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창조 작전과 기타 형태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러시아연방 군인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다.

29) Aberianov V.M.,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State Governing of Russian Federation*, Moscow, 1996, p. 248.

평화유지작전 참가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해 많은 관심이 경주된 가운데, 실제적인 평화유지활동을 고려하여 평화유지작전 시행에 관한 특별 법규들이 제정됨으로써 러시아에서도 그에 상응한 법규 제정 및 비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어떤 측면에서 러시아의 내정에 관한 일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관계에서 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대외적 업무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이 어떠한 전투행동 형태를 띠게 되느냐에 따라 법 수호기관과는 별개로 러시아군 부대들을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절히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북 오세티아 및 잉구셰티아 지역에서의 비상사태’에 관한 러시아대통령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공수 특전부대의 투입과 함께 보병부대가 투입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결국,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영토적 통일성 유지와 국가 주권 수호 및 법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투입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곧 비상사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부대의 투입이 분쟁상황 발전에 따른 전투행동을 야기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3) 집단 평화유지군 운영 관련 독립국가연합 국가간의 관계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현존 및 잠재적인 분쟁지역에서는 군사력을 운용하지 않고 이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데, 바로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창설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 조약’과 ‘타슈켄트 의정서’를 포함한 협약들을 기초로, 앞서 제시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 무력 요소로서 독립국가연합의 집단 평화유지군 운용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이들 평화유지군의 구성 문제와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문제, 운용 방법, 그리고 법

적 기반 등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³⁰⁾으로써, 평화유지군 부대를 구성 및 운용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병대대를 평화유지작전에 가장 적합한 군부대 편성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편성과 지휘참모 구조면에서 제반 당면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정규군 부대의 편제 구조와 구별되는 보병대대는 기동력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참모요원에 대한 보강 조치와 함께 정찰 및 통신 수단과 공병 및 전투근무지원 수단, 그리고 의무지원 수단의 보강이 필요한 입장이다. 한편, 부대 보충면에서 현재 독립국가연합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집단 평화유지군에게는 주요 전투 직위 및 중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계약제 복무 요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기타 잔여인원들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충하는 혼합식 보충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군에서는 양질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및 병사 요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이렇게 선발된 요원들은 신체가 건강하면서도 건강해야 하며 병적인 징후가 없이 분쟁 지역의 기상 조건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기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쉽게 흥분하여 다룰 수 있는 기질의 소유자들이 평화유지군 부대에 편성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화유지군 부대의 편성이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부대편성을 통해 부대원들의 자질과 전투능력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편성

30) The Academy of General Staffs of Russian Federation, *Text Book about Peace-Keeping Operation of Russian Armed Forces*, Moscow, 1996, pp. 24-36.

31)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The Military Thought of May 1996*, p. 48.

된 집단 평화유지군의 상시운용은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임무를 더욱 작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군 내에는 최단 기간 내에 준비하여 즉각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약 10개 사단(상시 전투준비태세 완비 부대)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있어서 평화유지군 부대 편제요원들의 특수 전투준비태세 완비 문제는 아직까지 미결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러시아만이 평화유지군 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완비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는 평화유지군 요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두 개의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 군사 관찰단을 교육하는 ‘쉴레프노고르스크’ 소재의 ‘비스트렐’과 평화유지군 요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를 배비시켜주는 ‘볼가 군관구 예하의 교육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현재 이 두개의 교육센터에 의해 독립국가연합 내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소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평화유지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한 지역별 교육센터의 창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독립국가연합내 모든 국가들도 역내 평화 및 안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역내 안정 및 평화 강구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과 협력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와 유엔의 상호관계

대체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분규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바램으로, 총기 한번 사용함이 없이 ‘중립성을 갖는 군부대의 투입 및 상주’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평화유지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나 평화유지작전 과정상의 다양한 주체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태에 관한 설명과 평가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1994년 4월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평화유지군 부대 요원들은 스스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및 부대 방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 역설 상황(Moral Paradox Situation)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연방은 국제무대에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러시아의 대외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첨예한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토와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의 평화유지작전이 국제법과 유엔의 원칙에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무부(국내소요 해결을 위한 내무군의 투입 통제)와 국방부간의 협약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러시아의 권리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서구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토가 구소련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토의 동진’이라는 공세전략에 의해 독립국가연합 지역내 분쟁지역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예컨대, 이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리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1996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평화정착 방법 모색에 대한 실패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 사태에 관련이 있는 타 중립국 평화유지군을 이 지역에 운용하고,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은 더 원거리에 위치한 외국 분쟁지역에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 자체를 러시아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특히 이러한 제안에 지지를 보낸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 하원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놓고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었는데, 이 청문

회를 통해 러시아평화유지군의 권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권위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에게 유엔군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되었다.³²⁾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1996년 10월 개최된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독립국가연합 집단 안보조약’을 근거로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집단 평화유지군을 결성 완료한데 이어, 유엔 안보 이사회의 의결과 유엔 헌장에 기초하여 기 편성된 독립국가연합 집단 평화유지군이 이 지역의 합법적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는데도 성공하였다.

한편 이러한 러시아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대외 정치적 측면으로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집단 평화유지군의 일원 또는 단독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용되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신속 전개군 편성 및 배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그러한 작전 여건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공수 특전사단들을 새로이 창설된 신속 전개군의 기본 편제부대로 편성 및 운용 조치함으로써, 러시아 영토로부터 현저히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지·전략적 작전(Geo-Strategic Operation)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배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러한 신속전개군은 러시아 내에서 심각한 분규지역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체첸 지역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 지역에 일찍이 배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CFE)’에 의해 이들 지역에서의 러시아 병력배치에 대해 사실상 그동안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³³⁾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 안보협력 회의’에 대해 국경지역에서의 전력배치 제한 조치, 특히 러시아 남부 국경지역 내 평화

유지군의 우선적인 배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이 요구는 아직 서유럽 국가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 예하 북 코카서스 군관구는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남부 국경지역에 대한 작전책임을 부여받아 왔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동 군관구가 맡고 있는 지역이 군사·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러시아 고유의 국가이익 방호 차원을 떠나, 역내 상황안정 차원에서 추가적인 전력배치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정부 내의 7개 무력기관들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군과 그 대표단들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평화유지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어, 무기사용과 함께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측간에 야기되는 ‘인의 障壁’에 종종 직면하게 되면서, 최근까지 약 100여명 이상의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이 그 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³⁴⁾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는 국가창설 초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약 20억 루블, 1993년에 260억 루블 이상, 그리고 1994년도에 ‘아브카지아’ 지역에만 무려 110억 루블을 지출하는 등 평화유지활동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왔다.³⁵⁾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이와 같은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는 점에 대해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과 유럽 안보협력 회의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유엔 주도하에 러시아가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지는 못할

32) *Nezavisimaya Gazeta*, Moscow, 1996. 6. 18.

33) 구소련 시절에는 북 코카서스 군관구 및 레닌그라드 군관구 지역에 약 6,400여대의 전차와 11,800여대의 장갑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 지역에 전차 700대, 장갑차량 80대 이상의 전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

34)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2004. 8. 25.

35) Pozarov A. I., “Economic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Thought* (No. 3), Moscow, 1998, p. 48.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이 창설된 직후인 1992년도의 루블화의 환율은 5루블/달러, 1993년도는 10루블/달러, 그리고 1994년도에는 15루블/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망정, 오히려 냉전적 타성과 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어 러시아를 비난하기에 급급하며, 특히 코카서스 지역과 타지키스탄에서의 러시아의 분쟁 중재 노력을 러시아가 마치 인접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³⁶⁾

사실상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수행해온 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지대한 인적·물적 지출현상이 초래된 가운데, 그 정책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실패를 겪어 왔다. 러시아가 이러한 실패를 겪게 된 주요 원인으로 우리는 분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치 못한 예측과 그 결과 지역 상황 악화에 대한 러시아 정부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 지연 및 미비를 들 수 있겠는데,³⁷⁾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 제반 분규사태가 제대로 통제되지도 못하고, 부대임무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는 러시아가 그동안 수행해온 평화유지활동 경험에 관한 제반 자료 분석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의 국가별·권역별 분쟁 예방 및 안보센터의 창설·운행을 주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할 있는 데, 우리는 이러한 ‘분쟁상황 상시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언제든지 다양한 규모의 분쟁상황으로 충분히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시행하고 있는 평화유지작전은 국제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기실은 구소련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 확보를 통해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확고하게 방호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³⁸⁾는 점을 깨닫게 된다.

5. 맺 음 말

대체로 평화의 개념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Peace-Keeping)과 평화를 창출하는 것(Peace-Making), 평화를 성장시키는 것(Peace-Growing),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Peace-Building)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³⁹⁾할 수 있는 데, 흔히 평화유지군에 의해 수행되는 평화유지나 평화창출은 분쟁 장소에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군을 투입하여 평화적 방법을 통해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개념에 따라 다양한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안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러시아가 그동안 시행해 온 평화유지활동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훈은 역대 긴장과 갈등의 최대 근원지로 평가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및 평화 구축 대책을 강구해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매우 크다 하겠는데, 결론에 대신하여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러시아가 대내외적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시행간 정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 군사독트린 내에 주요 전문에 반영하여 단호하고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성격에 대한 규명과 함께, 평화유지군 부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운용 개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러시아연방은 그동안 많은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거양해 왔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여 왔다는 점을 군사사적 함의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는 곧 평화유지할

36)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Military Policy Report concerning Actual Tasks of Russian Armed Forces to be solved*, Moscow, 2003, p. 78.

37) Ibid., p. 78.

38)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비유하여,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작

전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내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스스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표현한다.

39) 윤치영, 『유엔 정치론』, 법문사, 1998, p. 40.

동 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괄적인 교훈 도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을 정당하게 시행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부대의 법적 지위 마련과 함께, 집단 평화유지군 창설·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셋째, 이른바 ‘분쟁 예방 및 안정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잠재적으로 분규 발발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설된 ‘분쟁 예방 및 안정 센터’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공동 참여를 통한 ‘아태지역 분쟁 예방 센터’를 창설하여 역내 분쟁예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임무로서, 분쟁 상황에 대한 장·단기적 예측, 분규 발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사회·인종·영토적·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적시적 분석 및 규명과의 예방대책 강구, 분쟁과정으로 이행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정 및 수립, 분쟁과 관련된 여론 분석, 그리고 평화유지활동 시행결과 분석 및 추론 등을 들 수 있겠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준비된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대 규모의 사회적 무질서 상황이 발생하여 정규 군대의 투입이 일단 결정되어지게 되면, 분규지역에서의 정규부대의 각개 장병들의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타 국가들의 국제적 경험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문제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전개하는 평화유지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여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한편, 국가들이나 국제

기구가 서로 공동으로 협력하여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 행동을 제거 또는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의 상호 불법적인 분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 분리작업 수행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부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규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조화시키고 협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고투고일 : 2007. 2. 28,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독립국가연합(CIS), 평화유지활동, RSFSR, 평화구축, 분쟁예방 및 예측센터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leaded by Russia

Kim, Tae-wong

Generally, we could subdivided the conception of peace into 4 sets;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growing, and Peace-building. According to this concept Peace-Making and Keeping mission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require such a measure that two sides (countries) come to an agreement through the peaceful method by the engagement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In this point of view, we could draw following inferences fro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in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for mo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Peace Keeping Activity.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with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in the consideration of Russian situation that in the new military doctrine in October 2003,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reflecte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of the Regular Armed Forces in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in the territories of CIS including Russian Federation.

Second, we have to prepare the legal statu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Forces for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Activities and establish principles of organization of Collective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Forces in the consideration of experience of failure in the Peace Keeping Activities

of Russian Fed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employ the 'Regional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and Pre-estimation of Conflict'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situation in the consideration of Russian experiences.

Fourth, it i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the employment of regular armed forces as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And Last, we have to construct the basis for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many problems during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hrough the study about the other countries' experiences.

Key Words: CIS,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RSFSR, Peace-building,
The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and Pre-estimation of Conflict